

博 士 學 位 論 文

高句麗 瓦當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考古學專攻

王 飛 峰

2013年 6月

崔鍾澤教授指導
博士學位論文

高句麗 瓦當 研究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3年 6月

高麗大學校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考古學專攻

王 飛 峰

王飛峰의 考古學 博士學位論文
審査를 完了함

2013年 6月

委員長	최종택	(印)
委員	이홍종	(印)
委員	박순발	(印)
委員	정인성	(印)
委員	이희진	(印)

【국문초록】

와당은 고대 사회의 중요한 건축 재료 중 하나로, 일정한 장식적 용도도 갖는다. 고구려는 705년이라는 긴 역사를 지닌 국가였기 때문에 와당을 비롯한 많은 유물이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고구려 와당의 체계적인 수집을 바탕으로 고구려 와당의 연구사, 지역 분포, 제작 기법, 형식 분류, 편년 등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고구려 와당의 연구사는 시대적 특징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1870년대~1945년으로, 이 시기에는 고구려 와당의 발견자는 대부분 일본 학자였고 연구자도 주로 일본학자였다. 고구려 와당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구나 전문서가 없었고 자료수집이나 개괄적 정리만 시행되었던 시기다. 제2단계는 1946년부터 1979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일본의 고구려 와당 연구자가 여전히 다수를 점하는 속에서 중국, 북한과 남한학계에서도 고구려 와당에 대한 연구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제3단계는 1980년 이후 현재까지로, 새로운 고구려 와당에 관한 자료들이 발표되고 도록이 출판되는 등 고구려 와당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구려 와당의 제작 방법 연구로는 瓦當模, 瓦當範, 와당의 제작, 연결방법, 고구려 와당의 靑靱技術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일부 와당의 막새부에 남은 나이테 등의 흔적에 근거해 고구려지역에 나무로 만든 瓦當範이 있었고, 대량의 同範瓦當을 사용했음을 확인하였다. 靑靱技術은 고구려 와당의 중요한 제작기법이고, 北魏의 영향을 받아 광개토왕대에 등장하였다. 이 기술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4~13세기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고구려 와당의 변천과정은 편년을 바탕으로 크게 4기로 설정할 수 있었다. I기는 ‘太寧四年’(326년) 경부터 고국양왕대(384~391년)까지이고 천추총(고국양왕의 왕릉)에서 출토된 일부 권운문와당의 연대 하한은 393년(광개토왕3년)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는 고구려 最古의 와당인 권운문와당이 국내성지역에 등장하였고 명문 권운문와당에서 무명문 권운문와당으로 변천하는 특징을 보이다가 고국양왕대나 광개토왕 3년 이후에 사라졌다. II기는 407년경부터 427년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고구려 연화문와당 등이 등장하였고 천추총에서 발견된 ‘永樂’명 수키와의 명문 내용(‘…樂浪趙將軍…’, ‘…丁未在永樂…’)등의 검토를 통해 광개토왕 17년(407년)경에 천추총을 수습했는데, 천추총의 ‘永樂’명 수키와와 연화문와당은 천추총을 수습할 때 사용한 기와로 추정된다. 환도산성 궁전유적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 문헌기록 (『三國史記·권18·廣開土王本紀』:‘十七年(407년) 春二月, 增脩宮闕.’)등을 통해, 최근 발굴 조사된 궁전유적은 광개토왕 17년(407년)에 土臺를 다시 선택하고 건립한 궁전유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평양 천도 이후에 점차 폐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대자유적은 고국양왕 8년(391년) 3월에 왕명으로 창건한 社稷 및 종묘 유적이었으나 5월에 고국양왕이 사망함에 따라 사직 및 종묘와 관련된 토목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개토왕대에 사직 및 종묘 건물을 수선하고 평양 천도 이후에 점차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광개토왕 후기(407년경~412년)에 천추총, 환도산성 궁전 건물, 사직 및 종묘 건물의 수축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上祖先王’무덤에 비석도 세웠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고구려 연화문와당은 늦어도 407년경에 천추총이나 환도산성 궁전유적에 처음 사용되었다. 둘째, 최근 발견된 ‘集安高句麗碑’의 시대는 광개토왕대이며, 건비 연대는 407년경~412년이다. III기는 427년 이후부터 6세기말 이전으로 설정한다. 이 시기의 고구려 와당은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형식도 다양하고 특히 복합연화문와당을 비롯한 복합문양 와당이 매우 유행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IV기는 6세기 중엽 이후부터 고구려가 멸망할 때(668년)까지로, 고구려 서부 방어선과 남부 방어선에 위치한 산성이나 보루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유적에서도 고구려 말기 와당이 출토되었다. 한편, 평양지역에서 고구려 반와당의 유행도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이다.

북한에서 발견된 일부 고구려 와당은 아직 그 연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의 편년안은 추후 수정될 소지가 있으며 이후에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고구려 와당, 형식학, 靑鞞技術, 광개토왕, 集安高句麗碑, 권운문와당, 연화문와당, 복합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 귀면문와당, 법륜문와당, 인면문와당, 연주문와당

【목 차】

【국문초록】	i
I. 머리말	1
1. 연구대상	3
1) 중국동북지역	3
2) 북한지역	5
3) 남한지역	6
2. 연구목적 및 방법	6
II. 고구려 와당 연구사	8
1. 1870년대~1945년	9
2. 1946년~1970년대	13
3. 1980년대 이후	17
III. 고구려 와당의 제작기법	48
1. 고구려 와당 제작기법 연구현황	48
2. 와당의 제작기법	50
1) 瓦當模와 瓦當范	50
2) 막새부의 제작	52
3) 分離沙	53
4) 塗朱현상	53
5) 수키와의 제작	54
6) 와당과 수키와 연결방법	56
3. 同范瓦當의 구분	58
4. 고구려 와당의 靑靱技術	95
1) 청곤기술	95
2) 청곤기술의 동아시아 지역 전파	97
3) 청곤와전을 통해 본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의 피장자	98

IV. 고구려 와당의 형식학적 연구	99
1. 원형와당의 형식학적 연구	101
1) 권운문와당	101
2) 연화문와당	106
3) 인동문와당	159
4) 귀면문와당	161
5) 법륜문와당	163
6) 중권문와당	164
7) 인면문와당	165
8) 연주문와당	165
9) 기타	165
2. 반와당의 형식학적 연구	167
1) 대반원형 반와당	167
2) 소반원형 반와당	168
 V. 고구려 와당의 편년과 분기설정	169
1. 원형 와당의 편년	169
1) 권운문와당의 편년	170
2) 연화문와당의 편년	175
3) 인동문와당의 편년	225
4) 귀면문와당의 편년	226
5) 법륜문와당의 편년	227
6) 중권문와당의 편년	227
7) 인면문와당의 편년	228
8) 연주문와당의 편년	228
9) 기타 와당의 편년	228
2. 반와당의 편년	228
3. 고구려 와당의 분기와 변천	229
 VI. 맺음말	233
【참고문헌】	236
【Abstract】	248
【中文摘要】	251
【日文抄録】	253

【표 목차】

표 1.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58

표 2.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59

표 3.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60

표 4.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60

표 5.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61

표 6.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62

표 7.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62

표 8.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63

표 9.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63

표 10.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64

표 11.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64

표 12.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65

표 13.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65

표 14.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66

표 15.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66

표 16.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67

표 17.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68

표 18.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68

표 19.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69

표 20.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69

표 21.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70

표 22.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71

표 23.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71

표 24.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72

표 25.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72

표 26.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73

표 27.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73

표 28.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74

표 29.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75

표 30.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75

표 31.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76

표 32.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76

표 33.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77

표 34.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77

표 35.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78
표 36.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79
표 37.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79
표 38.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80
표 39.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81
표 40.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81
표 41.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82
표 42.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82
표 43.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83
표 44.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83
표 45.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84
표 46.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85
표 47.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85
표 48.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86
표 49.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86
표 50.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87
표 51.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87
표 52.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88
표 53.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88
표 54.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89
표 55.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90
표 56.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91
표 57.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91
표 58. 법륜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92
표 59. 법륜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92
표 60. 기타 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93
표 61. 기타 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93
표 62. 기타 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94
표 63. 반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94

【삽도 목차】

삽도 1.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58
삽도 2.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59
삽도 3.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60
삽도 4.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61
삽도 5.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61
삽도 6.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62

삽도 7.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62
삽도 8.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63
삽도 9.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63
삽도 10.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64
삽도 11.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64
삽도 12.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65
삽도 13.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65
삽도 14.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66
삽도 15.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67
삽도 16.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67
삽도 17.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68
삽도 18.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68
삽도 19.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69
삽도 20.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70
삽도 21.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70
삽도 22.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71
삽도 23.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71
삽도 24.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72
삽도 25.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72
삽도 26.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73
삽도 27.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73
삽도 28.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74
삽도 29.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75
삽도 30.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75
삽도 31.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76
삽도 32.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77
삽도 33.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77
삽도 34.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78
삽도 35.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78
삽도 36.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79
삽도 37.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80
삽도 38.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80
삽도 39.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81
삽도 40.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81
삽도 41.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82
삽도 42.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82
삽도 43.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83
삽도 44.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83

삽도 45.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84
삽도 46.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85
삽도 47.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85
삽도 48.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86
삽도 49.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86
삽도 50.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87
삽도 51.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87
삽도 52.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88
삽도 53.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88
삽도 54.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89
삽도 55.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90
삽도 56.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91
삽도 57.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91
삽도 58. 법륜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92
삽도 59. 법륜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92
삽도 60. 다른 문양와당 동범와당 각종	93
삽도 61. 기타 와당 동범와당 각종	93
삽도 62. 기타 와당 동범와당 각종	94
삽도 63. 반와당 동범와당 각종	94
삽도 64. 연호명문권운문와당	102
삽도 65. 간지명문권운문와당	103
삽도 66. 일반명문권운문와당	103
삽도 67. 무명문권운문와당	105
삽도 68. 연봉오리형 복선연화문와당	107
삽도 69. 2분식 일반 연관 복선연화문와당	108
삽도 70. 4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109
삽도 71. 단복선 6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110
삽도 72. 쌍복선 6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112
삽도 73. 삼복선 6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116
삽도 74. 8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117
삽도 75. 10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118
삽도 76. 쌍복선 4분식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	119
삽도 77. 삼복선 4분식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	120
삽도 78. 사복선 4분식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	121
삽도 79. 오복선 4분식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	121
삽도 80. 6분식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	122
삽도 81. 4분식 복채형 복선연화문와당	122
삽도 82. 6분식 복채형 복선연화문와당	123

삽도 83.	8분식 복채형 복선연화문와당	124
삽도 84.	‘T’자형 복선연화문와당	125
삽도 85.	‘Y’자형 복선연화문와당	126
삽도 86.	‘卍’형 복선연화문와당	126
삽도 87.	사다리형 복선연화문와당 무복선	126
삽도 88.	4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27
삽도 89.	5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28
삽도 90.	삼각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29
삽도 91.	‘Y’자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30
삽도 92.	‘ㄷ’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31
삽도 93.	인동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31
삽도 94.	복채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32
삽도 95.	무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32
삽도 96.	7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33
삽도 97.	삼각형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35
삽도 98.	나뭇가지형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37
삽도 99.	‘ㄷ’형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37
삽도 100.	복채형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38
삽도 101.	무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39
삽도 102.	9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40
삽도 103.	10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41
삽도 104.	11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42
삽도 105.	12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43
삽도 106.	15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43
삽도 107.	연판+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146
삽도 108.	연판+ 연봉오리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147
삽도 109.	5꽃술 4연판+ 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148
삽도 110.	3꽃술 4연판+ 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150
삽도 111.	2꽃술 4연판+ 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151
삽도 112.	1꽃술 4연판+ 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152
삽도 113.	5연판+ 5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153
삽도 114.	6연판+ 6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154
삽도 115.	연화문+ 인동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155
삽도 116.	연화문+ 인동문 복합연화문와당	156
삽도 117.	연화문+ 귀면문 복합연화문와당	157
삽도 118.	연화문+ 인면문 복합연화문와당	157
삽도 119.	연화문+ 다른 문양 복합연화문와당	158
삽도 120.	多層 연판연화문와당	159

삽도 121. 단일 문양 인동문와당	160
삽도 122. 복합 문양 인동문와당	161
삽도 123. 귀면문와당	162
삽도 124. 벌륜문와당	164
삽도 125. 중권문와당	165
삽도 126. 인면문와당	165
삽도 127. 연주문와당	165
삽도 128. 기타	167
삽도 129. 대반원형 반와당	168
삽도 130. 소반원형 반와당	169

【도면 목차】

도면 1. 陳橋遺地の 위치도	255
도면 2. 陳橋遺地 수키와의 출토상황	255
도면 3. 陳橋遺地の 수키와(외면)	255
도면 4. 陳橋遺地の 수키와(내면)	255
도면 5. 陳橋遺地の 암키와	255
도면 6. 陳橋遺地の 槽形瓦	255
도면 7. 陶寺遺地の 암키와	256
도면 8. 陶寺遺地の 암키와	256
도면 9. 陶寺遺地の 암키와	256
도면 10. 陶寺遺地の 위치도	256
도면 11. 陶寺遺址암키와의 사용방법(추측)	257
도면 12. 鄭州商城암키와의 출토상황	257
도면 13. 鄭州商城의 암키와(외면 및 내면)	258
도면 14. 鄭州商城의 암키와(외면 및 내면)	258
도면 15. 鄭州商城의 암키와(외면 및 내면)	258
도면 16. 鳳雛甲組建築의 평면도	259
도면 17. 鳳雛甲組建築의 복원도	260
도면 18. 鳳雛甲組建築기와의 사용상황	260
도면 19. 召陳遺址의 암키와	260
도면 20. 召陳遺址의 암키와	260
도면 21. 召陳遺址의 半瓦當	260
도면 22. 召陳遺址의 半瓦當	260
도면 23. 召陳遺址의 半瓦當	261
도면 24. 召陳遺址의 半瓦當	261
도면 25. 고구려 와당의 제작기법 단면도	261

도면 26.	고구려, 발해지역의 청곤와전	262
도면 27.	간지명문권운문와당	263
도면 28.	무명문권운문와당	264
도면 29.	연봉오리형 복선연화문와당	265
도면 30.	2분식 일반 연판 복선연화문와당	265
도면 31.	4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266
도면 32.	단복선 6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267
도면 33.	쌍복선 6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270
도면 34.	삼복선 6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271
도면 35.	8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272
도면 36.	2복선 4분식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	272
도면 37.	삼복선 4분식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	273
도면 38.	6분식 복채형 복선연화문와당	273
도면 39.	8분식 복채형 복선연화문와당	274
도면 40.	4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275
도면 41.	삼각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276
도면 42.	‘Y’자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276
도면 43.	‘ㄷ’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277
도면 44.	무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277
도면 45.	7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278
도면 46.	삼각형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280
도면 47.	나뭇가지형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281
도면 48.	‘ㄷ’형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281
도면 49.	무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283
도면 50.	9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285
도면 51.	10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285
도면 52.	11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286
도면 53.	12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286
도면 54.	연판+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288
도면 55.	연판+ 연봉오리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288
도면 56.	5꽃술 4연판+ 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289
도면 57.	3꽃술 4연판+ 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290
도면 58.	2꽃술 4연판+ 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291
도면 59.	5연판+ 5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292
도면 60.	연화문+ 인동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293
도면 61.	연화문+ 인동문 복합연화문와당	294
도면 62.	연화문+ 다른 문양 복합연화문와당	294
도면 63.	多層 복합연화문와당	295

도면 64. 단일 문양 인동문와당	296
도면 65. 복합 문양 인동문와당	296
도면 66. 귀면문와당	298
도면 67. 법륜문와당	299
도면 68. 기타	300
도면 69. 소반원형 반와당	301
도면 70. 광개토태왕비 ‘乙未’년, ‘丁未’년 탁본 및 천추충 ‘永樂’명 수 키와	302
도면 71. 환도산성 궁전유적 실측도	302
도면 72. 고구려 향아리	303
도면 73. 환도산성, 한반도, 일본열도 운주	303
도면 74. 환도산성 궁전유적 운주 복원도	304
도면 75. 고구려, 발해 살포	304
도면 76. 鳳巖寺智証大師寂照塔碑	305
도면 77. 麤島 및 부여 신리 금동불상	305
도면 78. 안악3호분(冬壽墓)의 피장자(남)	306
도면 79. 안악3호분(冬壽墓)의 피장자(녀)	306
도면 80. 안악3호분(冬壽墓)의 연화문 및 귀면문	308
도면 81. 안악3호분(冬壽墓)의 연화문 및 관련된 연화문	309
도면 82. 안학궁3호분, 충주 하구암리유적 토기	309
도면 83.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2호가마터 청자 고배(992년) 및 명문	310
도면 84. 연주문 수막새 및 연목와	311
도면 85. 강서대묘 벽화 및 안학궁 연화문수막새	312
도면 86. 개마총 벽화 및 안학궁 암막새	312
도면 87. 평양지역 고구려 와당 및 암막새	313
도면 88. 개성 고려궁성 암막새	313
도면 89. 고구려 와당의 편년과 관련된 자료	314

I. 머리말

고구려는 700여 년이라는 긴 역사를 거쳐 온 국가로, 지금까지 많은 유적과 유물이 남아 있다. 산성과 고분 등과 같은 유적, 그리고 토기와 철기, 금은기 등이 바로 그 예다. 그 중 토기는 그 용도에 따라 生活用 토기와 附葬用 토기, 그리고 建築用 토기로 나뉘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토기들 중, 와당은 중요한 건축용 토기로,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는 유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발굴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기와는 중국 신석기시대의 龍山文化시기에 이미 출현하였다. 陝西省 橋鎮遺址와 山西省 陶寺遺址에서 용산문화 시기의 기와 몇 점이 발견되었다.

橋鎮遺址¹⁾는 橋鎮村에서 남쪽으로 10m 쯤 떨어진 高地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적의 규모는 남북길이 500m, 동서너비 300m이고, 면적은 약 150,000㎡이다. (도면 1) 교진유지는 仰韶文化와 용산문화 및 西周文化 등이 꽃피었던 곳으로, 용산문화 시기의 문화층 1기, 유구 1기, 가마터 1기, 주거지 2기 등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그 중, 문화층에서는 泥質紅陶의 수키와(도면 2)가 발견되었다. 이 수키와의 안쪽은 회색이고, 바깥에는 籃紋이 그려져 있었다. 주거지에서도 기와가 발견되었다. 용산문화 시기의 주거지는 반지하식으로, 지면에 석회를 발라 만들었으며, 수키와(도면 3~4), 암키와(도면 5), 槽形瓦(도면 6) 등이 출토되었다.

陶寺遺址(陶寺文化)는 용산문화 시기에 해당하는 산서성 남부의 지역문화가 있었던 곳이다. 면적은 약 3,000,000㎡로, 1978년부터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와 산서성고고연구소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주거지, 고분군, 성벽, 궁전유적, 觀星臺 등이 발견되었다. 뒤이어 2002년도 발굴조사 결과, 궁전유적(IT5026, IT5126, 도면 10)에서 암키와 104점이 발견되었다.²⁾ 대부분의 암키와는 도사문화 만기에 속하며, 일부는 중기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발견된 암키와는 모두 夾砂灰陶이고, 외면에 새겨진 무늬의 종류로는 籃紋이 57.7%, 승문이 19.2%, 戳印紋이 6.7%, 그리고 附加堆紋이 1%를 차지하고 있다. 형태로는 평행사변형이 89점(도면 7), 직각제형이 5점(도면 8), 이등변제형이 10점(도면 9) 등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도사문화의 암키와 사용방법(도면 11)과 제작기법 등을 연구하였다.³⁾

이후 商과 西周時代에는 수키와와 암키와가 많이 발견되었다. 商代의 암키와는

1) 寶鷄市博物館(劉軍社), 2011, 「寶鷄發現龍山時期建築構件」, 『文物』, 3.

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山西省考古研究所, 2005, 「山西襄汾陶寺城址2002年發掘報告」, 『考古學報』, 3.

3) 何努, 2006, 「陶寺城址宮殿區發現的陶板試析及陶寺文化的板瓦」, 『中原地區文明化進程學術討論會文集』, 科學出版社. 李乃勝, 何努 외, 2007, 「陶寺遺址出土的板瓦分析」, 『考古』, 9.

河南省 鄭州市 鄭州商城遺址에서 일부 발견되었으며, 서주시대의 수키와와 암키와는 陝西省 岐山縣 鳳雛 건축유적과 扶風縣 召陳 건축유적 등에서 발견되었다. 한편, 1986년부터 鄭州商城 궁전유적에서는 많은 弧形板狀(도면 12)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유물들은 상대의 암키와로 추정된다.⁴⁾ 암키와와 함께 출토된 유물들도 역시 商代, 二里崗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이 시대의 암키와는 보통 표면에 승문(도면 13~15)이 있고, 기물의 안에는 무늬가 없다. 다만, 일부 암키와의 내면에는 麻點紋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대의 암키와는 평면 형태가 제형이고, 단면을 보면 泥質灰陶, 泥質褐陶, 夾砂灰陶 등이 만들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출토된 상대 기와는 암키와만 있고, 이는 정주산성 궁전유적에서만 발견되었다.

1976년 2월에 周原考古隊는 봉추 건축유적⁵⁾을 발굴조사하였다. 그 결과, 宮室 건축유적이 발견되었으며, 토기, 도자기, 청동기, 갑골문, 옥기, 암키와, 수키와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1976년부터 주원고고대는 소진 건축유적⁶⁾(도면 16~17)을 8차례에 걸쳐 발굴조사하였다. 그 결과, 건축 유적을 비롯하여 도자기, 청동기, 옥기, 암키와, 수키와, 반와당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유물의 세부적인 특징을 보면, 먼저 수키와와 암키와에는 모두 표면에 승문이 있고, 암키와의 내면 혹은 외면에 陶環 또는 陶釘(도면 19~20)이 있다. 일부 암키와의 외면에 ‘巴’, ‘丁’, ‘丁二’, ‘三’, ‘四’ 등의 명문이 있는 경우도 있다. 봉추 건축유적과 소진 건축유적에서 출토된 암키와, 수키와, 그리고 반와당은 서주 중기와 만기에 속한다.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유적의 성격과 연대 등을 고려하여, 암키와의 사용방법(도면 18)을 설명하였다. 암키와, 수키와, 그리고 반와당의 출토량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시 봉추 건축유적과 소진 건축유적 건축물은 용마루와 귀마루에만 와당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와당의 출현 시기는 수키와 및 암키와보다 좀 늦으며, 지금까지 출토된 가장 빠른 시기의 와당은 섬서성 부풍현 소진 건축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외형적 특성에 따라 반와당이라고 불렸으며, 당시 반와당(도면 21~24)의 무늬로는 雙環紋, 饗饗紋, 삼각형문 등이 있다. 반와당은 서주시대에 출현하여 東周와 秦, 西漢時代를 거쳐 東漢 때까지 사용되었다. 동주시대부터 원형의 와당이 출현하여 시간이 갈수록 점차 유행하였으며, 원형 와당은 동주시대부터 지금까지 2천여 년이나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4)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曾晓敏, 韓朝會외), 2007, 「鄭州商城宮殿區商代板瓦發掘簡報」, 『華夏考古』, 3.李乃胜, 李清临외, 2012, 「鄭州商城遺址出土商代陶板瓦的工藝研究」, 『建築材料學報』, 15卷(4).

5) 陝西周原考古隊, 1979, 「陝西岐山鳳雛村西周建築基址發掘簡報」, 『文物』, 10.

6) 陝西周原考古隊, 1981, 「扶風召陳西周建築羣基址發掘簡報」, 『文物』, 3.

1. 연구대상

고구려 와당은 그 형태에 따라 원형 와당과 반원형 와당으로 나뉜다. 무늬에 따라 권운문와당,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 귀면문와당, 인면문와당, 幾何文와당, 복합문와당 등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고구려 와당 중 권운문와당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동안 고구려의 토기와 와당을 비롯해 많은 고구려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고구려 와당들의 대부분은 고고학 발굴 출토품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 수집된 소장품들이었다. 이러한 개인 소장가들의 예로 諸岡榮治, 八田巳之助, 井内潔, 山田鈺次郎, 小倉武之助 등이 있다. 이들의 소장품은 유적지나 유적지 근처에서 수집된 것으로, 당시 일본 학자들은 이러한 고구려의 주요 유물들을 수집하여 감정하고 연구하였다.

20세기, 9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고구려 와당을 포함한 고구려 유물들의 소장 가치 및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고구려 와당을 비롯하여 다른 고구려 유물들의 모조품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모조품들은 일부 소장가와 사립박물관의 소장품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연구 대상에는 최근 몇 해 동안 수집된 개인 소장가의 소장품이나 사립박물관의 소장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 와당은 주로 중국, 북한, 남한의 고구려유적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중국의 집안지역과 북한의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출토되었고, 남한에서 출토된 와당은 흥련봉1보루와 호로고루 출토품뿐이다. 또한, 고구려의 도성 지역이었던 집안과 평양지역의 와당의 크기와 무늬 등은 외곽지역의 와당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때문에 중국과 북한에 분포하고 있는 고구려 와당을 설명할 때, 도성지역과 외곽지역의 고구려 와당을 분류하여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고구려 와당의 연구사 검토결과, 고구려 와당의 출토 정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각 국가별로 주관성을 지닌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1) 중국 동북지역

고구려는 두 차례에 걸친 천도를 하였는데, 오늘날의 환인, 집안, 평양에 각각 도성이 있었다. 현재까지 환인지역에서는 고구려 와당이 발견된 바가 없으며, 집안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양의 와당이 출토되었다.

집안지역에서 와당이 출토된 유적은 생활유적과 고분으로 크게 구분된다. 생활유적으로는 國內城, 丸都山城, 東臺子遺蹟, 商賈街遺蹟, 梨樹園子南遺蹟(糧庫遺址, 黨校遺址, 兵舍遺址, 僞兵舍遺址), 氣象站遺蹟, 勝利村遺蹟(勝利村療養所遺址), 麻

線中學校遺蹟 등이 있다. 고분으로는 상활릉5호분, 마선구500호분(西大墓), 마선구1000호분(千秋墓), 마선구2100호분, 우산하0001(將軍墳), 우산하0541(太王陵), 우산하992호분, 우산하2112호분, 우산하3319호고분, 장천2호분(長川2號墓) 등이 있다.

집안지역을 제외한 도성 외곽지역에서 와당이 확인된 유적은 무순 시가구고분군을 제외하면 모두 산성으로, 撫順地區의 고이산성, 施家고분군, 五龍山城과 鐵嶺地區의 城子山山城, 鞍山地區의 娘娘山山城, 丹東地區의 봉황산산성, 애하침고성, 大連地區의 대흑산산성, 延邊地區의 온특혁부성 및 遼源地區의 龍首山山城 등이 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집안지역은 고구려의 도성지역이었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와당의 출토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무늬도 다양하다. 둘째, 고구려 최초의 와당인 권운문와당은 집안지역에서만 발견되었고, 도성 건축물과 왕릉급 고분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권운문와당은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여러 상징물 중 하나였을 것이다. 셋째, 일부 권운문와당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고구려 역사와 공방제도 등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부 권운문와당의 연호나 干支명문은 고구려 고고학, 특히 왕릉의 피장자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太寧四年’명 권운문와당의 발견으로 인하여 고구려 권운문와당이 늦어도 4세기 초 후반에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국내 성시기에는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 귀면문와당이 모두 출현하였고, 427년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함에 따라 집안지역에서는 고구려 와당이 거의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집안지역의 고구려 와당은 다른 지역의 고구려 와당에 비해 일반적으로 지름도 크고 제작기법도 우수하다. 다시 말해, 도성지역과 외곽지역의 차이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축물의 등급과 규모에 따라 사용되는 와당의 크기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여섯째, 집안지역의 고구려 기와는 생활유적에서는 주로 적색계 연화문와당이 발견되었고, 고분유적에서는 주로 회색계 연화문와당이 출토되어 유적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도성지역에 비해 다른 외곽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의 시기는 국내성보다 좀 늦다. 고구려 와당은 국내성시기 말기에 도성지역에서 외곽지역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집안지역의 와당과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와당 간의 차이는 고구려 와당의 시대적 변천관계를 반영한다. 여덟째, 오늘날까지 외곽지역에서 발견된 국내성시기 고구려 와당의 수량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으나, 대흑산산성의 연화문와당은 집안지역의 연화문와당의 무늬와 비슷하다. 이는 광개토왕 때에 요동지역에서 발생한 고구려와 후연 간의 전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흑산산성의 착고가 환도산성 및 장군촌 서남쪽의 건축유적에서

발견된 출토품과 유사한 점으로 보아, 대흑산산성의 연화문와당과 착고의 시기는 광개토왕 혹은 장수왕대의 유물로 추정된다. 아홉째, 권운문와당과 연화문와당은 시간에 따라 일정한 변천 특징이 나타난다. 권운문와당의 區間과 복선은 그 수가 점차 많아지며, 연화문와당의 연판과 복선 수량도 점점 많아진다. 열째, 중국에서 발견된 고구려 와당은 1945년 이전에는 보통 일본 학자들의 수집품이었지만, 1945년대 이후에는 과학적인 발굴조사과정을 거쳐 출토된 유물의 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동대자유적과 환도산성, 국내성, 고이산성, 봉황산산성 등의 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은 발굴조사에 의해 층위관계 및 공반유물이 함께 보고되어 보다 깊은 연구를 하기에 용이하다.

2) 북한지역

북한에서 와당이 출토된 유적은 대체로 427년 평양천도 이후에 해당된다. 평양으로 도성을 천도한 이후의 고구려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위세가 높았던 시기였으므로, 건축물에 사용된 와당 역시 그 수량이 많고 무늬도 다양하며, 여러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중국에서 발견된 와당은 고구려 국내성시기의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평양시기의 유물과는 비교할 수 없다.

북한지역의 고구려 와당은 도성이 위치한 평양지역 출토품과 도성의 외곽지역 출토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평양지역에서 와당이 확인된 유적은 평양성, 대성산성, 안학궁, 청암리토성, 청암리절터, 정릉사지 등이 있다.

외곽지역으로는 평안남도의 원오리절터(平原郡 德浦里), 경신리1호분(한왕묘, 平城市 慶新里)이 있으며, 황해남도의 장수산성(新院郡 峨洋里)과 토성리절터(鳳山郡 土城里) 등이 있다.

북한지역에서 확인된 고구려 와당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성격의 유적에서 고구려 와당이 출토되었으며, 출토된 와당의 무늬도 매우 다양하다. 유적은 성지, 절터, 고분 등이 있는데, 이 중 성지에서 가장 많은 양의 와당이 출토되었으며, 무늬도 매우 다양하다. 둘째, 청암리절터와 정릉사유적, 원오리절터, 황해남도 토성리절터 등에서 발견된 고구려 와당은 수량과 무늬가 풍부하며, 고구려 절터의 연대 설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평양성시기 고구려 고분 중에는 경신리1호분에서만 고구려 와당이 발견되었다. 고분 봉토 내부에서 출토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문제가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평양천도 후 고구려 고분은 형태가 크게 변화하였다. 왕릉급 고분은 방단계제석실분에서 봉토벽화분으로 변화했으며, 묘상건축의 형태와 묘상건축을 건설할 때 와당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다섯째, 와당의 변천 특징은 국내성시기에 비해 매우 복잡해졌다. 특히 복합연화문와당의 변화방식

이 매우 복잡해졌다. 여섯째, 새로운 무늬가 출현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도 등장하였다. 즉, 고구려 반와당이 출현하였다. 이것은 당시 다른 문화계통 중에서는 보이지 않는 고구려 와당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일곱째, 국내성 시기에 확인되었던 적색계와 회색계 와당 간의 용도 차이가 평양성시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적색계 와당과 회색계 와당이 출토되는 유적의 성격이 더 이상 차이를 보이지 않다는 사실은, 고구려 와당의 사용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여덟째, 북한에서 발견된 평양성시기의 고구려 와당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의 수집품이어서 출토 지점이나 층위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유물을 현재 소장하고 있는 곳은 북한, 일본, 남한, 러시아, 미국 등 각 국가의 국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 등이다.

3) 남한지역

남한지역에서 고구려 와당이 출토된 유적은 흥련봉1보루와 호로그루 뿐이지만, 이 두 곳은 모두 과학적으로 발굴조사된 유적이기 때문에 층위관계가 분명하고 동반유물 연구가 가능해 고구려 와당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남한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기록과 흥련봉2보루에서 출토된 ‘庚子’명(520년) 접시에 의거하여, 흥련봉1보루와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의 연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중국과 북한지역의 고구려 와당 연대를 추정할 수 있으며, 고구려 와당의 편년과 분기의 설정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둘째, 흥련봉1보루의 일부 와당에 나뭇결이 남아 있어서 고구려 와당 제작기법 연구에 큰 역할을 한다. 셋째, 흥련봉1보루에서는 회색계 복합연화문와당이, 호로그루의 와당은 적색계 단일연화문와당이 출토되었다. 두 와당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흥련봉1보루의 와당은 평양성지역의 출토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반면, 호로그루의 와당은 중원 탐평리유적에서 발견된 신라 연화문와당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고구려 와당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고구려 와당의 연구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다.

첫째, 연구사는 시기별로 정리할 것이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고구려 와당 연구는 그 특징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제 1단계는 1870년대~1945년, 제 2단계는 1946년~1970년대, 마지막 단계는 1980년대~

현재까지이다. 1970년대까지 고구려 와당연구는 대부분 일본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부터는 중국, 북한, 남한학자들에 의한 고구려 와당과 관련된 연구가 더 많아졌다.

둘째, 고구려 와당의 지역성 분포를 파악할 것이다. 중국 및 북한과 남한에서 모두 고구려 와당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 유적에서 다수의 와당이 발견되었으며, 그 무늬도 다양하다. 남한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은 홍련봉 1보루와 호로고루 출토품뿐이다. 한편, 고구려의 도성지역에서 출토된 와당은 다른 외곽지역에서 출토된 와당에 비해 수량과 무늬에 있어 차이가 크므로, 중국과 북한에서 고구려 와당의 분포를 설명할 때 도읍지역과 비도읍지역의 고구려 와당을 각자 따로 설명할 것이다.

셋째, 고구려 와당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고구려 와당의 연결기법과 같은 와당 제작기법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고구려 와당의 靑靑瓦 및 靑靑技術이 동아시아 지역의 전파 및 교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 고구려 와당의 塗朱형상 및 의미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넷째, 고구려 와당에 대한 체계적인 형식분류를 성립할 것이다. 고구려 와당은 원형과 반원형이 있고, 그 무늬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 이들의 조합형태와 특징 등을 기준으로 형식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다섯째, 고구려 와당의 편년을 시도한 후 분기를 설정하고, 변천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고구려 와당의 편년에 대한 연구성과는 많으나, 각각의 전문가들의 관점은 서로 다르다. 특히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등장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필자는 고구려 불교의 전래 시기의 파악을 위해, 안악3호분(冬壽墓)의 연화문와당과 천추총에서 출토된 권운문와당, 연화문와당 및 명문기와, 그리고 광개토왕릉과 장군총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 등의 제문제를 재검토하고, 고구려 와당에 대한 편년과 단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고고학 이론과 방법, 문헌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고고학의 중요한 이론으로는 형식학과 층위학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식학을 충분히 이용하여 고구려 와당의 형태와 무늬에 따라 형식분류를 할 것이다. 층위학은 유물의 선후관계와 편년을 설정할 때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1945년 이전에 발견된 고구려 와당은 대부분 유적이거나 유적 근처를 답사할 때 수집된 것으로 층위관계 및 출토 지점을 명확히 알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층위학을 적용하기에 적절치 못하다.

단적인 예로, 집안 동대자유적의 출토유물과 수집품의 연대는 큰 차이가 있다. 1958년 4월과 6월, 7월에 吉林省博物館은 동대자유적의 3차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이 때 고구려 건축유적이 확인되었고 와당, 기와, 토기, 청동기, 철기 등의 유물도 다수 출토되었다. 1963년 9월에는 발해시대 銅製 허리띠 장식판 네 점을

수집하였다. 이 동제 허리띠 장식판은 수집품이기 때문에 층위학적으로는 관계가 없으며, 때문에 유적의 연대를 추정할 때 고려할 수 없다.

비록 고구려는 700여 년의 깊은 역사를 가진 국가이지만, 고구려 시대 사람들이 남긴 문헌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서 문헌자료란 고구려시대의 비석과 묘지명문, 그리고 당대인들이 쓴 책 등을 말한다. 고구려 멸망 후에 고구려에 대한 여러 기록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예로 고구려 광개토왕릉비, 丘儉紀功碑, 集安高句麗碑, 중원고구려비, 평양성 각석, 籠吾里山城 각석 등이 있으며, 묘지명문으로는 안악3호분, 덕흥리벽화문, 冉牟墓 등의 묵서명문이 있다. 지금 남아 있는 고구려시대의 책은 대성산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불경을 제외하고는 없다. 그 밖에 중국과 한국의 고대문헌을 예를 들면 『後漢書』, 『三國志』, 『晉書』, 『北史』, 『魏書』, 『南史』, 『舊唐書』, 『新唐書』, 『三國史記』, 『三國遺事』, 『海東高僧傳』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고구려의 역사와 고고학적 관련 문제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시기적으로 앞선 문헌기록들은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고구려의 불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덕흥리벽화분의 묵서명문이다. 이에 따르면, 늦어도 광개토왕 永樂18年(408년)에는 고구려지역에 불교가 이미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불교 전래시기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중국 남조 梁代 『高僧傳』(6세기 초 후반에 작성)이다. 통일신라시대의 智証大師 寂照塔碑(924년)의 명문 중에도 고구려 불교 전래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고구려 불교 전래시기를 연구할 때 아직도 『三國史記』(12세기초 후반에 작성)의 소수림왕 2년(372년)에 前秦에서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기록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 梁代 『高僧傳』부터 元代 『神僧傳』까지의 고구려 불교 전래시기에 대한 기록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지증대사적조탑비에 있는 불교전래와 관련한 기록은 위에서 언급한 중국 문헌과 연대적으로 가깝다. 그러므로 『三國史記』의 기록은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II. 고구려 와당 연구사

오늘날 고구려 고고학 연구는 동아시아지역의 중요한 고고학 분야 중 하나로, 그 시작은 광개토왕비의 발견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광개토왕비는 지금 중국 집안시 광개토왕릉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1877년에 懷仁縣 書扈 關山月이 발견하였다. 광개토왕비의 탁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점차 고구려 역사와 유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 와당의 발견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과제가 되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에 근거할 때, 고구려 와당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1870년대~1945년

광개토왕비가 발견되었고 고구려 연구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구려 와당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1910년대 이후 많은 일본 사람들은 중국 동북지역이나 북한지역의 고구려 고분과 유적에서 다양한 유물들을 다수 수집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서울에 위치한 朝鮮總督府가 고구려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주도하여 조선총독부박물관에는 고구려 토기와 와당을 비롯한 많은 고구려 유물이 수장되었다. 고구려 와당에 대한 일련의 도록을 편찬하는 연구성과도 있었다. 1945년 이후에 한반도는 광복이 되었으므로 일본인들은 더 이상 한반도 및 중국 고구려 고분이나 유적을 답사 혹은 발굴조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단계의 고구려 와당에 대한 연구성과는 아래와 같다.

1915년 3월에 조선총독부는 『朝鮮古蹟圖譜(一)』, 『朝鮮古蹟圖譜(二)』를 출판하였다.⁷⁾ 『朝鮮古蹟圖譜(一)』는 북한지역의 낙랑군과 대방군 및 집안지역의 고구려 유적 및 출토된 유물을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 중 집안지역의 국내성유적, 산성자산성유적, 장군총, 태왕릉, 천추총, 동대자유적 등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 기와와 벽돌 등의 많은 유물들이 기재되었다. 발견된 와당의 문양으로는 권운문, 연화문, 귀면문, 인동문 등이 있었다. 그 밖에 집안지역에서 수집된 발해 연화문와당도 있다. 한편, 『朝鮮古蹟圖譜(二)』는 북한 평양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출토된 유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대동군 대동강변과 안학궁유적 및 고구려 평양성유적, 예를 들면 漢王墓 등에서 고구려 연화문와당과 기하학문와당이 많이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동군 대동강 강변에서 고구려 귀면문 반와당 한 점이 발견되어 최초의 고구려 반와당으로 보고되었다.

1928년 1월에 關野貞은 「高句麗の平壤城及び長安城に就いて」⁸⁾에서 평양성과 평양 근처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소개하였다. 그 중에 청암리토성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 및 초석은 태왕릉의 연화문와당과 국내성의 초석과 유사해 청암리토성은 평양성시대 장수왕의 왕궁유적으로 생각되었다.

1928년6월에 平凡社는 『世界美術全集(第六卷)』을 출판하였고 關野貞은 「朝鮮三國時代瓦當」⁹⁾에서 평양지역에서 출토된 두 점의 고구려 와당을 소개하였

7)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一),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二), 朝鮮總督府.

8) 關野貞, 1928, 「高句麗の平壤城及び長安城に就いて」, 『史學雜誌』, 第三十九編第一號.

다. 그 중에 와당 한 점의 반구형 자방부는 중국 漢代 와당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인동문와당은 중국 北魏시기의 인동문와당계열로 보았다.

1928년 8월에 關野貞은 『考古學講座 第五卷-瓦』¹⁰⁾를 출판하였다. 여기에서는 중국 고대와 한반도의 삼국시대 및 고대일본의 와당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고구려 와당의 무늬를 근거로 하여 일본의 와당을 각각 輻線연화문, 귀면문, 연화귀면문, 인동연화문, 인동문, 연화문, 복선문, 蟠虺紋, 游虺紋, 渦線紋, 纏枝紋 등 12가지로 나누었다. 그는 고구려 연화문와당은 불교와 北魏 연화문와당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와당의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밖에 한반도 삼국의 와당무늬 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연구하였다.

1929년 3월에 조선총독부가 출판한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¹¹⁾의 공동저자는 關野貞, 谷井濟一, 小場恒吉 등 3명이다. 이 책은 우선 집안지역과 북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및 출토품을 사진과 그림으로 소개하고, 평양지역과 그 근처에서 출토된 와당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각 와당의 출토지점과 색깔, 수집한 지점 및 소장가 등에 대한 자료를 모두 소개하였다. 그 중에 반와당 13점도 있다.

1932년 5월에 한국학자 高裕燮은 「高句麗의 美術」¹²⁾이라는 글에서 고구려의 건축미술, 회화미술, 공예미술에 대하여 글을 썼다. 공예미술 부분에서 그는 고구려만의 공예미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와당은 소량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 색조로 본다면 적색과 흑색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가 고구려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고구려 와당의 무늬에 근거했을 때, 연화문, 인동문, 獸面紋, 당초문, 복선문 중권문 중, 기하학적 복선문과 수면 등은 중국 한나라 와당의 遺影이고, 다른 것은 불교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1932년 9월 關野貞은 『朝鮮美術史』¹³⁾를 출판하여 낙랑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미술사를 개설하였다. 본문 중 고구려 미술사 부분에서 고구려의 벽돌과 기와를 소개하고, 고구려 와당에 대해 논술하였다. 여기에서, 국내성과 평양성 지역에서 출토된 와당 중 연화문, 인동문, 귀면문, 당초문, 복선문, 중권문 등은 漢代 와당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당초문 와당은 고구려 만기의 양식으로, 일부 고구려 와당은 北魏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1935년 2월에 諸岡榮治는 『樂浪及高句麗古瓦圖譜』¹⁴⁾를 출판하여 본인이 수집한 낙랑과 고구려의 와당을 소개하였다. 이 책의 서언은 關野貞이 썼고, 梅原

9) 關野貞, 1928, 「朝鮮三國時代瓦當」, 『世界美術全集(第六卷)』, 平凡社.

10) 關野貞, 1928, 『考古學講座第五卷-瓦』, 雄山閣.

11) 關野貞외, 1929,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古蹟調査特別報告 第五冊)』, 朝鮮總督府.

12) 高裕燮, 1932, 「高句麗의美術—朝鮮美術史話」, 『東方評論』, 1·2, 東方評論社.

13) 關野貞, 1932, 『朝鮮美術史』, 朝鮮史學會.

14) 諸岡榮治(編輯), 梅原末治(校), 1935, 『樂浪及高句麗古瓦圖譜』, 便利堂.

末治는 와당을 감정했으며, 諸岡榮治은 수집한 고구려 와당의 輻線연화문, 연화문, 연화귀면문, 귀면문, 연화인동문, 인동문, 蟠虺紋, 游虺紋, 紐枝紋, 渦線紋, 복선문, 중권문 등의 12가지 문양에 대해 설명하였다.

1938년 6월에 梅原末治는 「東亞の古瓦に就いて」¹⁵⁾에서 집안과 평양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을 정리하고, 고구려 와당은 궁전, 관아, 성지 및 일부 고분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도 關野貞은 일부 고구려 와당은 北魏의 영향을 받았다는 관점을 밝혔다.

1938년 8월에 小泉顯夫은 「泥佛出土地元五里廢寺址の調査」¹⁶⁾를 발표하였다. 元五里廢寺址는 북한 평안남도 평원군 덕산면 원오리에 위치하고 있다. 1937년 5월에 小泉顯夫 등은 원오리절터를 발굴조사한 결과, 고구려 연화문와당과 치미, 소조불상, 팔각형건축물 및 고려시대의 초석, 청자, 암키와 등을 발굴하였다. 이것이 첫 고구려 절터 발굴조사이다.

1938년 10월에 日滿文化協會는 『通溝』(卷上)¹⁷⁾를 출판하였다. 이 보고서의 저자는 池内宏이지만, 이미 일본 학자들이 이뤄낸 집안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고분에 대한 1938년대까지의 연구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태왕릉, 장군총, 천추총, 동대자유적 등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 귀면문와당을 비롯한 고구려 유물을 소개하였다. 이 책은 최초의 고구려 유적 발굴보고서로서 오늘날까지 고구려 고고학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이고 있다.

1939년 9월에 한국학자 高裕燮은 「三國美術의 特徵」¹⁸⁾에서 삼국시대 미술에 대해 논고하였다. 이 논문의 제2장 “瓦當紋樣으로 본 삼국의 특색” 중에서 高裕燮은 삼국시대의 와당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고구려 와당의 무늬가 너무나 다양해서 연화문과 인동초문 등은 물론이고, 漢나라 와당 이래의 蕨草形, 放射線形 등을 위시하여 車輻形, 기하학, 도형, 獸形, 蛙蟻形 등 와당 형태의 다양함은 실로 고구려를 따를 자가 없다고 하였다.

1939년 11월에 渡邊三三, 齋藤武一은 「滿洲國撫順の古瓦に就て」¹⁹⁾에서 당시 撫順지역에서 출토된 기와를 소개하였다. 그 중에서도 永安公園유적과 北關山城(高爾山城)유적에서 많은 와당이 발견되었다. 특히 고이산성에서 고구려 와당이 많이 출토되었으며, 이는 해당 산성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40년 6월에 小泉顯夫는 「平壤清岩里廢寺址の調査(概報)」²⁰⁾를 발표하였다.

15) 梅原末治, 1938, 「東亞の古瓦に就いて」, 『夢殿』, 綜合古瓦研究所.

16) 小泉顯夫, 1938, 「泥佛出土地元五里廢寺址の調査」,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17) 池内宏, 1938, 『通溝』(卷上), 日滿文化協會.

18) 高裕燮, 1939, 「三國美術의 特徵」, 『朝鮮日報』, 8월31일-9월3일.

19) 渡邊三三, 齋藤武一, 1939, 「滿洲國撫順の古瓦に就て」, 『考古學雜誌』, 第二九卷一一號.

20) 小泉顯夫, 1940, 「平壤清岩里廢寺址の調査(概報)」, 『昭和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

발표자료에 의하면, 청암리절터는 북한 평양부 원오리 모란대(牡丹臺)의 동북쪽 청암리토성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38년 10월에 小泉顯夫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는 발견한 유적과 유물의 내용을 문헌과 비교 연구하여, 청암리절터는 문자명왕 7년(498) 7월에 창건한 金剛寺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1941년 8월에 關野貞은 『朝鮮の建築と藝術』²¹⁾을 출판하여 낙랑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일련의 논문을 정리하였다. 새로운 연구성과는 없으나, 고구려 와당의 출토 현황을 소개하고 고구려 와당의 특징도 설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943년 12월에 도쿄대학교는 『考古圖編(第十三輯)』²²⁾을 출판하여 도쿄대학교 문학부 고고학연구실에 소장된 고구려 연화문와당 한 점을 발표하였다. 이는 和田清이 환도산성에서 수집한 적색 와당으로, 도쿄대학교 문학부 고고학연구실에 기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1932년 5월에 戸田寛와 齋藤武一에 의해 이루어진 무순 고이산성의 발굴조사는 이 시기에 이루어진 중요한 연구 중 하나이다. 1940년 10월과 1944년 5월에 일본학자 三上次男, 齋藤武一, 渡辺三三 등과 중국학자 李文信은 고이산성을 두 차례 추가로 발굴조사하여, 고구려 연화문와당 두 점을 발견하였다. 이 때 조사한 자료는 1992년 10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고서²³⁾로 출판되었다.

이 시기의 고구려 와당 연구의 특징은 대부분의 연구가 일본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아직 고구려 와당에 대한 전문적인 논문 및 전문서가 없었다는 점이다. 연구라고 해도 자료수집과 일부 개괄적 소개에 불과했고, 주요 조사자로는 關野貞, 梅原末治, 諸岡榮治 등이 있었다. 이들은 고구려 와당을 출토지별로 구분하여 개괄적 성격과 문양에 따른 형태를 연구하였으며, 한국학자 高裕燮은 와당의 무늬에 대해 연구하였다. 중국학자 李文信도 고구려 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하였는데, 이 외에는 고구려 와당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에 발굴조사 지역은 집안 국내성과 평양지역을 비롯한 고구려 평지성과 산성, 고분, 절터 등 이었다. 발견된 고구려 와당은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 귀면문와당, 기하문와당, 귀면문반와당 등이 발견되었다. 고구려 와당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고구려 유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졌으며, 역사학과 고고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그러나 이 시기에 발견된 대부분의 고구려 와당은 개인이나 일부 학자들이 조사 또는 답사할 때 수집한 것이어서 출토지점 및 층위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오늘날에도 연구하는 데에

研究會.

21) 關野貞, 1941,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22) 東京大学文學部考古學研究室, 1943, 『文學部考古學研究室蒐集品・考古圖編(第十三輯)』, 東京大学文學部考古學研究室.

23) 三上次男, 田村晃一, 1993, 『北關山城-高爾山城:高句麗新城の調査-』, 中央公論美術出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시기의 고고학 활동 내용은 전·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전기는 明治時代와 大正時代이고, 후기는 昭和時代이다. 大正時代와 昭和時代에는 주로 유적 답사 활동이 이루어졌다. 쇼와시대는 답사와 함께 발굴조사 및 고고학적 연구가 있었던 시기다. 다만 고구려 산성에 대한 일부 답사 및 발굴조사 성과는 몇 십년이 지난 후에야 발표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발표되지 않은 자료도 있다.

2. 1946년~1970년대

1945년 이후부터는 한반도 학자들 중심의 고구려 와당 연구가 시작되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및 민속학강좌의 교수들과 학생들은 대성산성에서 몇 번의 대규모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1973년 11월에 『대성산의 고구려유적』²⁴⁾을 출판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대성산성의 성벽과 성문, 궁전유적, 저수지 및 고분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궁전유적을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 고구려 연화문와당이 많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출토 유물과 문헌 기록의 검토 결과, 대성산성은 427년 평양 천도 이후부터 586년 평양성으로의 천도 때까지 고구려의 수도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1957년 12월에 蘇才는 「輯安高句麗遺蹟調查簡記」²⁵⁾에서 집안지역의 고구려 고분과 광개토왕비를 소개하고 일부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에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그 중, 고구려 와당을 비롯한 기와는 유적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사용한 기와의 색깔도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즉, 적색 기와는 건축유적과 궁전유적에 사용하며 회색 기와는 고분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1958년 4월에 張馭寰은 「輯安附近高句麗時代的建築」²⁶⁾에서 집안지역의 고구려시대 성지, 고분, 광개토왕비, 그리고 고분벽화와 건축물 등을 소개하고, 일부 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에 대해서도 논술하였다. 와당의 출토지점에 근거하여 적색 와당은 주거지에 사용되었으며, 회색 와당은 고분이나 陵寢건축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았다.

1961년 1월에 출판된 「吉林輯安高句麗建築遺址的清理」²⁷⁾는 1958년 4월부터 7월까지 길림성박물관이 진행한 동대자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약보고서로, 건축지, 초석, 와당, 토기, 철기 등이 보고되었다. 이 발굴은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집안지역 내 대규모 고구려유적 발굴 작업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 및

24)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및민속한강좌, 1973, 『대성산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5) 蘇才, 1957, 「輯安高句麗遺蹟調查簡記」, 『吉林省文物工作通訊』.

26) 張馭寰, 1958, 「輯安附近高句麗時代的建築」, 『文物參考資料』, 4.

27) 吉林省博物館(蘇才), 1961, 「吉林輯安高句麗建築遺址的清理」, 『考古』, 1.

유물들이 이 때 발굴되었다. 특히 연화문와당과 귀면문와당 및 인동문와당 등이 많이 출토되었다. 발굴된 건축물의 규모와 출토된 유물 등에 근거하여 볼 때, 동대자유적은 고구려 궁전이나 제사유적으로 추정되었다.

1961년 8월에 藤沢一夫는 「日鮮古代屋瓦の系譜」²⁸⁾에서 낙랑시대 및 삼국시대의 와당과 일본 와당을 소개하였다. 그가 밝힌 내용 중에서 고구려 연화문와당과 백제 연화문와당 및 일본 와당의 관계를 비교연구하여 일본의 연화문와당은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962년 11월에 李殿福은 「1962年春季吉林輯安考古調査簡報」²⁹⁾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1962년 봄 길림성박물관의 주도로 집안지역의 고구려유적을 답사할 때, 우산하 고분군의 한 방단적석총(JYM3319) 근처에서 권운문와당 한 점을 발견하였고, 그 와당의 주연부에 있는 명문도 판독하였다고 하였다.

1964년 12월에 북한학자 김영진은 「3국시기의 기와 벽돌무늬」³⁰⁾에서 한반도의 삼국시대 기와와 벽돌무늬를 검토하였다. 김영진은 와당의 무늬에 따라 다섯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식물무늬와 기하무늬, 동물무늬, 환상적인 내용을 주제로 한 무늬, 그리고 다른무늬가 있다. 그 속에서 고구려 와당 무늬의 형식과 특징 등도 살펴보았다.

1966년 3월에 북한 학자 채희국과 전제현은 「신원군 장수산성을 찾아서」³¹⁾에서 장수산성의 위치, 성벽, 문지, 출토유물, 사용한 연대 등을 밝혔다. 출토 유물 중에 고구려 와당, 암키와, 수키와, 암막새와, 그리고 산성의 축조 특징에 근거하여, 이 산성은 4세기에서 5세기 초에 초축되어 19세기 말까지 계속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1966년 5월에 梅原末治, 藤田亮策은 『朝鮮古文化綜鑑(第四卷)』³²⁾을 출판하였고 일제강점기에 일본학자들이 집안과 평양지역에서 발굴조사한 일부 산성, 고분, 벽화, 출토유물 등의 자료를 재정리하였다. 여기서는 고구려 귀면문와당과 벽돌이 소략적으로 언급되었다.

1968년 8월에 井内古文化研究室은 『鬼面紋瓦の研究』를 출판하고 중국 北魏와 고구려, 신라 그리고 일본의 귀면문과 귀면문와에 대한 논문 5편을 실었다. 그 중에 井内潔은 「高句麗の鬼面紋屋瓦」³³⁾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고구려 鬼面紋屋瓦에 대한 개괄, 즉 고구려 귀면문옥와당에는 귀면와, 귀면문와당, 귀면문半瓦當, 귀면문착고 등 네 가지가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어서 고구려 귀면문

28) 藤沢一夫, 1961, 「日鮮古代屋瓦の系譜」, 『世界美術全集』, 권2, 角川書店.

29) 李殿福, 1962, 「1962年春季吉林輯安考古調査簡報」, 『考古』, 11.

30) 김영진, 1964, 「3국시기의 기와 벽돌무늬」, 『고고민속』, 4.

31) 채희국, 전제현, 1966, 「신원군 장수산성을 찾아서」, 『고고민속』, 1.

32) 梅原末治, 藤田亮策, 1966, 『朝鮮古文化綜鑑(第四卷)』, 養徳社.

33) 井内潔, 1968, 「高句麗の鬼面紋屋瓦」, 『鬼面紋瓦の研究』, 井内古文化研究室.

옥와의 크기와 색깔과 재질 및 막새부와 수키와의 접목한 각도, 그리고 고구려 귀면문옥와의 세부 특징인 눈, 눈썹, 입, 코, 수염 등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고구려 귀면문옥와의 원류를 밝혔다. 그는 고구려의 귀면문와당이 낙랑지역과 중국 남북조의 귀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北魏의 귀면문은 중국 운강석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1971년 11월에 太田静六은 「高句麗系瓦の源流と其影響」³⁴⁾에서 고구려 와당의 등장과 원류, 四分式 고구려 와당과 漢代 와당 간의 계승관계, 초기 고구려 와당의 개괄과 원류, 고구려 와당의 연화관, 그리고 고구려 와당과 한나라 와당간의 계승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에는 불교의 法輪을 소개하면서 법륜이 고구려 와당의 무늬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학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지역 최초의 고구려 와당에 대한 연구논문이다.

1976년 5월에 井内潔은 「高句麗の半瓦当屋瓦」³⁵⁾에서 처음으로 고구려 반와당의 출토현황과 무늬 특징, 연대, 사용한 위치 등을 연구하였다. 井内潔은 고구려 반와당이 6세기 중기 이후에 등장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1976년 9월에 김일성종합대학은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³⁶⁾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전동명왕릉과 근처에 있는 고구려 고분군, 그리고 정릉사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이다. 고분군이나 유적에서 출토된 와당을 비롯한 고구려 유물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으며, 전동명왕릉과 정릉사에 대한 일련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전동명왕릉은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다시 창건된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무덤으로, 북한학계는 동명왕릉이라고 불렀다. 497년에 평양에서 창건된 금강사에 비해 정릉사의 창건 연대는 금강사보다 선행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1976년 10월에 井内功은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³⁷⁾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도판 위주의 도록으로서 고구려 와당에 대한 깊은 연구는 없으나, 오늘날까지 고구려 와당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된 도록이다. 수집된 고구려 와당의 수량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와당의 정면과 내면 그리고 측면 사진 및 출토 지점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오늘날 고구려 와당을 연구할 때 중요한 참고 문헌으로 이용되고 있다.

1977년 2월에 이화여대 김화영은 『韓國蓮花紋研究』³⁸⁾로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김화영은 한반도의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연화문와당의 유래, 표현 형식, 형식변천, 연화문과 복합무늬 등을 연구하고, 한국과

34) 太田静六, 1971, 「高句麗系瓦の源流と其影響」, 『考古學雜誌』, 第五七卷第二號.

35) 井内潔, 1976, 「高句麗の半瓦当屋瓦」, 『井内古文化研究室』, 15, 井内古文化研究室.

36) 김일성종합대학, 1976,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37) 井内功, 1976,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井内功古文化研究室.

38) 金和英, 1977, 「韓國蓮花紋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중국, 일본의 연화문와당의 관계 등과 관련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삼국시대의 연화문와당 연구와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형식과 변천, 연대와 특징 등을 살펴 고구려 연화문와당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 4세기 중엽 경에 등장했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1977년 6월, 7월에 関口広次는 「古代朝鮮における古瓦文様の系譜とその展開(1),(2)-三国时代~統一新羅時代-」³⁹⁾에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한반도의 와당을 기술하고, 고구려 와당을 무늬를 기준으로 여덟 가지로 나누었다. 그러나 실제로 소개한 것은 복선연화문, 귀면문, 사엽문, 연화문, 인동문, 중권문과 기타문양 등 7가지이다. 또한 각각 와당의 형태에 따라 시대를 추정하여 기술하였는데, 고구려 반와당의 출현 시기를 5세기 중기 이후라고 생각하였다.

1977년 12월에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는 『조선고고학 개요』⁴⁰⁾를 출판하여 한반도의 구석기시대부터 14세기까지의 고고학 문화를 종합하여 소개하였다. 고구려 와당에 관해서는 와당의 형식과 변천, 그리고 와당의 등장 및 유행 시기 등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검토하였다.

1979년 6월에 岡崎敬은 「高句麗の土器・陶器と瓦塼」⁴¹⁾에서 고구려 토기와 기와 및 벽돌을 소개하였다. 우선, 집안지역에서 출토된 권운문와당의 명문을 해석하여 그 연대를 장수왕대로 추정하였다. 평양지역의 와당은 무늬를 기준으로 연관문, 인동문, 연관인동문, 귀면문, 연관귀면문, 와선문, 중권문 등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고구려 권운문와당은 낙랑군시기 권운문와당의 영향을 받았으며, 고구려 연화문와당도 발해 연화문와당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고구려 와당의 용도로는 궁전과 관아, 사원과 산성 등의 건축물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시기의 특징은 앞 시기에 비해 중국과 북한, 남한학계의 고구려 와당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학계를 제외하면 고구려 와당에 대한 전문 연구논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중국학자들은 집안지역을 답사하고 일부 고구려 유적을 발굴하였는데, 그중에 동대자유적의 발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아울러 집안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의 연대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운문와당의 명문판독 연구를 시작하였다. 한반도 학자들은 고구려 와당의 무늬와 시대 등을 활발히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김화영의 연구가 특징적이다. 북한학자들의 전동명왕릉과 정릉사 유적 발굴조사와 다량의 고구려 와당에 대한 연구 발표 역시 이 시기의 주요한 연구성과이다.

39) 関口広次, 1977, 「古代朝鮮における古瓦文様の系譜とその展開(1)」, 『月刊考古学ジャーナル』, 6. 関口広次, 1977, 「古代朝鮮における古瓦文様の系譜とその展開(2)」, 『月刊考古学ジャーナル』, 7.

40)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 개요』, 백과사전출판사.

41) 岡崎敬, 1979, 「高句麗の土器・陶器と瓦塼」, 『世界陶磁全集17・韩国古代』, 小学館.

1946년에서 197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모든 학술 분야가 단절의 시기를 겪는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고구려 와당 연구사에서도 2단계의 시기적 특징이 드러난다. 전기는 1946년~1960년대까지이며, 후기는 1970년대이다. 전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고고학을 비롯한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기에는 각 국가의 경제 등 상황이 회복됨에 따라 학술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일본 학자들은 일제강점기에 수집된 고구려 와당 자료를 이용하여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고구려 와당에 대한 도록도 출판하였다.

3. 1980년대 이후

1980년 11월 柳在雨는 「高句麗 瓦當文様の 様式的 考察」⁴²⁾에서 고구려 와당의 무늬를 연구하였다. 고구려 와당 형식 등과 관련된 제문제 검토가 그 내용이었는데, 일본학자를 제외하면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고구려 와당에 대한 연구 및 전문 논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1982년 1월에 方起東은 「集安東臺子高句麗建築遺址의 性質和年代」⁴³⁾에서 집안 동대자유적의 구조와 출토유물 및 문헌 등을 검토하였다. 그는 이 유적을 고국양왕 9년(392) 3월에 창건된 고구려 社稷과 宗廟로 추정하였다. 한편,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된 와당의 연대도 추론하였다.

1982년 3월에 東京國立博物館은 『寄贈 小倉コレクション目録』⁴⁴⁾을 출판하였고 小倉武之助가 기증한 한반도와 중국 및 일본의 고대 유물 1000여점을 소개하였다. 그 중에는 평양지역에서 발견된 고구려 와당 19점도 있다.

1982년 7월에 井内潔은 「高句麗最古の鏡瓦とその溯源」⁴⁵⁾에서 고구려 最古 와당과 그 무늬, 고구려 古式 와당의 本源 등을 검토하였다. 고구려 와당의 출토와 연구 정황을 소개하고, 변천관계를 파악하여 태왕릉에서 발견된 ‘Y’자형 연판 연화문와당이 고구려 최고의 연화문와당이라고 주장하였다. 평양 천도 이후의 고구려 연화문와당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고구려 연화문의 등장은 新賓 永陵街土城址(제2현도군 郡治)에서 출토된 와당과 관계가 밀접하며, 고구려 와당의 복선과 자방 형태 등은 漢代 와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1983년 3월에 田村晃一은 「高句麗の寺院址に關する若干の考察」⁴⁶⁾에서 정릉

42) 柳在雨, 1980, 「高句麗 瓦當文様の 様式的 考察」, 『弘益工業專門大學論文集』, 11.

43) 方起東, 1982, 「集安東臺子高句麗建築遺址의 性質和年代」, 『東北考古與歷史』, 第一輯, 文物出版社.

44) 東京國立博物館, 1982, 『寄贈 小倉コレクション目録』, 東京國立博物館.

45) 井内潔, 1982, 「高句麗最古の鏡瓦とその溯源」, 『古代瓦研究論誌』, 井内古文化研究室.

사를 비롯한 고구려 절터를 연구하였다. 그는 정릉사에서 출토된 고구려 연화문 와당을 안학궁과 대성산성의 연화문와당과 비교 연구하여, 안학궁유적은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는 시점의 고구려의 수도였으며, 현재 평양성은 양원왕 8년(552)에 수축되었고 평원왕 28년(586)에 수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와당의 무늬를 기준으로 정릉사의 창건 연대는 5세기 전반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기 전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1983년 3월에 千田剛道는 「清岩里廢寺と安鶴宮」⁴⁷⁾에서 청암리절터와 안학궁에 대한 모든 문제를 검토하였다. 우선 고구려 청암리절터와 상오리절터 및 정릉사의 개황을 소개하고 고구려 가람배치의 특징을 밝혔다. 그리고 대성산성과 청암리토성과 안학궁 유적에 대해 설명하고, 와당 등의 연구를 통하여 안학궁과 청암리절터의 연대 및 관계를 밝혔다. 청암리토성은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할 때의 왕궁유적이며, 안학궁의 연대는 7세기 후반으로 보았다.

1984년 1월에 集安縣文物保管所는 上·下活龍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 약보고서인 「集安縣上·下和龍高句麗古墓清理簡報」⁴⁸⁾를 발표하였다. 고구려 토기를 비롯한 많은 유물이 보고되었는데, 그 중 연화문와당 파편과 ‘罍’자명이 새겨진 토기편을 장군총에서 발견된 연화문와당과 광개토왕비의 ‘罍’자와 비교하여 고분군의 시기를 5세기 전반으로 추정하였다.

1984년 2월에 북한 학자 한인호는 「고구려 건축의 역사적 지위」⁴⁹⁾에서 고구려 건축의 유형과 구조, 특성과 역사적 지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고구려 기와의 무늬, 특히 와당 무늬와 백제, 신라 그리고 일본의 와당 무늬의 영향관계도 고찰하였다.

1984년 10월에는 『集安縣文物志』⁵⁰⁾가 출판되어 집안지역의 개황을 발표하고 비석과 고분군 및 출토 유물 등에 대한 일련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또, 고구려의 주요 고분과 토기와 석기 등도 검토하였다. 집안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의 무늬와 크기 등의 정보를 소개하였으며, 일부 권운문와당의 연대도 추측하였다. 이것은 중국학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집안지역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로, 지금까지도 고구려 고고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1984년 12월에 李殿福은 「集安卷雲文銘文瓦當考辨」⁵¹⁾에서 집안 출토 고구려 권운문와당의 형식을 분류하고 명문을 해석하였다. ‘太寧四年’의 명문 연구 결

46) 田村晃一, 1983, 「高句麗の寺院址に關する若干の考察」, 『佐久間重男教授退休記念論文集』, 『佐久間重男教授退休記念論文集』編輯委員會.

47) 千田剛道, 1983, 「清岩里廢寺と安鶴宮」, 『文化財論叢』, 同朋舍.

48) 集安縣文物保管所, 1984, 「集安縣上、下和龍高句麗古墓清理簡報」, 『文物』, 1.

49) 한인호, 1984, 「고구려건축의 역사적지위」, 『고고민속론문집』, 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50) 『集安縣文物志』編寫組, 1984, 『集安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51) 李殿福, 1984, 「集安卷雲紋銘文瓦當考辨」, 『社會科學戰線』, 4.

과, 본래 ‘太寧三年’이었을 것으로 보았으며, 권운문와당의 출토지 근거하여 그 연대를 검토하고 중원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1949년 이후에 중국학계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고구려 와당에 대한 전문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85년 7월에 林至德, 耿鐵華는 「集安卷雲文銘文瓦當考辨」⁵²⁾에서, 집안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고구려 와당을 무늬를 기준으로 명문와당, 연화문와당, 귀면문와당, 인동문와당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고, 각각의 연대와 용도 및 출토 유적을 설명하였다.

1987년 11월에 북한학자 남일룡은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리 고구려 절터에 대하여」⁵³⁾에서 토성리 고구려절터의 발굴조사된 범위와 배치도 및 팔각건물지 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는 고구려가 황해남도 일대를 진출한 역사와 고구려 불교 등에 대한 문헌기록에 따라 토성리 고구려 절터의 연대를 394년 이후의 것으로 보았으나 그 하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밖에 절터에서 출토된 유물로 와당 한 점을 소개하였다.

1987년 11월에 徐家國, 孫力은 「遼寧撫順高爾山城發掘簡報」⁵⁴⁾로 1983년부터 세 차례 발굴조사된 약보고서를 발표하고, 산성의 개황과 유적 및 출토유물 등을 소개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출토된 유물에는 고구려시대 유물과 遼代 유물이 포함된다. 고구려시대 유물로는 토기, 철기, 기와와 연화문와당 등이 있다. 출토 유물과 문헌기록에 따라 고이산성은 고구려의 新城이고 창건 연대는 335년으로 보았다.

1988년 2월에 부산대 박진보는 『三國時代瓦當에 나타난 蓮花紋의 造形性 비교연구』⁵⁵⁾로 석사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한반도 와당의 기원과 전래 및 연화문의 기원과 전래를 연구하였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연화문 양식의 조형을 분석 및 연구하였으며, 한반도의 삼국시대 연화문와당과 중국 고대 와당 등의 영향관계를 검토하고, 고구려 연화문와당이 중국 북조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집안과 평양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지방부와 연판 및 주연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1988년 6월에 今津啓子は 「九州大學所藏の高句麗系瓦・塼について」⁵⁶⁾에서 일본 큐슈대학교에 소장된 고구려 와전을 검토하였다. 집안과 평양지역의 연화문 와당의 형식과 제작기법을 연구하고, 각 형식별 와당의 연대도 설정하였다.

52) 林至德, 耿鐵華, 1985, 「集安出土的高句麗瓦當及其年代」, 『考古』, 7.

53) 남일룡, 1987,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리 고구려 절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4.

54) 徐家國, 孫力, 1987, 「遼寧撫順高爾山城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2.

55) 박진보, 1988, 「三國時代 瓦當에 나타난 蓮花紋의 造形性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6) 今津啓子, 1988, 「九州大學所藏の高句麗系瓦・塼について」, 『古代文化』, 40권(7).

1988년 8월에 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會는 『遼源市文物志』⁵⁷⁾를 출판하고 요원시의 개황과 출토된 화석 및 역사유적 등을 전면 소개하였다. 龍首山山城에서 발견된 고구려 연화문와당 몇 점을 소개하였는데, 크기가 작고, 그 무늬는 지역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1988년 12월에 田村晃一은 「高句麗の城郭について」⁵⁸⁾에서 고구려 城郭의 연구사와 성벽의 構造法, 女牆 뒤의 柱洞, 雉(馬面), 국내성과 환도산성, 대성산성과 안학궁 및 청암리토성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권운문와당 등에 근거하여 국내성의 연대는 늦어도 3세기이며, 환도산성 연화문와당과 인동문와당의 연대는 늦어도 4세기라고 생각하였다. 연화문와당을 통해 대성산성과 청암리토성 중 하나는 장수왕대의 평양성일 것으로 보았다.

1989년 2월에 谷豊信은 「四、五世紀の高句麗の瓦に関する若干の考察-墳墓発見の瓦を中心として-」⁵⁹⁾에서 일본 도쿄대학교와 교토대학교와 도쿄국립박물관 등에 소장된 고구려고분에서 출토된 기와를 중심으로 4세기에서 5세기의 고구려 기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연구하였다. 특히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한왕묘(경신리1호분)등에서 출토된 와당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한왕묘의 와당을 비롯한 고구려 와당은 낙랑 및 중국 남북조시대의 와당과 관계가 밀접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밖에 서울 석촌동 4호분에서 출토된 와당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는 집안,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의 연화문와당의 선후관계도 밝혔다.

1989년 12월에 耿鐵華는 「高句麗文物古蹟四題」⁶⁰⁾에서 태왕릉의 방향과 장군총의 배층, 그리고 집안에서 출토된 금동신발 및 戊戌명 권운문와당을 검토하였다. 집안의 무술명 권운문와당을 연구하고 JYM992의 무술명 권운문와당의 연대를 東晉 成帝咸康 4年(338년)으로 보았으며, 乙丑명 권운문와당의 연대는 東晉 成帝咸和4年(329년)으로 보았다.

1990년 3월에 谷豊信은 「平壤土城発見の古式の高句麗瓦当について」⁶¹⁾에서, 1989년에 발표한 논문(「四、五世紀の高句麗の瓦に関する若干の考察-墳墓発見の瓦を中心として-」)을 바탕으로 평양 토성리에서 출토된 복선연화문와당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谷豊信은 토성리의 복선연화문와당의 형식분류를 A, B, C, D형 네 가지로 나누고 와당의 연대도 설정하였다.

1990년 12월에 三上次男은 『高句麗と渤海』⁶²⁾를 출판하고 고구려와 발해를

57) 王洪峰외, 1988, 『遼源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會.

58) 田村晃一, 1988, 「高句麗の城郭について」, 『百濟研究』, 19.

59) 谷豊信, 1989, 「四、五世紀の高句麗の瓦に関する若干の考察-墳墓発見の瓦を中心として-」, 『東洋文化研究所紀要』, 第百八册,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60) 耿鐵華, 1989, 「高句麗文物古蹟四題」, 『文物春秋』, 4.

61) 谷豊信, 1990, 「平壤土城発見の古式の高句麗瓦当について」, 『東洋文化研究所紀要』, 第百十二册,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비롯한 신라, 고려,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지역의 일련의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전에 발표된 몇 편의 논문도 포함시켰다. 발해 와당과 고구려 와당 간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으며, 발해의 와당도 고구려 와당의 영향을 받았다고 논술했다.

1990년 12월에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은 『井内功寄贈瓦埴圖錄』⁶³⁾를 출판하였다. 井内功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낙랑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기와 및 벽돌 등 1082점의 유물이 소개되었는데, 그중 고구려 와당도 110점이 포함된다. 이 도록의 부록 부분에는 김유식과 김성구가 수집한 와전유물의 경로와 특징, 기증 과정 등과 고구려 와당의 개황 등을 소개하였다.

1991년 12월에 李殿福은 『高句麗·渤海の考古と歴史』⁶⁴⁾를 출판하였고 고구려와 발해의 고고학과 역사를 전반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중에 고구려 벽돌과 기와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고구려의 암키와, 수키와, 와당과 치미를 포함한 집안 지역에서 출토된 와당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무늬는 연화문, 귀면문, 인동문, 권운문 등 네 가지로 나누었으며, 와당의 주연부는 높고, 적색 및 회색만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적색계 연화문와당은 고분 근처에서 주로 발견되며, 회색계 연화문와당과 인동문와당 및 귀면문와당은 건축유적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1992년 3월에 西川 宏은 「中国における高句麗考古学の成果と課題」⁶⁵⁾에서, 중국소재의 고구려 성곽과 고분 및 토기, 기와, 금제 장식품 등 유물의 생산과 유통 관계를 연구하고, 성곽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관련 유적과 제사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집안지역의 고구려 와당의 用途와 형식 및 일부 와당의 연대 등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았다. 와당의 무늬에 따라 권운문과 연화문, 귀면문, 인동문 등 네 가지로 나누고, 특히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된 와당의 연대를 5세기 초까지로 비정하였다.

1992년 12월에 북한학자 류병홍은 「발해유적에서 드러난 기와막새 무늬에 대한 고찰」⁶⁶⁾에서 발해 연화문와당의 연관을 수량에 따라 4판, 5판, 6판, 7판, 8판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와 발해 연화문와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고, 발해 연화문와당이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영향을 받았으며 발해문화가 고구려문화를 계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93년 3월에 千田剛道은 「高句麗瓦の計量化分析」⁶⁷⁾에서 帝塚山大学을 비

62) 三上次男, 1990, 『高句麗と渤海』, 吉川弘文館.

63) 國立中央博物館, 1990, 『井内功寄贈瓦埴圖錄』, 國立中央博物館.

64) 李殿福, 1991, 『高句麗·渤海の考古と歴史』, 學生社.

65) 西川 宏, 1992, 「中国における高句麗考古学の成果と課題」, 『青丘學術論集』, 2.

66) 류병홍, 1992, 「발해유적에서 드러난 기와막새 무늬에 대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4, 사회과학출판사.

67) 千田剛道, 1993, 「高句麗瓦の計量化分析」, 『第6回考古学における』(パーソナルビュータ利用

릇한 일본에 있는 고구려 와당 200점의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고구려 와당의 문양, 막새부의 크기(지름, 자방, 주연 등)와 성분, 색 등의 제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1993년 10월에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는 『조선유적유물도감』 20권을 출판하였는데, 그 중 제3권에서 제6권⁶⁸⁾까지가 고구려편이다. 제3권과 4권은 고구려의 성곽 건물과 구조물 및 유물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대성산성, 정릉사, 금강사, 동대자유적, 장군총, 천추총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을 소개하였다. 대성산성과 정릉사의 고구려 와당은 컬러사진으로 발표되었으나, 금강사와 장군총, 천추총의 고구려 와당은 일제강점기의 사진만 이용되었다. 각 유적의 연대연구도 진행하였는데, 대성산성과 정릉사의 연대는 5세기 초로 보았으며, 금강사의 연대는 498년으로 추정하였다.

1994년 6월에 魏存成은 『高句麗考古』⁶⁹⁾를 출판하였고, 고구려 역사 및 고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집안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무늬에 따라 권운문, 연화문, 귀면문, 인동문, 연주유정문 등 다섯 가지로 나누었으며, 권운문과 연화문와당은 각각 세부적으로 재분류하였다. 적색과 회색 와당의 용도가 다른 이유는 고구려 풍속과 제도 때문으로 보았으며, 와당의 형식별로 연대를 검토하고, 그 상관관계와 기원과 같은 일련의 문제를 설명하였다. 이 책은 1994년까지의 연구성과를 전면 반영하고 있으며, 고구려 와당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때문에 오늘날 고구려 와당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994년 11월에 崔玉寬은 「鳳凰山山城調查簡報」⁷⁰⁾에서 봉황산산성에 대한 개황을 설명하고, 성문과 성벽, 수집품과 고분 및 가마터 등을 소개하였다. 그는 봉황산산성의 창건연대를 4세기에서 5세기로 추정하였으며, 고구려 연화문와당을 수집 및 소개하였다.

1994년 11월에 楊永芳, 楊光은 「岫岩境内五座高句麗山城調查簡報」⁷¹⁾에서 岫岩지역의 고구려산성 老城溝山城, 清涼山山城, 馬圈山山城, 娘娘城山城, 松樹溝山城 등 다섯 개 산성의 위치와 규모, 성벽과 성문, 유구와 발견된 유물 등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그 중에 량랑성산성에서 발견된 고구려 연화문와당을 언급하였지만, 도면이나 사진은 발표하지 않았다.

의現狀), 帝塚山考古學研究所.

68)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3, 『조선유적유물도감·고구려편(1)』,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3, 『조선유적유물도감·고구려편(2)』,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69) 魏存成, 1994, 『高句麗考古』, 吉林大學出版社.

70) 崔玉寬, 1992, 「鳳凰山山城調查簡報」, 『遼海文物學刊』, 2.

71) 楊永芳, 楊光, 1994, 「岫岩境内五座高句麗山城調查簡報」, 『遼海文物學刊』, 2.

1994년 11월에 修達은 「新賓五龍高句麗山城」⁷²⁾에서 五龍山城의 개황과 유적의 성벽, 성문, 그리고 출토 유물로서 철기, 토기 및 와당 등을 소개하였다. 오룡산성의 위치와 역사기록 및 수집품 등으로 볼 때, 그 연대는 345년부터 668년까지였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출토 유물 중에 적색 연화문와당 파편 한 점을 소개하고 있다.

1994년 11월에 千田剛道는 「瓦からみた高句麗古都集安」⁷³⁾에서 집안지역에서 출토된 기와를 중심으로 유적과 와당의 연대, 형식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국내성과 일부 평양성 와당을 비교하고 집안지역 각 형식 와당의 연대도 설정하였다. 권운문와당은 4세기 전반부터 4세기 후반에 유행하였을 것이고, 인동문와당과 귀면문와당은 6세기 후반에 등장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輻線이 없는 연화문와당의 상한은 6세기 전반, 하한은 7세기 후반, 고구려 멸망까지로 보았다. 輻線이 있는 연화문와당은 4세기 후반에 출현하고 5세기 초에 사라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된 와당의 연대는 6세기~7세기라고 추정하였다.

1994년 12월에 千田剛道는 「高句麗·高麗の瓦-平壤地域を中心として-」⁷⁴⁾에서 집안지역과 평양지역에서 발견된 고구려 권운문와당,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 귀면문와당과 고려시대의 암키와의 형식, 편년 및 제작기법 등을 전면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평양지역에서 보이는 일부 고구려 와당의 무늬는 고려 와당의 무늬와 유사해 이것은 평양지역의 고려시대 기와의 특징으로 보았다.

1995년 4월에 東潮, 田中俊明은 『高句麗の歴史と遺跡』⁷⁵⁾을 출판하였고, 고구려 역사와 고분벽화, 산성, 도성과 사원 등을 연구하였다. 안학궁과 고이산성 등에서 출토된 일부 고구려 와당을 검토하였고, 특히 고구려 왕릉의 피장자를 논하기 위해 고구려 와당의 변천도 설명하였다. 그는 고구려 와당의 변천 관계를 설명하면서, 주로 田村晃一과 谷豊信의 관점을 참고로 하였다.

1995년 5월에 큐슈고문화연구회가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일본 豊前지역의 사원과 기와를 토론하였는데, 일부 학자들은 豊前지역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은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⁷⁶⁾

1996년 2월에 許明綱은 「大連地區高句麗四座山城畧考」⁷⁷⁾에서 大連지역의 4

72) 修達, 1994, 「新賓五龍高句麗山城」, 『遼海文物學刊』, 2.

73) 服部敬史, 千田剛道외, 1994, 「高句麗都城と山城——中国東北地方における都城と山城の基礎的研究」(千田剛道, 「瓦からみた高句麗古都集安」), 『青丘學術論集』, 5, 財団法人韓國文化研究振興財団.

74) 千田剛道, 1996, 「高句麗·高麗の瓦-平壤地域を中心として-」, 『朝鮮の古瓦を考える(帝塚山考古學談話會第555回記念)』, 帝塚山考古學研究所.

75) 東潮, 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76) 九州古文化研究会, 1995, 「豊前地方の古代寺院と古瓦-第80回九州古文化研究会(中津大会)の記録-」, 『古文化談叢』, 34.

77) 許明綱, 1996, 「大連地區高句麗四座山城畧考」, 『博物館研究』, 1.

개소의 고구려산성, 卑沙城, 巍霸山城, 得利寺山城, 城山山城의 위치와 규모 및 성벽, 성문 및 유물 등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卑沙城山城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고구려 연화문와당이 있으나, 도면이나 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1997년 2월에 東潮는 『高句麗考古學研究』 78)에서 고구려 고고학과 三燕, 백제, 가야, 왜 등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고구려 적석층의 출현과 전개를 검토할 때 태왕릉, 촌추총, 장군총, 한왕묘, 토성리의 연화문와당의 변천관계도 언급하였는데, 谷豊信의 1989년과 1990년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였다.

1997년 9월에 美濃口紀子は 「熊本博物館所蔵の樂浪·高句麗の瓦塼について～山崎正董·平野流香古瓦コレクション～」 79)에서 山崎正董 및 平野流香 일생의 행적, 기와 수장과정과 기증 과정을 소개하고, 일부 낙랑 와전, 고구려 연화문와당 다섯 점의 연대와 제작 기법, 용도 등의 제문제를 검토하였다.

1997년 12월 王純信은 「金蛙傳説與蛙紋瓦當—論析高句麗民族的 蛙崇拜」 80)에서 고구려 두꺼비문양 반와당을 검토하였다. 고구려의 신화와 중원지역의 두꺼비 문화를 소개해, 이 반와당은 중원문화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기술하였다.

1998년 7월에 龜田修一은 「瓦塼」 81)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시대의 와전을 모두 검토하였다. 고구려 최초의 와당은 집안지역의 회색 권운문 와당이고, 중국 한대 와당의 영향을 받았으며, 주연부에 있는 명문을 통해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출현했다고 추정하였다. 연봉오리형 연화문와당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와당 중 하나로, 적색이나 회색이고,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에 등장한 것으로 보았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연화문, 인동문, 귀면문, 중권문 등 다양한 문양의 와당이 유행한 것으로 보았고, 그 밖에 고구려 암키와도 검토되었다.

1998년 12월에 國立文化財研究所는 『中國所在文化遺蹟調查報告書(吉林省·遼寧省·山東省篇)』 82)를 출판하였고 길림성과 요녕성 및 산둥성의 고고학적 개황과 문화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집안시의 고구려 고분군과 유적을 전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요녕성 내 박물관들의 유물을 소개 및 설명했다. 大連市金州區 金州博物館에 진열된 유물 중에는 大黑山山城에서 출토된 고구려 연화문 와당과 舌形瓦(참고, 筆者注)도 포함되었다.

78) 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79) 美濃口紀子, 「熊本博物館所蔵の樂浪·高句麗の瓦塼について～山崎正董·平野流香古瓦コレクション～」 『熊本博物館館報』, 9.

80) 王純信, 1997, 「金蛙傳説與蛙紋瓦當—論析高句麗民族的 蛙崇拜」, 『高句麗歷史與文化』, 吉林文史出版社.

81) 龜田修一, 1998, 「瓦塼」, 『世界美術大全集-東洋編10-高句麗·百濟·新羅·高麗』, 小学館.

82) 國立文化財研究所, 1998, 『中國所在文化遺蹟調查報告書』 (吉林省·遼寧省·山東省篇), 國立文化財研究所.

2000년 7월에 早乙女雅博은 『朝鮮半島の考古学』⁸³⁾에서 한반도의 구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고고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고구려 고고학 부분에서 집안과 평양지역 고구려 와당의 연대도 살펴보았다, 태왕릉과 천추총, 장군총에서 출토된 와당의 순서는 ‘Y’字蓮蕾文 軒丸瓦→6区画幅線蓮蕾文 軒丸瓦→8区画幅線蓮蕾文 軒丸瓦이며 축조 순서는 태왕릉→천추총→장군총으로 보았다. 대성산성과 안학궁 출토 와당을 연구하여 각각 고구려 후기 후반 이후의 王城과 王室 離宮으로 추정했다.

2000년 8월에 姜友邦은 「韓國瓦當藝術論序說」⁸⁴⁾에서 한국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당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중에 고구려 와당의 단계적 특징인 국내성시기와 평양성시기를 설명하고, 고구려 와당과 낙랑 및 북위 와당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2000년 12월에 張俊植은 「中原高句麗碑 附近의 高句麗係 遺蹟·遺物 檢討」⁸⁵⁾에서 충주시의 개황을 소개하고, 건흥5년의 금동불상 광배와 탑평리에서 출토된 막새기와 및 봉황리 마애불상을 검토하였다. 특히, 중앙탑 주변에서 출토된 와당을 형식분류하고, 고구려 와당에 속한다고 기술하였다. 그 밖에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그리고 제와술의 교류 등도 밝혔다.

2001년 2월에 북한학자 윤광수는 「고구려 마루기와의 변천」⁸⁶⁾에서 북한 지역, 특히 안학궁 유적에서 출토된 마루와당을 비롯한 고구려 마루기와의 형식과 변천 및 편년 등을 연구하였다.

2001년 4월에 田村晃一은 『樂浪と高句麗の考古學』⁸⁷⁾에서 낙랑군, 대방군과 고구려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고구려 적석총의 연대와 피장자 문제, 대성산성과 고구려 적석총의 구조와 분류에 대한 검토를 위해 고구려의 권운문와당과 연화문와당을 연구하였다. 특히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에서 발견된 연화문와당의 분석을 통해, 태왕릉, 천추총, 장군총의 순서대로 등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01년 10월에 高正龍, 南孝熊은 「高麗美術館所藏の朝鮮古瓦について」⁸⁸⁾에서 일본 교토 高麗美術館에 소장된 한반도에서 출토된 낙랑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와전을 전면적으로 소개하였다. 고구려 연화문와당은 7점이 있었고, 와당의 변천, 연대, 태토, 제작기법 등을 모두 설명하였다. 와당의 연대에 대해서는 千田剛道の 관점을 참고하였다.

83) 早乙女雅博, 2000, 『朝鮮半島の考古学』, 同成社.

84) 姜友邦, 2000, 「韓國瓦當藝術論序說」, 『新羅瓦磚』, 國立慶州博物館.

85) 張俊植, 2000, 「中原高句麗碑 附近의 高句麗係 遺蹟·遺物 檢討」, 『高句麗研究』, 10, 학연문화사.

86) 윤광수, 2001, 「고구려마루기와의 변천」, 『조선고고연구』, 1, 사회과학출판사.

87) 田村晃一, 2001, 『樂浪と高句麗の考古學』, 同成社.

88) 高正龍, 南孝熊, 2001, 「高麗美術館所藏の朝鮮古瓦」, 『高麗美術館館報』, 52.

2001년 12월에 吉井秀夫는 「日本 西日本地域 博物館에 所藏된 高句麗 遺物」⁸⁹⁾에서 일본 서부지역에 소장된 고구려 와당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교토대학교 종합박물관과 교토국립박물관, 나라국립박물관과 나라문화재연구소 및 큐슈대학교 고고학연구실 등 고구려 와당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소개하고, 각 와당의 특징 및 소장경위를 밝혔다. 특히, 교토대학교 종합박물관의 유물의 수량과 출토지점과 유물번호 및 기증 과정 등을 보충 설명하였다.

2001년 12월에 耿鐵華, 尹國有는 『高句麗瓦當研究』⁹⁰⁾에서 고구려 와당의 연구사와 출토지역, 형식, 연대, 원류, 의미, 예술특징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2001년까지 중국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을 정리하고, 1972년 5월에 장천2호분 근처에서 출토된 고구려 연화문와당 두 점을 소개하였다. 이 책은 고구려 와당에 대한 첫 단행본으로, 현재까지도 고구려 와당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문헌으로 쓰인다.

2001년 12월에 孫泓은 「遼寧地區高句麗遺物綜述」⁹¹⁾에서 요녕지역의 고구려 산성과 출토유물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유물은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와전 부분에서 고구려 와당의 출토 현황을 소개하였다.

2002년 5월에 石光濬은 「高句麗考古学の新しい成果」⁹²⁾에서 북한 내 고구려 유적에 대한 새로운 연구성과를 소개하였다. 북한 측 발굴조사에 따르면, 장수산성 밖의 도시유적에서 고구려 연화문와당과 일광문와당 및 암키와가 출토되었다. 이 연구는 해당 유적의 연대 설정 및 고구려 와당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02년 6월에 魏存成은 『高句麗遺蹟』⁹³⁾에서, 1994년에 출판한 『高句麗考古』를 바탕으로 고구려고고학에 대해 다시 전면 연구하였다. 고구려의 유물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와당은 유적의 성격 차이에 따라 회색이나 적색 와당이 구별되어 사용된 것과 고분에서의 와당 사용방식도 추정하였다.

2002년 6월에 李梅는 「高句麗瓦當發現與研究」⁹⁴⁾의 석사논문 중에서 중국과 북한지역에서 발견된 고구려 와당을 전면 연구하였다. 중국의 고구려 와당은 집안지역의 출토품을 중심으로 길림성의 용수산산성과 온특혁부성, 요녕성의 고이산성과 봉황산산성의 출토품과, 평양지역 안학궁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 두 지역의 고구려 와당에 대한 형식 분류를 통해 편년과 상호관계 등을 밝혔다. 이 논문은 중국에서 처음 이루어진 고구려 와당에 대한 학위논문으로, 고구려 와당의 연구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89) 吉井秀夫, 2001, 「日本西日本地域博物館所藏高句麗遺物」, 『高句麗研究』, 12, 學研文化社.

90) 耿鐵華, 尹國有, 2001, 『高句麗瓦當研究』, 吉林人民出版社.

91) 孫泓, 2001, 「遼寧地區高句麗遺物綜述」, 『高句麗研究』, 12, 학연문화사.

92) 石光濬, 2002, 「高句麗考古学の新しい成果」, 『古代朝鮮の考古と歴史』, 雄山閣.

93) 魏存成, 2002, 『高句麗遺蹟』, 文物出版社.

94) 李梅, 2002, 「高句麗瓦當發現與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2002년 7월에 尹国宥는 「高句麗瓦当の研究」⁹⁵⁾에서 중국 고대 와당의 등장과 발전, 고구려 와당의 형식, 고구려 와당의 미술적 특징, 고구려 와당 무늬의 문화적 요소 등을 검토하였다. 집안지역의 고구려 와당의 형식별 무늬를 그 특징에 따라 명문와당, 연화문와당, 귀면문와당, 인동문와당 등 네 가지로 나누었다. 그는 고구려 와당의 무늬가 태양숭배와 새문화 등 중원 문화적 문화요소를 가졌다고 설명하였다. 그 밖에 일본 고대 와당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였다.

2002년 12월에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은 『모스크바 국립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⁹⁶⁾를 출판하였고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동양박물관(The State Museum of Oriental, Moscow)에 소장된 한국 문화재를 전면적으로 정리하였다. 소장품 중 적색계 고구려 와당 5점을 소개하고, 이 와당들의 크기와 무늬 등의 특징도 소개하였다. 이 5점의 고구려 와당의 연대는 6세기에서 7세기로 추정하고 있으며, 모두 고구려 평양성의 유물로 보고 있다.

2002년 12월에 王綿厚는 「高句麗古城研究」⁹⁷⁾를 출판하여 중국과 북한지역의 고구려 성지의 단계와 구조 및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고구려 성지의 연대설정을 위해 고구려 토기와 기와, 철기 등의 유물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고구려 성지에서 출토된 와당의 형식과 연대 및 변천 특징을 기술하고 있으며, 고구려 와당과 낙랑 와당 및 요동지역 三燕 와당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였다.

2002년 12월에 千田剛道는 「高句麗·百濟都城における瓦の使用」⁹⁸⁾에서 고구려, 백제 도성지역의 기와 사용을 중심으로, 고구려, 백제 와당의 제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는 고구려 와당의 출토 현황을 소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평양시대는 전기(427~586년)와 후기(586~668년)로 나눌 수 있다. 평양성 전기의 고구려 와당은 청암리토성, 대성산성 등지에서 발견됨에 따라 이 시기의 왕궁은 청암리토성에 위치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학자들이 발굴한 안학궁유적은 고려시대 유적이고, 고구려시대 왕궁유적은 안학궁 하층에 위치했다고 보았으며, 대성산성의 연대는 고구려 평양 천도 초기로 편년하였다. 상오리절터, 원오리절터, 정릉사지, 경신리1호분, 환도산성 등지에서 발견된 와당의 연대는 평양성 후기로 추정하였다. 그 밖에, 경신리1호분 이후 고분에서는 고구려 와당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04년 1월에 張福有는 「集安禹山3319號墓卷雲紋瓦當銘文識別」⁹⁹⁾에서

95) 尹国宥, 2002, 「高句麗瓦当の研究」, 加藤瑛二(編著), 『中国文化の考古地理学的研究』, 一誠社.
 96)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2002, 『모스크바 국립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97)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98) 千田剛道, 2002, 「高句麗·百濟都城における瓦の使用」, 『文化財論叢III』(奈良文化財研究所 創立50周年記念論文集), 奈良文化財研究所.
 99) 張福有, 2004, 「集安禹山3319號墓卷雲紋瓦當銘文識別」, 『東北史地』, 1.

JYM3319에서 출토된 권운문와당 파편 세 점을 복원하여 주연부에 있는 명문을 해석하고 그 명문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밖에 JYM3319의 피장자도 검토하였다.

2004년 2월에 북한학자 리광희는 「청암동토성에서 새로 발견된 수기와의 연대」¹⁰⁰⁾에서 당시 북한학자들이 청암리토성에서 발굴한 와당과 수기와의 형식과 연대를 검토하였다. 그는 청암리 토성의 일부 와당은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2004년 5월에 董峰은 「集安洞溝古墓羣禹山墓區2112號墓」¹⁰¹⁾에서 JYM3319의 고분형태와 출토유물을 검토하였다. 고분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의 연판 형태와 태왕릉과 장군총에서 발견된 연화문와당의 형태를 연구하고, 이 시기 고분의 선후관계, 고분의 연대와 고분의 장구, 고분 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2004년 6월에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은 『集安市高句麗王陵』¹⁰²⁾, 『丸都山城』¹⁰³⁾, 『國內城』¹⁰⁴⁾을 출판하였다. 이 세 권의 보고서는 1990년대부터 2003년대까지 중국학계가 집안지역의 발굴조사에서 얻은 성과물이다. 천추총, 태왕릉과 장군총 등에서 출토된 와당을 비롯한 유물에 근거하여 피장자와 연대 등을 밝혔다. 환도산성 궁전유적 등의 층위와 유물에 견주어 볼 때, 그 하한은 342년이고, 환도산성의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과 귀면문와당의 연대는 342년까지로 보고 있다. 국내성의 모든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에 근거하여 연대에 대한 제 문제를 검토하였다.

2004년 8월에 경희대 趙美貞은 「高句麗蓮花文瓦當에 對한 研究」¹⁰⁵⁾의 석사논문에서 고구려 연화문와당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고구려 연화문와당에 대한 형식분류와 함께 고구려 와당의 형식도 설정하였다. 연화문와당을 복선연화문, 무복선연화문, 연화복합문 등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처음으로 연화복합문의 개념을 제시하여 고구려 와당의 형식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05년 2월에 북한학자 윤광수는 「고구려 수기와 막새의 기하무늬에 대하여」¹⁰⁶⁾에서 고구려와 당의 와당을 크게 식물무늬, 동물무늬, 기하무늬 등으로 나누고, 기하무늬 와당의 형식과 연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고구려 기하무늬 와

100) 리광희, 2004, 「청암동토성에서 새로 발견된 수기와의 연대」, 『조선고고연구』, 1, 사회과학출판사.

101) 集安市博物館(董峰), 2004, 「集安洞溝古墓羣禹山墓區2112號墓」, 『北方文物』, 2.

10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市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10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 『丸都山城』, 文物出版社.

10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 『國內城』, 文物出版社.

105) 趙美貞, 2004, 「高句麗蓮花文瓦當에 對한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06) 윤광수, 2005, 「고구려수기와막새의 기하무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 사회과학출판사.

당의 원류는 태양과 빛 무늬의 영향을 받았다고 기술을 하고 있다.

2005년 2월에 桃崎祐輔는 「高句麗太王陵出土瓦・馬具からみた好太王陵説の評價」¹⁰⁷⁾에서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권운문와당, 연화문와당, 태왕릉의 마구와 관련된 다른 유물들을 검토하였다. 천추총, 태왕릉과 장군총에 대한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천추총의 연대를 4세기 말로 보았고, 태왕릉의 피장자는 광개토왕이며, 장군총은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하였다.

2005년 2월에 송계현은 「桓仁과 集安의 고구려 갑주」¹⁰⁸⁾에서 桓仁과 集安 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묘사된 갑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최근 보고된 甲冑資料와 더불어 갑주 양상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집안지역에서 출토된 권운문와당과 연화문와당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와당을 비교 검토하여, 禹山992號墓와 麻線2100號墓 및 천추총의 연대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는 천추총의 시기가 태왕릉보다 이르고 태왕릉은 장군총보다 먼저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 5월에 김성구는 「고구려의 기와와 전돌」¹⁰⁹⁾에서 고구려 와당과 전돌을 중심으로 일련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는 고구려 기와의 무늬와 형태 등에 따라 기본 기와, 막새, 마루 기와, 문자 기와, 특수 기와 등 17가지로 분류하고, 와당의 변천에 대해서는 초기양식과 후기양식의 2단계로 나누었다. 초기를 325년쯤에서 427년까지로 보았고, 후기는 427년부터 668년까지로 보았다. 그 밖에 벽돌의 용도와 형태 등도 검토하였다.

2005년 5월에 최맹식은 「고구려기와의 특징」¹¹⁰⁾에서 고구려 기와의 종류와 특징 및 기와의 제작기법 등을 삼국의 기와와 서로 비교 고찰하였다. 고구려 와당의 등장과 외형적 구조와 문양의 특징 및 시기적 변화를 연구하였다. 고구려는 중국과 빈번한 교류가 있었으므로 4세기 후반경이나 늦어도 5세기 초에는 연화문, 인동문, 보상화문, 귀면문 등이 등장했을 것으로 보았으며, 평양으로 천도한 후에는 연화문뿐만 아니라 다른 무늬도 다량 출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 6월에 谷豊信은 「平壤遷都前後の高句麗瓦に関する覚書-東京国立博物館 収蔵資料の紹介-」¹¹¹⁾에서 평양천도 전후의 고구려 와당을 중심으로 한 연구

107) 桃崎祐輔, 2005, 「高句麗太王陵出土瓦・馬具からみた好太王陵説の評價」, 『海と考古學』, 六一書房.

108) 송계현, 2005, 「桓仁과 集安의 고구려 갑주」, 『북방사논총』, 3, 고구려 연구재단.

109) 김성구, 2005, 「고구려의 기와와 전돌」,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 박물관.

110) 최맹식, 2005, 「고구려기와의 특징」,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박물관.

111) 谷豊信, 2005, 「平壤遷都前後の高句麗瓦に関する覚書-東京国立博物館収蔵資料の紹介-」, 『MUSEUM』, NO.596, 東京国立博物館.

개항 및 도쿄국립박물관에 수집된 토성리 고구려 와당의 소장 경위와 와당의 크기 등을 소개하였다.

2005년 6월에 김희찬은 「국내성지역에서 새로 발굴된 와당연구-연화문와당을 중심으로」¹¹²⁾에서 국내성 지역에서 새롭게 발견된 연화문와당을 중심으로 연화문와당의 형태 분석 및 문양변화를 검토하였다. 태왕릉 출토 연화문와당의 형식분류를 하고 그 선후관계도 설명하였다. 태왕릉에서 출토된 일부 연화문와당 연판의 형태가 안악3호분에 있는 연화문와당의 형태와 유사하므로, 그 연대를 4세기 중엽으로 설정하였다.

2005년 6월에 단국대 백종오는 「高句麗기와 研究」¹¹³⁾를 주제로 하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고구려의 평기와와 와당에 대한 일련의 문제를 연구하였다. 그는 고구려 기와의 기원과 종류, 고구려 와당의 형성과 특징, 고구려 평기와의 제작기법을 고찰하고, 고구려 기와의 변천과 왕권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특히, 중국 집안지역과 북한 평양지역의 고구려유적에서 출토된 와당의 형식과 연대, 제작기법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고구려 기와에 대해 연구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의의가 있다.

2005년 8월에 북한한자 김영일은 「백제전기 기와에 대한 고찰」¹¹⁴⁾에서 백제전기 몽촌토성, 풍납토성, 석충동4호무덤 등에서 출토된 와당의 크기 및 형식과 연대를 검토하였다. 특히 백제와 고구려 와당의 관계를 밝히고 백제 전기의 기와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고 기술하였다.

2005년 9월에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은 『고구려와당』¹¹⁵⁾을 출판하였다.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이 소장한 88점의 고구려 와당을 대상으로 하여 만든 도록이다. 와당의 정면과 뒷면, 측면부분을 모두 관찰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책의 부록에는 김성구의 「고구려 기와의 분류와 그 변천」이 실려 있다. 그는 고구려 와당의 형식과 변천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005년 11월에 孫仁傑은 「通溝古墓羣禹山JYM3319號墓發掘報告」¹¹⁶⁾에서 JYM3319호 고분의 형태 및 출토유물을 소개하고, 피장자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권운문와당에 새겨진 명문 乙卯, 丁巳의 연대 해석은 張福有의 관점(을묘년는 355년, 정사년는 357년)을 참고로 하였고, 와당을 비롯한 유물과 고분형태로 볼 때, 피장자는 東夷校尉 崔愨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2005년 12월에 김희찬은 「고구려 연화문와당에 반영된 연화의 형태적 특

112) 김희찬, 2005, 「국내성지역에서 새로 발굴된 와당연구-연화문와당을 중심으로」, 『고구려연구』, 19, 고구려연구회.

113) 白種伍, 2005, 「高句麗기와 研究」, 檀國大學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14) 김영일, 2005, 「백제전기 기와에 대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3, 사회과학출판사.

115)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05, 『고구려와당』,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116) 孫仁傑, 2005, 「通溝古墓羣禹山JYM3319號墓發掘報告」, 『東北史地』, 6.

성」 117)에서 연화문와당의 연화 형태와 연화복합와당의 연화 형태 분석을 통해 연화의 외형과 형태 변화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태왕릉과 천추총을 비롯한 집안지역 및 평양지역의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연화의 외형과 구획선과 권선의 접속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천추총과 태왕릉 연화문와당의 변천과정과 연대를 설정하였다.

2006년 3월에 余昊奎는 「集安地域 고구려 超大型積石墓의 전개과정과 被葬者 문제」 118)에서 超大型積石墓의 구조와 입지, 瓦當을 통해본 超大型積石墓의 조영 시기, 陵域과 이른바 ‘祭臺’의 성격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집안지역에서 출토된 권운문와당을 형식분류하고, 각 형식의 와당의 연대도 비정하였다. 乙丑명(329년) 권운문와당이 출토된 서대묘(JYM500)는 미천왕릉으로, 戊戌명(338년) 권운문와당이 출토된 JYM992는 왕족이나 귀족의 무덤으로, 천추총은 고국원왕릉으로, 태왕릉은 고국양왕릉으로 추정하였다. 와당과 고분의 형태로 보아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의 순서로 조영되었고, 태왕릉의 ‘Y’자형 연화문와당은 고구려의 가장 초기형태의 연화문와당이라고 보았다.

2006년 3월에 崔鍾澤은 「集安‘高句麗王陵’出土遺物の 諸問題」 119)에서, 중국에서 2004년 6월에 출판된 고구려 왕릉에 대한 보고서(『集安高句麗王陵』)를 바탕으로 집안지역의 고구려 왕릉의 일련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고구려 왕릉에서 출토된 권운문와당과 연화문와당을 비롯한 고구려 와당의 형식과 변화를 연구하고, 와당의 변천과 특징 및 왕릉의 편년 등을 밝혔다.

2006년 3월에 김희찬은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형식과 변천-구획선 연화문와당을 중심으로-」 120)에서 구획선 연화문와당의 양상과 지역군의 변천관계 및 상대편년을 전면 연구하였다. 특히, 태왕릉 출토 와당의 연대가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중엽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6년 4월에 김희찬은 「고구려 와당의 채색과 태토 색조 검토」 121)에서 고구려 와당에 보이는 채색과 고분벽화에 나타난 채색 와당, 그리고 적색 태토를 띄는 와당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고구려 와당은 색깔에 따라 회색계통과 적색계통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회색 와당은 고분에서 사용하였으며, 적색 와당은 도성에서 사용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집안지역의 고구려

117) 金希燦, 2005, 「고구려 연화문와당에 반영된 연화의 형태적 특성」, 『白山學報』, 白山學會.
 118) 余昊奎, 2006, 「集安地域 고구려 超大型積石墓의 전개과정과 被葬者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41, 한국고대사연구회.
 119) 崔鍾澤, 2006, 「集安‘高句麗王陵’出土遺物の 諸問題」, 『한국고대사연구』, 41, 한국고대사연구회.
 120) 김희찬, 2006,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형식과 변천-구획선 연화문와당을 중심으로-」, 『고구려연구』, 22, 고구려발해학회.
 121) 金希燦, 2006, 「고구려 와당의 채색과 태토 색조 검토」, 『白山學報』, 74, 백산학회.

와당을 색깔을 바탕으로 형식분류하고, 경희대 박물관에 소장된 고구려 와당을 비롯하여 평양지역 고구려 와당의 색깔을 연구하였다. 그 밖에 안악3호분 건물에 있는 채색 와당 그림을 통해 고구려 적색 와당의 출현과 확산 및 적색에서 회색으로 변천과정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2006년 6월에 김희찬은 「고구려 연화문 복합문 와당의 형식과 그 특성」¹²²⁾에서, 연화복합문와당의 문양을 분석하고, 연화복합문와당의 형식분류와 상대편년을 검토하였다. 고구려 최초의 연화복합문와당은 토성리에서 출토되었으며, 그 연대를 5세기 중엽에서 말엽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6년 6월에 李熙濬은 「太王陵의 墓主는 누구인가?」¹²³⁾에서 중국에서 출판된 『集安市高句麗王陵』와 태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의 문제를 검토하고, 태왕릉의 피장자는 고국양왕이라고 추측하였다. 그중에 태왕릉을 비롯한 집안지역의 고구려 권운문와당과 연화문와당도 연구했으나, 주로 일본 학자 桃崎佑輔 및 한국 학자 김희찬의 관점을 재검토하였다.

2006년 6월에 백종오는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¹²⁴⁾을 출판하고 그의 박사학위논문(「高句麗기와 研究」)을 바탕으로 고구려 기와에 대한 일련의 문제를 다시 검토하였다.

2006년 11월에 白種伍는 「高句麗瓦當の起源と出現」¹²⁵⁾에서 고구려 기와의 기원과 고구려 와당의 기원을 검토하였다. 집안지역에서 출토된 기와와 권운문와당을 정리하고, 문헌에 따라 태조왕대에 출현한 ‘太寧四年’ 명문을 연구하여, 고구려 권운문와당이 4세기 초에 출현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2006년 12월에 耿鐵華는 「集安新出文字瓦當及解讀」¹²⁶⁾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성과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권운문와당의 형식과 명문을 검토하였다. 와당은 명문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고 명문의 해석을 토대로 연대를 추측하였다. 특히, 甲戌명 와당의 연대가 314년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 12월에 고려대 李秀珍은 「高句麗 蓮花文瓦當 編年 研究」¹²⁷⁾로 석사학위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중국과 북한, 한국에서 출토된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집안지역과 평양지역의 고구려 연화문와당을 각각 3기로 설정하였다. 특히, 고구려 최초의 연화문와당은 태왕릉에서 출토된 와당라

122) 김희찬, 2006, 「고구려 연화문 복합문와당의 형식과 그 특성」, 『고구려연구』, 23, 고구려 발해학회.

123) 李熙濬, 2006, 「太王陵의 墓主는 누구인가?」, 『한국고고학보』, 59, 한국고고학회.

124) 백종오, 2006,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주류성.

125) 白種伍, 2006, 「高句麗瓦當の起源と出現」, 『高麗美術館紀要』, 第5号(有光教一先生白壽記念論叢), 財団法人高麗美術館.

126) 耿鐵華, 2006, 「集安新出文字瓦當及解讀」, 『北方文物』, 4.

127) 李秀珍, 2006, 「高句麗 蓮花文瓦當 編年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고 보았으며, 그것의 출현연대는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후반까지라고 보았다.

2006년 12월에 門田誠一은 「瓦からみた高句麗の守墓制-広開土王碑文研究における‘守墓人烟戸’条の位置づけ-」에서 고구려 명문권운문와당을 고구려 守墓制度和 관련된 일련의 문제로서 검토하였다.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와당의 용도도 연구하였다. 그 밖에 ‘谷民’을 다시 해석하였고, 고구려 기와 생산 등과 관련된 공방체계도 분석하였다.

2007년 1월에 崔鍾澤, 李秀珍 외는 『紅蓮峰第1堡壘-發掘調査綜合報告書-』¹²⁸⁾를 출판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홍련봉 제1보루의 입지 환경과 발굴조사 방법 및 경과를 비롯하여 출토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였다. 출토유물로는 토기, 와당, 기와, 철기 등과 연화문와당 7점이 있다. 한국에서 최초로 고구려 연화문와당이 발견된 예이므로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홍련봉 제2보루에서 출토된 ‘庚子’명(520년) 접시와 고구려 한강유역 진출의 역사에 따라 홍련봉 제1보루 연화문와당의 연대는 6세기 전반 경으로 추정하였다.

2007년 3월에 秋山進午은 「集安市博物館參觀札記」¹²⁹⁾에서 집안박물관의 소장품을 소개하고, 집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명문권운문와당에 대한 일련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일부 명문권운문와당의 연대도 추측하였다.

2007년 3월에 李龍彬, 華玉冰, 崔麗萍은 「遼寧丹東 鳳凰山山城 首次發掘 取得重大收獲」¹³⁰⁾에서 봉황산산성에 대한 개황을 소개하였다. 瞭望臺와 치, 1호 문지, 2호 문지 등이 발굴되었고, 고구려 연화문와당을 비롯한 기와와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2007년 3월에 梁淙鉉은 「高句麗法輪文軒丸瓦に対する考察」¹³¹⁾에서 고구려法輪紋와당의 명칭과 의미, 형식 등을 전면 검토하였다.法輪紋와당의 형식은法輪紋과法輪紋+圓点紋,法輪紋+蓮蓬紋,法輪紋+蓮花紋 네 가지로 파악하였다. 그 밖에 신라와 통일신라의法輪紋와당도 소개하였다.

2007년 8월에 耿鐵華는 「集安出土卷雲紋瓦當研究」¹³²⁾에서 2006년에 발표한 논문(「集安新出文字瓦當及解讀」)을 바탕으로 집안지역의 권운문와당의 개괄적인 현황과 형식 및 연대 등을 검토하였다. 권운문와당의 연대를 봉상왕대

128) 崔鍾澤, 李秀珍외, 2007, 『紅蓮峰 第1堡壘-發掘調査綜合報告書-』, 高麗大學校考古環境研究所.

129) 秋山進午, 2007, 「集安市博物館參觀札記」, 『渡来遺物からみた古代日韓交流の考古学的研究』, 株式会社田中プリント.

130) 李龍彬, 華玉冰, 崔麗萍, 2007, 「遼寧丹東鳳凰山山城首次發掘取得重大收獲」, 『中國文物報』, 3월23일.

131) 梁淙鉉, 2007, 「高句麗法輪文軒丸瓦に対する考察」, 『帝塚山大学考古学研究所研究報告』, IX, 帝塚山大学考古学研究所.

132) 耿鐵華, 2007, 「集安出土卷雲紋瓦當研究」, 『東北史地』, 4.

(292-300), 미천왕대(300-331), 고국원왕대(331-371), 소수림왕대, 고국양왕대(371-391)의 4기로 구분하였다.

2007년 9월에 심광주 외 2명은 『漣川 瓠蘆古壘III(第2次 發掘調査 報告書)』¹³³⁾에서 해당 유적의 조사경위와 과정, 유적층위, 출토유물 등을 소개하였다. 출토유물로는 고구려 토기, 와당, 기와, 벽돌, 철기 등과 고구려 연화문와당 1점이 보고되었다. 한국 고구려유적에서 발견된 두 번째 고구려 연화문와당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고구려가 남쪽으로 진출한 역사로 볼 때, 호로고루 연화문와당의 연대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엽일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9월에 강현숙은 「고구려 고분 출토 와당의 변천 연구」¹³⁴⁾에서 고분에서 출토된 권운문와당의 형식과 변천을 연구하였다. 중국, 낙랑, 삼연의 와당과 평양일대의 고구려 와당을 전면 검토한 결과, 고구려 최초의 연화문와당은 태왕릉의 출토품이라고 보았으며, 그 연대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추정하였다. 특히, 삼연의 연화문와당은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2007년 10월에 呂學明, 李新全 등은 「遼寧撫順市 施家墓地 發掘簡報」¹³⁵⁾를 통해 施家고분군의 위치와 개황, 고분구조, 출토유물, 장구, 인골, 고분군의 연대, 주변에 관련된 유적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출토유물에 근거하여 이 고분군이 고구려 만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고이산성에 부속된 고분군으로 보았다. 1호분에서는 고구려 적색 연화문와당 파편 한 점이 출토되었다.

2007년 12월에 山崎信二는 「7世紀 後半의 기와로 본 朝鮮三國과 日本의 관계」¹³⁶⁾에서 7세기 후반 한반도와 일본의 암막새와 와당의 개황, 상호관계를 전면 연구하였다. 그는 일본 湖東式 연화문와당 연구에서 호동식 연화문와당이 고구려 와당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 2월에 李龍彬, 司偉偉, 崔麗萍은 「遼寧丹東 鳳凰山山城 考古 新收獲」¹³⁷⁾에서 瞭望臺와 산성 내 북부지역을 발굴조사하고 고구려 연화문와당과 토기, 철기 등 유물 300여 점을 출토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008년 2월에 조창원, 방기영은 「堤川 長樂寺址 出土 瓦當(와당)의 高句麗的 要素」¹³⁸⁾에서 제천 장락사지에서 출토된 와당재료, 장락사지 출토 와당의 고구

133) 심광주, 정나리, 이형호, 2007, 『漣川 瓠蘆古壘III』(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34) 강현숙, 2007, 「고구려 고분 출토 와당의 변천 연구」, 『한국고고학보』, 64, 한국고고학회.

135)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撫順市博物館(呂學明, 李新全외), 2007, 「遼寧撫順市施家墓地發掘簡報」, 『考古』, 10.

136) 山崎信二, 2007, 「7世紀 後半의 기와로 본 朝鮮三國과 日本의 관계」, 『韓日文化財論集I』, 한국국립문화재연구소.

137) 李龍彬, 司偉偉, 崔麗萍, 2008, 「遼寧丹東鳳凰山山城考古新收獲」, 『中國文物報』, 2월15일.

138) 조원창, 방기영, 2008, 「堤川 長樂寺址 出土 瓦當(와당)의 高句麗的 要素」, 『중원문화재연

려 요소(陽刻의 蓮花突帶紋, 蓮花사이의 餘白, 間瓣의 裝飾化) 등을 검토하였다. 제천 장락사지 와당의 무늬는 고구려 와당의 영향을 받았고 제작 시기는 7세기 말 후반 이후로 추정하였다.

2008년 3월에 森郁夫, 金誠龜는 『日韓の瓦』 139)에서 일본과 한반도 고대 와당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고구려 와당의 등장과 형식 등도 검토하였다.

2008년 3월에 王飛峰, 夏增偉는 「高句麗丸都山城出土瓦當研究」 140)에서 집안 환도산성의 고구려 와당의 형식과 용도, 산성과 궁전구역에서의 와당의 분포, 궁전유적의 연대, 변천, 와당 제작기법 등을 연구하였다. 고구려 와당의 단계를 설정하고, 집안지역의 권운문와당과 연화문와당의 연대도 설정하였다. 특히 와당을 비롯한 고구려 유물에 견주어 볼 때, 지금까지 발굴조사한 궁전유적의 상한은 불교의 유입시기(372년)일 것이고, 평양천도 이후에 점차 폐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 3월 북한학자 김경살은 「안학궁터에서 나온 수기와막새들의 무늬에 대한 고찰」 141)에서 안학궁유적의 고구려 와당을 체계적으로 형식분류하고, 청암리토성과 대성산성의 와당과 비교연구하였다. 각 형식별 와당의 연대를 설정하고 와당의 무늬를 고찰하여 안학궁 궁전유적의 시기를 5세기 초 중엽에서 6세기 후반까지로 추정하였다. 안학궁 출토 와당과 신라말기 및 고려시대 와당과의 관계도 연구하였다.

2008년 5월에 김희찬은 「4세기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개시연대에 대한 연구」 142)에서 4세기 연화문와당 출토 현황과 권운문와당에서 연화문와당으로의 변화추이를 연구하고, 연화문와당과 고분벽화에서 표현된 와당을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집안지역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과 권운문와당을 형식분류하고, 각 형식의 연대 및 변천특징을 연구하였으며, 권운문와당이 사라지는 시점이 바로 연화문와당의 등장 시기로 생각하였다. 특히, 안악3호분의 연화문에 근거하여 고구려 연화문와당은 4세기 중엽 경에 출현하였다고 보았다.

2008년 6월에 吉井秀夫, 崔英姬는 「京都大学総合博物館 所藏山田鈞次郎 寄贈 고구려 기와의 검토」 143)에서 山田鈞次郎이 교토대학교 종합박물관에 기증한 고구려 기와를 소개하였다. 기증경위와 기와의 개요 및 와당 제작기술을 밝히고,

구」, 2.

139) 森郁夫, 金誠龜, 2008, 『日韓の瓦』, 帝塚山大学出版社.

140) 王飛峰, 夏增偉, 2008, 「高句麗丸都山城出土瓦當研究」, 『東北史地』, 2.

141) 김경살, 2008, 「안학궁터에서 나온 수기와막새들의 무늬에 대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1, 사회과학출판사.

142) 김희찬, 2008, 「4세기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개시연대에 대한 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45.

143) 吉井秀夫, 崔英姬, 2008, 「京都大学総合博物館所藏山田鈞次郎寄贈 고구려 기와의 검토」, 『일본소재고구려유물II』, 東北亞歴史財団.

고구려 와당의 무늬를 복선연화문와당, 연화복합문와당, 연화문와당, 기타 문양의 와당으로 나누고 있다. 그 밖에 기증받은 고구려 와당의 유물번호, 파손상황, 출토지점, 수량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2008년 6월에 千田剛道는 「高句麗瓦編年に関する二、三の問題」¹⁴⁴⁾에서 집안지역에서 최근 발굴조사된 성곽 및 와당의 편년, 한국 경기도 북부의 고구려 보루유적과 와당의 편년, 그리고 안학궁유적의 연대와 고구려말기의 와당을 검토하였다.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와당의 선후순서에 대한 田村晃一과 谷豊信의 관점에 동의하고, 桃崎祐輔의 관점도 반영하였다. 한국의 호루고루, 흥련봉1보루 출토 와당의 연대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까지로 비정하였다.

2008년 7월에 김희찬은 「고구려 권운문와당 연구」¹⁴⁵⁾에서 권운문와당의 유적별 현황과 형태분석, 문양변화 등을 연구하였다. 서대묘, 우산하992호분, 우산하3319호분, 마선구2100호분, 천추총의 권운문와당을 중심으로 집안지역의 고구려 권운문와당의 형식, 명문, 편년, 변천, 특징, 일부 와당의 연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권운문와당은 4세기 초엽에 등장하고 4세기 중엽에서 말엽 사이에 소멸하였으며, 연화문와당은 4세기 중엽~말엽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2008년 11월에 김성구는 「동아시아 古代기와의 變遷」¹⁴⁶⁾에서 중국, 한국, 일본의 기와를 간단히 소개하였다. 한국의 기와부분에서는 고구려 와당의 분기, 무늬, 특징, 색조 등을 전면적으로 설명하였다.

2008년 11월에 崔孟植는 「百濟와 新羅기와에 보이는 高句麗的 要素」¹⁴⁷⁾에서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중국 漢代 와당과 남북조시대의 와당 및 고구려 기와의 특징과 백제기와와 신라기와에서의 고구려적 요소를 연구하였다. 고구려 와당의 무늬와 제작기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백제 와당과 신라 와당이 고구려 와당으로부터 받은 영향 관계를 검토하면서 고구려 연화문와당을 연관의 형태와 자방의 형태 등에 따라 형식분류하였다.

2008년 11월에 白種伍는 「高句麗 卷雲文 瓦當의 成立과 그背景」¹⁴⁸⁾에서 고구려 권운문와당의 주요한 사례를 들고, 권운문와당의 변천과 명문의 의미 및 사상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권운문와당의 무늬는 漢代 銅鏡 무늬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144) 千田剛道, 2008, 「高句麗瓦編年に関する二、三の問題」, 『奈良文化財研究所紀要』, 奈良文化財研究所.

145) 김희찬, 2008, 「고구려 권운문와당 연구」, 『高句麗渤海研究』, 31, 고구려발해학회.

146) 김성구, 2008, 「동아시아 古代기와의 變遷」, 『고대 동아시아의 기와』, 한국기와학회.

147) 崔孟植, 2008, 「百濟와 新羅기와에 보이는 高句麗的要素」, 『고대 동아시아의 기와』, 한국기와학회.

148) 白種伍, 2008, 「高句麗 卷雲文 瓦當의 成立과 그背景」, 『고대 동아시아의 기와』, 한국기와학회.

2008년 12월에 王飛峰은 「漢唐時期東亞文化的交流-以人面紋瓦爲中心」¹⁴⁹⁾에서 고대 동아시아지역의 인면문기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인면문반와당과 인면문원형와당, 그리고 인면문착고를 포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하였다. 특히, 요령성 봉황산산성에서 출토된 수당시대 고구려 인면문와당을 소개하고, 백제 인면문와당과 신라의 인면문와당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한편, 베트남과 일본에서 출토된 인면문와당은 중국 육조시대 및 수당시대의 인면문와당의 교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2009년 3월에 服部敬史은 「高句麗瓦当文の研究-和光大学寺門コレクション高句麗を瓦手がかりとして」¹⁵⁰⁾에서 和光大学 寺門古瓦資料室에 소장한 고구려 기와의 개괄적 현황, 고구려 기와의 연구사, 형식 분류, 각 형식 변천, 각 형식의 공반 유물 및 연대 근거, 고구려 와당 문양의 분기 및 和光大学 寺門古瓦資料室에 소장한 고구려 와당의 연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2009년 3월에 周向永은 「西豊城子山山城始建年代再考」¹⁵¹⁾에서 성자산산성의 발굴조사 현황을 소개하였다. 성자산산성의 명칭, 고구려 千里長城과 성벽과 성문 등의 문제를 연구하고, 그 축조 연대가 隋唐之際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성자산산성의 연화문와당을 집안지역의 고구려 연화문와당과 서안지역의 당대 연화문와당, 그리고 길림지역의 발해 연화문와당을 비교하여 그 연대를 고구려 말기로 비정하였다.

2009년 3월에 金有植은 「五~六世紀の新羅と周辺諸國の瓦」¹⁵²⁾에서 5~6세기 신라 주변제국의 와당의 제작기법과 6세기 신라 와당의 연원과 편년 등을 검토하였다. 고구려계와 백제계 연화문와당의 관계를 논하고, 고구려계 연화문와당이 신라 와당의 형성에 영향을 마쳤다고 주장하였다. 신라지역의 일부 연화문와당의 연화무늬가 고구려 벽화 중에 표현된 연화문이나 연화문와당의 연판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신라 연화문와당 중 고구려계와 백제계에 해당하는 와당의 출현시간 및 고구려계 신형식의 출현시점을 설명하였다.

2009년 3월에 亀田修一은 「朝鮮半島における造瓦技術の変遷」¹⁵³⁾에서 낙랑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수키와와 암키와를 분석하고, 와당의 제작기법을 연

149) 王飛峰, 2008, 「漢唐時期東亞文化的交流-以人面紋瓦爲中心」, 『邊疆考古研究』, 7, 科學出版社.

150) 服部敬史, 2009, 「高句麗瓦当文の研究-和光大学寺門コレクション高句麗を瓦手がかりとして」, 『和光大学表現学部紀要』, 10.

151) 周向永, 2009, 「西豊城子山山城始建年代再考」, 『東北史地』, 2.

152) 金有植, 2009, 「五~六世紀の新羅と周辺諸國の瓦」,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造瓦技術の変遷と伝播』, 奈良文化財研究所.

153) 亀田修一, 2009, 「朝鮮半島における造瓦技術の変遷」,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造瓦技術の変遷と伝播』, 奈良文化財研究所.

구하고 형식분류를 하였다. 또한 고구려 와당이 유행한 시간과 출토유적의 성격 및 와당의 무늬 등을 설명하고, 일부 권운문와당의 연대도 추측하였다.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출토 연화문와당의 변천관계에 대한 谷豊信의 1989년 논문의 관점을 소개하였으나,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009년 7월에 中國文物地圖集 遼寧分冊編輯委員會는 『中國文物地圖集·遼寧 分冊』 154)을 출판하여 요령성의 구석기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중요한 유적과 고분군의 위치, 개황 및 출토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였다. 여기에서 丹東市 靄河尖古城, 鳳城市 봉황산산성, 무순시 고이산성, 서풍현 성자산산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을 비롯한 유물들을 설명하였다.

2009년 7월에 김희찬은 「고구려 귀면문와당의 형식과 변천」 155)에서 고구려 귀면문와당의 전개양상과 현황 및 형태분석과 시기적 변천을 검토하였다. 집안과 평양지역의 귀면문와당의 출토상황을 파악하고, 귀면문와당의 치아 수량과 같은 특징에 따라 형식분류를 실시한 후 각 형식의 연대도 설정하였다. I식은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초엽에 유행하였으며, II식의 연대는 6세기 초엽에서 7세기에 유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9년 8월에 張雪巖은 「集安洞溝古墓羣禹山墓區2112號墓」 156)에서 고분 및 玄室에서 출토된 철기, 장식구, 암키와, 와당 등의 유물을 보고하였다. 연화문와당의 무늬는 태왕릉의 일부 와당과 유사하며, 그 밖에 출토된 유물과 고분의 형태, 玄室의 구조 등에 근거하여 고분의 시대를 4세기대로 추정하였다.

2009년 11월에 梁淙鉉은 「高句麗の軒丸瓦-帝塚山大学附属博物館所藏品を中心として-」 157)에서 帝塚山大学 附属博物館에 소장한 고구려 와당을 바탕으로 형식분류, 출토유적, 제작기법, 색깔, 組合 연화문와당의 同范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고구려 귀면와의 제작기법도 분석하였으며, 논문 부록부분에는 帝塚山大学 附属博物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구려 와당에 대한 형식분류, 크기, 색깔, 접합기법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2009년 11월 王志剛 등은 「吉林省集安市實驗小學發掘地点考古發掘簡報」 158)에서 2008년에 集安市 實驗小學發掘地点의 발굴조사 결과로 층위, 기와,

154) 中國文物地圖集, 遼寧分冊編輯委員會, 2009,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 西安地圖出版社.

155) 김희찬, 2009, 「고구려 권운문와당의 형식과 변천」, 『高句麗渤海研究』, 39, 고구려발해학회.

15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張雪巖), 2009, 「集安洞溝古墓羣禹山墓區2112號墓」, 『吉林集安高句麗墓葬報告集』, 科學出版社.

157) 梁淙鉉, 2009, 「高句麗の軒丸瓦-帝塚山大学附属博物館所藏品を中心として-」, 『東アジア瓦研究』, 1.

15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王志剛외), 2009, 「吉林省集安市 實驗小學發掘地点考古發掘簡報」, 『北方文物』, 4.

토기, 석기, 開元通寶 등을 보고하였다. 그 중 고구려 연화문와당 두 점이 환도산성에서 출토된 일부 연화문와당의 무늬와 유사하므로 여기서 출토된 유물의 시기는 환도산성 출토품의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2009년 11월에 주홍규는 「集安지역 고구려기와의 제작기법과 변천-일본 소개 기와를 중심으로-」¹⁵⁹⁾에서 1945년 8월 전에 일본학자가 수집한 집안지역의 와당과 암키와와 수키와를 중심으로 집안지역 고구려기와를 분석하였고, 집안지역 고구려 기와의 제작기법과 변천을 전면 검토하였다. 특히, 환도산성과 동대자의 와당 뒷면의 깎인 흔적과 부여 군수리절터에서 출토된 와당의 깎인 흔적을 비교하여 고구려의 이러한 제작기법은 6세기 후반 이전의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2010년 1월에 김희찬은 「고구려 인동문와당의 형태와 문양 변화」¹⁶⁰⁾에서 고구려 인동문와당의 전개양상과 형태분석 및 문양변화를 연구하였다. 집안과 평양지역의 고구려 인동문와당의 출토 현황과 형식을 검토하고, 각 형식의 연대도 추정하였다. 무늬에 따라 3식으로 분류하였는데, I식은 5세기 말~6세기 초엽 경, II식은 6세기 중엽에서 말엽까지로, III식은 7세기의 것으로 보았다.

2010년 1월에 조원창은 『한국 고대 와당과 제와술의 교류』¹⁶¹⁾를 출판하였다. 백제 와당과 제와술의 교류, 신라 와당과 제와술의 교류, 고구려 와당과 제와술의 교류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이 책은 고대 동북아시아의 대외 교류, 와당 기술의 보급과 문화적 전파 등을 매우 넓은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와당은 그 제작방법의 특성상 고구려 와당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2010년 12월에 朱洪奎는 「高句麗積石塚出土卷雲文瓦の年代再檢討」¹⁶²⁾에서 집안지역 고구려 적석총에서 출토된 권운문와당의 출토현황과 형식을 연구하고 권운문와당의 연대도 비정하였다.

2010년 3월에 김희찬은 「발해 연화문와당의 고구려 계승성 검토」¹⁶³⁾에서 발해 서고성에서 출토된 와당의 현황 및 발해 와당과 고구려 연화문와당을 비교 연구하고, 발해 와당의 계통과 고구려의 계승성을 검토하였다. 서고성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의 분석을 통해, 일부 발해 연화문와당이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무늬를 계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10년 3월에 下野玲子는 「會津八一の戦前蒐集品に関する調査報告(1)」¹⁶⁴⁾

159) 주홍규, 2009, 「集安지역 고구려기와의 제작기법과 변천-일본 소개 기와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66.

160) 김희찬, 2010, 「고구려 인동문와당의 형태와 문양 변화」, 『韓國思想과 文化』, 第50輯.

161) 조원창, 2010, 『한국 고대 와당과 제와술의 교류』, 서경문화사.

162) 朱洪奎, 2010, 「高句麗積石塚出土卷雲文瓦の年代再檢討」, 『古文化談叢』, 64, 九州古文化研究會.

163) 김희찬, 2010,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고구려 계승성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36, 고구려 발해학회.

에서 會津八一이 1945년 이전에 수집한 유물들을 소개하였다. 그 중 일부 고구려 와당들의 소장 경위와 수량 등과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였다.

2010년 4월에 김희찬은 「발해 인동문계 와당의 계통과 고구려 연관성 검토」 165)에서 발해 인동문계 와당과 고구려 인동문계 와당의 형태를 비교하고 발해 인동문계 와당의 계통을 연구하여, 발해 인동문계 와당은 평양지역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고구려의 인동문계 와당의 특징을 계승하였다고 주장했다.

2010년 5월에 김성태는 「태왕릉의 피장자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166)에서 태왕릉의 피장자 문제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우산하 992호, 장군총, 장천2호분, 전 동명왕릉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태왕릉의 피장자는 광개토왕으로, 전동명왕릉은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하였고, 우산하992호묘, 천추총, 우산하 3319호묘의 권운문와당, 태왕릉, 장군총, 장천2호묘의 연화문와당을 연구하였다.

2010년 5월에 朱洪奎는 「瓦から見集安地域高句麗積石塚の年代再検討」 167)에서 기존의 연구와 집안지역 고구려 적석총에서 출토된 蓮蕾紋와당의 형식 분류(문양의 형식 분류, 제작 기법의 형식 분류), 집안지역 고구려 적석총에서 출토된 蓮蕾紋와당의 편년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와당의 편년을 바탕으로 집안지역 고구려 적석총의 조영순서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전면 검토하였다. 집안지역 고구려 蓮蕾紋 와당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太王陵型 A류(4세기 후반 중엽 경)→千秋墓型(4세기 후반 후엽 경)→將軍墳型(5세기 전반 초엽 경)→太王陵型 B류, 西大墓型(5세기 전반 초엽 경)→太王陵型 D류(5세기 전반 초엽 이후)→太王陵型 C류(5세기 전반 초엽 이후)→國內城型, 禹山992号型の 순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서대묘(JMM500)의 조영 시기는 329년(乙丑) 이후이고, 서대묘형 蓮蕾紋와당의 파편은 서대묘를 건설할 때 사용된 와당이라고 주장하였다. 禹山992号(JYM992)의 조영 시기는 338년(戊戌)이후로 설정하였고, 禹山992号형 蓮蕾紋 와당의 파편은 고분을 건설할 때 사용한 와당이라고 주장하였다. 太王陵(JYM541)의 조영 시기는 4세기 후반 중엽일 것이고, 太王陵型 A류 와당은 고분을 건설할 때 사용된 기와로 보았다. 千秋墓(JYM1000)의 조영 시기는 4세기 후반 이후로, 千秋墓의 권운문와당은 고분을 건설할 때 사용된 기와이며, 蓮蕾紋와당은 묘를 수습할 때 사용된 기와로 보았다. 將軍墳(JYM0001)의 조영 연대는 5세기 전반 초엽 경

164) 下野玲子, 2010, 「會津八一の戦前蒐集品に関する調査報告(1)」, 『早稻田大學會津八一記念館研究紀要』, 11.

165) 김희찬, 2010, 「발해 인동문계 와당의 계통과 고구려 연관성 검토」, 『東아시아古代學』, 21, 東아시아古代學會.

166) 김성태, 2010, 「태왕릉의 피장자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韓國古墳의 編年研究』, 서경문화사.

167) 朱洪奎, 2010, 「瓦から見集安地域高句麗積石塚の年代再検討」, 『史葉』, 3, 加藤建設株式会社.

으로, 上活龍5호분(JSM5)의 조영연대는 5세기 전반 초엽 경으로 설정하였다. 禹山2112호분(JYM2112)의 조영연대는 將軍墳의 연대보다 늦은 5세기 전반 초엽 이후로, 西岡110호분(?호)은 5세기 전반 초엽 이후로, 그리고 舍長里1호분의 연대는 5세기전반 초엽 이후로 추정하였다.

2010년 6월에 朱洪奎는 「高句麗積石塚出土卷雲文の編年再検討」¹⁶⁸⁾에서 고구려 권운문와당의 편년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재검토하고, 권운문와당이 출토된 유적 및 공반유물, 고구려 권운문와당의 형식분류, 편년 및 출토 고분과 유물의 편년 등을 전면 연구하였다. 禹山3319의 출토유물 검토를 통해 丁巳명 와당의 연대는 297년이고 乙卯명 와당의 연대는 355년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고분의 형태와 출토유물이 西晉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피장자도 南京지역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0년 6월에 姜賢淑은 「中國吉林省 集安 東台子遺蹟 再考」¹⁶⁹⁾에서 동대자유적의 성격과 유적의 시기 및 범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동대자유적의 성격에 대한 중국학계의 국사설을 부정하였고, 1958년 유적의 발굴조사 약보고서도 다시 검토하였다. 국내성지역에서 출토된 와당의 형식분류와 와당의 선후관계 및 발해 허리띠 장식판 등을 전면 연구하여 동대자유적의 시기가 5세기 말 이후부터 발해시기까지라고 주장하였다.

2010년 7월에 김희찬은 「복합인동문에서 표현된 고구려 와당의 문화적 성격」¹⁷⁰⁾에서 고구려 인동문와당의 출토현황, 형태분석, 출현과 변천과정 등을 연구하였다. 그는 평양지역에서 출토된 복합인동문와당의 출토 현황 및 형식, 변천과 연대를 추정하였다. I식은 6세기 초엽에서 중엽, II식은 6세기 중엽에서 말엽에 유행하였으며, III식은 7세기 초엽에서 중엽에 유행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2010년 8월에 고려대 鄭允晸은 석사학위논문인 「高句麗卷雲文瓦當研究」¹⁷¹⁾에서 권운문와당의 연구사와 출토현황 및 형식분류 등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권운문와당의 변천과 고구려 권운문와당의 기원과 변천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는데, 권운문와당의 무늬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각 형식의 연대를 추정하였다. 고구려 권운문와당은 4세기 초에 출현하여 4세기 중엽 이후 점차 소멸하였으며, 4세기 중엽에 고구려 연화문와당이 출현했다고 추정하였다. 고구려 권운문와당의 등장과 변천과정은 중국 한나라와 위진남북조시대의 영향을 받았으며, 낙랑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168) 朱洪奎, 2010, 「高句麗積石塚出土卷雲文の編年再検討」, 『古文化談叢』, 64, 九州古文化研究会.

169) 姜賢淑, 2010, 「中國吉林省 集安 東台子遺蹟 再考」, 『한국고고학보』, 75, 한국고고학회.

170) 金希燦, 2010, 「복합 인동이 표현된 고구려 와당의 문화적 성격」, 『白山學報』, 85, 백산학회.

171) 鄭允晸, 2010, 「高句麗卷雲文瓦當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10년 11월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미국 호놀룰루아카데미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¹⁷²⁾를 출판하였고 미국 호놀룰루아카데미미술관(The Honolulu Academy of Arts,U.S.A.)에 소장된 한국문화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중, 고구려 연화문와당 한 점의 크기와 무늬 등의 특징을 설명하고, 6세기경으로 연대를 추정하였다. 이 와당은 고구려 복합연화문와당에 속하고 무늬를 기준으로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2010년 12월에 千田剛道은 「高句麗瓦研究の二、三の問題」¹⁷³⁾에서 청암리토성의 와당과 평양지역 와당의 편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검토하였다. 청암리토성은 평양시대 초기의 왕궁유적이며, 안학궁유적은 고구려 말기의 別宮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평양지역의 연화문와당을 형식분류하고 그것의 편년과 연대를 3기로 나누었다. 그는 1기를 5세기 전반 전후로, 2기는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3기는 6세기 후반부터 668년까지로 보았다.

2010년 12월에 鄭昌熙은 「平壤出土の高句麗蕊附蓮蕾瓦當の分類と編年」¹⁷⁴⁾에서 평양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복합연화문와당 중 蕊附蓮蕾瓦當의 분류와 편년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자방 등의 무늬를 기준으로 여섯 가지로 나누고, 그의 변천과정도 고찰하였다. 유형별 시기에 대해 세 단계로 보았고, 5세기 초 후반에서 5세기 말 전반에 등장하여, 5세기말 후반부터 6세기 초 전반에 확산되었으며, 6세기 중엽 이후에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2011년 2월에 서울대 김진경은 「고구려 연화문와당 제작기법 연구-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¹⁷⁵⁾를 석사학위논문으로 발표하였다. 서울대에 소장된 고구려 연화문와당을 중심으로 와당의 문양분석과 제작기법을 분석하고 관련한 일련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수키와부의 제작기법에 근거하여 ‘끼우기’와 ‘주연별도 제작’, ‘배면접합’, ‘상부주연’ 네 단계로 나누고 있다. 또한 고구려 와당의 제작기법을 중국, 백제, 신라 와당 등의 제작기법과 교류관계와 함께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2011년 3월에 朱洪奎은 「早稻田大学會津八一記念博物館所藏の高句麗瓦について」¹⁷⁶⁾에서 早稻田大学 會津八一記念博物館에 수장한 고구려 기와의 현황(출

17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미국 호놀룰루아카데미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173) 千田剛道, 2010, 「高句麗瓦研究の二、三の問題」, 『地域発表及び初期須惠器窯の諸様相』(第22回東アジア古代史・考古学研究会交流会 予稿集), 大阪朝鮮考古学研究会.

174) 鄭昌熙, 2010, 「平壤出土の高句麗蕊附蓮蕾瓦當の分類と編年」, 『地域発表及び初期須惠器窯の諸様相』(第22回東アジア古代史・考古学研究会交流会 予稿集), 大阪朝鮮考古学研究会.

175) 김진경, 2011, 「고구려 연화문와당 제작기법 연구-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6) 朱洪奎, 2011, 「早稻田大学會津八一記念博物館所藏の高句麗瓦について」, 『早稻田大学會津八一記念博物館 研究紀要』, 12, 早稻田大学會津八一記念博物館.

토 지점, 수량 등), 사용과 제작 시기(와당을 중심으로)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2011년 3월에 김희찬은 「고구려 복합문와당의 출현과 형성 과정」¹⁷⁷⁾에서 고구려 복합문와당의 형태분류, 출현, 형성배경, 지역성을 연구하였다. 고구려 복합문와당의 형식과 구획선와당의 특징을 검토하고, 복합문와당의 등장은 구획선와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복합문와당은 평양지역에서만 발견되어 집안지역 출토 와당과 이원구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고구려 복합문와당은 고구려후기까지 평양지역에 유행한 와당으로, 발해 복합문와당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하였다.

2011년 4월에 김희찬은 「고구려 회전문계 와당의 계통과 전개 과정」¹⁷⁸⁾에서 고구려 회전문계 와당의 분류와 현황, 회전문계 와당의 계통과 형성과정, 고구려 와당의 전개과정과 회전문계 와당을 연구하였다. 고구려 회전문계 인동문와당, 회전문계 연화문와당, 회전문계 복합문와당, 회전문계 복선문 와당, 변형당초문계 와당을 소개하고, 각 형식의 회전문계 와당을 검토하였다. 우선 집안지역의 인동문와당이 가장 먼저 출현하고 평양지역으로 확산되어 일련의 회전문 와당이 6세기 중엽 이후에 등장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2011년 5월에 정치영은 「百濟·高句麗와 魏晉南北朝 製瓦術 비교 연구」¹⁷⁹⁾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와당과 제와술의 교류, 위진남북조 기와의 특징과 제작기법을 비교하여 백제 제와술의 전개를 전면 검토하였다. 고구려 와당연구는 집안지역의 와당을 중심으로 무늬를 분류하고 제작기법을 연구하였으며, 주로 주호규, 백종오, 谷豊信, 梁淙鉉, 김진경 등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였다.

2011년 6월에 영남대 정지연은 석사학위 논문 「古新羅 高句麗系 蓮花文와당 研究」¹⁸⁰⁾에서 고신라 와당의 출토유적, 고신라 고구려계 연화문와당의 형식분류와 제작방법, 고신라 고구려계 연화문와당의 성격 등을 연구하였다. 고신라 고구려계 연화문와당은 무늬에 따라 7가지 형식으로 나누었다. 제작기법의 측면에서 볼 때, 두 와당의 무늬는 서로 유사하나, 제작기법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2011년 6월에 山崎信二는 『古代造瓦史-東アジアと日本-』¹⁸¹⁾를 출판하였다. 여기에서 중국 서주시대에서 수당시대에 이르기까지 고대 제와술의 교류관계를 다루고, 한반도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일본에서 행해진 고대 제와술의 교류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고구려 기와에 대한 집안지역과 평양지역의 출토품을 각각 연구하였고, 집안지역 연화문와당의 변천관계 연구를 통해 태왕릉에

177) 김희찬, 2011, 「고구려 복합문와당의 출현과 형성 과정」, 『高句麗渤海研究』, 39, 고구려 발해학회.

178) 김희찬, 2011, 「고구려 회전문계 와당의 계통과 전개 과정」, 『白山學報』, 89, 백산학회.

179) 정치영, 2011, 「百濟·高句麗와 魏晉南北朝 製瓦術 비교 연구」, 『중앙고고연구』, 8.

180) 정지연, 2011, 「古新羅 高句麗系 蓮花文와당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1) 山崎信二, 2011, 『古代造瓦史-東アジアと日本-』, 雄山閣.

서 출토된 연봉오리형 연화문와당이 고구려 최초의 연화문와당이라고 주장하였다. 평양지역의 고구려 와당의 시기는 두 단계로 나누었다.

2011년 10월에 백종오는 「高句麗 瓦當의 毀棄와 그 象徴的 意味」¹⁸²⁾에서 집안지역과 한국에서 출토된 주연부가 훼손된 연화문와당의 현황을 검토하고, 불교의 윤회사상을 반영한 연화문와당을 훼손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2011년 10월에 심광주 등은 『漣川 瓠蘆古壘(제4차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지료)』¹⁸³⁾에서 호로그루 제4차 발굴조사의 개괄과 출토 유물을 소개하였다. 연천에서는 고구려 집수시설과 고려시대 건물지 등이 발견되었으며, 고구려 토기, 치미, 기와, 와당, 철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집수시설에서 고구려 연화문와당 몇 점이 출토되었다. 제2차 발굴조사 때 출토된 고구려 연화문와당과 무늬가 같으므로, 그 연대를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엽으로 비정하였다.

2011년 10월에 太田三喜는 「朝鮮半島の古代瓦-いわゆる高句麗の半瓦當-」¹⁸⁴⁾에서 天理大學附属博物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구려 유물을 중심으로 중국 고대의 반와당과 고구려 반와당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특히 고구려 반와당을 사용한 지역과 사용되었던 연대를 분석하였다.

2011년 11월에李大운은 「韓半島瓦研究の新動向」¹⁸⁵⁾에서 2009~2011년 한반도 삼국시대~조선시대의 기와 연구의 현황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고구려 와당의 연구 현황으로 주로 白種伍, 김희찬의 관점을 소개하였고, 말해 와당의 연구 현황을 소개할 때에는 김희찬의 연구 성과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일부 말해 와당의 문양이 평양지역 고구려 와당의 무늬를 계승한 것으로 보았다.

2011년 11월에 藤井和夫, 朱洪奎는 「早稻田대학 會津八一博士記念博物館 所藏高句麗博瓦에 관하여」¹⁸⁶⁾에서 早稻田대학 會津八一博士記念博物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구려 와전의 현황, 제작과 사용, 연대 등을 연구하였다. 早稻田대학 會津八一博士記念博物館에 소장중인 고구려 와당을 복선연화문, 복선인동문, 복합연화문, 연화문, 반규문, 보상화문, 중권문, 귀면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1년 11월에 朱洪奎는 「國學院大學 考古學資料館 所藏高句麗瓦博의 특징」¹⁸⁷⁾에서 국학원대학 고고학자료관에 소장된 고구려 유물을 중심으로 이 유

182) 백종오, 2011, 「高句麗 瓦當의 毀棄와 그 象徴的 意味」, 『압록강 중상류 고구려 유적·유물의 역사적 성격』, 한국고대사학회, 2011년10월.

183) 심광주 외, 2011, 『漣川 瓠蘆古壘』(제4차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지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184) 太田三喜, 2011, 「朝鮮半島の古代瓦-いわゆる高句麗の半瓦當-」, 『天理参考館報』, 24,天理大学出版部.

185)李大운, 2011, 「韓半島瓦研究の新動向」, 『季刊考古学』, 113号.

186) 藤井和夫, 朱洪奎, 2011, 「早稻田대학 會津八一博士記念博物館 所藏高句麗博瓦에 관하여」, 『일본 소재 고구려유물IV』, 동북아역사재단.

187) 朱洪奎, 2011, 「國學院大學考古學資料館所藏高句麗瓦博의 특징」, 『일본 소재 고구려유물I

물들을 소장하게 된 경위와 고구려 와전의 의의 및 고구려 이형기와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학원대학 고고학자료관에 소장된 와당들을 복선연화문, 복합연화문, 연화문으로 구분하고, 同系瓦와 同范瓦를 연구하였다. 또한 고구려 마루기와와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하였고, 논문 부록에는 국학원대학 고고학자료관에 소장된 와당들의 번호와 색깔, 태토, 크기, 접합기법 등 일련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실었다.

2011년 12월에 朱洪奎는 「早稻田大學 會津八一記念博物館所藏の高句麗瓦」¹⁸⁸⁾에서 早稻田大學 會津八一記念博物館에 소장된 고구려 기와의 현황과 형식, 연대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2011년 12월에 王飛峰은 「關於高句麗千秋墓,太王陵和將軍墳的几个問題」¹⁸⁹⁾에서 연화문와당의 변천 단계 연구를 통해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가장 빠른 단계를 천추총의 연화문와당으로 보았고, 그 다음은 태왕릉 연화문와당이며, 가장 늦은 시기의 연화문와당은 장군총 출토품으로 보았다. 태왕릉의 명문 마탁 등을 근거로 태왕릉의 피장자가 광개토왕이며, 천추총의 피장자는 고국양왕으로 추정하였다. 환도산성과 동대자유적의 와당 등에 관한 문제도 밝혔으며, 고구려 연화문와당은 광개토왕대에 출현한 것으로 보았다.

2011년 12월에 王志剛 등은 「集安將軍墳西南建築遺址的考古發掘」¹⁹⁰⁾에서 2003년 8월부터 9월까지 장군총 서남쪽의 건축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출토유물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건축유적은 파괴가 심해 南牆, 문지, 배수로, 西牆의 남쪽, 中牆의 남쪽, 東牆의 남쪽만 남았다. 출토유물로는 고구려 연화문와당과 착고, 수키와, 암키와 등이 있다. 그 밖에 유적의 구조를 연구한 결과, 유적의 연대는 천추총에 비해 좀 늦은 5세기 초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2012년 6월에 崔晋鎬는 「渤海 와당을 통해 본 渤海文化의 性格」¹⁹¹⁾에서 발해 유적의 현황을 소개하고, 발해 와당 형식의 특징과 발해문화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그는 발해 문화의 특징을 발해 연화문와당을 통하여 이해하려 하였다. 발해 연화문와당은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영향을 받아 계승 발전하였으므로 발해문화는 고구려문화의 특징을 일부 이어받았다고 주장하였다.

2012년 7월에 宋玉彬은 「麴背檐頭筒瓦研究」¹⁹²⁾에서 중국고대 기와의 명칭

V』, 동북아역사재단.

188) 朱洪奎, 2011, 「早稻田大學會津八一博士記念博物館所藏の高句麗瓦」, 『早稻田大學會津八一記念博物館研究紀要』, 12号, 早稻田大學會津八一記念博物館.

189) 王飛峰, 2011, 「關於高句麗千秋墓、太王陵和將軍墳的几个問題」, 『邊疆考古研究』, 10, 科學出版社.

19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王志剛외), 2011, 「集安將軍墳西南建築遺址的考古發掘」, 『邊疆考古研究』, 10, 科學出版社.

191) 崔晋鎬, 2012, 「渤海 와당을 통해 본 渤海文化의 性格」, 『先史와古代』, 36, 韓國古代學會.

과 출현시기 및 麴背檐頭筒瓦(마루기와)의 명칭을 설명하고, 그것과 관련된 유적과 마루기와가 동아시아지역으로 전파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는 마루기와가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를 고구려 국내성시기로 보았으며, 427년에 평양성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발해와 통일신라 및 일본의 기와는 고구려 마루기와의 영향을 받아 출현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그 밖에 마루기와의 분포특징과 문화속성, 사용 방법, 단계 등도 전면적으로 연구하였다.

2012년 11월에 王飛峰은 「關於永固陵的几个問題」¹⁹³⁾에서 永固陵의 석료와 靑甗瓦 및 陵園의 배치 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 고대의 청곤와 및 집안과 평양지역에서 출토된 청곤와를 소개하고, 고구려 청곤와의 원류를 살펴보았다. 문헌사료의 분석을 통해 고구려 청곤와는 北魏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연구 외에 고구려 청곤와에 대한 연구논문은 전무하다.

2012년 12월에 朴淳發은 「高句麗의 都城과 墓域」¹⁹⁴⁾에서 고구려 전기 도성과 중기 도성, 후기 도성, 고구려 도성 王墓域 변천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집안과 평양지역에서 출토된 일부 와당과 암막새의 연대도 연구하였으며, 안학궁의 연주문 있는 와당의 연대는 7세기 전반~중엽경 이전으로 소급되기 어려우며, 안학궁 출토 암막새의 연대도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이전으로 소급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안학궁 하층에서 발견된 2호분에서 출토된 회청색 경질 토기호는 2호분이 고려시대에 재사용되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2012년 12월에 王飛峰은 「三燕瓦當研究」¹⁹⁵⁾에서 삼연 와당의 형식과 편년 및 제작기법을 연구하고, 고구려, 백제와 북위의 영향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고구려 복선연화문와당은 후연의 영향을 받아 출현하여 삼연 복선연화문와당이 後燕 慕容熙(401-407)때에 이미 등장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이 시기의 고구려 고고학 연구는 동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국, 북한, 남한학계의 연구성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학자의 연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학자 柳在雨의 논문(「高句麗 瓦當文樣의 樣式的考察」)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학자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발표된 고구려 와당의 연구에 대한 전문 논문이다. 2004년 6월에 중국 학계에서 출판된 『오녀산성』, 『국내성』, 『환도산성』, 『고구려왕릉』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를 계기로 고구려 고고학과 고구려 와당에 대한 연구는 절정에 이르렀고, 고구려 와당에 대한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고구려 와당의 편년과 제작기법, 영향관계 등 이 시기의 연구 초

192) 宋玉彬, 2012, 「麴背檐頭筒瓦研究」, 『慶祝宿白先生九十華誕文集』, 科學出版社.

193) 王飛峰, 2012, 「關於永固陵的几个問題」, 『中國國家博物館館刊』, 11.

194) 朴淳發, 2012, 「高句麗의 都城과 墓域」, 『韓國古代史探究』, 12.

195) 王飛峰, 2012, 「三燕瓦當研究」, 『邊疆考古研究』, 12, 科學出版社.

점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고구려 연화문와당이 출현시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다. 이 시기의 주된 연구관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북한, 남한, 일본 학자들의 견해는 안학3호분의 연화문에서 영향을 받아 4세기 중엽이나 말엽에 고구려 연화문와당이 등장했다는 관점이다. 중국학자들은 삼연 연화문과 불교의 영향을 받아 광개토왕대에 출현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의 고구려 와당에 대한 연구사적 특징은 두 단계로 나타난다. 제1단계는 1980년대부터 2000년, 제2단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다. 제1단계에는 일본 논문이나 1945년 이전에 수집된 유물 도록이 많은 편이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학자들의 연구성과도 다소 축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고구려 와당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1년 12월에 耿鐵華, 尹國有는 『高句麗瓦當研究』에서 고고학적 방법으로 고구려 와당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최근 십년 간 고구려 와당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와당의 문양에 대한 학위논문이 몇 편 발표되었다. 2004년에 중국학계는 집안지역 고구려 고고학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를 출판하였고, 2005년 이후 경희대에서 『고구려와당』 및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등의 도록을 발행하는 등 다량의 고구려 와당이 자세히 공개되었다. 즉, 고구려 와당에 대한 새로운 자료 발표와 도록의 출판은 2단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특히 김희찬은 이 단계를 대표하는 연구자로, 경희대박물관에 소장한 고구려 와당과 중국학계가 발표한 고구려와 발해 와당을 중심으로 고구려 와당의 형식, 편년, 태토, 색깔을 연구한 바 있다. 발해 와당과 고구려 와당 간의 계승성에 관해서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Ⅲ. 고구려 와당의 제작기법

1. 고구려 와당 제작기법 연구현황

고구려 와당의 등장과 형식, 편년 등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고구려 와당 제작 기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중국에서는 傅佳欣¹⁹⁶⁾과 王飛峰, 夏增偉¹⁹⁷⁾ 등이, 남한에서는 조미정¹⁹⁸⁾, 백종오¹⁹⁹⁾, 梁淙鉉²⁰⁰⁾, 주홍규²⁰¹⁾, 김진

19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市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197) 王飛峰, 夏增偉, 2008, 「高句麗丸都山城出土瓦當研究」, 『東北史地』, 2.

198) 趙美貞, 2004, 「高句麗蓮花文瓦當에 對한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 백종오, 2006,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주류성.

200) 梁淙鉉, 2007, 「高句麗法輪文軒瓦に 對する 考察」, 『帝塚山大學考古學研究所研究報告』, IX,

경²⁰²⁾, 최영희(吉井秀夫 공동연구) 등이 고구려 와당의 제작기법을 연구하였으며, 일본에서는 吉井秀夫²⁰³⁾와 山崎信二²⁰⁴⁾ 등이 연구를 한 바 있다.

傅佳欣은 고구려 왕릉보고서의 정리를 계기로 고구려 와당의 제작기법을 검토하였다. 특히 천추총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의 막새부에 있는 흔적에 근거하여 고구려 와당의 제작기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고구려 와당의 제작기법으로는 中間對縫合范의 제작기법과 側縫合范의 제작기법,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제작기법이 하나 더 있다.

王飛峰, 夏增偉은 환도산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의 제작기법을 검토하였다. 도면을 이용하여 막새부 뒷면과 수키와 측면에 있는 흔적을 연구하여 접합기법과 접합부를 고정하는 방법 및 수키와의 처리 방식 등을 전면 연구하였다.

그 밖에 王飛峰은 北魏 永固陵의 青鞞瓦를 연구하였다. 고구려 지역에서 출토된 青鞞磚과 청곤와의 개황을 소개하고, 중국 고대 청곤제와술도 설명하였다. 청곤와가 고구려지역에 등장한 연대와 원인과 관련한 제문제를 검토하여 고구려의 청곤와는 북위 청곤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장수왕대가 아니라 광개토왕 시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남한의 조미정은 고구려 연화문와당 연구를 통해 고구려 적색계와 회색계 와당의 등장시기와 각 와당이 사용된 유적의 특징을 밝혔으며, 동일한 와범을 이용해 만든 와당도 설명하였다.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고구려 와당을 중심으로 와당과 수키와의 접합기법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와당 뒷면의 작은 세로줄을 목재 빗을 이용해 만든 흔적으로 보았다. 고구려 와당 뒷면 턱면에 다듬은 흔적도 살펴보았다.

백종오는 고구려 와당의 제작기법을 검토하면서 복선연화문와당의 제작기법에 대한 고구려 왕릉 보고서 중 傅佳欣의 관점에 동의하였다. 천추총 출토 연화문와당의 막새부의 흔적을 통해 分離式 瓦范을 이용하여 와당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고구려 와당 표면에 있는 석회와 朱漆 및 分離沙 등을 검토하였다.

梁淙鉉은 帝塚山大学 附属博物館에 소장된 고구려 와당을 중심으로 막새부 제작법, 막새부와 수키와의 접합기법, 막새부 뒷면의 접합흔, 막새부의 다듬은 흔적, 고구려 와당의 燒造와 색깔, 복합연화문와당과 結紐紋 와당의 同范關係 등을

帝塚山大学考古学研究所.

201) 주홍규, 2009, 「集安지역 고구려기와의 제작기법과 변천-일본 소개 기와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66.

202) 김진경, 2011, 「고구려 연화문와당 제작기법 연구-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3) 吉井秀夫, 崔英姬, 2008, 「京都大学総合博物館所藏山田針次郎寄贈 고구려 기와의 검토」, 『일본소개고구려유물II』, 東北亞歴史財団.

204) 山崎信二, 2011, 『古代造瓦史-東アジアと日本-』, 雄山閣.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고구려 귀면와의 제작기법도 소개하였다.

주홍규는 일본에서 소장된 집안지역 고구려 와당을 바탕으로 집안지역 고구려 와당의 제작기법을 검토하였다. 주연부의 제작, 막새부와 수키와의 접합을 중심으로 제작 기법의 형식 분류와 변천을 연구하였다.

김진경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고구려 와당을 중심으로 고구려 연화문 와당의 수키와부 제작기법과 접합강화기법을 연구하였다. 수키와부 제작기법으로는 끼우기와 주연 별도제작, 배면접합, 상부주연 등 네 가지 기법이 있다고 보았으며, 와범 형태, 수키와 형태, 보강토 범위, 수키와 범위, 접합강화기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와당의 뒷면에 남은 접합강화를 위한 다지기와 음각선, 도구 누름, 뚫기, 물손질 흔적 등에 주목하였다.

일본 학자 吉井秀夫와 한국학자 최영희는 교토대학교 종합박물관에 소장된 고구려 와당을 중심으로 공동 논문을 발표하였다. 고구려 와당의 제작기법에 대한 막새부와 수키와의 접합기법, 막새부에 부착되어 있는 모래, 색깔과 태토, 와당 문양과 제작기술의 변화에 대응관계도 검토하였다. 막새부와 수키와의 접합기법은 대칼 새기기법과 다치구 굽기기법으로 나누었다. 평양천도 전에 집안지역에서 출토된 와당의 막새부에 分離沙가 부착된 예가 없었으므로, 막새부에서 보이는 分離沙는 평양 천도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특징으로 보고 있다.

山崎信二은 고구려 기와의 제와술을 소개하고, 고구려 와당의 제작기법도 설명하였다. 태왕릉 출토 A형 와당(연봉오리형 연화문와당)은 고구려 최초의 와당이고, 뒷면에 있는 가로줄 흔적에 따라 국내성시기 와당의 제작기법을 검토하였다. 평양천도 이후에도 국내성시기 와당 제작기법이 계승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와당의 제작기법

와당의 제작은 막새부의 제작과 수키와의 제작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고구려 와당의 제작기법은 막새부와 周緣의 관계에 근거해 對接法, 套接法, 半套接法으로 분류된다. 對接法이란 막새부와 수키와를 각각 만들고 두 부분을 접합하는 방식이다. 套接法이란 막새부의 주연을 제외한 부분과 수키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筒形器를 따로 만든다. 막새부의 주연을 제외한 부분은 筒形器에 있다. 筒形器는 막새부의 주연을 제외한 부분을 연결한 것으로 一端은 막새부의 주연이 있으나 막새부와 그 주연은 따로 만든다. 半套接法이란 막새부의 일부가 수키와 중에 있고 막새부와 수키와도 따로따로 만들지만, 그것의 下周緣은 막새부와 같이 만드는 방식이다. 上周緣은 와당의 一端이다. 對接法은 국내성시기에 등장하고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계속 사용하였으며 套接法과 半套接法은 평양성시기에 출현

하였다.

중국 중원지역에서는 套接法이 등장한 후에 半套接法과 對接法이 출현하였다. 套接法은 西周時代에 등장하여 秦漢時代를 거쳐 東晉時代 이후에 점차 사라졌다. 북위초기의 일부 와당은 套接法으로 만들었다. 東晉時代부터 사용된 對接法은 시간이 갈수록 많이 사용되었는데, 清代에 이르기까지 줄곧 사용된 와당 제작법 중 하나이다. 半套接法은 西晉과 東晉시대에 유행하고 남북조시대에 점차 사라졌다. 고구려 국내성시기의 對接法은 요동지역과 낙랑지역 제와술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평양 성시기의 套接法과 半套接法은 백제 제와술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 瓦當模와 瓦當范

瓦當模는 瓦當范을 만드는 도구이고, 瓦當范은 와당을 만드는 도구이다. 瓦當模의凹凸은 와당과 일치하고, 瓦當范의 요철은 와당과 반대이다. 지금까지는 고구려의 瓦當模와 瓦當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瓦當模와 瓦當范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적었다. 그러나 와당에 남아있는 제작 흔적으로도 瓦當模와 瓦當范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오늘날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瓦當模는 秦代이며, 瓦當范의 가장 이른 시기는 東周시대이다. 동주시대의 瓦當模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일부 학자들은 동주시대의 瓦當模는 木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²⁰⁵⁾. 1980년 秦始皇陵 서쪽에 있는 趙背戶村 刑徒고분군에서 秦代의 瓦當模 한 점이 출토되었다²⁰⁶⁾. 瓦當模는 흙으로 만든 罐形이었고, 저부에 권운문와당의 瓦當模가 있었다. 이러한 罐形의 漢代 瓦當模는 중국에서 몇 점 발견되었으며²⁰⁷⁾, 漢代의 원형 石製 瓦當模도 발견되었다²⁰⁸⁾. 이후에 발견된 瓦當模도 모두 원형이었다. 중국에서 발견된 동주시대 이래의 瓦當范은 대체로 원형이고 河北省 內丘縣에서 隋代의 부채형 瓦當范 한 점이 출토되었다²⁰⁹⁾. 西周시대와 동주시대에는 반원형 와당이 많으나, 와당의 측면에 남은 흔적에 따라 원형와당을 반으로 나눠 제작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와당의 瓦當范도 원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한반도에서는 瓦當模가 발견되지 않았고, 백제시대 瓦當范 몇 점²¹⁰⁾과 신라와 통일신라시대 瓦當范만이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백제, 신라와 통일신라시

205) 関野 雄, 1991, 「中國歴代の瓦当范」, 『古文化談叢』, 26.

206) 始皇陵秦俑坑考古發掘隊, 1982, 「秦始皇陵西側趙背戶秦刑徒墓地」, 『文物』, 3.

207) 张安礼, 1995, 「山東莒縣征集一件漢代陶罐」, 『考古』, 11. 崔聖寬, 鄭德平 외, 2006, 「山東沂源姑子坪發掘一批周代墓葬」, 『中國文物報』, 3월 24일 2판.

208) 駒井和愛, 1951, 『曲阜魯城の遺蹟』, 東京大学文学部考古学研究室.

209) 河北省內丘縣文物保管所(賈城會, 巨建強), 2013, 「河北內丘城區出土隋代蓮花紋瓦當范」, 『中國文物報』, 3월29일8판.

210) 국립부여박물관, 2010, 『백제 중흥을 꿈꾸다-능산리사지』, 예백.

대의 瓦當范은 모두 土製이며, 형태는 백제시대의 方形 瓦當范 한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형이다.

한편, 고구려 와당에 남아있는 나이테 흔적을 통해 고구려지역에서는 나무로 만든 瓦當范을 썼고, 재료 특성상 지금까지 보존된 瓦當范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朱洪奎는 고구려 瓦當范을 재질에 따라 陶製와 木製, 石製로 구분했다²¹¹⁾. 중국과 한반도에서 발견된 瓦當模와 瓦當范 및 일부 고구려 와당에 남아있는 나무 나이테 등의 흔적에 근거해 볼 때, 고구려 瓦當模는 흙으로 만든 원형와당모로 추정되고, 瓦當范은 원형이나 방형에 흙이나 나무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의 나이테와 고구려 목재 瓦當范에 대한 고찰의 여지가 있다. 나이테의 형태와 크기는 당대의 기후, 특히 강수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매년 강수량이 균등하다면 나이테의 형태는 수심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형성할 것이나, 강수량과 온도가 균등하지 않으면 나이테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나무로 만든 瓦當范은 사용 과정 중에 쉽게 파손되어 나이테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

지금까지 집안지역에서 발견된 국내성시기의 고구려 와당의 표면에는 목재 나이테의 흔적이 적은 편이나, 평양천도 이후 출토된 북한지역과 남한지역의 일부 와당의 표면에 나이테 흔적이 남아있어서 고구려의 목재 瓦當范은 평양성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흥련봉1보루의 고구려 와당의 표면에 목재 나이테 흔적이 있으므로 와당 또한 목재 瓦當范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막새부에 있는 나이테의 흔적에 따라 瓦當范을 만든 나무의 크기나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나무의 어느 부분을 이용하여 瓦當范을 만들었는지도 확인가능하다. 또한 나이테 분석을 통해 고구려인들은 수심과 심재, 변재를 모두 이용해서 瓦當范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으며, 막새부에 남아있는 심재와 변재의 흔적을 통해 瓦當范의 재료가 된 몇몇 나무들이 매우 컸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2) 막새부의 제작

막새부는 양질의 점토로 瓦當范을 이용하여 막새부 모양을 찍어내는 식으로 제작된다. 막새부와 瓦當范을 쉽게 분리하기 위해 분리 모래(分離沙)를 사용하였고, 일부 막새부의 표면에는 빨강 顔料를 뿌려 구운 塗朱현상이 관찰된다.

고구려 막새부의 제작기법은 對接法과 套接法, 半套接法 등이 있다. 각각의 기법은 방식 뿐만 아니라 재료로 사용하는 흙과 瓦當范의 관계도 다르다. 여기에서는 주로 흙과 瓦當范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고구려 와당의 태질을 살펴보면, 우선 권운문와당은 泥質이고, 연화문와당 등의 태질도 주로 泥質이나 일부 태질은 夾砂도 있다. 와당을 만든 흙은 와당이 발견된 유적이나 유

211) 藤井和夫, 朱洪奎, 2011, 「아이즈아이치기념박물관 소장 유물로 본 고구려 와전의 제작과 사용-수막새를 중심으로」, 『일본 소재 고구려유물IV』, 동북아역사재단.

적 근처의 토질과 기본으로 일치하므로, 현지의 흙을 이용하여 현지에서 직접 소성하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작은 돌이나 잡물이 없는 흙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다. 일부 와당과 수키와를 만든 흙 중에는 운모 혹은 화석분, 초목회(예를 들면 흥련봉1보루의 연화문와당) 등이 섞여 있다.

제작기법은 흙과 瓦當范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拍泥法과 壓范法 두 가지로 구분된다. 拍泥法은 瓦當范에다 흙을 올려놓고 흙을 두드려서 완성하는 방법이다. 套接法을 이용하여 만든 막새부의 제작기법은 拍泥法에 속한다. 對接法과 半套接法을 이용하여 만든 막새부의 일부도 拍泥法에 속한다. 拍泥法을 사용한 근거는 막새부의 뒷면에 흙을 두드린 흔적과 지흔, 지문 등이다. 여러 번 흙을 첨가하여 두드린 흔적의 拍泥法은 막새부의 단면층이 뚜렷하고 막새부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다.

壓范法은 瓦當范을 흙 위에 얹어 瓦當范을 눌러서 막새부를 제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對接法과 半套接法을 이용해서 만든 막새부는 壓范法에 속하며, 套接法을 이용해서 만든 막새부에서는 壓范法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壓范法의 사용여부는 막새부 뒷면의 형태를 통해 알 수 있다. 壓范法을 이용해서 막새부를 만들 때는 보통 흙은 평평한 바닥이나 나무판에 두는데, 瓦當范을 누를 때 힘이 부족하여 막새부 뒷면에 틈이나 작은 구멍이 형성된다. 壓范法은 보통 흙을 한 번만 첨가하여 만들기 때문에 拍泥法을 이용해서 만든 막새부처럼 두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拍泥法과 壓范法을 이용해서 막새부를 만들 때, 누르는 힘이 부족하여 일부 와당 표면에 있는 무늬가 떨어져 나간 것도 있다.

고구려 반와당은 大半圓形의 반와당과 小半圓形의 반와당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두 가지 반와당의 제작기법은 약간 다르다. 大半圓形의 반와당 수량은 지금까지 두 점 밖에 확인되지 않았다. 大半圓形의 반와당의 막새부 주연의 외측에 절삭이나 수선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일차적 작업으로 완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瓦當范은 원형 瓦當范과는 다르며 大半圓形의 반와당의 형태와 일치하고 있다. 壓范法과 對接法을 이용하여 大半圓形의 반와당의 막새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小半圓形의 반와당의 측면은 모두 수선한 흔적이 있고, 일부 막새부의 표면에 나무 나이테와 비슷한 흔적이 남아있다. 때문에 목재 瓦當范이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막새부의 뒷면에 수선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拍泥法과 對接法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많은 고구려 막새부 뒷면에는 수키와와 접합하기 위해 새긴 흔적이 있다. 새긴 흔적에 대한 설명은 아래 ‘연결 방법’ 부분에서 논할 것이다.

3) 分離沙

分離沙란 와당을 瓦當范과 쉽게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래이다. 分離沙를 사

용한 시기에 대해서 吉井秀夫와 최영희는 평양성시기에 출현했다고 주장하였지만, 국내성시기의 고구려 와당에서도 일부 막새부의 표면에 分離沙를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어 평양성시기보다 사용시기가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성시기에는 정면에만 分離沙의 흔적이 남아있으나, 평양성시기에는 뒷면에도 分離沙를 사용했다. 와당 뒷면에 있는 分離沙는 특히 막새부의 제작기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뒷면과 정면 모두 分離沙가 있다면 이 막새부는 壓范法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고, 정면에만 分離沙가 있다면 拍泥法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分離沙는 일반적으로 색깔에서 차이를 보인다. 백색과 회색이 있는데 대부분의 分離沙는 백색이며 입자가 매우 작다. 회색과 진회색은 백색보다 드물게 사용되었는데 그 입자는 백색보다 큰 편이다. 모든 고구려 와당에서 分離沙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分離沙는 막새부의 주연에도 남아 있다. 일부 권운문와당의 표면에서 分離沙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는 分離沙는 국내성시기에 출현하여 평양성시대에 계속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요동지역과 낙랑지역, 백제, 신라의 와당 표면에는 分離沙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 와당 제작기법 특징 중의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

4) 塗朱현상

일부 고구려 와당은 표면에 적색 안료를 칠하였는데, 이러한 도주현상은 회색계 와당에만 나타난다. 이 안료의 성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고대 중국에서는 다른 유물에서도 도주현상은 폭넓게 사용되었다. 중국 구석기시대 北京 山頂洞遺址²¹²⁾(약 18,000년 전)에서 발견된 인골 화석과 그 주변에서 도주현상이 관찰되었고, 이 적색 물질의 성분은 적철광으로 밝혀졌다. 夏와 商, 周時代 일부 궁전유적과 귀족 무덤 등에서 출토된 유물에서도 도주현상이 발견되었다. 그것의 성분은 주로 朱砂로, 중국 고대에 朱砂는 일반적으로 辟邪와 祈福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東周時代부터 중국 와당에 도주현상이 출현하였고, 秦漢과 三國兩晉 南北朝, 隋唐時代를 거쳐 宋代 이후에는 점차 사라졌다.

고구려의 경우 국내성시기의 일부 와당에서 도주현상이 관찰되고, 천추총, 태왕릉과 장군총에서 출토된 일부 연화문와당의 표면에 적색 안료를 발랐다. 이 안료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성분은 알 수 없다. 고구려 권운문와당에서는 도주현상이 관찰되지 않으며, 회색계 연화문와당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와당의 도주현상은 국내성시기 후기에 출현하여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일부 계승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구려 와당에서는 도주현상이 많지 않으나, 당시 고구려와 인접한 三燕지역, 특히 後燕 와당에서 도주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한다면, 고구려 와당의 도주현상은 三燕 와당

212) 中國大百科全書總編委會 『考古學』編輯委員會, 1986, 『中國大百科全書·考古學』,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의 도주현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 밖에 일부 고구려 와당의 표면에 석회를 바른 현상도 관찰되지만, 도주 현상과 같이 많은 수량이 전체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현상의 의미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5) 수키와의 제작

고구려 수키와는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미구가 있는 수키와가 있고, 다른 것은 미구가 없는 수키와이다. 국내성시기에는 미구가 있는 수키와가 출현하였으나 와당과 접합한 수키와는 미구가 없었다. 평양으로 천도한 후 와당과 접합한 수키와에서도 점차 미구가 보이기 시작한다. 미구가 있는 수키와는 미구가 없는 것과 제작기법이 약간 다르다. 국내성시기와 평양성시기에 와당과 접합한 수키와의 제작기법도 각각 다르다. 한편, 건축물에 있는 와당을 고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키와의 말단에 못구멍이 있다. 국내성시기에 와당과 접합한 수키와는 못구멍이 없었으며, 평양성시기에 와당과 접합한 일부 수키와는 못구멍이 있다. 막새부의 제작기법은 對接法과 套接法과 半套接法에 있어서 수키와의 제작기법도 다르다. 그 중에 와당 對接法과 半套接法의 수키와 제작기법이 대체로 같으며, 套接法의 수키와 제작기법은 兩者와 완전히 다르다.

對接法의 와당과 접합한 수키와의 제작기법은 첫째, 와당은 점토로 만들었다. 와당의 태질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재료를 구하고 일부 활석분이나 운모를 섞어 넣었다. 둘째, 모골로 圓筒形器를 만들고 圓筒形器 측면에 있는 흔적을 따라 泥條를 이용하여 평행하게 선회하여 만들었다. 또한 수키와 내면의 천무늬는 圓筒形器를 만들 때 모골의 둘레에 삼베를 휘감아 만든 흔적이다. 對接法 와당과 접합한 수키와 말단에는 미구가 없고, 圓筒形器 양단의 지름이 대략 같다. 셋째, 圓筒形器는 일정 정도 건조시켜 절개하면 두 개의 수키와가 된다. 절개 방법은 圓筒形器의 내면(凹面)이나 외면(凸面)을 절반으로 절개하고, 절개한 정도는 전체 圓筒形器 두께의 1/2 또는 1/3이다. 절개한 흔적을 통해 철이나 나무 등으로 만든 칼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키와의 측면에 남은 흔적으로 보아, 아마도 일부 수키와는 측면을 절개하고 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半套接法의 와당과 접합한 수키와의 제작기법은 對接法의 와당과 접합한 수키와의 제작기법과 대체로 비슷하나, 圓筒形器를 만드는 단계와 圓筒形器를 절개하는 단계가 약간 다르다. 첫째, 이 양식의 수키와는 평양성시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와당과 접합한 일부 수키와에 미구가 있다. 때문에 圓筒形器를 만들 때 일단에 미구와 비슷한 형태를 만드는데, 다른 말단에 미구가 있는 부분이 더 크다. 둘째, 圓筒形器를 절개할 때 그것의 일단에 미구와 비슷한 형태로 절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圓筒形器의 절개한 흔적은 모두 외면(凸面)에 있으며 절개한 정도는 圓筒形器 두께의 1/2 혹은 1/3이다.

套接法 와당과 접합한 수키와의 제작기법은 상대적으로 앞의 유형보다 복잡하다. 중국 남북조시기 이전에 사용된 제작기법이며, 고구려에서 사용된 이러한 제작방법은 백제 제와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흙을 채취하고 활석분이나 운모를 섞어 넣기도 하였다. 둘째, 拍泥法을 이용하여 만든 막새부를 바탕으로 圓筒形器를 만들고 圓筒形器 측면에 있는 흔적을 泥條로 이용하여 평행하게 선회하여 만들었다. 이 형식의 수키와 중 일부는 미구가 있다. 두 가지의 圓筒形器가 있는데, 圓筒形器의 일단에 미구와 비슷한 형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그 제작기법은 위에서 언급한 圓筒形器를 이용한 방법과 대체로 같다. 셋째, 圓筒形器는 어느 정도 건조시킨 뒤 절개하여 두개의 수키와로 만들었다. 절개의 방법은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圓筒形器를 절반으로 절개하고 圓筒形器와 연결한 막새부의 뒷면에 1/2 정도를 절개한다. 圓筒形器를 절반으로 절개하는 과정도 또한 두 가지가 있다. 圓筒形器의 일단에 미구와 비슷한 형태가 있는 것은 그것의 내면(凹面)이나 외면(凸面)을 절반으로 절개한다. 圓筒形器의 일단에 미구가 없는 것은 그것의 외면(凸面)만 절반으로 절개한다. 두 과정의 선후관계는 없으며, 절개한 정도가 다르다. 圓筒形器의 내면(凹面)이나 외면(凸面)을 절반으로 절개할 때, 절개한 정도는 圓筒形器 두께의 1/2 또는 1/3이며, 圓筒形器와 연결한 막새부의 뒷면을 절개할 때 절개한 정도는 圓筒形器의 두께와 같다. 한편 절개한 도구는 모두 철이나 나무 등으로 만든 칼로 추정된다. 절개 과정을 거치고 나면 圓筒形器의 일부는 막새부와 접합한 수키와가 되고 다른 부분은 단독 수키와가 된다.

6) 와당과 수키와 연결방법

고구려 와당의 연결방법은 접합방법과 강화방법으로 구분된다. 막새부의 제작기법은 對接法, 套接法, 半套接法이 있고, 와당의 접합방법과 강화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연결방법은 매우 복잡하다.

(1) 접합방법

막새부의 對接法, 套接法, 半套接法에 따라 막새부와 수키와의 접합기법을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套接法 막새부와 접합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이 경우, 막새부의 주연부를 제외한 부분을 바탕으로 만든 圓筒形器의 일단만 접합하여 절개하면 기와가 완성된다. 圓筒形器의 제작방법과 접합한 부분의 절개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對接法의 막새부와 半套接法의 막새부와 수키와를 접합할 때, 보통 막새부의 뒷면과 수키와의 측면이나 수키와의 내면(凹面)에 새긴 흔적이 생긴다. 對接法으로 막새부와 수키와를 접합한 것은 일반적으로 막새부 뒷면의 상반부와 수키와

의 측면에 새긴 흔적이 있다. 半套接法의 막새부와 수키와를 접합한 것은 일부 수키와의 내면(凹面)과 막새부를 접합한 곳에 새긴 흔적이 있으며 접합한 곳에 새긴 흔적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새긴 흔적으로는 ‘|’형과 ‘×’형, ‘/’형, 활 모양 등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형이 가장 많으며, ‘×’형 과 ‘/’형, 활 모양은 적은 편이다. 일부 막새부 뒷면에 ‘|’형 흔적의 단면을 보면, 일부는 ‘ㄷ’형도 관찰되는데, ‘ㄷ’형 뒷면의 우묵한 곳에 ‘|’형이 있다. 또 다른 경우 ‘|’형과 ‘×’형, ‘/’형, 활모양형 새긴 흔적이 막새부와 수키와의 접합한 곳에 있으며, ‘/’형 흔적 중 ‘/’형은 길이와 굵기 등 특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새긴 흔적에 따라 ‘|’형과 ‘/’형 흔적은 빗과 비슷한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고, ‘×’형과 활 모양형 흔적은 뾰족한 송곳이나 비슷한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일부 ‘|’형 흔적에 따라 그 흔적을 만든 빗의 너비도 알 수 있다. 그 밖에 막새부 무늬의 평면 형태를 보정하기 위해 일부 막새부의 뒷면에는 橫線 흔적을 새겼다. 이 橫線흔적이 남아있는 국내성시기의 일부 와당의 예로는 환도산성의 귀면문와당이 있다. 권운문와당의 뒷면에는 아직 이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막새부의 뒷면에 새겨진 橫線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점차 많아졌다.

(2) 강화방법

강화방법은 주로 막새부와 수키와의 접합한 내면이나 외면에 점토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부 와당에서는 강화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套接法과 半套接法의 막새부와 접합한 내면에 강화한 흔적이 있으며, 對接法의 막새부와 접합한 내면이다, 그리고 외면에 강화한 흔적이 있다. 對接法을 이용하여 만든 국내성시기의 권운문와당과 수키와의 접합한 내면이나 외면에서도 점토로 강화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국내성시기 후기에 등장한 연화문와당과 인동문와당 등의 강화방법도 비슷하다. 평양으로 천도한 후에 對接法으로 만든 와당의 강화 방법 역시 국내성시기와 대체로 비슷하다.

對接法의 막새부와 수키와를 접합한 내면의 강화방법은 진흙의 크기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점토로 수키와와 막새부를 연결한 일단부터 접합한 곳을 이어 강화하는 방법이다. 보통 수키와와 막새부를 연결한 일단부터 점토의 양이 점차 적어진다. 또 다른 방법은 막새부와 수키와 접합한 곳에 점토를 첨가하는 것으로, 접합한 곳이 수키와의 다른 부분보다 약간 높다. 접합한 내면에 보통 점토를 첨가하는 것은 같지만 그 양의 차이가 크다. 점토를 붙이는 순서는, 먼저 내면을 첨가하고 난 후에 외면을 첨가하는 식이다.

강화과정이 끝난 뒤, 일부 막새부 뒷면의 하반부를 수리하고 절단한 흔적이 관찰된다. 이러한 흔적은 국내성시기의 와당에서 관찰되며, 평양성시기의 막새부의 처리 방법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막새부와 수키와를 연결하고 일부 막새부 뒷면 하반부를 절단한 흔적은 국내 성시기 권운문와당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평양천도 이후 와당의 뒷면에 절삭한 흔적이 점차 많아지고 절단한 흔적의 범위도 점점 커진다. 절삭범위는 막새부와 수키와의 접합 범위를 기준으로 와당 지름의 1/2정도이다. 마루기와의 경우 형태적 특징상 접합한 범위가 1/2보다 더 큰 편이다. 이것은 고구려 마루기와의 특징 중 하나이며, 마루기와 뒷면의 새긴 흔적의 범위도 일반 와당보다 더 크다.

對接法の 막새부와, 수키와의 접합부의 차이에 근거해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A형, B형은 강화방법의 유무 및 강화방법의 차이 등에 따라 각각 Aa형(도면 25-1), Ab형(도면 25-2), Ac형(도면 25-3), Ba형(도면 25-4), Bb형(도면 25-5), Bc형(도면 25-6)으로 세분이 가능하다. 그 중 Aa형, Ab형 기법은 권운문와당의 제작 기법이고 국내성시기 연화문와당, 귀면문와당, 인동문와당에서는 A형과 B형 기법이 모두 발견되었다. 특히, B형 기법의 와당은 환도산성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평양 천도 이후 對接法の A형 기법은 계속 유행한 반면 B형 기법은 점차 사라졌다. 한편, 套接法과 半套接法이 등장하여 고구려 말기까지 사용되었고, 套接法(도면 25-7~8)과 半套接法(도면 25-9~10)은 5세기 초반 경에 중국 중원지역에서 사라졌다. 고구려 와당의 套接法과 半套接法은 평양 천도 이후 한반도의 백제등지 제와술의 영향을 받고 출현한 것이다. 套接法과 半套接法은 강화 방법의 유무 등에 근거해 각 A형, B형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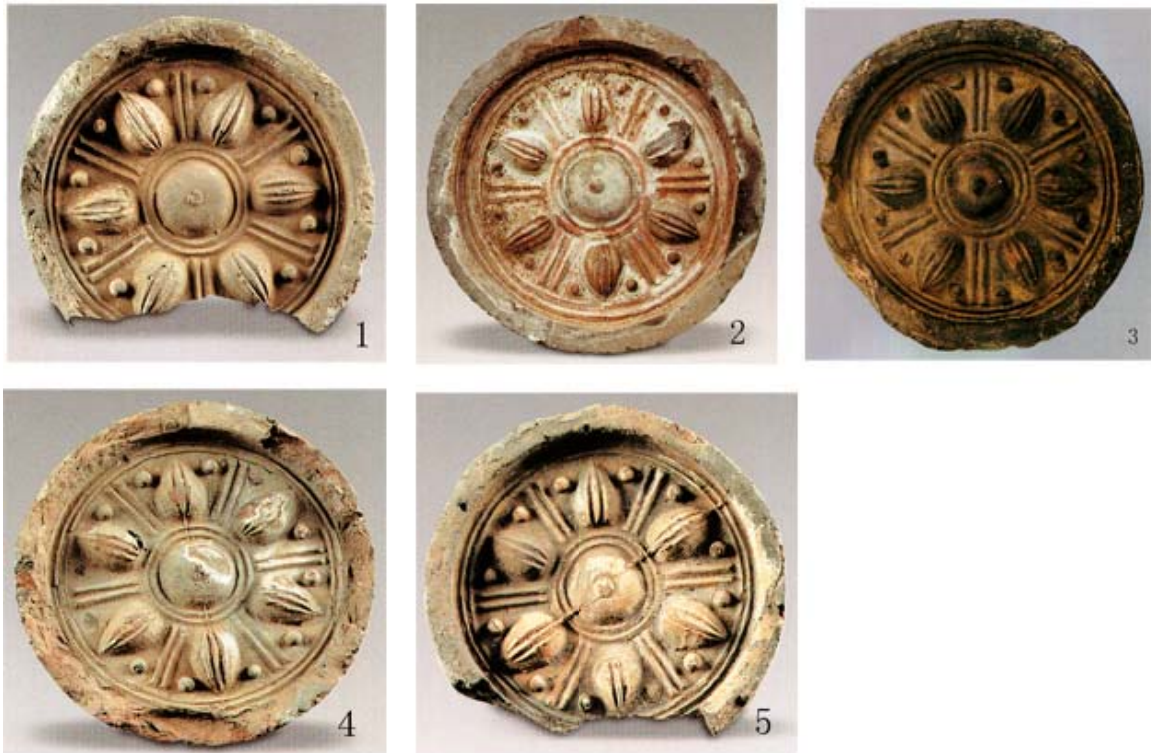
3. 同范瓦當의 구분

본 연구과정에서 와당의 사진과 도면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여러 건의 동범와당을 구분할 수 있었다. 동범와당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와당의 사진과 더불어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사진과 도면자료를 통해서 63건의 동범와당을 구분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은 <삽도 1~63> 및 <표 1~63>과 같다.²¹³⁾

213) 동일한 와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와당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와당면에는 미세한 차이가 생기는데, 이러한 흔적을 통해 제작 순서를 추정할 수 있다. 각 삽도의 번호는 동범을 사용해 와당을 제작한 순서를 의미한다. 단, 삽도28의 동범와당의 경우 제작한 순서를 확인할 수 없다.

<표 1>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6.5	회색	천주총(JYM1000)	集安高句麗王陵, 圖版七六:5
2	16.5	회색	천주총(JYM1000)	集安高句麗王陵, 圖版七七:3
3	16.0	회색	천주총(JYM1000)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 276쪽, 도1
4	15.6	회색	천주총(JYM1000)	集安高句麗王陵, 圖版七六:2
5	16.5	회색	천주총(JYM1000)	集安高句麗王陵, 圖版七六:1



<삽도 1>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2>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회색	천주총(JYM1000)	朝鮮瓦磚圖譜II高句麗, PL5, 11
2		회색	천주총(JYM1000)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 230쪽, 도27
3	16.5	회색	천주총(JYM1000)	集安高句麗王陵, 圖版七七:5
4	16.5	회색	천주총(JYM1000)	集安高句麗王陵, 圖版七八:5
5	16.5	회색	천주총(JYM1000)	集安高句麗王陵, 圖版七八:1
6	16.5	회색	천주총(JYM1000)	集安高句麗王陵, 圖版七七:1
7	16.5	회색	천주총(JYM1000)	集安高句麗王陵, 圖版七八:4
8	16.5	회색	천주총(JYM1000)	吉林省博物館, 圖版36
9	16.5	회색	천주총(JYM1000)	集安高句麗王陵, 圖版七八:3
10	16.5	회색	천주총(JYM1000)	集安高句麗王陵, 圖版七七:6
11	16.5	회색	천주총(JYM1000)	集安高句麗王陵, 圖版七七:2
12	17.2	회색	천주총(JYM1000)	新羅瓦磚, 234쪽, 도765
13	16.5	회색	천주총(JYM1000)	集安高句麗王陵, 圖版七七:4



<삽도 2>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3>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22.2	회색	장군총(JYM0001)	集安高句麗王陵, 圖版一一五:1
2		회색	장군총(JYM0001)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 225쪽, 도22
3		적색	장군총(JYM0001)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 256쪽, 도9
4	21.2	회색	장군총(JYM0001)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I), 345쪽, 도1



<삽도 3>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4>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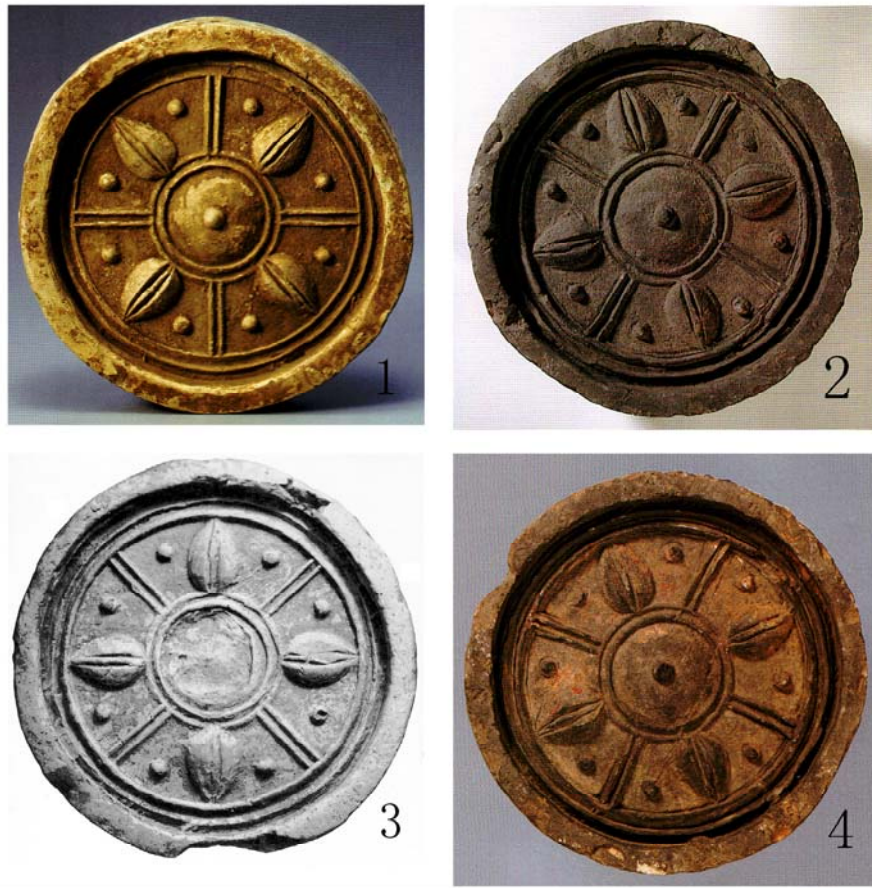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평양 토성리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4, 8
2	16.3	황갈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33쪽, 도22
3		황갈색	평양 청암리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 54쪽, 도273



<삽도 4>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5>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6.9	회색	평양 토성리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279쪽, 도6
2	17.0	회색		MUSEUM(No.596), 原色図版1
3	17.2	황갈색	평양 토성리	朝鮮瓦塼図譜II高句麗, PL5, 12
4	17.0	회색	평양지역(추측)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 278쪽, 도3



<삽도 5>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연대

<표 6>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4.6	적갈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31쪽, 도19
2	14.8	적갈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30쪽, 도18



<삽도 6>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7>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5.0	적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325쪽, 도27
2	14.6	적갈색	평양 船橋里	朝鮮瓦塼図譜II高句麗, PL25, 97
3	14.6	적갈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24쪽, 도12
4	15.0	적색	평양 평천리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I), 288쪽, 도1



<삽도 7>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8>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황색	평양 酒巖山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V), 265쪽, 도1
2	17.3	적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V), 282쪽, 도1



<삽도 8> 2복선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9>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5.8	황갈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322쪽, 도22
2	16.0	황갈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32쪽, 도21
3	15.9	적갈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322쪽, 도22
4			평양경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25, 97
5		적갈색	평양지역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 25쪽, 도79



<삽도 9>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10>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5.3	적갈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20쪽, 도8
2	14.8	적갈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21쪽, 도9
3			평양성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27, 104



<삽도 10>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11>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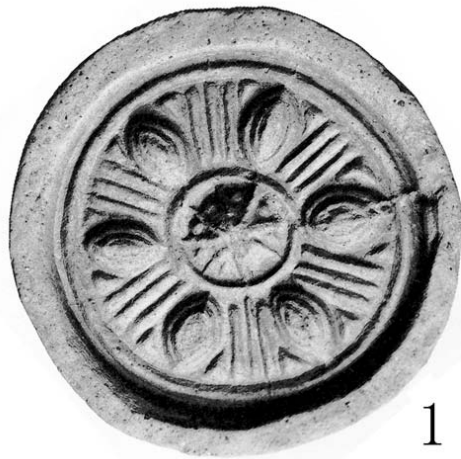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8.0	적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324쪽, 도26
2	18.1	황갈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29쪽, 도17
3	17.0	황갈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323쪽, 도25
4			평양 정백리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260쪽, 도1
5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262쪽, 도3
6			평양 토성리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14, 41



<삽도 11>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12>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4.7	적갈색	평양 평천리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24, 87
2	14.7	황갈색	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28쪽, 도16



1



2

<삽도 12>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연대

<표 13>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회색	평양 토성리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 24쪽, 도66
2		회색	평양 토성리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28, 111
3			평양 토성리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 24쪽, 도69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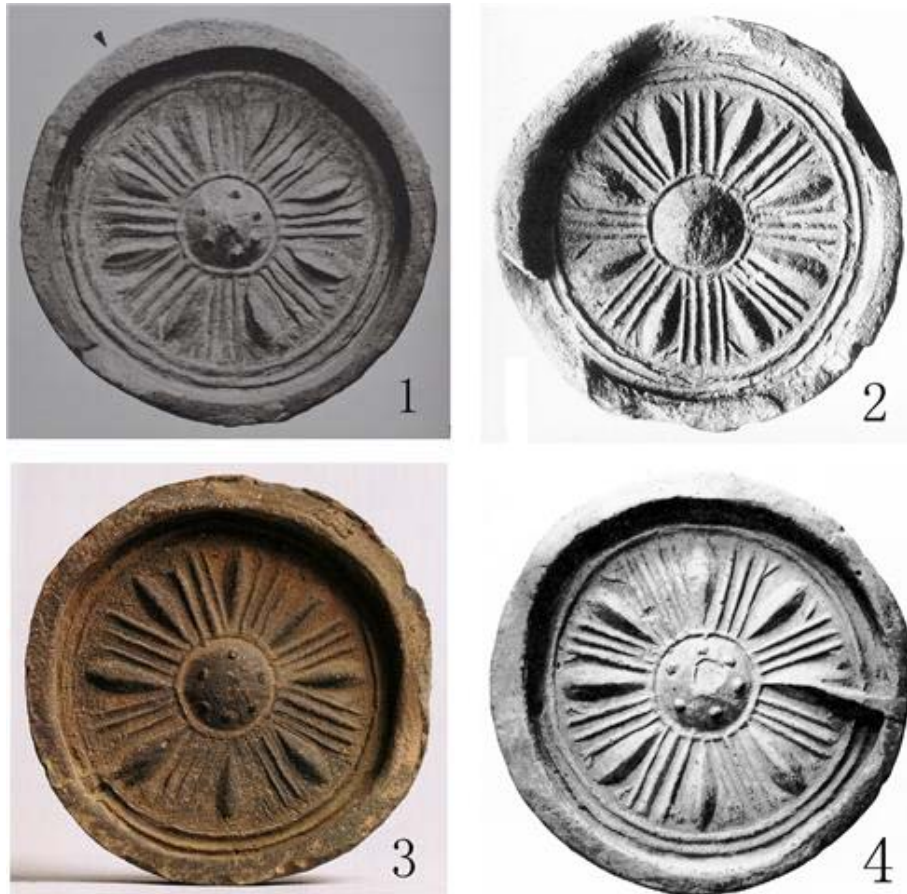


3

<삽도 13>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14>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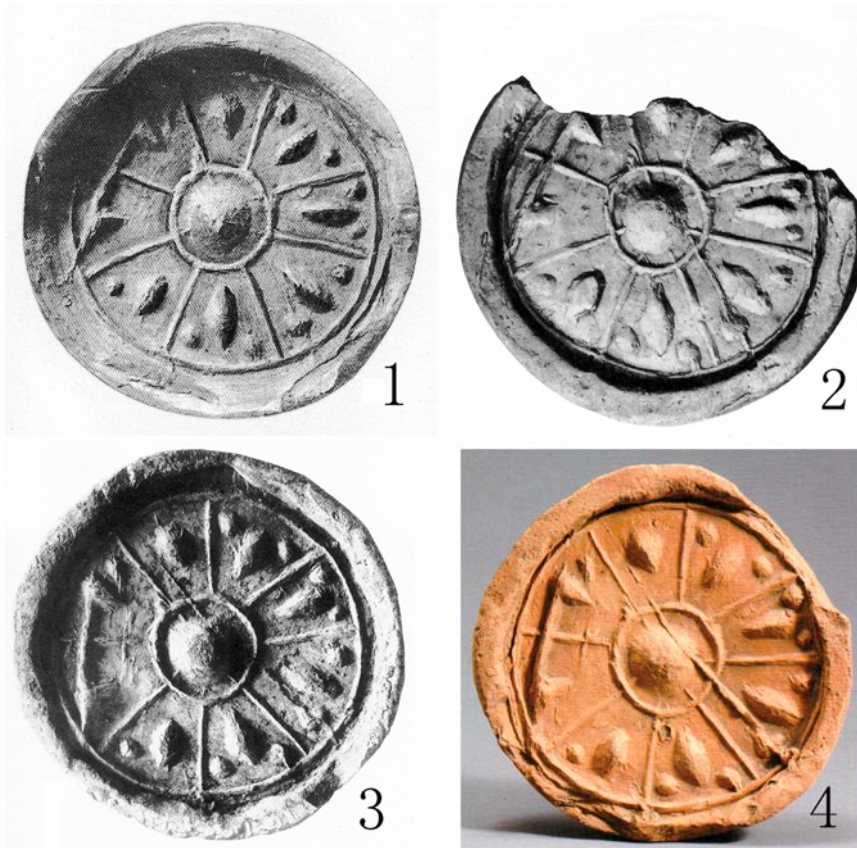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5.3	적색	평양 東大院里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26, 101
2			평양지역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 28쪽, 도98
3	14.8	회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28쪽, 도16
4			평양성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26, 100



<삽도 14>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15>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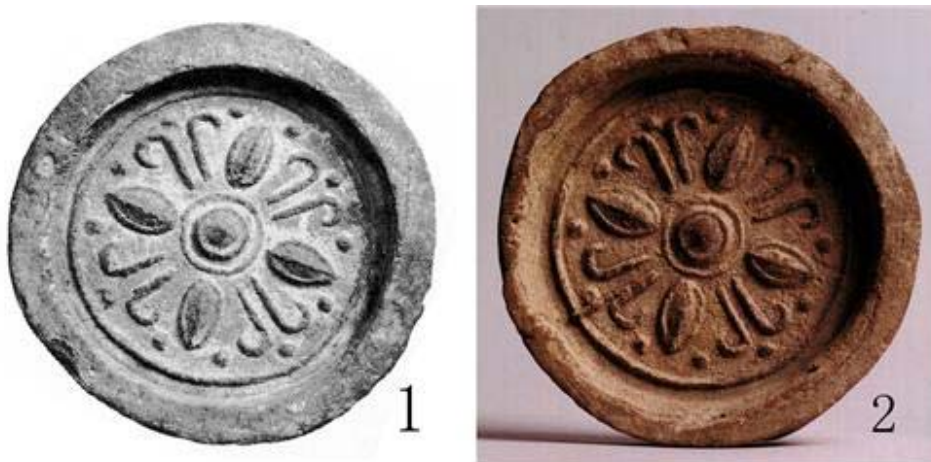
번호	지름	색깔	출토유적	참고 문헌
1			평양외성	조성유적유물도감·3·고구려편(1), 51쪽, 도65·10
2	16.8	적갈색	평양성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28, 111
3		갈색	평양지역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 28쪽, 도94
4	15.15	황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I), 327쪽, 도1



<삽도 15>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16>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5.2			朝鮮瓦磚圖譜II高句麗, PL39, 165
2	15.1	회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28쪽, 도16



<삽도 16>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17>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3.1	황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60쪽, 도45
2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35, 143



<삽도 17>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18>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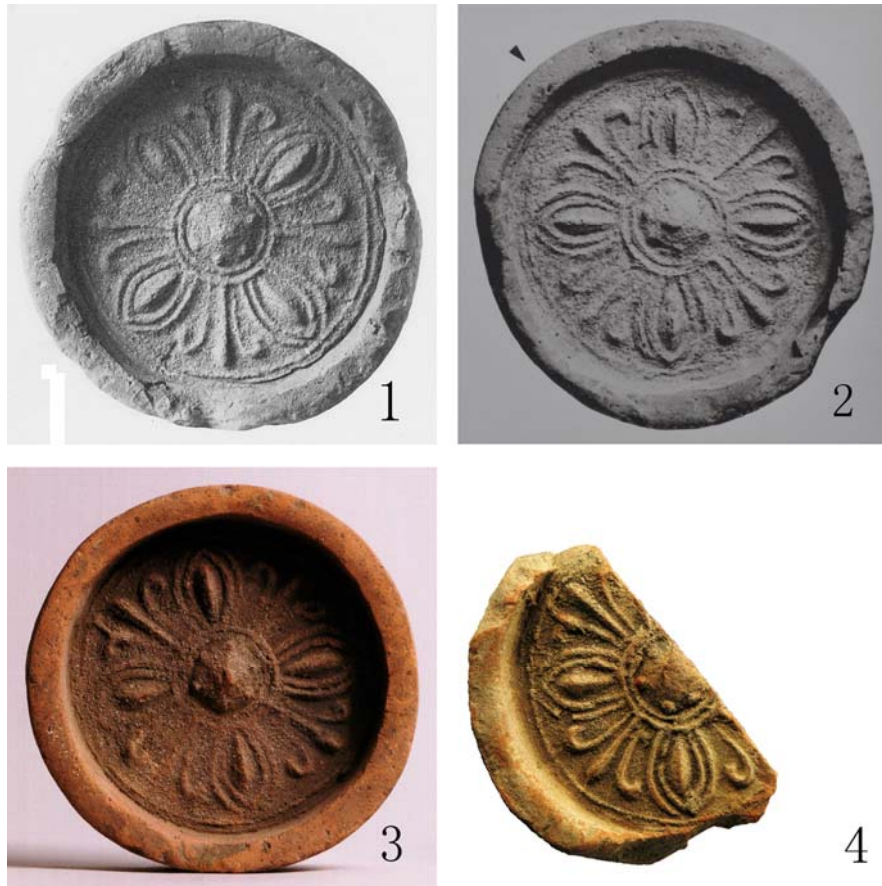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적갈색	평양지역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 228쪽, 도25
2	15.2	적색	평양 助王里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282쪽, 도9
3			평양 평천리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39, 163



<삽도 18>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19>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갈색	평양지역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 37쪽, 도158
2	14.0	적갈색	평양성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36, 150
3	14.6	황갈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62쪽, 도47
4	15.0	황갈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344쪽, 도1



<삽도 19> 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20>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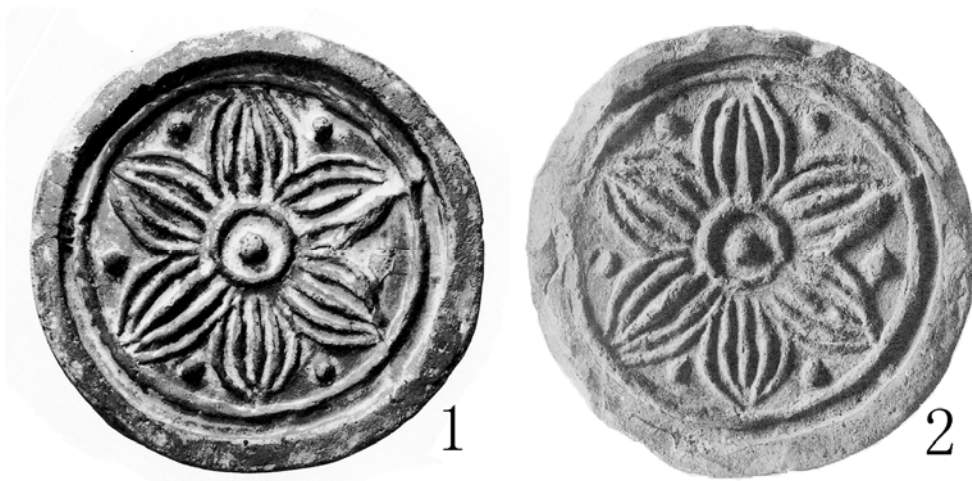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4.5	적색	평양 대동군 평천리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285쪽, 도12
2		적색	평양지역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197쪽, 도165
3			평양부 평천리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20, 72
4	14.7	적색	평양 船橋里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V), 365쪽, 도1
5		적색	평양지역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 365쪽, 도4



<삽도 20>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21>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4.0	적갈색	평양 평천리	朝鮮瓦磚圖譜II高句麗, PL5, 11
2		황갈색	평양 청암리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 47쪽, 도231



<삽도 21>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22>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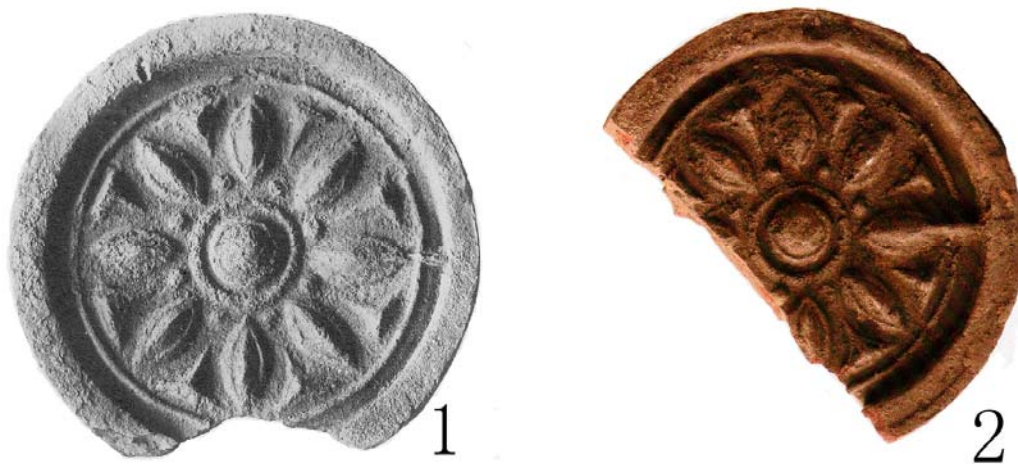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7.3	적색	평양성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40, 170
2	16.8	적갈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80쪽, 도61
3		적색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 42쪽, 도197



<삽도 22>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23>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적색	평양지역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 45쪽, 도216
2	16.8	적갈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V), 232쪽, 도1



<삽도 23>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24>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평양성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47, 202
2	14.2	황갈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79쪽, 도60



<삽도 24>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25>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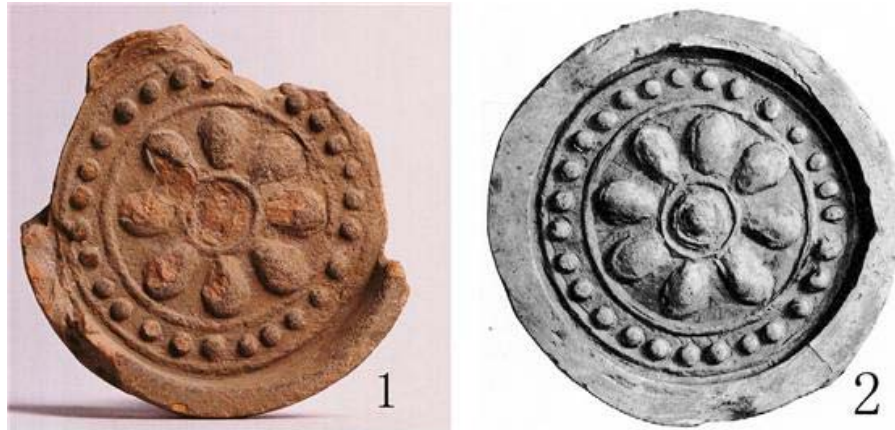
번호	지름	색깔	출토유적	참고 문헌
1		회색	안학궁	조성유적유물도감·3·고구려편(1), 51쪽, 도65:10
2		적갈색	안학궁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 2006, 359쪽, 사진19
3			평양성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40, 168
4		적색	평양지역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 45쪽, 도216



<삽도 25>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26>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3.4	황갈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92쪽, 도73
2	13.8	회색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33, 133



<삽도 26>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27>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5.2	황갈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90쪽, 도71
2	15.3	적갈색	평양성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49, 209
3		적갈색	평양 평천리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V), 236쪽, 도1



<삽도 27>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28>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4.6	적색	환도산성 2호문지	丸都山城, 圖版二六:2
2	14.8	적색	환도산성 궁전유적	丸都山城, 圖版八二:5
3	14.6	적색	환도산성 궁전유적	丸都山城, 圖版八二:6
4	14.4	적색	환도산성 궁전유적	丸都山城, 圖版八三:1
5	15.0	적색	환도산성 궁전유적	丸都山城, 圖版八三:2
6	14.8	적색	환도산성 궁전유적	丸都山城, 圖版八三:3
7	15.0	적색	국내성 體育場地點	國內城, 圖版三九:2
8	14.8	적색	국내성지역	일본 소개 고구려 유물(IV), 339쪽, 도1
9	15.0	적색	국내성 體育場地點	國內城, 圖版三九:4
10	15.0	적색	국내성 體育場地點	國內城, 圖版三九:3



<삽도 28>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제작한 순서를 확인할 수 없다)

<표 29>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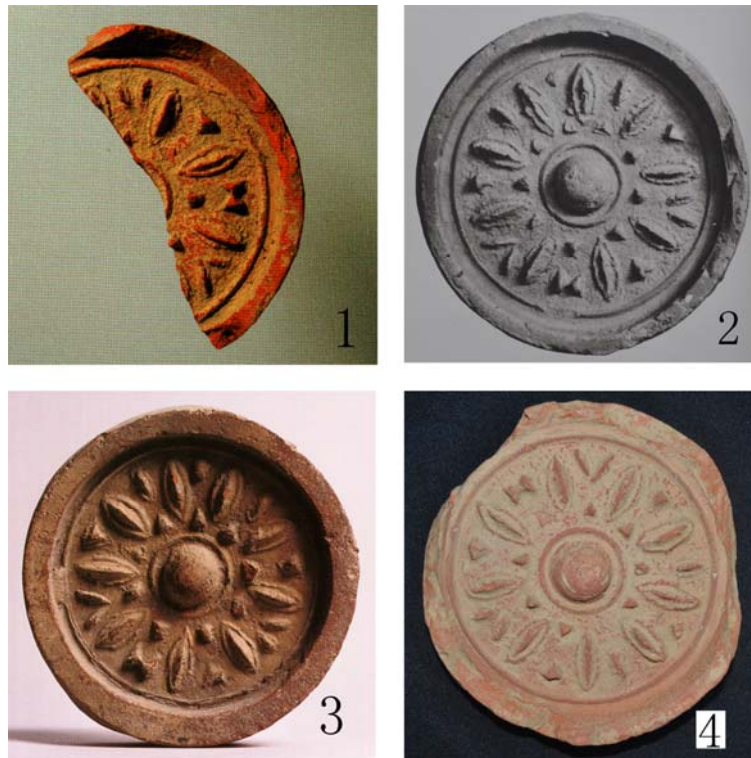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6.0	적색	평안남도 평천구역	우리 곁의 고구려, 222쪽
2	14.6	황갈색		新羅瓦磚, 236쪽, 도779
3		적색	평양지역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 51쪽, 도258



<삽도 29>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30>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적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195쪽, 도158
2	15.3	적색	평양성	朝鮮瓦磚圖譜II高句麗, PL30, 120
3	15.7	적갈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86쪽, 도67
4		적색	평양지역	필자 촬영



<삽도 30>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31>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6.9	적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305쪽, 도7
2	16.1	적갈색	평양성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41, 172
3	16.0	적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91쪽, 도72
4		적색	평양지역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 49쪽, 도240



<삽도 31>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32>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유적	참고 문헌
1	16.6	황갈색	평양성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45, 187
2		적색	평양지역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 54쪽, 도273
3		적색	안학궁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V), 249쪽, 도1



<삽도 32> 무복선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33>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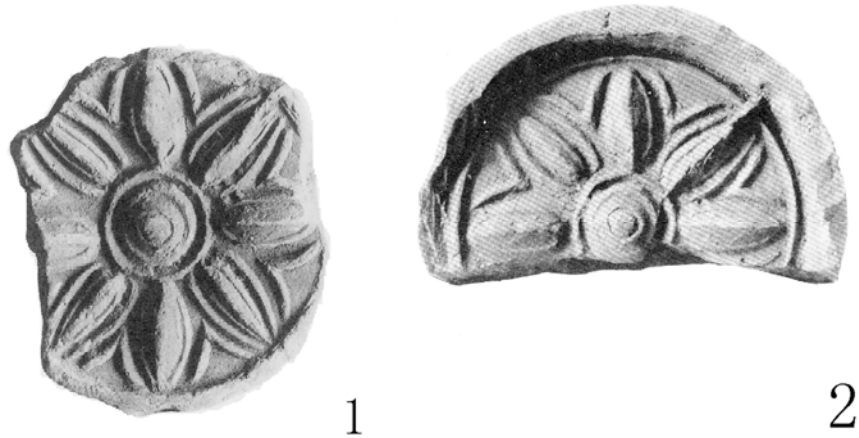
번호	지름	색깔	출토유적	참고 문헌
1	17.0	적갈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359쪽, 도61
2		적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V), 303쪽, 도1



<삽도 33>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34>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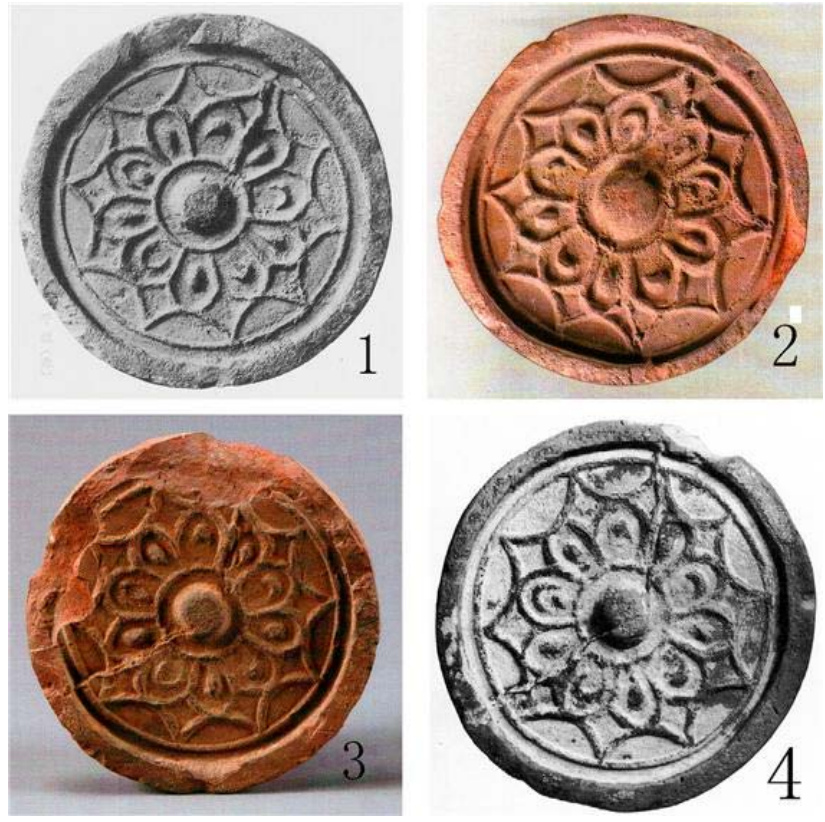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안학궁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 47쪽, 도232
2			평안남도 대동강면	朝鮮古蹟圖譜(二), 102쪽, 도三六三



<삽도 34>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35>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적색	평양지역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 20쪽, 도45
2		적색	평양성 근처	조성유적유물도감·3·고구려편(1), 107쪽, 도158:4
3	14.7	적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V), 354쪽, 도1
4			평양성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41, 173



<삽도 35>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36>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6.8	회색	평양 신리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19, 69
2	17.0	회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41쪽, 도26
3	16.8	회색	평양 新水里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359쪽, 도61



<삽도 36>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37>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회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39쪽, 도24
2			평양 청암리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20, 71
3	16.4	회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I), 335쪽, 도1
4	16.9		평양 신수리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280쪽, 도7
5		회색	평양지역	필자 촬영
6	17.1	적색	평양 청암리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 362쪽, 도1
7		황갈색	평양 청오리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V), 260쪽, 도1



<삽도 37>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38>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6.5	회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67쪽, 도52
2	15.4	황색	평양지역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V), 289쪽, 도1



<삽도 38>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39>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평양 토성리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11, 30
2	10.4	회갈색	평양토성(토성리성지)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V), 318쪽, 도1



<삽도 39>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40>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적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V), 251쪽, 도1
2		황색		필자 촬영
3	15.0	적색	평양지역	지붕 위에 올린 연꽃, 29 쪽, 도19
4		황색	평양지역	필자촬영
5			평양 토성리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18, 64
6	15.1	황갈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51쪽, 도36



<삽도 40>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41>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4.6	황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50쪽, 도35
2		회흑색	평양 토성리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 35쪽, 도140
3	15.0	황갈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V), 340쪽, 도1



<삽도 41>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42>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회색	평양 청암리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263쪽, 도4
2			평양 청암리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13, 36
3		적색	평양 청암리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 364쪽, 도3



<삽도 42>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43>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평양 청암리酒巖洞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12, 34
2	17.5	황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49쪽, 도34



<삽도 43>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44>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4.7	적갈색	평양 石巖里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18, 60
2	14.3	적색	평양지역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 363쪽, 도1



<삽도 44>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45>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유적	참고 문헌
1	13.8	적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V), 361쪽, 도1
2	14.2	적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I), 298쪽, 도1
3	14.1	황갈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311쪽, 도13
4	14.3	황갈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240쪽, 도6
5	14.3	적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307쪽, 도9
6	14.6	황갈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312쪽, 도14
7	14.1	적갈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239쪽, 도5
8	14.2	적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310쪽, 도12
9	14.6	적갈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308쪽, 도10



<삽도 45>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46>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5.0	황색	평양지역	필자 촬영
2	15.3	황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50쪽, 도35



<삽도 46>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47>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2.0	흑갈색	평양 청암리酒巖山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19, 66
2	12.2	황갈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57쪽, 도42



<삽도 47>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48>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황갈색	평양 東大院里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V), 238쪽, 도1
2			평양 상오리	朝鮮瓦磚圖譜II高句麗, PL34, 137



1



2

<삽도 48>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49>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5.8	적갈색	평양 평청리	朝鮮瓦磚圖譜II高句麗, PL59, 239
2		황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73쪽, 도58



1



2



3



4

<삽도 49>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50>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3.8	적색	평양 청암리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V), 272쪽, 도1
2	13.5	적갈색	평양지역	지붕 위에 올린 연꽃, 30쪽, 도22
3		적색	평양지역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冊), 39쪽, 도169
4			대성산성	대성산의 고구려유적, 89쪽, 도⑬



<삽도 50>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51>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5.6	적갈색	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74쪽, 도59
2	15.8	적색	평양 酒巖里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286쪽, 도13
3			평양 토성리성지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53, 225
4	15.6	황갈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316쪽, 도18



<삽도 51>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52>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평양 牡丹臺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37, 156
2	15.7	적색	평양 평천리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275쪽, 도2
3			평양 牡丹臺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37, 155



<삽도 52> 복합 연화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53>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4.8	적색	환도산성 2호문지	丸都山城, 圖版二八:4
2	14.8	적색	환도산성 2호문지	丸都山城, 圖版二八:5
3	15.5	적색	환도산성 2호문지	丸都山城, 圖版二七:1



<삽도 53>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54>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적색	동대자유적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 338쪽, 도23
2	15.5	적색	환도산성 2호문지	丸都山城, 圖版二八:6
3	15.5	적색	환도산성 2호문지	丸都山城, 圖版二六:6
4	15.5	적색	환도산성 2호문지	丸都山城, 圖版二七:6
5		적색	환도산성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 337쪽, 도22
6	15.5	적색	환도산성 2호문지	丸都山城, 圖版二七:3
7	15.5	적색	환도산성 2호문지	丸都山城, 圖版二八:1
8		회갈색	국내성 북성벽 서문지	國內城, 圖版四0:1
9	15.0	적색	환도산성 궁전유적	丸都山城, 圖版八0:3



<삽도 54>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55>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적색	환도산성 궁전유적	丸都山城, 圖版八一:2
2	15.2	적색	환도산성 궁전유적	丸都山城, 圖版八一:1
3	15.0	적색	국내성 體育場地點F4	國內城, 圖版四〇:6
4	15.0	적색	환도산성 궁전유적	丸都山城, 圖版八一:3
5	15.6	적색	환도산성 궁전유적	丸都山城, 圖版八〇:4
6	15.0	적색	환도산성 궁전유적	丸都山城, 圖版八〇:5
7	15.4	적색	환도산성 궁전유적	丸都山城, 圖版八〇:6
8	15.8	적색	국내성 體育場地點F3	國內城, 圖版四〇:4
9	15.4	적색	국내성 體育場地點F4	國內城, 圖版四〇:5
10	16.0	적색	동대자유적	吉林省博物館, 圖版32



<삽도 55>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56>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7.8	적색	환도산성 궁전유적	丸都山城, 圖版八一:5
2	18.4	적색	환도산성 궁전유적	丸都山城, 圖版八一:4
3	18.0	적색	환도산성 궁전유적	丸都山城, 圖版八一:6



<삽도 56>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57>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황갈색	평양 酒巖里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292쪽, 도19
2		흑갈색	평양지역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册), 52쪽, 도265



<삽도 57> 귀면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58> 법륜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적갈색	평양지역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227쪽, 도24
2			평양 평천리	朝鮮瓦埴圖譜II高句麗, PL50, 215



<삽도 58> 법륜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59> 법륜문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평양성	朝鮮瓦埴圖譜II高句麗, PL51, 221
2		적색	평양 평천리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V), 337쪽, 도1
3		적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V), 241쪽, 도1



<삽도 59> 법륜문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60> 기타 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갈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15.3	적갈색	평양지역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44, 184
2	15.9	황갈색	평양 평천리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288쪽, 도15
3	15.2	적갈색	전 평양 지역	고구려와당, 109쪽, 도86



<삽도 60> 기타 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61> 기타 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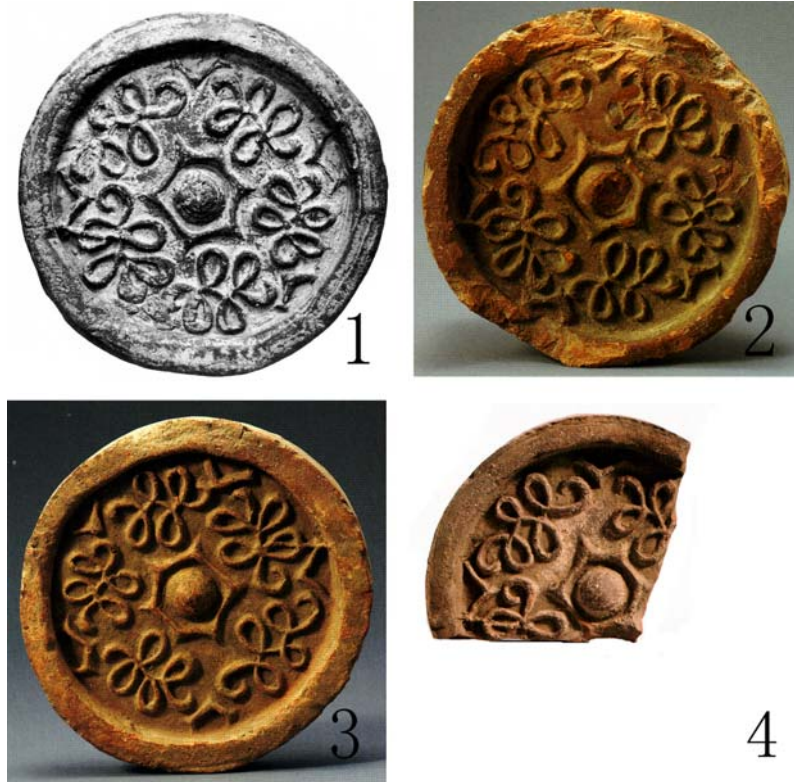
번호	지름	색갈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적갈색	평양지역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 220쪽, 도17
2	16.2	적갈색	평양 평천리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45, 189



<삽도 61> 기타 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62> 기타 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평양 서성리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48, 207
2	16.1	황갈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303쪽, 도5
3	16.3	황갈색	평양 평천리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 289쪽, 도16
4	15.8	적색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I), 336쪽, 도1



<삽도 62> 기타 와당 동범와당 각종

<표 63> 반와당 동범와당 속성일람표

번호	지름	색깔	출토 유적	참고 문헌
1			평양성	朝鮮瓦塼圖譜II高句麗, PL60, 243
2		황갈색	전 평양지역	고구려와당, 101쪽, 도79



<삽도 63> 반와당 동범와당 각종

4. 고구려 와당의 靑鞞技術

靑鞞技術은 중국 고대 제와술 중의 하나이다. 보통 생산 과정이 복잡하고 제조 원가가 높지만, 아름답고 오랜 세월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 중국에서는 한 동안 유행하였다. 일반적으로 皇家의 건축 등 고급 건축물에 사용되었다. 고대 동아시아 지역의 빈번한 교류로 인하여 청곤기술이 고구려지역으로도 유입되어 고구려 제와술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지금까지 발표된 기와에 관한 연구성과들을 볼 때, 청곤와기술은 국내성시기 후기에 국내성지역에 등장하였고, 천도로 인해 평양지역도 출현하게 되었다. 한편, 고구려 국내성지역에서 출토된 靑鞞瓦磚은 중국 중원지역의 청곤와에 대한 일련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북위지역에 청곤와가 출현한 시점과 유행시기 등에 대한 연구도 촉진되었다.

1) 청곤기술

靑鞞瓦란 기와의 표면에 ‘塗料’를 바르고 마연하여 구조가 치밀하고 경도가 높은 기와 제품이다. 와당과 수키와, 암키와, 치미 등이 있으며, 흑색계(진회색)와 적색계가 있다. 청곤와는 고대 중국 5호16국시대의 後趙시기에 등장하여 北魏, 東魏, 서魏, 北齊, 北周, 隋唐時代를 거쳐 宋代 이후에 점차 사라졌다. 河北省 臨漳縣 16국 北朝時代의 鄴城遺址과 山西省 大同市 北魏 平城遺址, 內蒙古自治區 托克托縣 北魏 雲中古城, 內蒙古自治區 和林格爾縣 北魏 土城子古城, 河南省 洛陽市 北魏와 隋唐時代의 洛陽城, 山西省 太原市 東魏北齊時代의 晉陽古城, 陝西省 西安市 隋唐時代의 長安城 江蘇省 揚州市 隋唐 揚州城, 江蘇省 鎮江市 隋唐 鉄甕城, 고구려 태왕릉²¹⁴(도면 26-1, 2), 장군총²¹⁵(도면 26-3), 오희분 5호묘²¹⁶(도면 26-4), 평양토성유적²¹⁷(도면 26-5), 발해 상경성 궁전유적²¹⁸(도면 26-6), 개성 고려궁성 궁전유적²¹⁹ 등에서 청곤와 혹은 靑鞞磚이 발견되었다.

文素松²²⁰, 黃士斌²²¹, 邵又誠²²², 張克²²³, 王飛峰²²⁴ 등이 청곤와기술에 대

214) 鄭仁盛, 藤井和夫, 2010,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I), 동북아역사재단.

21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외, 2010, 『集安出土高句麗文物集粹』, 科学出版社.

216) 張福有, 孫仁傑, 遲勇, 2007, 「高句麗王陵統考」, 『東北史地』, 4.

217) 동북아역사재단, 2008,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 동북아역사재단.

218) 黑龍江文物考古研究所, 2009, 『渤海上京城』(1998~2007年度考古發掘調查報告), 文物出版社.

219) 이상준, 박성진외, 2009, 『개성 고려궁성』, 국립문화재연구소.

220) 文素松 編, 何日章 校, 1930, 『瓦削文字譜』, 思簡樓影印本.

221) 黃士斌, 1962, 「漢魏洛陽城出土的有文字的瓦」, 『考古』, 9.

222) 邵又誠, 1963, 「漢魏洛陽城出土瓦削文字補談」, 『考古』, 5.

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文素松, 黃士斌, 邵又誠, 張克은 청곤와에 있는 명문을 바탕으로 그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필자는 북위시대의 청곤와기술을 平城時代와 낙양시대로 구분하였다. 평성시대의 청곤와기술은 초기 단계이므로 기술이 아직 미숙하였으나, 평성시대 후기에 北魏 孝文帝의 일련의 개혁 방안에 따라 북위의 정치와 경제 등의 국력이 크게 높아지고 청곤와 기술도 점점 숙련되어갔다. 497년에 北魏가 낙양으로 천도한 후 이 기술은 궁극적으로 숙련되어 遺와 輪, 削, 昆 등 완전한 생산 과정을 형성하였다. 북위 낙양시기는 중국 고대 청곤와 기술이 가장 발달한 시기이다. 그 요인은 다음과 같다.

北魏 이후의 東魏와 西魏, 北齊, 北周 등의 국가가 존재한 시간이 짧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북위와 견줄 수가 없으므로, 좋은 품질의 청곤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唐代는 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방면으로 북위보다 강대한 국가였지만, 이 시대에는 사유기와를 중시하는 풍조가 나타났으며, 안사의 난(安史之亂) 이후에 국력이 급속하게 쇠락하여 청곤와 기술은 한동안 사라졌다. 宋代 『營造法式』²²⁵⁾에 청곤와와 관련된 기록이 있으나, 지금까지 宋代 유적에서는 청곤와가 발견된 바가 없으므로, 宋代 청곤와의 제작 기술과 수준 등의 문제는 앞으로의 발굴조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北魏 평성유적에서는 연대가 명확한 영고릉과 면당유적이 발굴되었다. 그러나 궁전유적의 연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북위 평성시대에 언제부터 청곤와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집안지역의 고구려 왕릉과 귀족고분에서 발견된 청곤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우선, 태왕릉에서 청곤와당과 명문전이 발견되었고, 장군총에서는 청곤와당이 발견되었으며, 오희분5호묘에서는 청곤 수키와가 발견되었다. 427년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청곤와는 평양지역에서도 발견되었다. 태왕릉에서 발견된 청곤와는 고구려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대의 청곤와이다. 그러나 그 시기의 삼연 지역이나 고구려와 교류가 있었던 남조지역에서는 청곤와가 발견된 바가 없고, 고구려지역에 있는 청곤와는 북위 청곤와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다. 그렇다면 北魏가 청곤와 사용한 연대는 광개토왕을 안치하기 전, 약 414년경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魏書』 및 『三國史記』 등의 기록에 의하면 北魏와 고구려의 교류는 고구려 장수왕대에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4세기 말에는 北魏와 고구려 사이에 後燕이 가로막고 있었고 고구려와 北魏의 교류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

223) 張克, 1989, 「北魏瓦削文字考」, 『文博』, 2.

224) 王飛峰, 2012, 「關於永固陵的几个問題」, 『中國國家博物館館刊』, 11.

225) 『營造法式·권15』:「青輓瓦(滑石輓 茶土輓), 青輓瓦等之制, 以干坯用瓦石摩擦(筒瓦於背, 板瓦於仰面 磨去布紋), 次用水湿布揩拭, 候干, 次以洛河石輓研, 次摻滑石末令勻(用茶土輓者, 准先摻茶土, 次以石輓研).」

지만, 필자는 교류의 가능성이 높았다고 본다. 4세기 말 參和陂之戰 이후에 북위와 後燕 사이의 평형 정세와 後燕 개국 황제 慕容垂의 사망 뒤 북위는 後燕과의 전쟁에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후에 慕容寶 시기(396-398년 재위) 및 慕容盛시기(398-400년 재위)와 慕容熙시기(401-407년 재위)를 거쳐, 406년 12월에 慕容熙는 고구려의 木底城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를 통해 두 강적 사이에 있었던 後燕은 북위와 고구려의 교류를 가로막을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고구려와 북위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하면, 兩者가 해로를 통해 교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태왕릉과 장군총, 오회분5호묘, 그리고 평양지역에서 발견된 청곤와는 北魏와 교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지역의 청곤와당은 회색계 연화문와당만 있으며, 와당의 무늬는 복선연화문이 중심적이다. 청곤와당의 흔적은 와당 정면과 뒷면에 모두 있으나 막새부와 접합한 수키와는 청곤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청곤와 표면에 바른 ‘塗料’에 대해 明代 학자 崔銑은 『彰德府志·권8· 鄴都宮室志』 중에 ‘瓦用胡桃油, 光暉奪目’이라고 기록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이 ‘도료’를 호두기름(胡桃油)으로 생각했으나, 이는 추정에 불과할 뿐이며 이에 대한 과학적인 검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16국 북조시기 청곤와를 생산하는 가마터는 총 두 곳을 발견하였다. 하나는 河北省 磁縣에 위치한 16국 시대 가마터²²⁶⁾이고, 다른 하나는 山西省 大同市 근처에 西册田 北魏 가마터²²⁷⁾이다.

2) 청곤기술의 동아시아 지역 전파

지금까지 고고학 발굴조사에 따르면 청곤와는 16국 後趙시기에 등장하여 宋代 이후에 점차 사라졌다. 北魏, 東魏, 西魏, 北齊, 北周, 隋唐, 高句麗, 渤海, 高麗 등의 지역에서 청곤와 혹은 청곤전이 발견되었다. 동아시아 지역 기와 제작기법의 전파와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된다.

첫째, 중국에서는 청곤와전의 제작기법이 한 계통으로 내려왔으나, 고구려와 발해, 고려 지역의 청곤와기술은 각기 그 원류가 다르다. 고구려지역의 청곤와기술은 북위의 영향을 받았고, 발해지역의 청곤와 기술은 唐代의 영향을 받았으며 고려지역의 청곤와 기술은 宋代의 영향을 받았다.

둘째, 청곤와전으로는 와당, 수키와, 암키와, 치미, 귀면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색깔은 흑색계 혹은 진회색과 적색계 등 두 가지가 있다. 북위시기에 적색계 청곤와를 제외한 다른 시기의 청곤와는 모두 흑색계이다.

셋째, 청곤와전을 사용한 건축은 그 등급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궁전유적,

226) 朱巖石, 何利群, 2007, 「河北省磁縣北朝墓群63M發掘及十六國窯址」, 『中國文物報』, 7월 27일 제2판

227) 王銀田, 宋建忠, 殷憲, 2010, 『北魏西册田製陶遺址調查報告』, 『文物』, 5

제왕릉침, 皇家의 사찰 등 주로 황가 건축물의 기와 사용 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고대중국 황가 건축물의 특징 중 하나이다.

넷째, 청곤와전의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에 청곤와전을 제작한 국가는 상당한 경제적 위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곤와전은 唐나라, 渤海 그리고 고구려지역에 시유기와 혹은 청자기와의 등장하면서 점차 사라졌다.

다섯째, 청곤와와 청곤전은 그 제작기법이 상이하다. 청곤 와당과 수키와 및 암키와는 보통 와당의 정면, 암키와의 凹面, 수키와의 凸面에만 도료를 발라서 마찰하였는데, 일부 와당과 수키와 및 암키와의 전체에 도료를 바르고 마찰한 경우도 있다. 북위시기의 청곤전은 燒造를 할 때 측면에 안료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도료를 바르지 않거나 마연의 절차가 없는 독특한 생산 체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된 연구가 필요하다.

3) 청곤와전을 통해 본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의 피장자

천추총에서 출토된 瓦塼 중에는 青輓瓦塼이 없다. 태왕릉에서는 青輓瓦와 青輓塼이 모두 출토된 반면, 장군총에서는 청곤와만 발견되었다. 천추총에서 출토된 종류의 연화문와당과, ‘永樂’명문이 새겨진 수키와를 기준으로 천추총 연화문와당 연대는 407년경(‘천추총 연화문와당의 연대’부분의 논술 참고)으로 상정할 수 있다. 천추총에서는 권운문와당이 발견되었는데, 이 권운문와당은 천추총을 처음 축조할 때 사용된 건축재료이며, 연화문와당과 ‘永樂’명 수키와는 광개토왕대에 천추총을 수습할 때 사용된 기와이다. 그리고 광개토왕비의 기록(“自上祖先王以來,墓上不安石碑,致使守墓人—烟戶差錯,惟國罫上廣开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上立碑,銘其烟戶不令差錯”)을 통해, 천추총은 광개토왕대 수습한 ‘先王’의 무덤일 가능성이 크므로 왕릉의 연대는 광개토왕시대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고구려지역의 청곤와기술은 398년에 北魏의 平城천도 이후 영향을 받아 출현하였다. 398년은 광개토왕 8년이므로 태왕릉의 피장자는 광개토왕이거나 장수왕이다.

장군총에서 출토된 건축유물 중에는 청곤연화문와당이 있는데, 그것의 연대는 광개토왕대이거나 장수왕대로 추정된다. 천추총과 태왕릉, 그리고 장군총은 모두 계단석실적석총으로 무덤이 지상에 위치해 심하게 도굴당했으며, 특히 장군총에서 출토된 유물의 수량과 종류는 태왕릉에 비해 적은 편이다. 장군총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건축자재이고, 토기 등 생활용품이나 제사용 유물이 적은 것으로 보아 본 고분의 축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장군총 서남쪽의 건축유적 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건물 역시 당시에 미처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세 고분의 조영 순서는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의 조영 순서’부분의 논술 참고)이다. 태왕릉은 冢形石槨이 있고 천추총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석곽 파편도 출토되었다. 지금까지 집안지

역 왕릉급고분 중에 천추총과 태왕릉에서만 석곽이 발견되었고, 조영 순서가 태왕릉보다 늦은 장군총에서는 석곽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장군총의 축조가 완료되지 않아 석곽도 만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천추총에서는 ‘千秋萬歲永固’명과 ‘保固乾坤相畢’명 명문전이 발견되었고 태왕릉에서 ‘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명 명문전이 발견되었으나, 장군총에서는 명문전이 발견되지 않았다. 장수왕 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으므로, 장수왕의 무덤과 관련된 축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또한 장군총 서남쪽 건축유적의 발견조사 결과는 이 건물이 궁극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²²⁸⁾. 장군총의 발굴조사 결과는 장수왕 때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사실과 완전히 일치한다. 즉, 장군총은 장수왕의 왕릉이나 천도로 인하여 완성되지 못한 虛陵인 것이다. 그렇다면 청곤와전이 모두 발견된 태왕릉의 피장자는 광개토왕이며, 청곤와전이 발견되지 않은 천추총의 피장자는 고국양왕이다.

이상으로 태왕릉에서 발견된 辛卯명 말방울과 왕릉의 조영 순서 등의 재검토를 통해 천추총의 피장자가 고국양왕이며, 태왕릉의 피장자가 광개토왕이고, 장군총은 장수왕의 허릉으로 비정하였다.

IV. 고구려 와당의 형식학적 연구

고구려 고고학의 다른 연구분야와 마찬가지로 고구려 와당에 대한 형식학적 연구 역시 일제강점기부터 일본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고구려 와당의 형식학적 연구에 대1중요 관점은 다음과 같다. 關野貞은 고구려 와당의 무늬를 기준으로 복선연화문, 귀면문, 연화귀면문, 인동연화문, 인동문, 연화문, 복선문, 蟠虺紋, 游虺紋, 渦線紋, 纏枝紋 등 12가지로 나누었다²²⁹⁾. 한국학자 高裕燮은 고구려 와당의 무늬가 연화문, 인동문, 獸面紋, 당초문, 복선문, 중권문등이 있다고 보았다²³⁰⁾. 梅原末治는 諸岡榮治이 수집한 고구려 와당을 바탕으로 복선연화문, 연화문, 연화귀면문, 귀면문, 연화인동문, 인동문, 蟠虺紋, 游虺紋, 紐枝紋, 渦線紋, 복선문, 重圈紋으로 분류하였다²³¹⁾. 岡崎敬은 고구려 와당의 무늬에 따라 권운문, 연관문, 인동문, 연관 인동문, 귀면문, 연관귀면문, 渦線紋, 重圈紋 등으로 나누었다²³²⁾. 柳在雨는 고구려 와당을 무늬를 기준으로 기하학문양 와당, 연화문와당,

22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王志剛외), 2011, 「集安將軍墳西南建築遺址의考古發掘」, 『邊疆考古研究』, 10, 科學出版社

229) 關野貞, 1928, 『考古學講座第五卷一瓦』, 雄山閣.

230) 高裕燮, 1932, 「高句麗의美術—朝鮮美術史話」, 『東方評論』, 1·2, 東方評論社.

231) 諸岡榮治(編輯), 梅原末治(校), 1935, 『樂浪及高句麗古瓦圖譜』, 便利堂.

인동문와당, 귀면문와당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²³³). 林至德, 耿鐵華은 집안지역 고구려 와당을 중심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명문와당, 연화문와당, 귀면문와당, 인동문와당 등이다²³⁴). 李殿福은 집안지역 와당을 무늬를 기준으로 연화문, 귀면문, 인동문, 권운문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²³⁵). 魏存成은 집안지역 고구려 와당의 형식을 권운문, 연화문, 귀면문, 인동문, 연주 유정문 등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²³⁶). 千田剛道는 집안지역 고구려 와당을 권운문와당, 인동문와당, 귀면문와당 등으로 분류하였다²³⁷). 耿鐵華, 尹國有은 집안지역 고구려 와당을 권운문와당, 연화문와당, 귀면문와당, 인동문와당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²³⁸). 李梅는 중국, 북한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을 권운문와당,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 귀운문 와당으로 분류하였다²³⁹). 趙美貞는 고구려 연화문와당을 복선연화문와당, 무복선연화문와당, 연화복합문와당으로 구분하였다²⁴⁰). 백종오는 집안지역 고구려 와당을 무늬에 따라 권운문와당,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 용면문와당으로, 평양지역 고구려 와당은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 용면문와당, 보상화문와당, 蔓草文瓦當, 纏枝文瓦當으로 구분하였다. 한국학자 김희찬은 각 형식별 고구려 와당의 형식분류 등의 문제를 연구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고구려 와당의 형식학적 연구는 한 지역(예를 들면 집안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이나 한 종류의 와당(예를 들면 연화문 와당)을 연구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 중국 요녕지역 고구려 산성 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을 포함한 종합적인 형식학적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런 현 실정을 볼 때, 趙美貞의 고구려 연화문와당 형식분류 연구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처음으로 연화복합문의 개념을 고안해 고구려 와당 전반의 형식학적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후 김희찬은 趙美貞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화복합문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복합연화문와당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구려 와당의 체계적인 수집을 바탕으로 고구려 와당의 형식학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고구려 와당의 형식학적 연구 전에 먼저

232) 岡崎敬, 1979, 「高句麗の土器・陶器と瓦搏」, 『世界陶磁全集17・韓国古代』, 小学館.

233) 柳在雨, 1980, 「高句麗 瓦當文様の 様式的考察-수막새 기와를 中心으로」, 『弘益工業專門大學論文集』, 11.

234) 林至德, 耿鐵華, 1985, 集安出土的高句麗瓦當及其年代, 考古, 7.

235) 李殿福, 1991, 『高句麗・渤海の考古と歴史』, 學生社.

236) 魏存成, 1994, 『高句麗考古』, 吉林大學出版社.

237) 服部敬史, 千田剛道 외, 1994, 「高句麗都城と山城——中国東北地方における都城と山城の基礎的研究(千田剛道, 「瓦からみた高句麗古都集安」), 『青丘學術論集』, 5, 財団法人韓國文化研究振興財団.

238) 耿鐵華, 尹國有, 2001, 『高句麗瓦當研究』, 吉林人民出版社.

239) 李梅, 2002, 「高句麗瓦當發現與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240) 趙美貞, 2004, 「高句麗蓮花文瓦當에 對한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고구려 와당의 형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고구려 와당은 그 형태에 따라 크게 원형 와당과 반원형 와당으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와당의 무늬를 기준으로 여러 형식으로 세분이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고구려 와당을 형태에 따라 원형와당과 반원형와당으로 크게 나누고, 원형와당은 무늬의 종류와 구성방식 등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분류를 진행하고, 각 형식별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원형와당의 형식학적 연구

원형와당은 중국과 북한, 남한의 고구려유적에서 모두 출토되었다. 무늬에 따라 권운문와당,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 귀면문와당, 법륜문와당, 중권문와당, 인면문와당, 연주문와당 및 기타까지 아홉 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

1) 권운문와당

권운문와당이란 막새부의 주 무늬가 권운문이고, 대부분 와당의 주연부나 내향연호부, 자방부에 명문이 있다. 특히 일부 年號명문이나 干支명문은 고구려 고고학 및 역사학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권운문와당은 이 명문의 유무에 근거해 명문권운문와당과 무명문권운문와당으로 분류된다.

권운문와당은 국내성지역에서만 발견되는데, 주로 국내성유적과 고구려 왕릉급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1945년 이전에 발견된 일부 권운문와당은 일본 학자들의 수집품이었기 때문에 출토 지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간의 고구려 와당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권운문와당은 고구려 최초의 와당으로 생각된다.

(1) 명문권운문와당

명문권운문와당은 명문에 따라 연호명문권운문와당과 간지명문권운문와당, 一般명문권운문와당으로 분류한다. 명문은 주로 권운문와당 주연부나 내향연호부, 자방부에 위치하고, 명문의 형태는 모두 陽文으로 막새부와 같이 만든 것이다.

① 연호명문권운문와당

지금까지 발견된 연호명문은 太寧 뿐이며, 그 수량 또한 많지 않고, 국내성유적에서만 출토되었다. 출토 지점은 影劇院 서쪽과 人民浴池, 국내성 南門內이고, 권운문의 무늬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눌 수 있다. 影劇院 서쪽과 인민욕지에서 출토된 와당은 A형에 속하고, 국내성 남문내의 출토품은 B형에 속한다. 1963년에 인민욕지유적에서 A형 와당(삽도 64-1) 완성 한 점이 출토되었다. 주연부와 권운문 사이에 ‘太寧四年□□閏月六日己巳造保宜子孫’ 명문이 있고 막새부에

는 권운문과 복선, 부조 삼각형 문양이 있다. 태토는 夾砂灰陶이고 지름은 12.5cm이다. 影劇院 서쪽 출토품은 심하게 파손되었으나 ‘ \square 寧四年太歲’의 명문을 확인할 수 있고 무늬와 명문의 위치 등은 인민욕지유적의 ‘太寧四年’명 와당과 똑같다. 남문내의 출토품(삽도 64-2)은 대체로 완형에 가깝고 내향연호부에 ‘太寧 \square 年四月造作’의 명문이 있으며, 무늬는 인민욕지유적의 출토품과는 큰 차이가 있다. 막새부에 내향연호문이 있고 태토는 夾砂灰陶이며 지름은 14.0cm이다.



삽도 64-1 A형



삽도 64-2 B형

② 간지명문권운문와당

이 유형의 와당은 그 수량이 비교적 많고, 서대묘와 우산992호분, 우산3319호분, 국내성유적, 梨樹園子南유적, 麻線中學校 서북쪽에서 출토되었다. 일반적으로 간지명문은 막새부의 내향연호부에 위치하고 자방부에 ‘泰’자 혹은 ‘大’자, ‘大吉’ 등의 명문이 있는 형태이다. 권운문의 형태와 무늬 구성 등에 따라 두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A형(삽도 65-1)은 우산3319호분에서 발견되었는데, 막새부는 四分式이고 내향연호부에 ‘乙卯年癸酉’ 명문이 있는 지름 16.0cm의 와당이다. B형의 막새부는 八分式이고 명문의 위치에 따라 Ba형과 Bb형으로 세분한다. Ba형은 우산3319호분에서 ‘丁巳 \square \square \square \square 歲 \square \square \square \square 萬世太歲在丁巳五月廿日’명(삽도 65-2)과, ‘ \square \square \square \square \square 四時興詣 \square \square \square 萬世太歲在丁巳五月廿日’명(도면 27-1) 2점이 출토되었으며, 명문은 주연부에 위치하고, 각각 15.5cm와 16.0cm이다. Bb형 권운문와당은 명문이 주로 내향연호부에 위치하고 국내성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서대묘에서 ‘己丑年 \square \square 于利作’명(삽도 65-3)과 ‘ \square 歲在 \square \square 年造 \square ’명(도면 27-2) 권운문와당이 발견되었는데, 각각 지름은 14.0cm, 14.5cm이다. 우산992호분에서 ‘戊戌年造瓦故記歲’명(도면 27-3~4)과 ‘乙丑年造瓦 \square \square 八’명(도면 27-5) 권운문와당이 출토되었다. 국내성유적에서는 ‘太歲 \square \square 年造瓦

九'명(도면 27-6)과 '太歲□□□□九'명(도면 27-7), 그리고 '□□年造瓦故記歲'명(도면 27-8) 권운문와당이 발견되었고 각각의 지름은 약 12.0cm, 12.0cm, 15.0cm이다. 梨樹園子南유적에서는 '歲□戌年造瓦啓記'명(도면 27-9) 권운문와당이 발견되었고 麻線中學校 서북쪽에서 '乙丑'명(도면 27-10) 권운문와당이 출토되었으며 지름은 약 15.0cm이다. 집안 인민욕지유적과 勝利村 消防隊에서 '□□□□□□月造記'명(도면 27-11)과 '阜頁作'명(도면 27-12) 권운문와당이 발견되었다. 이 와당의 간지명문 부분은 파손되었으나 그 무늬가 간지명문권운문와당 Bb형과 비슷하므로 같은 유형에 속한 것으로 생각된다. 각 와당의 지름은 약 14.0cm이다.



삽도 65-1 A형



삽도 65-2 Ba형



삽도 65-3 Bb형



삽도 66-1 A형



삽도 66-2 B형

③ 일반명문권운문와당

일반명문권운문와당이란, 막새부에 명문이 있으나 그 내용이 연호나 간지도 아닌 종류로서, 수량이 매우 적은 편이다. 주로 梨樹園子南유적과 우산3319호분 등에서 출토되었다. 명문의 내용에 근거해 A형과 B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A형의 명문은 '千谷民造', B형의 명문은 '十谷民造'이다. A형 와당(삽도 66-1)은

1984년에 우산3319호분에서 발견되었고, 잔존 부분의 내향연호부에 명문이 있다. B형 와당(삽도 66-2)은 1945년 이전에 梨樹園子南유적 등지에서 출토되었고, 잔존 부분의 내향연호부에 명문이 있다. 태토는 夾砂灰陶이고 지름이 약 14.0cm이다.

(2) 무명문권운문와당

무명문권운문와당은 일부 막새부의 내향연호부에 새와 비슷한 무늬가 있다. 이 형식의 와당은 마선2100호분과 천추총, 국내성유적지 등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태토는 모두 夾砂灰陶이다. 복선의 수량과 내향연호문의 유무 등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은 천추총에서 파편 한 점(도면 28-1)으로 발견되었는데, 한 조의 복선이 있고 주 무늬는 권운문이다.

B형은 두 줄의 복선이 총 8조 있다. 막새부는 8등분으로 나누어지고, 권운문 등의 무늬에 따라 Ba형과 Bb형, Bc형으로 세분된다. 천추총에서 Ba형의 파편 한 점(도면 28-2), 국내성유적에서 Bb형(도면 28-3)과 Bc형(삽도 67-1)의 파편 각 한 점이 출토되었다. Bc형 막새부의凹凸은 일반 권운문와당과 상반된다.

C형은 마선2100호분과 천추총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세 줄의 복선이 여덟 조가 있다. 일부 1조나 2조의 복선도 있다. 그 밖에 내향연호문이 있는 것과 없는 것도 있다. 막새부의 무늬에 따라 아홉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Ca, Cb, Cc, Cd, Ce, Cf, Cg, Ch, Ci로 표기된다. 마선2100호분과 천추총, 蔬菜商場地點에서는 Ca형(삽도 67-3) 와당이 많이 출토되었다. 주연부에 浮雕 삼각형 무늬가 있고 막새부에 세 줄의 복선이 8조가 있다. 막새부는 8등분으로 나뉘고 주연부에 보조 삼각형 무늬가 있으며 내향연호부에 새와 비슷한 무늬가 있다.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권운문이다. Cb형(도면 28-4)은 천추총에서 발견되었는데, Ca형과 비슷하나 연호부에 새 머리의 방향이 Ca형과 상반된다. 즉, Ca형 와당의 새 머리의 방향은 왼쪽에 있으며 Cb형 와당 새 머리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그 밖에 Ca형과 Cb형 와당의 권운문 형태도 약간 다르다. Ca형 와당의 지름은 13.0~14.5cm이며, Cb형은 12.5cm이다. Cc형은 천추총에서 두 점(도면 28-5)이 발견되었는데, 막새부의 무늬는 대체로 Ca형과 비슷하나 내향연호부와 권운문의 무늬는 약간 독특하다. 내향연호부에 새와 ‘#’ 무늬가 있고 이 무늬의 배치에 규칙성이 없으며 새 머리의 방향은 오른쪽과 왼쪽 모두 있다. 지름은 13.6cm이다. Cd형은 천추총에서 7점(도면 28-6)이 발견되었고, 막새부의 무늬는 Ca형과 대체로 비슷하다. 주연부에 부조 삼각형 무늬가 있고, 내향연호부는 없다.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권운문이며 자방부에 부조로 ‘#’형 무늬가 있다. 지름은 약 13.0cm이다. Ce형(도면 28-7)은 천추총에서 파편으로 한 점이 발견되었고 Cd형의 무

늪과 비슷하다. 권운문은 Cd형과 약간 차이가 있고 자방부에 ‘#’형 무늬가 없다. 심하게 파손되어 지름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Cf형(도면 28-8)은 1/4 정도의 파편만 남아있다. 복선의 형태는 陰刻 형식이고 주연부에 내향연호문이 있으며 내향연호부에 행인형 무늬가 있다. 권운문의 무늬도 약간 독특한 편이며, 지름은 약 13.0cm이다. Cg형은 3점(도면 28-9)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두 점은 천추총에서, 한 점은 1945년 이전에 집안지역에서 수집되었다. Cg형의 무늬는 천추총의 출토품과 동일하여 출토된 지점도 천추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막새부는 8등분으로 나누어지고 복선은 1조나 3조가 있다. 권운문 밖에 내향연호부가 있고 내향연호부에 弧形과 행인형 무늬가 있다. Ch형(도면 28-10)은 와당의 주연부에 보조 삼각형 무늬가 있고 막새부가 8등분으로 나뉘며 복선은 두 조나 3조가 있다. Ci형(도면 28-11)의 무늬는 Ch형과 대체로 비슷하고 복선이 2조나 3조 있다. 파손이 심하여 지름은 확인할 수 없다.



삽도 67-1 Bc형



삽도 67-2 Ca형



삽도 67-3 Da형

D형 막새부의 복선은 주로 4조가 있다. 막새부는 4등분이나 8등분으로 나뉘며, 막새부의 연호문과 권운문에 따라 Da형, Db형, Dc형, Dd형, De형, Df형의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Da형(삽도 67-3)은 천추총에서 한 점이 출토되었다. 막새부가 4등분으로 나뉘고, 복선은 3조가 있으며, 권운문 바깥으로 내향연호문이 있다. 내향연호부에 삼각형이나 방사선 무늬가 있고, 권운문과 주연부에도 방사선 무늬가 있다. 지름은 13.0cm이다. Db형(도면 28-12)은 천추총에서 두 점이 출토되었다. 막새부는 8등분으로 나뉘며 복선 3조가 있고, 주연부에 부조 삼각형 무늬가 있으며 주연부 안쪽에 내향연호문이 있다. 지름은 약 13.0cm이다. Dc형(도면 28-13)은 천추총에서 파편으로 한 점이 출토되었다. 그 무늬는 Db형과 대체로 비슷하고 내향연호문도 없다. 심하게 파손되어 지름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Dd형은 1/4 정도의 파편(도면 28-14)만이 남아있고, 복선은 4조가 있다. De형(도면 28-15)도 천추총에서 파편으로 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심하게 파손되어 4조의 복선과 내향연호문만 확인할 수 있다. Df형(도면 28-16)은 천추총에서

과편으로 한 점이 발견되었다. 막새부는 8등분으로 나뉘고 복선은 1조나 4조가 있다. 권운문 바깥으로 내향연호문이 있고 내향연호문에 호형과 행인형 무늬가 있다. 지름은 약 13.0cm이다.

2) 연화문와당

연화문은 고구려 와당의 중요한 무늬이자, 출토 수량이 가장 많은 와당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고구려 연화문와당은 국내성에서 등장하여 평양성 시기까지 계속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화는 연판과 연봉오리, 정면연판, 측면연판, 단판연판, 복판연판 등 여러 형태가 있다. 고구려 연화문와당은 무늬, 연화문의 구성 등에 따라 단일문양 연화문와당, 복합문양 연화문와당, 다층 연화문와당으로 구분된다.

(1) 단일문양 연화문와당

단일문양 연화문와당은 막새부에 있는 연화문이 모두 같은 종류의 연화문으로 구성된 와당을 말한다. 복선의 유무에 따라 복선연화문와당과 무복선연화문와당으로 나뉜다. 특징적인 것은 국내성지역에서 복선연화문와당은 주로 생활유적에서 발견되고 무복선연화문와당은 주로 고분에서 출토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평양지역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에서 발견된 단일문양 연화문와당은 국내성유적을 중심으로 출토되었다. 국내성지역 생활유적은 국내성, 환도산성, 동대자유적, 商賈街유적, 梨樹園子南유적, 氣象站유적, 勝利村유적, 麻線中學校유적 등이 있다. 고분유적은 상활릉5호분과, 서대묘, 천추총, 장군총, 태왕릉, 우산992호분, 우산2112호분, 장천2호분 등이 있다. 집안지역을 제외하고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단일 문양 연화문와당이 발견되는 곳은 大連 대흑산산성, 고이산성, 鳳城 봉황산산성, 용수산산성 등이다.

북한에서 출토되는 단일문양 연화문와당은 그 수량 뿐만 아니라 형식도 다양하다. 복선연화문와당과 무복선연화문와당의 색은 유적의 성격과 관계가 없다. 이 유형의 와당이 출토되는 유적은 평양성, 청암리토성, 정릉사, 대성산성, 남평양성 등이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이 형식의 와당이 호로그루에서만 출토되었고 수량도 소수에 불과하다. 형식 역시 한 가지뿐이다.

① 복선연화문와당

복선연화문와당은 복선의 형태에 따라 直線形과 蝶須形, 북채형(鼓槌形), ‘T’자형, ‘Y’자형, ‘卍’형, 사다리형 등으로 구분된다. 중국에서는 직선형과 접수형, ‘T’자형 복선연화문와당만 발견되며, 북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복선연화문와당이 모두 출토되었다. 그리고 국내성지역의 복선연화문와당은 모두 직선형 복선연화

문와당에 속하고 고이산성의 출토품 중에 접수형과 ‘T’자형 복선연화문와당도 발견되었다.

가.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국내성지역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은 주로 고분유적에서 출토되었고, 국내성유적에서도 몇 점 출토된 바가 있다. 이 형식의 와당은 막새부에 복선이 몇 개 있고, 서로 인접한 복선 사이에 연화문이 있다. 연화문의 형태에 따라 연봉오리형 연화문와당과 일반 연관형 연화문와당으로 나눌 수 있다. 연봉오리형 연화문와당은 국내성지역에서만 출토되었다.



삼도 68-1 Aa형



삼도 68-2 B형

가) 연봉오리형 복선연화문와당

연봉오리형 연화문와당은 태왕릉과 우산2112호분에서만 출토되었고 막새부의 무늬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은 복선의 수량과 연봉오리의 형태에 근거해 Aa형과 Ab형으로 분류된다. Aa형(삼도 68-1, 도면 29-1~2)은 태왕릉에서만 출토되었고, 수량도 많다. 전형적인 연봉오리형 연화문와당 막새부에 복선이 6조가 있고 매 조 복선이 두 개씩 있다. 주연이 매우 높고 일부 주연의 높이가 약 5.0cm에 달한다. 지름은 큰 편으로 보통 크기가 20.0~21.6cm이다. Ab형(도면 29-3~5)은 태왕릉과 우산2112호분에서 출토되었고 일제강점기에 집안지역에서 한 점이 수집되어 현재 도쿄대학 문학부에 소장된 개체가 있다. 이 와당의 뒷면에는 ‘昭和拾〇年 輯安県 三室塚付近ニテ購入ス 太王陵瓦當カ’라는 기록이 있다. 세 줄의 복선이 6조가 있으며, 연봉오리의 형태는 Aa형과는 다르다. 태왕릉의 Ab형 와당은 우산하2112호분의 출토품보다 정교하다. 도쿄대학 문학부에 소장된 수집품의 무늬와 제작기법이 매우 거칠고 무늬는 우산2112호분 출토품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도쿄대학 문학부에 소장된 Ab형 와당의 출토 지점

은 우산2112호분일 가능성이 크다. 우산2112호분 출토품의 지름은 17.6cm로 태왕릉에서 출토된 와당보다 크다.

B형은 태왕릉(삽도 68-2)과 우산2112호분(도면 29-6)에서 많이 출토된다. 막새부에는 두 줄의 복선이 8조 있다. 서로 인접한 복선 사이에 Ab형 연판과 비슷한 연판이 있다. 태왕릉의 출토품이 우산2112호분 출토품보다 세밀하며, 우산 2112호분의 B형 와당의 지름이 더 크다. 태왕릉 와당의 지름은 19.6~20.0cm, 우산2112호분 출토품의 지름은 20.5cm이다.

나) 일반 연판형 연화문와당

일반 연판형 연화문와당은 와당면의 구성에 따라 2분식, 4분식, 6분식, 8분식, 8분식, 10분식으로 나눌 수 있다.



삽도 69-1 A형



삽도 19-2 B형

(가) 2분식 일반 연판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청암리와 토성리 등에서 발견되었고 수량이 적다. 무늬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A형은 청암리(도면 30-1)와 토성리(도면 30-2), 평양지역(삽도 69-1)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에 두 줄의 복선이 2조 있다. 매 부분마다 연판은 세 개씩 있으며 ‘卍’형과 ‘양뿔’형 장식이 각각 한 개씩 있다. 연판 형태는 약간 세장하고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다. 반구형 자방 바깥쪽으로 권선이 2줄,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1줄 있다. 태토는 夾砂黃褐陶이고 지름은 16.3cm이다.

B형(삽도 69-2)은 청암리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에 3줄의 복선이 두 조가 있다. 매 부분 연판 두 개, 꽃술형 연판이 한 개가 있고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2줄 있다.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있고 주연 안쪽에 연주문이 1줄 있다. 태토는 夾砂黃褐陶이다.

(나) 4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성과 대성산성, 평양 토성리, 청암리, 帽山里 등에서 발견되었다. 연판의 형태에 따라 7가지로 분류한다.

A형은 평양 토성리에서 출토되었다. 무늬를 기준으로 Aa형과 Ab형, Ac형을 분류한다. Aa형(삽도 70-1)은 막새부에는 2줄의 복선이 2조가 있고 연판의 형태는 약간 비대하다. 자방 가운데에 작은 乳釘紋이 있고 자방 밖에 권선 2줄, 주연 안쪽에 권선 2줄, 그리고 연주문 1줄이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지름은 16.4cm이다. Ab형(도면 31-1)과 Ac형(도면 31-2)의 무늬는 Aa형과 유사하고 연판과 자방 형태가 Aa형과 약간 차이가 있다. Ab형의 태토는 夾砂黃褐陶이고 지름은 18.9cm이다. Ac형의 태토역시 夾砂黃褐陶이고 지름은 17.2cm이다.



삽도 70-1 Aa형

삽도 70-2 B형

삽도 70-3 C형

B형(삽도 70-2)은 청암리에서 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막새부에 2줄의 복선이 4조가 있다. 행인형 연판은 4개가 있다. 자방 밖에 권선이 2줄이 있고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씩 있다. 태토는 夾砂黃褐陶에 지름은 17.0cm이다.

C형(삽도 70-3)은 평양성에서 출토되었는데 막새부에 2줄의 복선이 총 4조 있다. 행인형 연판도 4개다. 반구형 자방 바깥에 권선과 연주문,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1줄씩 있다. 연판 양쪽에 접수형 장식이 있고 이 형식의 마루기와(도면 31-3~4)도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31-5~6)이고 지름은 14.5~14.8cm이다.

D형 와당은 상대적으로 그 수량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연판과 자방의 형태에 따라 Da형과 Db형으로 나눌 수 있다. Da형은 평양 帽山里(도면 31-7)와 청암리(도면 31-8), 대성산성 등에서 발견되었는데, 막새부에 2줄의 복선이 4조가 있으며 연판도 4개가 있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고 자방 가운데에 작은 乳釘紋이 있다. 자방 밖에 권선은 1줄, 주연 안쪽에 권선이 2줄 있다. 연판과 복선 사이에 삼각형 간식이 있고 삼각형 간식 가운데에 작은 乳釘紋이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1-9)이고 지름은 15.5cm이다. Db형은 평양 미산리(도면

31-10) 등에서 출토되었다. 무늬가 Da형과 대체로 비슷하며 자방부는 Da형과 다르고 자방부에 ‘十’자형과 작은 乳釘紋 장식이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이다.

E형은 평양지역에서 한 점(도면 31-11)이 발견되었고 막새부에 복선이 4조가 있다. 매 부분에 작은 연판 두 개가 있고 반구형 자방은 좀 크며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다.

F형(도면 31-12)은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는데 막새부에 3줄의 복선이 4조가 있으며 연판도 4개가 있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2줄 있고 연판과 복선 사이에 삼각형 간식이 있으며 삼각형 가운데에 작은 乳釘紋이 있다. 자방 외부 주연 안쪽에 권선이 2줄 있다.

G형(도면 31-13)은 고이산성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의 무늬가 F형과 유사하고 4조 복선 사이에 연판이 있다. 매조 복선의 수량은 3개가 있고 가운데의 복선 형태가 ‘十’자형이다.

(다) 6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집안지역과 평양성, 평양 청암리, 청암리절터 등에서 출토되었다. 막새부에 복선이 6조가 있어 막새부는 여섯 부분으로 나뉜다. 복선의 수량에 근거해 단복선, 쌍복선, 삼복선으로 분류한다.



삽도 71-1 A형



삽도 71-2 B형



삽도 71-3 C형

㉠ 單복선 6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무늬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A형은 평양성에서 한 점(삽도 71-1)이 발견되었고 막새부에 연판과 복선이 각각 6개가 있다. 막새부는 여섯 부분으로 나누고 매 부분 공간 크기가 다르다. 반구형 자방 밖,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다.

B형도 한 점(삽도 71-2)이 있는데 출토 지점은 확인할 수 없다. 막새부는 6부분으로 나뉘는데, 2개의 큰 공간에 연판이 2개 있으며 나머지 4개의 작은 공간에는 연판이 1개가 있다.

C형은 평양 청암리(삽도 71-3)와 청암리절터(도면 32-1)에서 출토되었는데, 막새부에 복선이 6개가 있다. 자방부에 연자문이 있고 자방 밖에 권선 1줄,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다. 復瓣 형태의 연관이 6개가 있다.

D형 와당은 무늬를 기준으로 Da형과 Db형을 분류한다. Da형(도면 32-2)은 평양 청암리 酒巖洞 등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는 6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직선형 복선이 4개, ‘十’자형 복선은 두 개가 있고 연관 형태는 복판이다. 자방부 가운데에 작은 乳釘紋이 있고 자방 밖에 권선은 2줄,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다. Db형은 평양 청암리 酒巖洞(도면 32-3)와 청암리(도면 32-4)에서 출토되었고, Da형과 대체로 비슷하며 막새부는 6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직선형, ‘卍’형, ‘十’자형 복선이 각 두 개가 있고 연관 형태는 복판이다. 직선형 복선과 주연에 인접한 1단 양쪽에 작은 乳釘紋이 있다. 자방부 가운데에 작은 乳釘紋이 있고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다. 태토는 夹砂黄褐陶(도면 32-5)이다.

E형(도면 32-6)은 봉황산산성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에 연관 6개와 1줄짜리 복선이 6조가 있다.

㉔ 雙복선 6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집안지역과 평양성을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막새부에 2줄의 복선이 6조가 있고, 복선 사이에는 연관이 한 개 있다. 복선, 연관, 자방의 형태에 근거해 12가지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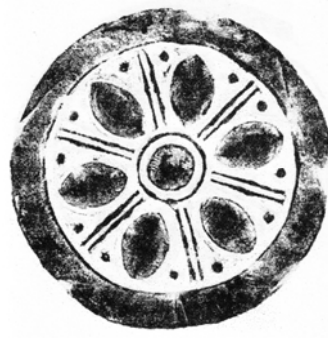
A형 와당은 연관의 형태에 근거해 Aa형과 Ab형을 분류한다. Aa형은 천주총(삽도 72-1)과 태왕릉(도면 33-1)에서 발견되었고 무늬가 대체로 비슷하며 연관 형태는 약간 차이가 있다. 막새부에는 연관 6개, 복선이 6조가 있으며 연관 형태가 비대하다. 천주총 와당의 지름은 15.6~16.6cm, 태왕릉 출토품의 지름은 약 17.4~17.6cm이다. Ab형(도면 33-2)은 태왕릉에서 파편 한 점이 출토되었고 무늬는 Aa형과 대체로 비슷하다. 지름은 약 17.4~19.4cm이다.

B형(도면 33-3) 연관은 매우 세장하며 행인형이고 지름이 약 16.0cm이다. C형은 국내성에서만 출토되었고 무늬를 기준으로 Ca형(삽도 72-2)과 Cb형(도면 33-4)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막새부에는 복선 6조와 연관 6개가 있고 연관 형태는 각기 다르다. Ca형은 지름은 18.5cm이고, Cb형은 13.5cm이다.

D형~O형 와당의 수량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그 형식도 복잡하다. 주로 평양성과 평양 토성리, 청암리, 청암리절터, 船橋里, 평천리, 鰲村里, 정릉사, 대성산성, 안학궁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삽도 72-1 Aa형



삽도 72-2 Ca형



삽도 72-3 Da형



삽도 72-4 Ia형



삽도 72-5 L형



삽도 72-6 O형

먼저 D형은 평양 청암리, 평천리, 토성리, 대성산성, 청암리절터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를 기준으로 Da형과 Db형, Dc형, Dd형, De형, Df형, Dg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Da형은 평양성과 평양 청암리(삽도 72-3), 토성리(도면 33-5), 평천리, 대성산성, 청암리절터에서 출토되었고 자방부에 연자문이 있으며 자방 밖에는 권선, 주연 안쪽에는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다. 막새부에 연판과 복선이 6개씩 있고, 복선은 두 줄이 한 쌍이다. 태토는 夾砂灰陶(도면 33-6)과 夾砂黄褐陶이고 지름은 19.0~19.3cm이다. Db형과 Dc형, Dd형, De형, Df형, Dg형의 무늬는 Da형과 비슷하고 자방부와 연판, 복선 등은 Da형과 비교해 볼 때 약간 다르다. Db형(도면 33-7)은 청암리에서 발견되었고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있으며 연판 가운데 능선이 있고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지름은 18.8cm이다. Dc형은 대성산성(도면 33-8)과 평양 청암리(도면 33-9), 평양성(도면 33-10), 청암리절터(도면 33-11), 전 평양지역(도면 33-12)에서 출토되고 복선의 형태는 조금 굽으며 주연 밖에는 권선, 주연 안쪽에는 권선과 연주문이 각각 1줄씩 있다. 태토는 夾砂灰陶과 夾砂黄陶이고 지름은 15.2~18.6cm이다. Dd형은 청암리(도면 33-13)에서 발견되었는데 자방 밖에는 권선이 1줄 있고, 주연 안쪽에는 권선이 1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지름은 15.7cm이다. De형은 평천리(도면 33-14)에서 출토되었고 자방부의 연자 수량이 4개만 있으며 자방 밖에는 권선이 1줄 있다. 연판의 형태는

세장하고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다. Df형은 평양지역(도면 33-15)과 대성산성(도면 33-16)에서 발견되었고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1줄씩 있다. 연판 형태는 좁고 길며 연판 가운데에 능선 몇 개가 있다. Dg형은 평양지역에서 과편 한 점(도면 33-17)만 출토되었고 자방부에 연자문이 있으며 자방 밖에는 권선, 주연 안쪽에는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다. 태토는 泥質黃褐陶이고 지름은 18.8cm이다.

E형은 막새부에 2줄의 복선이 6조가 있다. 연판 6개에 자방부에 작은 직선이 6개가 있는 형태이다. 무늬에 따라 Ea형과 Eb형으로 분류한다. Ea형은 평양 船橋里(도면 33-18), 평양지역(도면 33-19, 21)과 대성산성(도면 33-20)에서 발견되었다. 자방에 작은 직선이 있으며 복선은 좁고 길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2줄 있으며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지름은 14.6cm이다. Eb형은 청암리에서 과편으로 한 점(도면 33-22)이 출토되었고 자방부에 있는 직선과 복선, 연판의 형태는 Ea형과 약간 다르다.

F형은 1점(도면 33-23)만 있는데, 출토 지점을 알 수 없다. 막새부에 복선 6조, 연판 6개가 있다. 자방 밖에 권선 3줄,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1줄씩 있다.

G형은 과편 한 점(도면 33-24)만 있고 출토 지점을 확인할 수 없다. 자방부에는 연자문이 있고 주연 안쪽에 연주문이 1줄 있으며 행인형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고 복선의 형태가 약간 세장하다.

H형 와당은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를 기준으로 Ha형과 Hb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Ha형(도면 33-25)은 경신리1호분(漢王墓) 등에서 출토되었고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으며 연판 가운데에 능선, 윤곽선이 1줄씩 있다. 복선의 형태는 약간 굽고 태토는 夾砂紅褐陶이다. Hb형은 평양 청암리(도면 33-26), 경신리1호분 등에서 발견되었고 무늬는 Ea형과 대체로 비슷하며 연판과 자방, 복선 등의 형태가 Ha형과 다르다. 반구형 자방 밖으로는 권선이, 주연 안쪽에는 권선과 작은 연판형 장식이 1줄 있다. 태토는 泥質黃陶(도면 33-27)이고 지름은 17.8cm이다.

I형은 막새부에 2줄의 복선이 6조 있다. 연판은 6개이며, 무늬를 기준으로 Ia형과 Ib형으로 구분된다. Ia형은 평양 청암리(삽도 72-4), 안학궁(도면 33-28), 대성산성(도면 33-29), 청암리절터(도면 33-30) 등에서 출토되었고 자방 밖에는 연주문과 권선, 주연 안쪽에는 권선과 연주문이 각각 1줄씩 있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과 ‘U’형과 비슷한 장식이 한 개씩 있으며 복선의 형태는 좁고 길다. Ib형은 평양 청암리(도면 33-31)에서 과편 한 점만 출토되었는데 무늬는 Fa형과 유사하고 연판과 복선의 형태는 Ia형과 약간 다르다. 연판 주변의 ‘U’형과 비슷한 장식이 연판과 더 가깝고 복선의 형태는 조금 굽다.

J형은 대성산성(도면 33-32~33) 등에서 발견되었고 자방 밖에는 권선 2줄, 주연 안쪽에는 권선 2줄과 연주문 1줄이 있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고 복선은 약간 세장하다.

K형은 수량이 많은 편이며, 무늬를 기준으로 Ka형과 Kb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Ka형은 평양성(도면 33-34)과 정릉사(도면 33-35), 평양 청암리절터(도면 33-36), 청암리 등에서 출토되었고 주연 밖에 권선과 연주문이 있고 그 밖에 권선이 2줄이 있다. 주연 안쪽에는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씩 있으며 태토는 夾砂紅褐陶과 夾砂黃褐陶(도면 33-37)이고 지름은 15.3~15.7cm이다. Kb형은 평양 청암리(도면 33-38)과 평양지역(도면 33-39)등에서 발견되었고 자방 가운데에 작은 乳釘紋이 있다. 자방부에 권선과 연주문, 주연 안쪽에는 권선이 1줄 있다. 연판은 좁고 길며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과 夾砂黃褐陶(도면 33-40)이고 지름은 약 14.2cm이다.

L형은 평양성(삽도 72-5) 등에서 출토되었고 자방 밖에는 권선 2줄과 旋轉紋 단선 1줄, 주연 안쪽에는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씩 있다. 연판의 형태는 약간 세장하고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7-41)이고 지름은 14.2cm이다.

M형은 한 점(도면 33-42)만 있는데, 출토 지점을 확인할 수 없다. 자방 가운데에 작은 乳釘紋이 있고 자방 밖에는 권선이 2줄, 주연 안쪽에는 권선과 연주문이 1줄 있다. 연판 중간에 능선이 있으며 태토는 夾砂灰陶이고 지름은 14.9cm이다.

N형은 평양지역에서 발견되었고 무늬에 따라 Na형과 Nb형으로 나뉜다. Na형은 평양성(도면 33-43) 등에서 출토되었고 자방부는 큰 편이며 자방 밖에 권선 2줄, 주연 안쪽에 권선 2줄이 있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으며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33-44)이고 지름은 14.8~15.3cm이다. Nb형은 대성산성(도면 33-45)과 평양 鰲村里(도면 33-46)에서 발견되었고 무늬는 Na형과 대체로 비슷하며 자방과 연판등은 Na형과 다르다. 연판 주변에 약간 큰 윤곽선이 1줄 있고 복선과 권선도 굵은 편이다. 자방 밖과 주연 안쪽에는 권선이 2줄씩 있고 연판과의 사이에 삼각형 간식이 있다. 태토는 夾砂灰陶이고 지름은 14.9cm이다.

O형은 청암리(도 72-6)와 대성산성(도 33-47) 등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에 행인형 연판과 복선이 6개(혹은 조)씩 있으며 반구형 자방 밖과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씩 있다. 태토는 夾砂黃褐陶(도면 33-48)이고 지름은 13.3~14.8cm이다.

㊤ 三복선 6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주로 평양성과 평양 토성리, 평천리, 서성리, 경상리, 대성산성, 정릉사 등에서 출토되었고 무늬에 따라 여덟 가지로 나눌 수 있다.

A형 와당은 토성리에서만 발견되었고 수량이 좀 많은 편이다. 연판과 태토, 복

선 등에 근거해 Aa형과 Ab형을 분류한다. Aa형은 평양 토성리성지(삽도 73-1)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에 3줄의 복선이 6조가 있고 연판도 6개가 있다. 자방 가운데에 작은 乳釘紋이 있으며 자방 밖에 권선 2줄, 주연 안쪽에 권선 2줄과 연주문 1줄이 있다. 태토는 泥質灰陶이고 지름은 17.1cm이다. Ab형(도면 34-1~2)의 무늬는 Aa형과 비슷하고 연판의 형태와 태토는 Aa형과 약간 다르다. 태토는 泥質灰陶이고 지름은 15.5~15.9cm이다.

B형은 평양 평천리와 청암리, 토성리, 서성리 등에서 출토되었고 무늬에 따라 Ba형과 Bb형, Bc형으로 나눌 수 있다. Ba형은 평천리(도면 34-3)와 토성리(도면 34-4), 청암리에서 출토되었고 자방부에 작은 직선이 6개가 있으며 자방 밖과 주연 안쪽에 권선이 2줄씩 있다. 막새부에는 행인형 연판과 복선이 각각 6개(혹은 조)가 있고 3줄의 복선이 한 조를 이룬다. 주연 내 권선 안쪽에 작은 삼각형 장식이 1줄 있고 연판의 형태는 세 유형 간에 차이가 있다. Bb형은 평양 토성리(도면 34-5), 평천리 등에서 발견되었고 무늬는 Ba형과 비슷하지만 연판과 자방부, 복선 등이 Ba형과 좀 다르다. 자방 밖에 권선이 3줄 있으며 주연 내 권선 안쪽에 연주문이 1줄 있고 연판의 형태도 약간 비대하다. 태토는 泥質黃褐陶(도면 34-6)이고 지름은 18.1cm이다. Bc형은 평양 서성리(도면 34-7)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는 Bb형과 유사한데, Bb형과는 자방부에서 차이가 난다. 자방부와 인접한 권선 안쪽에 연주문이 1줄 있으며 연판의 형태도 약간 다르다. 태토는 泥質紅褐陶이고 심하게 파손되어 지름은 확인할 수 없다.

C형은 평양 토성리(도면 34-8)에서 파편 두 점이 발견되었는데 자방부에 작은 연판이 6개가 있다. 자방 밖과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2줄이 있고 막새부에 복선이 6조가 있으며 매 조 복선이 세 개가 있다. 연판은 6개가 있다. 연판은 약간 세장하고 주연 내 권선 안쪽에 연주문이 1줄 있다.

D형은 평양 경상리 關帝廟前(도면 34-9)과 정릉사(도면 34-10)에서 몇 점만이 출토되었다. 자방부에 ‘十’자형 장식이 있으며 자방 밖에 권선 2줄,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다. 연판의 형태도 작고 연판 양쪽에 작은 원형이나 타원형 장식이 있다.

E형은 평양 평천리(삽도 73-2)와 평양성, 대성산성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에 세 줄의 복선이 6조가 있다. 연판도 6개며, 연판과 복선 사이에 작은 삼각형 장식이 있고 자방 밖과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1줄 있다. 자방부에는 작은 직선이 있고 자방 밖과 권선 안쪽에 연주문이 1줄 있다. 태토는 夾砂紅陶와 夾砂紅褐陶, 夾砂黃陶(도면 34-11)이고 지름은 14.7cm이다.

F형은 출토 지점을 알 수 없다. 무늬를 기준으로 Fa형과 Fb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Fa형(도면 34-12)은 막새부에 복선이 6조가 있고, 매 조 복선이 세 개가 있다. 연판은 6개가 있다. 자방부에 연자문이 있으며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다.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주연 안쪽에 권선 2줄과 연주문 1줄 있

다. Fb형(삽도 73-3) 무늬는 Fa형과 비슷하고 연판과 복선이 Fa형과 다르다. 태토는 夾砂灰陶이고 지름은 14.8cm이다.



삽도 73-1 Aa형

삽도 73-2 E형

삽도 73-3 Fb형

G형은 대성산성(도면 34-13)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는 Fb형과 유사하다. 연판과 자방 등은 Fb형과 비교할 때 약간 차이가 있다. 연판의 형태는 조금 비대하고 반구형의 자방 밖과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1줄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34-14)이고 지름은 14.0~14.6cm이다.

H형은 평양 토성리(도면 34-15)에서만 발견되었고 막새부에 연판과 복선이 세 개(혹은 조)씩 있으며 3줄 복선이 세 개, 2줄 복선이 4개, 1줄 복선이 다섯 개가 있다. 자방 가운데에 작은 乳釘紋이 있고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다.

(라) 8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집안지역과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에 복선이 8조가 있다. 매 조 복선의 수량은 다르지만 연화문은 모두 8개가 있다. 연판의 형태, 복선의 수량 등에 근거해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A형은 집안지역에서 출토되었고, 연판에 따라 Aa형과 Ab형, Ac형으로 분류한다. Aa형은 태왕릉(도면 35-1)과 장군총(삽도 74-1), 장군총1호 배총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의 무늬는 주로 연판 8개, 복선 8조가 있다. 태왕릉 와당의 지름은 19.3~20.0cm, 장군총 출토 와당의 지름은 21.0~22.2cm이다. 장군총 1호 배총에서 출토된 와당의 지름은 16.0 이상~22.0cm이다. Ab형(도면 35-2)은 태왕릉에서 발견되었고 무늬는 Aa형과 비슷하나 연판의 형태가 Ab형에 비해 차이가 있다. Ac형(도면 35-3)은 서대묘에서 파편 한 점이 발견되었고 연판의 형태는 길고 좁다. 복선의 형태는 Aa형에 비해 약간 독특하다. 지름은 약 22.0cm이다.

B형~G형은 평양성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었다. B형은 평안남도 평원군 원오리절터 등에서 발견되었고 무늬에 따라 Ba형과 Bb형으로 분류된다. Ba형은 원오리절터(도 35-4)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에 연판과 복선이 각 8개(혹은 조)가

있다. 자방부에 연자문이 있으며 자방부 주변에 권선 1줄, 주연 안쪽에 권선 2줄, 연주문 1줄이 있다. 연판의 형태는 세장하고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으며 복선은 2줄이 한 조를 이룬다. Bb형(도 35-5)은 한 점만 있는데, 출토 지점은 알 수 없다. 무늬는 Ba형과 대체로 비슷하고 자방부와 연판 등의 형태는 Ba형과 약간 다르다. 자방 밖과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씩 있다.



삽도 74-1 Aa형



삽도 74-2 Ca형



삽도 74-3 Ea형

C형은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고 무늬에 따라 Ca형과 Cb형으로 나눌 수 있다. Ca형은 평양 토성리(삽도 74-2)에서 세 점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同範瓦當이다. 막새부의 무늬는 Ba형과 유사하고 자방부와 복선 등의 형태는 Ba형과 약간 차이가 있다. 막새부에 연판이 각 8개(혹은 조)가 있으며 3줄의 복선이 한 조를 이룬다. 자방부에 작은 乳釘紋이 있고 자방 밖에는 권선이 2줄, 주연 안쪽에는 권선 2줄과 연주문 1줄이 있다. Cb형은 평양성(도 35-6)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는 Ba형과 대체로 비슷하며 연판과 자방은 Ba와 비교해 조금 차이가 있다. 자방 밖에 권선 3줄, 주연 안쪽에 권선 1줄이 있다.

D형(도 35-7)은 파편만 한 점 발견되었고 출토 지점도 확인할 수 없다. 막새부에 연판과 복선이 각 8개(혹은 조)가 있고 복선은 세 줄이 한 조를 이룬다. 자방 밖에는 좁고 긴 연판과 연주문이 각 1줄 있으며 이 연판 밖에 권선 2줄, 주연 안쪽에 권선 2줄과 연주문 1줄이 있다. 연판의 형태는 조금 비대하다.

E형은 두 점 있으나 출토 지점을 확인할 수 없고 무늬를 기준으로 Ea형과 Eb형으로 분류한다. Ea형(삽도 74-3) 막새부에 연판과 복선이 각 8개(혹은 조)가 있고 복선은 3줄이 한 조를 이룬다. 자방 밖에는 권선 1줄, 주연 안쪽에는 권선이 2줄 있다. Eb형(도 35-8) 무늬는 Ea형과 비슷하나 자방부와 연판, 복선 등의 형태는 조금 차이가 있다. 자방부 밖에는 권선 2줄, 주연 안쪽에는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으며 연판의 형태도 서로 차이가 있다.

F형은 평양성과 평양 동대원리(도 35-9) 등에서 몇 점만 발견되었고 모두 同範瓦當이다. 막새부에 연판과 복선이 각 8개(혹은 조)가 있는데, 복선이 3줄씩 한 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7개, 4개가 한 조를 이루는 것이 1개가 있다. 자방부

에는 연자문이 있으며 자방 밖에는 권선 1줄, 주연 안쪽에는 권선 2줄 있다. 태토는 夾砂灰陶(도 35-10)이고 지름은 14.8cm이다.

G형은 평양지역(도 35-11)에서 몇 점이 출토되었고 막새부에 연판과 복선이 각 8개가 있다. 매조 복선의 수량은 1개 이다. 자방 밖에,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1줄있다. 태토는 泥質黃褐陶(도 35-12)이고 지름은 15.15cm이다.

(마) 10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지역(삽도 75)에서 출토되었다. 막새부에 연판과 복선이 각 열 개(혹은 조)가 있고 자방 밖에는 권선이, 주연 안쪽에는 연주문이 각각 1줄씩 있다. 복선은 한 줄씩이며 연판은 약간 세장하다.



삽도 75

나.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요녕성 고이산성 및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다. 막새부에 접수형 복선이 4개 또는 6개가 있으며 복선 사이에 연판이 있다. 와당의 무늬 구성 등에 근거해 4분식과 6분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중 4분식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은 평양지역과 고이산성에서 많이 출토되었으며, 6분식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은 고이산성에서 몇 점이 발견되었다.

가) 4분식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막새부에 접수형 복선 4조가 있고 복선은 두 개, 세 개, 4개, 다섯 개가 한 조를 이룬다. 복선의 수량, 연판의 형태 등에 근거해 쌍복선, 3복선, 4복선, 5복선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으로 분류한다.

(가) 雙복선 4분식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막새부에 두 줄의 복선이 4조 있으며, 복선 사이에 연판이

있다. 복선, 연판, 자방의 형태 등에 근거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A형(삽도 76-1)은 평양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있으며 주연 안쪽에는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다. 막새부에 연판과 복선이 각 4개(혹은 조)가 있다. 연판 가운데는 능선, 연판 주변에는 윤곽선이 1줄 있다. 매조 복선이 두 개가 있으며 대체로 대칭분포한다. 태토는 夾砂黄褐陶(도면 36-1)이고 지름은 약 15.1cm이다. B형은 평양 청암리(도면 36-2)에서 파편 한 점만 발견되었는데 자방 밖에는 권선이 1줄 있으며 막새부에는 연판이 네 개, 복선이 두 조가 있고 매 조 복선이 두 개가 있다. 연판 밖에는 윤곽선이 1줄 있다. C형은 평양지역(삽도 76-2) 등에서 출토되었고 자방 밖에는 권선이 2줄 있으며 주연 안쪽에는 권선이 1줄 있다. 연판 형태는 비대하고 연판 사이에는 작은 삼각형 간식이 있다. 태토는 夾砂黄褐陶(도면 36-3)이고 지름은 13.1cm 이다.



삽도 76-1 A형



삽도 76-2 C형

(나) 삼복선 4분식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수량이 많다. 주로 평양지역과 고이산성에서 출토되었고 복선과 연판의 형태 등에 근거해 A~E형 까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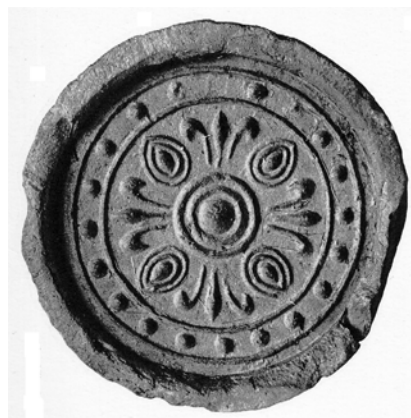
A형은 평양 평천리(삽도 77-1)와 토성리 등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에 연판과 복선이 각 4개(혹은 조)가 있다. 자방 밖에는 권선 3줄, 주연 안쪽에는 권선이 2줄 있으며 권선 사이에는 연주문이 1줄 있다. 연판 밖에는 윤곽선이 3줄 있으며 복선이 접수와 비슷하다. 복선이 세 개가 있고 가운데 복선을 중심으로 안쪽의 복선이 대칭으로 분포해 있다. 이 형식의 와당 중에는 마루기와(도면 37-1~2)도 보인다. 태토는 夾砂红褐陶(도면 37-3)이거나 夾砂黄褐陶이고, 지름은 12.9~14.9cm이다.

B형은 평양 토성리와 평안남도 덕산면 원오리(삽도 77-2, 도면 37-4)에서 출토되었다. 막새부 무늬는 Aa형과 대체로 비슷하며 연판과 복선, 자방부는 Aa형과 비교해 차이가 있다. 반구형 자방 밖과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2줄 있고 연판

의 형태는 약간 비대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작 기법은 정교하며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37-5)이고 지름은 12.9~14.8cm이다.



삽도 77-1 A형



삽도 77-2 B형

C형은 평양성(도면 37-6)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A형과 유사하며 연판과 복선, 자방부는 A형과 비교해 약간 차이가 있다. 자방부에는 연자문이 있고 자방 밖과 주연 안쪽에는 권선이 각 2줄 있으며 연판 밖에는 윤곽선이 2줄 있다. 매 조 복선도 세 개가 있으며 양쪽의 복선이 Aa형에 비해 주연 안쪽과 인접한 복선 일단의 형태는 더 만곡하다. 태토는 夾砂黃褐陶(도면 37-7)이고 지름은 약 14.6cm이다.

D형은 평양 장매리(도면 37-8)에서 파편 두 점이 출토되었는데 자방 밖에는 권선이 1줄, 복선이 4조가 있고 복선 사이에 연판은 4개가 있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으며 연판과 윤곽선 사이에는 삼각형 간식이 있다.

E형(도면 37-9) 와당의 무늬는 A형과 대체로 비슷하고 연판과 복선, 자방의 형태는 A형과 다르다. 특히, E형 자방 형태는 작고 연판은 좁고 길며 연판 주변에 윤곽선 1줄이 있다.

(다) 四복선 4분식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삽도 79)은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다. 연판 형태는 좁고 길며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다. 주연부에는 ‘十’자형과 작은 乳釘紋이 있으며 매 조 복선이 4개가 있고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다. 주연 안쪽에는 연주문이 1줄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지름은 15.1cm이다.



삽도 78

(라) 五복선 4분식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수량이 적고 평양지역과 고이산성에서 발견되었다. 복선과 연판, 자방의 형태 등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삽도 79-1)은 평양성에서 과연 한 점만 발견되었는데 5줄의 복선이 4조 있고 자방 밖에는 권선이 2줄 있다. 주연의 태토는 夾砂灰陶이다. B형(삽도 79-2)은 고이산성에서 출토되었고 약간 파손되어 막새부에 접수형 복선이 6조가 있고 매 조 복선도 다섯 개가 있다. 복선 사이에 연판은 4개가 있다.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 1줄이 있으며 연판은 Ac형에 비해 더 비대하고 연판 주변에 윤곽선도 1줄 있다.



삽도 79-1 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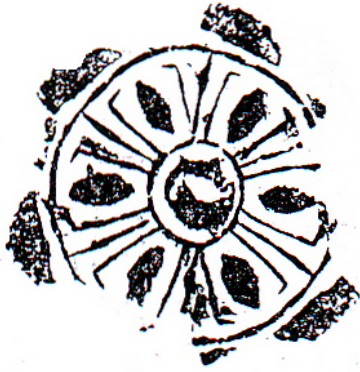
삽도 79-2 B형

나) 6분식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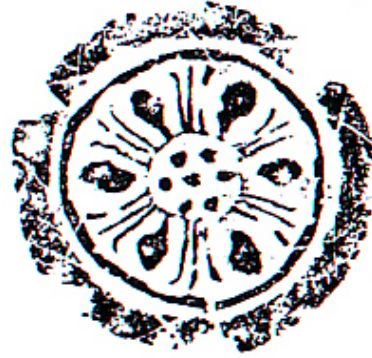
이 형식의 와당은 고이산성에서만 몇 점이 발견되었다. 형태는, 막새부에 복선이 3조가 있으며 매 조 복선은 세 개가 있다. 연판과 복선, 자방의 형태 등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삽도 80-1) 막새부의 무늬는 주로 행인형

연판과 접수형 복선이 각 6개(혹은 조)가 있고 매 조 복선이 세 개가 있으며 반구형 자방 밖에,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1줄씩 있다.

B형(삽도 80-2) 무늬는 A형과 대체로 비슷하고 연판과 복선, 자방의 형태는 A형에 비해 약간 다르다. 특히, B형 자방부에 연자문이 있고 연판의 형태는 A형보다 약간 비대하다. 주연 안쪽에 권선도 1줄 있다.



삽도 80-1 A형



삽도 80-2 B형

다. 북채형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지역에서만 출토되었고 막새부에 북채형 복선이 네 조, 여섯 조, 여덟 조가 있으며 매 조 복선의 수량이 한 개나 두 개가 있다. 복선 사이에 연판은 4개나 6개가 있다. 복선의 배치, 연판의 수량, 자방의 형태 등에 근거해 4분식, 6분식, 8분식 북채형 복선연화문와당으로 세분한다.



삽도 81-1 A형



삽도 81-2 A형



삽도 81-3 B형

가) 4분식 북채형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안학궁과 평양 청암리 등에서 발견되었다. 복선과 연판의 형태 등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A형은 평양 청암리(삽도 81-1~2)에서 출토된 와당으로 막새부에 연판과 복선이 각 4개가 있다. 연판 주변에 윤곽

선이 1줄 있고 자방 밖에,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씩 있다. 태토는 夾砂黃褐陶나 夾砂灰陶가 있고 지름은 14.3~15.2cm이다. B형은 안학궁(삼도 81-3)등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는 A형과 대체로 비슷하며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2줄 있고 매 조 복선이 세 개가 있다. 주연부에 연주문이 1줄 있고 태토는 泥質灰陶이고 지름은 14.8cm이다.

나) 6분식 복채형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안학궁과 정릉사, 평양성 등에서 출토되었고 수량이 많지는 않다. 연판과 복선, 자방의 형태 등에 근거해 A형, B형, C형을 분류한다. A형은 안학궁(삼도 82-1) 등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막새부에 연판과 복선이 각 6개가 있다. 세 개의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고 다른 것은 주변에 윤곽선은 2줄 있으며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고 주연 안쪽에는 권선 2줄이 있다. 태토는 泥質灰陶이고 지름은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가 있다. 큰 것의 지름은 16.0~16.4cm이고 작은 것은 15.0~15.4cm이다.

B형(도면 38-1) 와당은 정릉사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에 행인형 복선이 2줄씩 6조가 있으며 복선 사이에 연판은 6개가 있다. 자방 밖에는 권선이 2줄 있고 태토는 泥質紅褐陶이다.

C형은 평양성(도면 38-2) 등에서 출토되었고 자방부에 연자문이 있으며 자방 밖에 권선은 2줄, 주연 안쪽에는 권선이 1줄 있다. 막새부에 연판과 복선이 각 6개가 있고 연판의 형태는 약간 비대하며 연판 안쪽에 작은 연판도 있다. 태토는 泥質黃褐陶(삼도 82-2)이다.



삼도 82-1 A형



삼도 82-2 C형

다) 8분식 복채형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장릉사, 안학궁, 평양 미산리 등에서 출토되었고, 연판과 복선 등의 형태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은 연판의 형태, 복선의 수량 등에 근거해 Aa형과 Ab형 Ac형을 분류한다. Aa형 막새부에는 연판과 복선이 각각 여덟 개가 있으며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2줄 있고 자방부에 연자문이 있다. 태토는 泥質紅褐陶(삽도 83)나 泥質黃褐陶(도면 39-1) 이고 지름은 14.0cm이다. Ab형(도면 39-2)의 무늬는 Aa형과 유사하고 매조 복선이 두 개가 있다. 연판과 자방부는 Aa형과 비교해 약간 차이가 있다. 자방부에 능형 장식이 있고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으며 지름은 16.0cm이다. Ac형(도면 39-3) 무늬는 Ab형과 비슷하고 연판과 복선, 자방부의 형태는 Ab형과 비교해 약간 다르다. 태토는 泥質紅褐陶이고 지름은 13.5cm이다.



삽도 83 Aa형

B형 와당은 안학궁, 평양 미산리, 경상리 등에서 출토되었고 연판과 복선 형태에 근거해 Ba형과 Bb형, Bc형을 분류한다. Ba형은 안학궁(도면 39-4) 등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에는 연판과 복선이 각 여덟 개가 있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고 주연과 인접한 복선의 일단 형태는 삼각형이나 능형이다. 자방부에는 비대한 연판이 4개가 있으며 태토는 泥質灰陶이고 지름은 16.4cm이다. Bb형은 안학궁(도면 39-5)과 평양 미산리(도면 39-6)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무늬는 Ba형과 대략 비슷하고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2줄이 있다. 주연과 인접한 복선의 일단 형태는 삼각형 이며 주연부에 연주문이 1줄 있다. 태토는 泥質灰陶이고 지름은 15.0~16.2cm이다. Bc형은 평양 미산리(도면 39-7) 등에서 발견되었고 무늬는 Bb형과 유사하며 연판과 복선, 자방부, 주연부의 형태는 Bb형과 비교해 약간 차이가 있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으며 반구형 자방 밖에는 권선, 주연부에는 연주문이 1줄씩 있는데 연주문이 보다 밀집하다.

C형은 평양 경상리(도면 39-8)에서 파편 한 점만 발견되었다. 남은 부분을 통해 막새부에 연판과 복선이 각 6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연과 인접한 복선의 일단은 비대하고 작은 연판과 비슷하다.

D형은 정릉사(도면 39-9)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에 연판과 복선이 각 여덟 개가 있으며 연판 가운데에 능선이 있다. 자방부에 연자문이 있고 자방 밖에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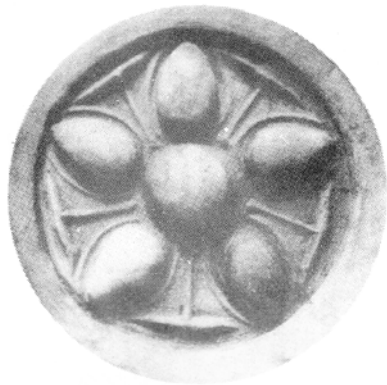
문이 1줄 있으며 지름은 16.0cm이다.

라. 'T'자형 복선연화문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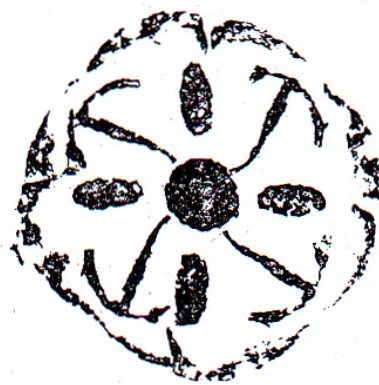
이 형식의 와당은 안학궁과 고이산성에서 발견되었고 수량이 몇 점 밖에 없다. 막새부에 'T'자형 복선이 4개나 다섯 개가 있고 복선 사이에 연판이 있다. 복선과 연판, 자방의 형태 등에 근거해 A형과 B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은 안학궁(삽도 84-1) 등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에 연판과 복선이 각 다섯 개가 있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고 형태는 매우 비대하다. 태토는 泥質灰陶이고 지름은 19.0cm이다.

B형은 고이산성에서 한 점(삽도 84-2)이 출토되었다. 막새부에 'T'자형 복선이 4조가 있고 타원형 연판과 반구형 자방이 있고 주연부는 이미 파손되었다.



삽도 84-1 A형



삽도 84-2 B형

마. 'Y'자형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수량도 적은 편이다. 무늬에 따라 세분이 가능한데, 우선 A형은 평양 토성리(삽도 85-1)등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에 연판과 복선이 각 여덟 개가 있으며 반구형 자방 가운데 작은 乳釘紋이 있다. 그리고 자방 밖과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1줄 있다. 연판 주변에는 윤곽선이 1줄 있고 'Y'자형 복선 양쪽에는 작은 乳釘紋이 있다.

B형은 안학궁(삽도 85-2) 등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에는 연판이 각 11개가 있다. 연판 밖에는 윤곽선, 자방 밖에는 권선이 각 1줄 있다. 자방부에는 연주문이 있고 주연부에도 연주문이 1줄 있다. 복선의 형태는 'Y'자형과 유사하다.

C형은 청암리(삽도 85-3)에서 파편 한 점만 발견되었는데 남은 부분을 보면 막새부에 연판과 'Y'자형 복선이 각 여덟 개가 있다. 자방 밖에는 권선이 1줄 있으며 자방과 권선 사이에는 鋸齒紋도 1줄 있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2줄 있고 주연부에 연주문이 1줄 있으며 연주문의 형태는 매우 밀집하다.



삽도 85-1 A형



삽도 85-2 B형



삽도 85-3 C형

바. ‘卍’형 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삽도 86)은 평양지역에서만 출토되었고 막새부에 연판과 복선이 각 5개가 있으며, 자방 밖에는 권선이, 주연 안쪽에 권선, 연판 밖에 윤곽선이 각 1줄 있다. 주연부에 연주문이 1줄 있다. 복선의 형태는 ‘卍’형과 비슷하다.



삽도 86



삽도 87

사. 사다리형 복선연화문와당 무복선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성(삽도 87)에서만 출토되었고 막새부의 반구형 자방 밖에는 권선이 1줄 있고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연판이 각 4개가 있는 것이다. 연판의 형태는 약간 비대하고 주연과 인접한 연판 양쪽에는 작은 乳釘紋이 있다.

②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집안지역과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되었다.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형식도 다양하다. 막새부에 복선이 없고 무늬가 연판을 중심으로 자리한다. 문양 중에 간식, 연주문, 권선 등도 있다. 연판은 여러 형태가 있고 연판의 수량에 근거해 4연판, 6연판, 7연판, 8연판, 9연판, 10연판, 11연판, 12연판,

15연판으로 분류한다.

가. 4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지역에서만 출토되었고 수량이 많지 않다. 막새부에 연판은 4개가 있고 연판과 자방의 형태 등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A형(도면 40-1)은 평양 청호리나 상수신리에서 한 점만 출토되었다. 자방 밖,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1줄 있다. 연판의 형태는 세장하고 연판 주변에 윤곽선도 1줄이 있다. 태토는 泥質黃陶이고 직경은 14.0cm이다.



삼도 88-1 B형

삼도 88-2 Ca형

B형은 평양성과 평양 평천리(삼도 88-1), 정릉사(도면 40-2~3)에서 발견되었다. 반구형 자방 밖,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1줄 있다. 연판은 세장하고 주변에 윤곽선 1줄도 있다. 연판 양쪽에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호형 장식이 있으며 연판 사이에 작은 乳釘紋이 1개가 있다. 태토는 夾砂紅陶이고 직경은 14.0cm이다.

C형은 무늬를 기준으로 Ca형과 Cb형, Cc형으로 세분한다. Ca형은 평양 토성리(삼도 88-2), 토성리성지(도면 40-4) 등지에서 출토되었고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으며 주연 안쪽에 톱날 문양은 1줄 있다. 연판은 아주 비대하고 형태는 복숭아와 비슷하며 서로 인접한 연판 사이에 작은 간식이 있다. 태토는 泥質紅褐陶 이고 직경은 14.3cm이다. Cb형은 평양 토성리(도면 40-5)에서 한 점만 발견되며 무늬는 Ca형과 대체로 비슷하나 연판과 자방, 그리고 간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있으며 간식이 삼각형과 유사하다.

D형은 황해남도 봉산군 토성리절터(도면 40-6)에서 한 개체만이 출토되었다. 막새부의 4개 연판의 형태는 약간 다르고, 두 개 연판 가운데에 인동형 장식이 있으며 가운데에는 능형 장식이, 연판 사이에는 삼각형 장식도 있다. 도면은 거칠게 만들었다.

E형은 안학궁(도면 40-7~8)에서 출토되었고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으며 주연부에도 연주문이 1줄 있다. 막새부에 비대한 연판 4개가 있고 서로 인접한

연판 사이에 작은 연판형 간식도 있다. 태토는 夾砂灰陶이다.

나. 5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 와당은 봉황산산성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에는 연판이 다섯 개가 있다. 연판 사이에 ‘十’자형 장식이 있고 연판과 자방의 형태에 근거해 A형, B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 와당(삽도 89-1)의 자방은 크고 B형 와당(삽도 89-2)의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다.



삽도 89-1 A형



삽도 89-2 B형

다.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집안지역과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되었고, 수량 및 형식이 많다. 막새부에 연판은 6개가 있고 여러 형태의 형식이 있다. 일부 연판 사이에 간식이 있는데, 이 간식의 유무에 근거해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과 무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두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가)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지역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에 연판이 6개가 있고 연판 사이에 간식이 있다. 간식의 형태에 근거해 삼각형 간식, ‘Y’자형 간식, ‘ㄱ’형 간식, 인동형 간식, 복채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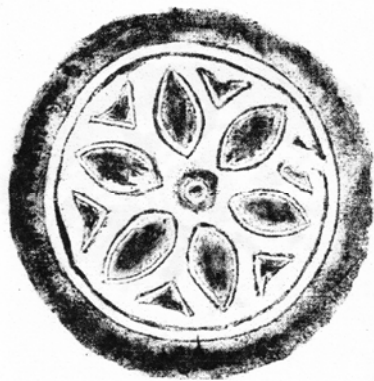
(가) 삼각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국내성지역, 고이산성, 평양지역, 호로그루 등에서 출토되었고 연판과 간식, 자방의 형태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A형~D형 와당은 연판과 간식의 형태에 따라 Aa형, Ab형, Ba형, Bb형, Ca형, Cd형, Da형, Db형으로 세분된다.

Aa형은 환도산성 궁전유적(도면 41-1)과 장군총 남서쪽 건축유적(도면 41-2)

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막새부에 연판과 부조 삼각형이 6개고, 연판은 좁고 길며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다. 태토는 夾砂紅陶이고 지름은 14.5cm이다. Ab형은 집안 商賈街유적(도면 41-3)에서 한 점이 발견되었고 무늬는 Aa형과 유사하며 연판은 Aa형보다 약간 넓다.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고 지름은 14.5cm이다.

Ba형은 환도산성(도면 41-4)과 장군총 서남쪽 건축유적(도면 41-5)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에 행인형 연판과 삼각형 간식이 6개, 연판과 간식 밖에 윤곽선,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다. Bb형은 집안시 勝利村유적(삼도 90-1)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의 무늬 구성이 Ba형과 대체로 비슷하다. 연판과 간식의 형태는 Ba형에 비해 약간 차이가 있다. B형 와당의 지름은 13.8~14.4cm이다.



삼도 90-1 Bb형



삼도 90-2 F형

Ca형은 국내성(도면 41-6)에서 한 점만 발견되었고 막새부에 연판과 삼각형 간식이 각 6개가 있다. 자방 밖에, 주연 안쪽에 권선은 각 1줄 있다. 태토는 夾砂灰陶이다. Cd형은 우산992호분에서 파편 한 점(도면 41-7)이 출토되었고 무늬가 Ca형과 대체로 유사하며 연판 형태가 더 비대하다. 태토는 泥質灰陶인데, 심하게 파손되어 지름을 확인할 수 없다.

Da형은 1945년 이전에 고이산성(도면 41-8)에서 파편 한 점이 발견되었고 자방부에 연자문이, 주연부에 톱날 문양이 있다. 서로 인접한 연판 사이에 삼각형과 비슷한 간식이 있고 간식의 형태는 매우 좁고 길다. 태토는 泥質灰陶이고 지름은 약 17.0cm이다. Db형은 평양성(도면 41-9) 등에서 출토되었고 자방부에 연자문이 일곱 개가 있다. 막새부에 연판이 6개가 있고 주연과 주연 안쪽의 권선 사이에 연주문이 1줄 있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은 1줄 있고 연판 사이에 삼각형 간식이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41-10)이고 직경은 16.8cm이다.

E형은 평양 토성리(도면 41-11)에서 발견되는데 자방 밖과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1줄 있다. 막새부에 연판 6개가 있으며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다. 서로 인접한 연판 사이에 삼각형 간식이 있고 삼각형 간식 가운데에 작은 삼각형도 있다. 태토는 泥質黃褐陶(도면 41-12)이다.

F형은 경기도 연천군 호로그루(삽도 90-2)에서만 출토되었고 반구형 자방 밖에 연판은 6개가 있다. 연판의 형태는 약간 세장하고 연판 사이에 'T'형 간식이 있다. 태토는 泥質黃陶 이고 직경은 17.0cm이다.

(나) 'Y'자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고이산성에서만 몇 점이 발견되었고 연판과 연자문, 간식의 형태에 근거해 A형, B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 A형은 무늬에 따라 Aa형과 Ab형으로 세분 가능하다. Aa형(삽도 91) 자방부에는 연자문이 일곱 개가 있고 타원형 연판이 6개가 있으며 서로 인접한 연판 사이에 'Y'형 간식이 있다. 주연부는 넓고 평평하고 태토는 夾砂紅褐陶이다. Ab형(도면 42-1) 무늬는 Aa형과 유사하고 연판과 'Y'형 간식, 자방부의 형태는 Aa형과 다소 차이가 있다. B형(도면 42-2)은 자방 밖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으며 연판과 'Y'형 간식이 A형과 큰 차이가 있다.



삽도 91 Aa형

(다) 'ㄴ'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성, 평양 평천리, 대성산성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그 수량이 많지 않다. 막새부에 연판은 6개고 연판 사이에 'ㄴ'형 간식이 있다. 연판과 간식의 형태 등에 근거해 3형식으로 분류한다. A형은 평양성과 평양 평천리(삽도 92-1, 도면 43-1)에서 발견되었는데 자방 밖,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다. 막새부에 연판은 6개가 있으며 서로 인접한 연판 사이에 'ㄴ' 와 '—'가 복합된 간식이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43-2)이고 직경은 14.5~15.2cm이다.

B형은 평양성(삽도 92-2)에서 출토되었는데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다. 막새부에 연판은 6개가 있고 서로 인접한 연판 사이에 'ㄴ'형의 간식이 있다.



삼도 92-1 A형



삼도 92-2 B형

C형은 대성산성(도면 43-3)에서 한 점이 발견되는데 막새부의 자방 밖에 권선과 연주문이 1줄, 그리고 주연 안쪽에 권선 1줄이 있다. 막새부에 연판 6개가 있고 연판 사이에 ‘~’형 간식이 있다.

(라) 인동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지역(삼도 93)에서 발견되었고 자방 밖에 권선과 연주문, 육각형 무늬가 있고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다. 연판 가운데에, 서로 인접한 연판 사이에 인동문과 비슷한 무늬가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직경은 16.4~18.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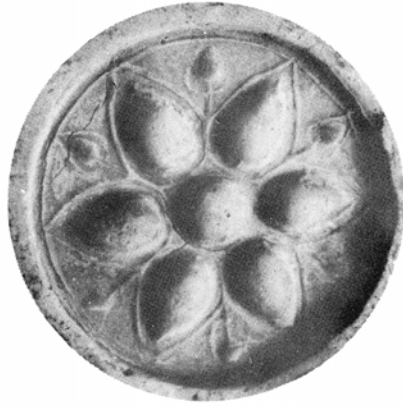


삼도 93

(마) 북채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안학궁 등에서 출토되었고 연판과 간식, 자방의 형태에 근거해 A형, B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은 안학궁(삼도 94-1)에서 몇 점이 발견되었고 막새부에, 반구형 자방 밖에 연판은 6개가 있다. 연판 표면에 나뭇잎형 장

식이 있고 연판 주변에 윤곽선은 1줄 있다. 연판 사이에 북채형 간식이 있다. 태토는 夾砂灰陶가 있고 지름은 17.0cm이다.



삽도 94-1 A형



삽도 94-2 B형

B형(삽도 94-2)은 1점만 발견되었고 출토 지점도 확인할 수 없었다. 자방 밖에,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2줄씩 있으며 주연 안쪽에 자리한 2줄의 권선 사이에 연주문이 1줄 있다. 막새부의 6개 연판 사이에 북채형과 비슷한 간식이 있다.

나) 무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 청암리와 평천리, 대성산성, 고이산성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그 수량이 많지 않다. 막새부에 연판은 6개가 있고 연판과 자방의 형태 등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A형은 평양 청암리(삽도 95-1)와 평천리(도면 44-1)등에서 출토되는데,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은 각 1줄 있다. 막새부에 연판이 6개가 있으며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직경은 14.0cm이다.



삽도 95-1 A형



삽도 95-2 C형

B형은 대성산성(도면 44-2~3)에서 몇 점이 출토되었고 자방 밖에 비대한 연

판은 6개가 있다. 태토는 夾砂灰陶이고 직경은 16.0cm이다. C형(삼도 95-2)은 고이산성에서 발견되었고 반구형 자방 밖에 연판이 6개가 있으며 연판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고 서로 위치도 고정되어있지 않다. 주연부에 만든 흔적이 몇 줄씩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거칠게 만들었고 태토는 夾砂灰陶이다.

라. 7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성 등에서 출토되었다. 막새부에 연판이 7개가 있으며 연판 사이에 ‘~’형 간식이 있다. 연판과 자방, 간식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A형은 와당의 무늬에 따라 내부적으로 Aa형과 Ab형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먼저 Aa형(도면 45-1, 삼도 96-1)은 자방부에 ‘十’자형 문양이 있고 자방 밖 권선과 칠각형 장식이 1줄씩 있다.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 있고 막새부에 연판 7개가 있다. 연판 사이에 ‘~’와 작은 乳釘紋 복합 간식이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45-2~3)이고 직경은 16.8cm이다. Ab형(도면 45-4)의 무늬는 Aa형과 대체로 유사하나 자방과 연판, 간식 등이 약간 다르다. 자방의 형태는 반구형이다.

B형(삼도 96-2, 도면 45-5)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과 연주문 1줄, 주연 안쪽에 권선 1줄이 있다. 막새부에 연판은 6개가 있으며 연판 사이에 ‘~’형 간식이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45-6)이고 직경은 15.3~15.5cm이다.



삼도 96-1 A형

삼도 96-2 B형

마.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수량도 많고 형식도 다양하다. 막새부에 연판 8개가 있고 일부 와당의 연판 사이에 간식이 있기도 하다. 간식의 유무에 근거해 간식, 무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을 분류한다.

가)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막새부와 연판 사이에 간식이 있고 형식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간식의 형태에 근거해 삼각형 간식, 나뭇가지형 간식, 'ㄷ'형 간식, 복채형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삼각형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다. 막새부에 연판이 여덟 개가 있고 연판 사이에 삼각형 간식이 있다. 연판과 간식, 자방의 형태에 따라 A부터 O까지 15가지로 분류한다.

A형은 환도산성 2호문지(도면 46-1)와 장군총 남서쪽 건축유적(도면 46-2)에서만 출토되었는데, 막새부에 연판과 보조 삼각형이 각 여덟 개가 있다. 연판 형태는 상대적으로 세장하고 지름은 14.4~16.0cm이다. B형은 환도산성 궁전유적(도면 46-3)과 동대자유적(도면 46-4), 장군총 남서쪽 건축유적(도면 46-5), 장군총 남쪽(도면 46-6)에서 많이 발견되었으며, 막새부에 연판과 부조 삼각형 각 여덟 개가 있다. 연판의 형태는 매우 비대하고 지름은 14.4cm이다.

C형은 국내성지역에서 출토되었고 연판과 간식의 형태에 따라 Ca형, Cb형, Cc형으로 나눌 수 있다. Ca형은 장군총 서남쪽 건축유적(삽도 97-1)에서 발견되었다. 막새부에 연판과 부조 삼각형 각 아홉 개가 있고, 제작기법은 아주 정교하며 지름은 14.4~15.4cm이다. Cb형, Cc형은 동대자유적(도면 46-7) 梨樹園子南유적(도면 46-8)에서 발견되었다. 무늬는 연판과 부조 삼각형 간식이 각각 6개씩 있고,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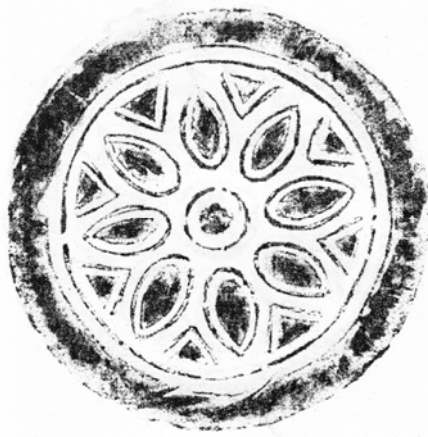
D형은 동대자유적과 집안시, 梨樹園子南유적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를 기준으로 Da형과 Db형, Dc형으로 나눌 수 있다. Da형(도면 46-11)은 동대자유적 등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무늬가 Cc형과 유사하나 자방과 연판의 형태는 Cc형과 약간 다르다. 이 형식의 와당 중에 마루기와(도면 46-9~10)도 있다. 지름은 22.0cm 썸이다. Db형은 梨樹園子南유적(도면 46-12)에서 발견되었고, 무늬는 대체로 비슷하다. 연판과 부조 삼각형 각 여덟 개가 있는데, 연판 형태와 자방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지름은 15.0~16.0cm이다. Dc형은 집안시(도면 46-13)에서 발견되었고 지름 20.0cm이다.

E형은 동대자유적(도면 46-14)에서 출토되었다. 막새부에 연판과 부조 삼각형 각 여덟 개가 있으며, 자방밖에 팔각형 무늬가 있고 지름 16.0cm이다. F형은 장군총 남쪽(도면 46-15)에서 발견되었고 지름은 14.5cm이다.

G형은 정릉사에서 출토되었고, 연판과 자방의 형태에 근거해 Ga형과 Gb형을 분류한다. Ga형(도면 46-16) 와당 막새부에 여덟 개 연판 사이에 삼각형 간식이 있다.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권선과 연주문은 각 1줄 있다. 태토는 泥質灰陶 이

고 지름은 19.0cm이다. Gb형(도면 46-17~18)의 무늬는 Ga형과 유사한 편이다. 자방부에 작은 직선형 장식 4개가 있고, 자방 밖,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각 1줄 있다. 태토는 泥質紅陶이고 직경은 17.0cm이다.

H형은 평양성 등지에서 출토되는데, 무늬를 기준으로 Ha형과 Hb형으로 분류한다. Ha형(도면 46-19, 삽도 97-2)은 자방 밖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주연 안쪽에 권선은 1줄 있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고 연판 사이에 삼각형 간식이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46-20)이고 직경은 18.1cm이다. Hb형(도면 46-21) 무늬는 Ha형과 유사하지만 연판의 형태는 Ha형에 비해 조금 세장하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46-22)이고 직경은 16.8cm이다.



삽도 97-1 Ca형



삽도 97-2 Ha형



삽도 97-3 L형



삽도 97-4 M형

I형(도면 46-23~24)은 평양 경상리 등에서 발견되었고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과 삼각형 장식,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각 1줄 있다. 연판의 형태는 약간 비대하고 연판 사이에 삼각형 간식이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46-25)이고 직경은 15.8~16.2cm이다.

J형은 평양 대성산성과 평양 평천리(도면 46-26) 등에서 출토되었다. 자방 바깥,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1줄씩 있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고 연판 사이에 삼각형 간식이 있다.

K형은 평양성(도면 46-27) 등에서 발견되었고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과 연주문,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1줄 있는 형태다. 연판의 형태는 약간 세장하고 연판 사이에 삼각형 간식이 있다.

L형은 평양 청호리(삽도 97-3)에서 파편 한 점만 발견되었는데, 자방부에 연주문이 있으며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는 양식이다. 연판의 형태는 약간 비대하고 연판 사이에 삼각형 간식이 있다.

M형은 평양 청호리(삽도 97-4, 도면 46-28)에서 출토되었고, 자방부에 연주문이 있다. 자방 밖으로는 권선이 1줄 있고 연판 표면에 능선도 몇 개 있다. 연판 사이에 삼각형 간식이 있다. 태토는 泥質灰陶이다.

N형은 평양 장매리(도면 46-29)에서 파편으로 한 점이 발견되었다. 형태는 자방 바깥으로 권선이 2줄,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는 모양이다. 연판의 형태는 아주 비대하고 연판 주변에 복숭아형 윤곽선이 1줄 있으며 연판 사이에 삼각형 간식이 있다.

O형은 평양 장매리(도면 46-30)등지에서 발견되었고 자방부에 연주문이 있으며 막새부에 연판은 8개다.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직경은 14.3cm이다.

(나) 나뭇가지형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안학궁을 비롯한 평양지역에서 출토된다. 그 형태는 막새부에 여덟 개 연판 사이에 나뭇가지형 간식이 있는 모양이다. 연판과 간식, 자방 등의 형태에 근거해 A형과 B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A형은 안학궁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연판과 간식의 형태에 따라 Aa형, Ab형, Ac형으로 나눌 수 있다. Aa형(도면 47-1)의 특징은 반구형 자방 밖에 연판은 여덟 개가 있고 연판 사이에 나뭇가지형과 비슷한 간식이 있다는 점이다. 주연부에 연주문이 1줄 있고 연주문의 수량은 16개다. 태토는 泥質灰陶이고 직경은 16.0cm이다. Ab형과 Ac형의 무늬는 Aa형과 유사하고 연판과 자방, 간식, 연주문등은 Aa형에 비해 차이가 있다. Ab형(삽도 98-1, 도면 47-2~4)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고 간식이 Aa형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 태토는 泥質灰陶이고 직경은 19.0cm이다. 연주문의 수량은 24개가 있어 더 밀집하다. Ac형(도면 47-5~6) 자방 형태는 큰 편인데 간식이 Aa형과 비교해 차이가 있고 연주문의 수량도 24개가 있다. 태토는 泥質灰陶이고 지름은 20.0cm이다.

B형은 평양지역(삽도 98-2)에서 출토되었고, 자방 바깥쪽에 순서대로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권선 2줄이 있으며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고 연판 사이에 나뭇가지형 간식이 있다.



삽도 98-1 Ab형



삽도 98-2 B형

(다) 'ㄴ'형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성 등에서 발견되었고 간식의 형태에 근거해 A형과 B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삽도 99-1)은 자방 밖에 권선과 연주문,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1줄 있다. 연판이 약간 세장하고 주변에 윤곽선 1줄이 있다. 주연과 인접한 두 개 연판의 일단에 'ㄴ'형 간식이 있고 서로 인접한 연판 가운데에 연주문이 1줄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직경은 14.6cm이다.

B형(삽도 99-2)의 무늬는 A형과 대체로 비슷하나 간식이 A형과 비교해 약간 다르다. 연판 사이에 연주문과 'ㄴ'형을 복합한 간식이 있고, 이 형식의 와당들 중 마루기와(도면 48-1~3)도 있다.



삽도 99-1 A형



삽도 99-2 B형

(라) 북채형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 청암리(삽도 100)에서 발견되었다.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고 주연부에 연주문이 1줄 있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고 연판 사이에 복채형 간식이 있다.



삽도 100

나) 무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는데, 특징으로는 막새부의 주요 무늬가 여덟 개 연판이 있다는 것이다. 연판과 자방의 형태에 따라 아홉 가지, 즉,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H형, I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A형은 국내성유적에서 파편 한 점(삽도 101-1)만 발견되었다. A형의 막새부에는 연판과 부조 삼각형 각 여덟 개가 있으며, 연판의 크기가 약간 차이가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지름은 약 14.8cm이다. B형은 동대자유적(도면 49-1)에서 출토되었다.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다. 입 연판은 여덟 개고 주연 안쪽에 연주문이 1줄 있다.

C형은 평양 정릉사에서 출토되었는데, 무늬를 기준으로 Ca형, Cb형, Cc형, Cd형을 분류한다. Ca형(삽도 101-2, 도면 49-2) 와당은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은 각 1줄 있다. 막새부에 연판은 6개가 있고 연판 표면에 작은 연판형 윤곽선이 있다. 태토는 泥質紅陶이고 직경은 18.4cm이다. Cb형, Cc형, Cd형 무늬는 Ca형과 비슷하고 연판과 자방, 간식 등은 Ca형과 다르다. Cb형(도면 49-3)은 자방부에 연자문이 있고 자방 밖에 권선은 1줄,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은 각 1줄 있다. 연판은 Ca형에 비해 약간 세장하다. 태토는 泥質紅陶이고 지름은 17.4cm이다. Cc형(도면 49-4~5)은 자방 밖에 연주문과 권선,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다. 태토는 泥質紅陶이고 지름은 14.5cm이다. Cd형(도면 49-6~7)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1줄 있다. 태토는 泥質紅陶이고 지름 18.0cm이다.



삽도 101-1 A형



삽도 101-2 Ca형



삽도 101-3 Fa형

D형은 평양성(도면 49-8) 등에서 출토되었다. 자방 밖에 권선이 3줄, 주연 안쪽에 권선은 1줄 있다. D형의 연판 형태는 좁고 길며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다. E형은 평양 청암리(도면 49-9) 등에서 출토되는데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고 주연부에 연주문이 1줄 있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2줄 있다.

F형은 평양성과 평양 청암리 등에서 발견되었고 연판과 자방의 형태에 따라 Fa형과 Fb형으로 나눌 수 있다. Fa형은 평양 청암리(삽도 101-3)에서 발견되었고 자방부에 연자문이 있고 자방 밖,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1줄씩 있다. 막새부에 비대한 연판은 여덟 개가 있고 연판 가운데에 연주문이 1줄 있다. Fb형은 평양성(도면 49-10) 등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는 Fa형과 비슷하지만 자방부 등은 Fa형과 다르다. 자방 바깥, 연판 가운데에 연주문이 없다. 태토는 泥質黃褐陶(도면 49-11)이고 직경은 14.2cm이다.

G형은 안학궁(도면 49-12~13)과 평양성(도면 49-14) 등에서 출토되었고 자방 가운데에 작은 乳釘紋이 있다. 자방 밖에 권선,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다. 연판 주변에 'U'형 윤곽선이 있고 윤곽선이 서로 연결된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나 夾砂灰陶이다.

H형은 평양지역(도면 49-15)에서 출토되었고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다. 주연 안쪽에 권선 2줄이 있고 권선 사이에 연주문이 1줄 있다. 연판이 약간 비대하고 태토는 夾砂黃褐陶(도면 49-16)이며 직경은 13.8cm이다.

I형은 평양성(도면 49-17) 등에서 발견되었고 자방 밖에 순서대로 권선, 단선 장식, 연주문, 그리고 권선이 각각 1줄씩 있다.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 각 1줄 있고 연판의 형태는 반타원형과 비슷하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49-18)이고 지름은 약 15.2cm이다.

바. 9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고 수량 및 형식이 많다. 연판과 자방 등의 형태에 따라 아홉 가지,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

형, H형, I형으로 분류한다. A형은 연판의 형태에 근거해 Aa형과 Ab형으로 나눌 수 있다. Aa형은 동대자유적(도면 50-1)에서 발견되었고 연판과 부조 삼각형이 각 아홉 개가 있으며 연판이 좁 넓은 편이다. 자방 외부로 권선이 1줄 있고 지름은 16.0cm이다. Ab형은 환도산성 2호문지(도면 50-2)와 장군총 남서쪽 건축유적(도면 50-3)과 大連 대흑산산성(도면 50-4)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는 Ab형과 비슷하다. 연판과 간식은 약간 차이가 있고, 지름은 13.6~14.4cm이다.

B형은 환도산성 1호문지, 2호문지, 궁전유적(삽도 102-1), 瞭望臺유적, 그리고 국내성(도면 50-5)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형태적 특징으로는 막새부에 연판과 부조 삼각형 각 아홉 개가 있다. 제작 기법은 아주 정교하고 태토는 夾砂紅陶이며 지름은 14.4~15.4cm이다.

C형은 梨樹園子南유적(도면 50-6)에서 출토되었고 연판 밖에 윤곽선, 자방 밖에 권선이 각 1줄 있으며 지름은 14.5cm이다. D형은 동대자유적(도면 50-7)과 집안 西岡(도면 50-8), 온특혁부성(도면 50-9), 집안시(도면 50-10~11) 등에서 발견되었다. C형은 반구형 자방 밖에 순서대로 권선이 1줄, 입연판이 아홉 개, 연주문이 1줄 있다. E형(삽도 102-2)은 평양성 등지에서 출토되었고 자방 밖에 권선과 닭시바늘형 문양이 1줄 있다.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직경은 16.0cm이다.



삽도 102-1 B형



삽도 102-2 E형

F형은 고이산성에서 발견되었고 연판과 연주문 등 무늬에 따라 Fa형과 Fb형, Fc형으로 나눌 수 있다. Fa형(도면 50-12)은 자방부 연자문 밖과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1줄 있고 막새부의 주요 무늬로는 연판 아홉 개가 있다. 연판의 형태는 타원형이나 원형이 있으며 주연부는 넓고 평평하다. 태토는 泥質紅褐陶 이고 지름은 12.8cm이다. Fb형(도면 50-13)의 무늬는 Fa형과 매우 유사하고 연판의 형태만 Fa형과 다르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판 형태는 타원형이다. Fc형(도면 50-14)은 자방부에 연자문이 6개가 있고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으며 주연부

안쪽에는 권선이 2줄 있으며, 2줄의 권선 사이에 연주문이 1줄 있다. 막새부에는 타원형 연판이 일곱 개가 있고 태토는 泥質灰陶이다.

G형 역시 무늬에 따라 Ga형과 Gb형으로 분류한다. Ga형은 평양 평천리(도면 50-15) 등에서 발견되었고 자방 밖에 권선, 삼각형 장식이 있으며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다. 막새부에 연판 아홉 개가 있고 연판의 형태는 세장하며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다. 연판 사이에 작은 연판형 간식이 있고 연판 주변에 윤곽선은 1줄도 있다. 이 형식의 와당 중에 마루기와(도면 50-16~17)가 있다. Gb형은 평양성(도면 50-18) 등지에서 출토되었고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 연주문이 각 1줄씩 있고 주연 안쪽에도 권선이 1줄 있다. 연판의 형태는 Ga형과 비슷하나 간식은 연판형도 있으며 삼각형도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50-19)이며 직경은 15.3~15.7cm이다.

H형(도면 50-20) 와당의 출토지점은 확인할 수 없고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주연 안쪽의 권선 1줄이 있다. 막새부에 연판은 아홉 개가 있고 연판의 크기도 서로 차이가 있으며 연판 사이에 삼각형 간식이 있다. 태토는 泥質黃陶이고 직경은 16.1cm이다. I형은 평양성(도면 50-21)에서 발견되었고 자방 밖에 순서대로 권선이 2줄, 연주문이 1줄 있다.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고 막새부에 삼각형과 비슷한 연판이 아홉 개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직경은 15.0cm이다.



삽도 103

사. 10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성(삽도 103)에서 발견되었고 반구형 자방 바깥,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다. 막새부에 연판이 10개가 있고 연판 중간에 능선이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지름은 15.8cm이다. 이 형식의 와당 중에는 마루기와(도면 51-1~3)도 있다.

아. 11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고 무늬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A형과 B형이다. A형 와당의 무늬를 기준으로 Aa형과 Ab형, Ac형을 분류한다. Aa형은 평양성(삽도 104-1)에서 발견되었고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으며 주연 안쪽에 권선도 1줄 있다. 막새부에 연판이 11개가 있고 연판 형태는 세장하다.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으며 연판 사이에 삼각형 간식이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직경은 16.3cm이다. Ab형은 평양 토성리(도면 52-1)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는 Aa형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연판과 간식 등은 Aa형에 비해 약간 다르고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없다.

B형(삽도 104-2)은 평양성 등지에서 출토되었고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주연 안쪽에 권선과 내향연호문이 각 1줄씩 있다. 막새부에 작은 연판이 11개가 있고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52-2~3)이고 직경은 약 16.0cm이다.



삽도 104-1 Aa형



삽도 104-2 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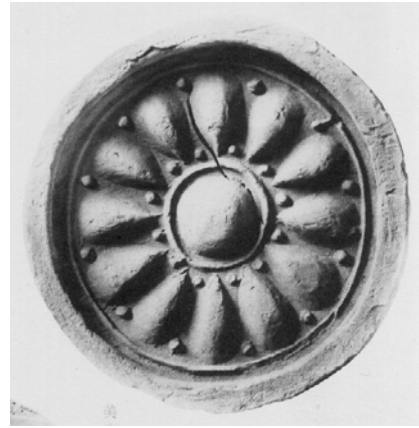
자. 12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지역에서 발견되었고 무늬에 따라 A형과 B형, C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삽도 105-1)은 평양성 등지에서 출토되었고 자방 밖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주연 안쪽에 권선문 1줄이 있다. 막새부에 12개의 연판이 있고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다. 태토는 泥質紅褐陶(도면 53-1)이다.

B형은 무늬를 기준으로 Ba형과 Bb형으로 분류한다. Ba형은 안학궁(도면 53-2)에서 발견되었고 자방부에 연자문이 있으며 막새부에 연판이 12개가 있다. 연판 주변에는 윤곽선이 1줄 있다. 태토는 泥質灰陶이고 직경은 17.0cm이다. Bb형은 평양 미산리(삽도 105-2)에서 출토되는데,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각 1줄씩 있으며 주연 안쪽에도 권선과 연주문이 1줄씩 있다. 연판 형태는 Ba형과 비슷하고 주변에 윤곽선이 없다.



삽도 105-1 A형



삽도 105-2 B형

C형은 평양 동대원리(도면 53-3)에서 파편 한 점만 발견되었고 자방부에 연자문이 있으며 자방 밖,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1줄 있다. 연판 형태는 약간 비대하고 연판 사이에 'T'형 간식이 있다.

차. 15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성(삽도 106-1)에서 출토되었고 자방 밖에 순서대로 권선, 旋轉紋 장식, 권선이 1줄씩 있다. 주연 안쪽에도 권선이 1줄 있다. 원형에 가까운 연판이 총 15개가 있고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다. 태토는 夾砂黃陶(삽도 106-2)이고 직경은 16.6cm이다.



삽도 106-1



삽도 106-2

(2) 복합문양 연화문와당

복합문양 연화문와당이란 막새부의 무늬 중 적어도 두 가지 형태의 연화문이 있는 것이다. 이 형식의 와당은 집안지역과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되었고, 막

새부의 무늬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서술하자면 연화문+연화문 복합연화문와당, 연화문+인동문 복합연화문와당, 연화문+귀면문 복합연화문와당, 연화문+인면문 복합연화문와당, 그리고 연화문+다른 문양 복합연화문와당 등이다.

① 연화문+연화문 복합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막새부 무늬의 배치에 근거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연판+연판 복합연화문와당, 연판+연봉오리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연판+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연판+인동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이다.

가. 연판+연판 복합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의 수량이 많은 편이다. 연판 등의 무늬를 기준으로 17가지, 즉,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H형, I형, J형, K형, L형, M형, N형, O형, P형, Q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A형은 환도산성과 동대자유적에서 발견되었으나 환도산성 출토품의 도면이나 사진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동대자유적 출토 와당의 무늬에 따라 Aa형과 Ab형으로 양분한다. Aa형(삽도 107-1)의 주요 무늬는 좁고 긴 연판과 행인형 연판 각 4개의 복합 문양이다. 두 연판의 형태적 차이는 매우 큰 편인데, 일부 연구자는 좁고 긴 연판을 柿蒂紋으로 본다. 고구려지역에 등장한 이러한 무늬는 柿蒂紋과 비슷한 것이 사실이지만, 불교의 영향을 받아 출현했으며, 평양지역에 연화문+연화문 복합문양 와당 중 유사한 무늬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연화문으로 부른다.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Ab형 와당은 夾砂紅陶(도면 54-1)이고, 일부 것은 夾砂黃褐陶(도면 54-2)이다. Aa형의 지름은 15.0cm, Ab형 지름은 15.0~15.8cm이다.

B형은 용수산산성(도면 54-3)에서 몇 점이 출토되었다. 1983년 8월에 남쪽 성벽 안에서 완형 한 점이 발견되었다. 무늬는 주로 큰 연판과 작은 연판 각 4개가 있고 각각 작은 연판 밖에 ‘_’형 장식이다. 태토는 泥質灰陶이고 지름은 13.0cm이다. C형은 성자산산성(도면 54-4)에서 발견되었다. 막새부에 작은 연판과 큰 연판 각 세 개가 있으며 연판 사이에 복선과 비슷한 무늬가 있다. 또 말단에는 ‘~’형 장식이다.

D형은 봉황산산성과 고이산성에서 출토되었고, 연판 등의 형태에 따라 Da형과 Db형으로 나눌 수 있다. Da형은 봉황산산성(도면 54-5)에서 출토되었고 지방 밖,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다.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좁고 긴 연판이 8개 있는 모양이다. 연판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4개 연판 가운데 능선이 있는 형태이고 다른 것은 능선이 없는 형태다. Db형은 고이산성

(도면 54-6)에서 발견되었는데, 형태는 자방 밖에 좁고 긴 연판이 여덟 개가 있는 모양이다. 그 중 4개 연판은 작고 다른 것은 크다.

E형은 鬲河尖古城에서 출토되었고, E형(도면 54-7)의 막새부에는 행인형 연판과 타원형 연판이 각각 4개가 있으며 행인형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다. 자방 밖, 그리고 주연 안쪽에는 권선이 각 1줄 있고 태토는 泥質紅陶이다.

F형은 고이산성에서 발견되었고 파편 몇 점만 있으며 무늬에 따라 Fa형과 Fb형으로 나눌 수 있다. Fa형(도면 54-8)의 자방 밖에는 권선이 1줄 있고 막새부에는 좁고 긴 연판과 약간 비대한 연판이 4개씩 있다. 특히, 약간 비대한 연판은 윤곽선이 2줄 있는데 이 형식의 연판은 고이산성에서만 출토되었다. Fb형(도면 54-9)은 심하게 파손되어 파편만 남았다. 윤곽선이 없는 연판의 형태는 Fa형에 비해 조금 비대하며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G형은 평양성과 장수산성(남평양성) 외곽의 유적에서 발견되었고 수량이 적은 편이나 무늬를 기준으로 Ga형과 Gb형, Gc형으로 분류한다. Ga형(도면 54-10)은 장수산성(남평양성) 외부의 유적 등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행인형 연판이다. 양쪽에 화살형 무늬가 있는 연판이 각 4개가 있다. Gb형(도면 54-11)은 장수산성(남평양성)의 바깥에 위치한 유적에서 발견되었고, 무늬는 대체로 Ga형과 비슷하다. 행인형 연판과 양쪽에 화살형 무늬가 있는 연판은 Ga형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다. Gc형은 평양성(삼도 107-2)에서 다량 출토되었고 막새부 무늬는 Ga형과 유사하나, Ga형에 비해 자방이 더 크고 연판 형태는 더 길고 좁다.

H형은 평양성과 평양 청암리에서 발견되었고 무늬에 따라 Ha형과 Hb형으로 나눌 수 있다. Ha형(도면 54-12) 막새부의 주요 무늬를 보면, 행인형 연판, 주변에 호형 무늬가 있는 연판이 각 4개가 있는 모양새다. 연판 사이에 보조 삼각형의 무늬가 있고 자방부에 연주문이 1줄 있다. Hb형(도면 54-13) 무늬는 Ha형과 비슷하나 자방부, 연판 사이에 ‘十’자형 장식이다.

I형은 평양 평천리와 안학궁에서 출토되었고 무늬에 따라 Ia형과 Ib형을 분류한다. Ia형은 평양 평천리(도면 54-14)등에서 출토되었고 자방부에 권선이 2줄, 주연부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씩 있다. 연판 가운데에 능선이 있고 연판의 형태는 좁고 길다. Ib형은 안학궁(도면 54-15)등에서 발견되었고 무늬는 Ia형과 유사하고 자방과 연판의 형태는 Ia형과 다르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있고 연판 사이에 ‘∨’형 간식도 있다.

J형은 평양성(도면 54-16)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능형 연판 4개와 반원형 연판 4개이다. 반원형 연판 밖에 ‘∨’형 무늬가 있고 연판 안쪽에 작은 반원형 연판이 있다. K형은 대성산성(삼도 107-3)과 평양 청암리(도면 54-17) 등에서 발견되었고 수량이 많은 편이다. 막새부에 오이씨와 비슷한 연판

과 주변에 ‘U’형 장식이 있는 연판이 각 4개가 있다. L형은 평양 상오리(도면 54-18)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막새부에 약간 넓은 연판, 復瓣 연판이 각 4개가 있다.

M형은 대성산성과 평양 청암리에서 발견되었고 무늬에 따라 Ma형과 Mb형으로 나눌 수 있다. Ma형(도면 54-19)은 출토 지점을 알 수 없고 수량도 적다. 復瓣의 매우 좁고 긴 연판이 4개가 있다. Mb형(도면 54-20)은 수집품만 있고 수량도 적는데,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復瓣 연판, 약간 비대한 연판이 4개씩 있다.

N형(도면 54-21)은 평양성에서 발견되었고 반구형 자방부 밖에 작은 연판이 열 개가 있으며 연판 밖에 ‘^’형 장식이 있다. 서로 인접한 연판과 밖에 있는 ‘^’형 장식은 큰 연판 한 개를 형성하고 있어 큰 연판 열 개로도 볼 수 있다.

O형은 평양 장매리 盧梅洞(도면 54-22)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에 뽕족하고 큰 연판이 8개 있다. 또한, 큰 연판 안쪽에는 좁고 긴 작은 연판이 8개가 있다. 주연부 안쪽으로는 권선이 2줄 있고 2줄의 권선 사이에는 연주문이 1줄 있다.

P형은 평양성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에 윤곽선이 있는 연판, 좁고 긴 연판이 각 여덟 개가 있다. 이 형식의 와당 중 마루기와(도면 54-23~24)가 있다. Q형 와당은 안학궁(삽도 107-4)에서 한 점 발견되었고 막새부에는 연판이 여덟 개가 있는데, 큰 연판과 작은 것이 각 4개 있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2줄 있고 주연 안쪽에 연주문이 1줄 있다.



삽도 107-1 Aa형 삽도 107-2 Gc형 삽도 107-3 K형 삽도 107-4 Q형

나. 연판+연봉오리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연판+연봉오리형 복합연화문와당은 평양지역에서만 출토되었고 수량도 적은 편이다. 무늬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A형과 B형, C형, D형, E형 중 먼저 A형은 평양 대동강면 신리(삽도 108-1)에서 출토되었다. 막새부에 연판과 연봉오리 연판이 각 4개가 있으며 연판과 연봉오리 연판의 형태는 모두 비대하다. 일부 연봉오리 연판의 형태는 태왕릉의 연봉오리형 연판과 비슷하고 지름은 16.8cm이다. B형은 평양 청암리(삽도 108-2) 등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의 구조는 A형과 유사하나 연판과 연봉오리 연판의 형태는 A형과 약간 다르다.

C형의 수량은 적고 무늬에 따라 Ca형과 Cb형으로 나눌 수 있다. Ca형은 평양

성(도면 55-1) 등에서 발견되었고 반구형 자방 가운데에 작은 乳釘紋이 있으며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다. 막새부에 연판이 여덟 개가 있으나 연판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Cb형은 평양지역(도면 55-2)에서 파편 한 점만 출토되었고 막새부에 행인형 연판과 큰 연봉오리 연판이 각 4개가 있다. 태토는 夾砂灰陶이고 지름은 16.0cm이다.

D형은 평양 청암리(도면 55-3)등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는 연판과 연봉오리 연판이 각 4개가 있다. 연봉오리 연판의 형태는 독특하다. E형(삼도 108-3)은 연판과 연봉오리 연판이 각 6개가 있고 그 형태도 독자적인 특징이 있다.



삼도 108-1 Aa형

삼도 108-2 B형

삼도 108-3 E형

다. 연판+꽃술형 연판 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요녕성의 靉河尖古城과 고이산성, 평양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수량뿐만 아니라 형식도 매우 다양하다. 막새부의 무늬는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4연판+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5연판+5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6연판+6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이다.

가) 4연판+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집안 지역에서만 출토되었고 그 수량이 매우 많다. 막새부에 새겨진 연판+꽃술형 무늬 중, 꽃술형 연판 가운데의 수량에 따라 5꽃술, 3꽃술, 2꽃술, 1꽃술 4연판+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으로 분류한다.

(가) 5꽃술 4연판+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대부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 토성리에서 발견되었고 평양 청암리에서도 몇 점이 출토되었다. 막새부의 무늬는 4연판+4꽃술형 연판이 있고 꽃술형 연판 가운데에 꽃술이 다섯 개가 있다. 연판, 꽃술형 연판, 자방의 형태 등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고, A형과 B형, C형, D형, E형으로 나타낸다.



삽도 109 Ba형

A형(도면 56-1~2)은 막새부에 행인형 연판과 꽃술형 연판이 각 4개가 있는 유형이다. 꽃술형 연판 안쪽에 꽃술이 다섯 개가 있고 가운데 꽃술을 중심으로 양쪽의 4개 꽃술은 대체로 대칭적으로 분포한다. 행인형 연판과 꽃술형 연판 사이에 삼각형과 비슷한 간식이 있고 자방 밖에는 권선이 2줄 있다. A형 와당 중 마루기와(도면 56-3~4)도 있다. Ba형(삽도 109) 무늬는 A형과 대체로 유사하고 꽃술형 연판은 A형에 비해 약간 작다. 주연부 안쪽에 권선이 1줄 있고 권선 안쪽에는 연주문이 1줄 있으며 자방 밖에 권선이 1줄만 있다. 태토는 夾砂灰陶이고 지름은 18.2cm이다. Bb형(도면 56-5) 무늬는 Ba형과 대략 비슷하고 연판과 꽃술형 연판 및 꽃술, 자방부의 형태는 약간 차이가 있다. Ca형(도면 56-6)의 무늬는 Bb형과 유사하고 연판이 Bb형 연판보다 비대하며 꽃술형 연판 및 꽃술, 자방부의 형태는 Bb형과 비교해 볼 때 조금 차이가 있다. Cb형(도면 56-7)의 무늬는 Ca형과 유사하나 장방, 연판 등의 형태에 있어서는 Ca형에 비해 약간 차이가 있다. 자방부에 권선이 1줄 있다. D형(도면 56-8)의 무늬도 Cb형과 비슷하고, 다만 꽃술형 연판과 꽃술, 자방부 형태는 Cb형과 다르다. E형은 평양 청암리(도면 56-9)에서 한 점만 출토되었는데 막새부의 주요 무늬를 설명하자면, 행인형 연판과 꽃술형 연판이 각 4개의 구성이다. 반구형 자방 밖은 권선이 1줄 있고 주연이 없으며, 주연 안쪽에 권선이 2줄, 연주문이 1줄 있다. 연판 바깥으로 윤곽선이 1줄 있고 꽃술형 연판의 형태는 비대하며 꽃술은 다섯 개가 있다. 가운데 꽃술을 중심으로 양쪽의 꽃술은 대칭분포해 있다.

(나) 3꽃술 4연판+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 청암리, 토성리, 평천리, 평안남도 원오리 및 원오리절터, 흥련봉 제1보루 등에서 발견되었고, 그 수량이 많다. 막새부의 무늬는 4연판+4꽃술형 연판이고 꽃술형 연판 가운데에 꽃술이 세 개가 있다. 연판, 꽃술형 연판, 자방의 형태 등에 따라 일곱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즉, A형과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H형으로, 이 중 A형, C형, E형, F형, G형 와당은 막새부의 무늬에 따라 Aa형과 Ab형, Ca형과 Cb형, Cc형, Ea형과 Eb형, Fa형과 Fb형, Ga형과 Gb형으로 다시 구분된다. D형은 평양 토성리와 청암리, 평천리 등에서 발견되었는데, 연판과 꽃술형 연판, 자방의 형태 등에 근거해 Da형, Db형, Dc형, Dd형, De형으로 나눌 수 있다.

Aa형은 평양 청암리(도면 57-1) 등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연판과 꽃술형 연판 각 4개와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3층 있는 것이다. 꽃술형 연판 안쪽에 꽃술 세 개가 있고 가운데 꽃술을 중심으로 양쪽의 두 꽃술은 대체로 대칭으로 분포해 있다. 자방부 밖에 권선이 2줄 있고 자방부에 방사형의 직선이 4개가 있다. 주연부 안쪽에 권선이 1줄 있고 연판과 꽃술형 연판 사이에 ‘巾’자형 간식이 있으며 꽃술형 연판의 크기에 약간 차이가 있다. Ab형은 평양 청암리 酒巖洞(도면 57-2)과 토성리 등에서 출토되었다. 그 무늬는 Ba형과 비슷하며 연판과 꽃술형 연판, 자방부의 형태와 크기에서 Ba형과 조금 차이가 있다. 태토는 夾砂灰陶이고 지름은 17.4cm이다.

B형은 평양 청암리와 토성리 (삽도 110-1) 등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는 Ba형과 비슷하나 연판과 꽃술형 연판, 자방부에서 Ba형과 약간 차이가 있다.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있고 주연부 안쪽에 권선이 1줄 있으며 권선 안쪽에 연주문이 1줄 있다. 태토는 夾砂灰陶이고 지름은 16.7cm이다.

Ca형은 평안남도 원오리(도면 57-3)와 원오리절터 등에서 발견되었고 주요 무늬는 Bd형과 비슷하나 연판과 꽃술형 연판의 형태는 Bd형에 비해 세장하다. 특히, 주연부 안쪽과 인접한 꽃술형 연판의 일단이 매우 뾰족하다. 태토는 夾砂灰陶이며 지름은 15.4cm이다. Cb형(삽도 110-2)은 출토 지점을 확인할 수 없으나 수량이 많다. 형태를 보면 막새부에 행인형 연판과 꽃술형 연판이 각 4개가 있다. 주연부와 인접한 꽃술형 연판 일단의 형태는 ‘^’형이고 주연부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다. 태토는 夾砂紅陶이고 지름은 약 14.4cm이다. Cc형은 서울 흥련봉 제1보루(도면 57-4)에서만 몇 점이 출토되었다. 주연부 안쪽에 권선과 부조 삼각형이 각 1줄 있으며 자방 밖에 권선 2줄이 있다. 윤곽선과 꽃술형 연판은 더 굵다. 태토는 泥質灰陶이고(일부는 명황색이나 적색도 있다. 지름은 17.2~19.0cm이다.

Da형은 평양 토성리(도면 57-5)에서 출토되었고 연판 및 꽃술형 연판이 약간 비대하다. 주연 안쪽에,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고 자방 가운데에 작은 乳釘紋이 있다. 태토는 夾砂灰陶이며 지름은 17.1cm이다. Db형은 청암리 酒巖洞(도면 57-6)에서 발견되었고, Dc형(도면 57-7)은 출토 지점을 알 수 없다. 무늬는 Da형과 비슷하지만 연판 및 자방의 형태가 약간 다르다. Dd형은 평양 평천리(도면 57-8) 등에서 출토되었고 연판과 꽃술형 연판이 약간 비대한 편이다. 반구형 자

방부는 매우 크고 자방 밖에 작은 乳釘紋이 있다. 주연부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1줄 있다. De형은 평양 토성리(도면 57-9) 등에서 발견되었고 무늬는 Dd형과 유사하며 꽃술형 연판은 상대적으로 비대하다. 주연부 안쪽에 권선이 있고 연판 사이에 작은 乳釘紋과 ‘∨’문양의 간식이 있다.

Ea형은 평양 토성리(도면 57-10) 등에서 출토되었고 꽃술형 연판과 자방부의 형태가 세장하다. 주연부 안쪽과 인접한 꽃술형 연판 일단의 형태는 호형이고 자방부에 ‘巾’자형 장식이 4개 있다. 태토는 夾砂灰陶이며 지름은 18.2cm이다. Eb형(도면 57-11)의 출토 지점은 확인할 수 없다. Eb형의 꽃술형 연판의 형태는 오이씨와 비슷하며 자방부에는 ‘巾’자형 장식이 4개 있다.

Fa형은 평안남도 원오리절터(도면 57-12) 등에서 발견되었다. 무늬가 Bd형과 비슷하나, 연판과 꽃술형 연판, 자방부 형태는 Bd형과 다르다. 연판과 자방부의 밖에 꽃술형이 2줄 있으며 꽃술형 연판은 대체로 장방형이다. Fb형은 평안남도 원오리절터(도면 57-13) 등에서 출토되었고, 연판과 꽃술형 연판이 약간 세장하다. 자방부에 연자문이 있고 자방 밖에 권선은 1줄 있다.

Ga형은 평양 석암리(삽도 110-3) 등에서 출토되었다. 형태는 막새부에 행인형 연판과 꽃술형 연판이 각 4개가 있다. 자방부에 연주문이 1줄 있다. 주연부 안쪽에는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지름은 14.7cm이다. Gb형은 평양성(도면 57-14) 등에서 발견되었고 무늬는 Bm형과 비슷하나 연판과 꽃술형 연판 형태는 다르다. 태토는 夾砂紅陶이고 지름은 15.8cm이다. H형(도면 57-15)은 출토 지점을 알 수 없다. H형의 막새부에는 연판과 꽃술형 연판이 각 4개가 있고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3줄 있다. 꽃술형 연판 내부의 꽃술은 안쪽으로 만곡하고 태토는 泥質黃褐陶이고 지름은 17.4cm이다.



삽도 110-1 B형



삽도 110-2 Cb형



삽도 110-3 Ga형

(다) 2꽃술 4연판+ 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고 그 수량이 많다. 막새부의 무늬는 4연판+ 4꽃술형 연판이고, 꽃술형 연판 가운데에 꽃술 두 개가 있다. 무늬를 기

준으로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A형과 B형, C형, D형, E형 중 A형과 B형, C형, D형 와당은 연판과 꽃술형 연판, 자방 등의 형태에 따라 Aa형, Ab형, Ac형, Ba형, Bb형, Ca형, Cb형, Da형, Db형, Dc형으로 세분한다.

Aa형은 평양 미립리(도면 58-1)와 미산리 등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에 연판 및 꽃술형 연판이 각 4개씩 있다. 자방부에 연자문이 있고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 1줄이 있다. Ab형은 평양 평천리(도면 58-2) 등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는 Aa형과 비슷하며,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다. Ac형은 평양지역(도면 58-3)에서 발견되었다. 자방 주변에 권선 3줄이 있으며 연판 주변에 윤곽선 2줄이 있다. 태토는 황갈색이고 지름은 16.4cm이다.



삽도 111-1 Cb형

삽도 111-2 Da형

삽도 111-3 E형

Ba형은 酒巖山(도면 58-4), 평양지역(도면 58-5)에서 출토되었고 자방 주변에 권선이 2줄 있다. 연판과 꽃술형 연판 사이에 ‘∨’과 작은 乳釘紋의 복합 간식이 있다. 태토는 泥質黃褐陶이고 지름은 약 12.2cm이다. Bb형은 평양 토성리(도면 58-6) 등에서 발견되었다. 무늬는 Ba형과 유사하지만 연판과 꽃술형 연판, 자방부의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주연부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다.

Ca형은 평양 토성리(도면 58-7) 등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에 행인형 연판과 꽃술형 연판이 각 4개가 있으며 주연부 안쪽에 인접한 꽃술형 연판 일단의 형태는 ‘^’형이다. 주연부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자방 밖에 권선이 있다. Cb형은 평양 토성리(삽도 111-1) 등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는 Ca형과 대체로 비슷하나 연판과 꽃술형 연판 등이 다르다. 주연부 권선 안쪽에 연주문은 Ca형에 비해 더 작고 밀집하다.

Da형은 평양성(삽도 111-2) 등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무늬로는 행인형 연판과 꽃술형 연판이 각 4개씩 있다. 주연부와 인접한 꽃술형 연판 일단의 형태는 ‘^’형이다. 주연부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씩 있고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있다. 태토는 泥質紅陶이고 지름은 약 14.9cm이다. Db형 와당(도면 32-8)은 출토 지점을 확인할 수 없고 무늬는 Da형과 유사하며 꽃술형 연판과 자방의 형태는 Da형과 약간 다르다. Dc형은 평양성(도면 32-9) 등에서 발견되었고 무늬는

Db형과 비슷하며 꽃술형 연판의 형태는 매우 비대하다.

E형(삽도 111-3)은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 무늬는 Ca형과 대체로 유사하다. 주연부 안쪽에 인접한 꽃술형 연판 일단의 형태는 호형이다. 자방 밖,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각 1줄씩 있고, 자방 가운데에 작은 乳釘紋이 있다.

(라) 1꽃술 4연판+ 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 동대원리와 상오리에서 막새부의 무늬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분류한다. A형은 평양 동대원리(삽도 112-1)에서 한 점이 발견되었고 자방 밖에 권선 세 줄,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다. 연판 바깥으로 윤곽선이 2줄 있으며 주연과 인접한 꽃술형 연판 일단의 형태는 ‘^’형 이고 꽃술형 연판의 양쪽에 나비더듬이형 장식이 있다. 태토는 夾砂紅陶이고 지름은 15.8cm이다.



삽도 112-1 A형

삽도 112-2 Ba형

삽도 112-3 Bb형

B형은 평양 상오리등에서 출토되었고 무늬에 따라 Ba형과 Bb형으로 나눌 수 있다. Ba형(삽도 112-2)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있으며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다. 연판 밖에 권선이 1줄 있고 꽃술형 연판 내외 윤곽선의 형태가 비슷하며 연판과 꽃술형 연판 사이에 ‘T’형 또는 삼각형 간식이 있다. Bb형 와당(삽도 112-3)의 무늬는 Ba형과 유사하고 자방 밖에 권선과 연주문, 주연 안쪽에도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다. 연판의 형태는 조금 넓으며 꽃술형 연판은 Ba형에 비해 세장하다. 태토는 夾砂灰陶이고 지름은 15.8cm이다.

나) 5연판+ 5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의 무늬가 5연판+5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이다. 연판과 꽃술형 연판 등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A형은 평양 船橋里(도면 59-1) 등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에 연판과 꽃술형 연판이 각 다섯 개가 있으며 꽃술형 연판 가운데에 능선이 하나가 있다. 반구형 자방부에 ‘+’자형 무늬가 있으며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다. 태

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지름은 13.9cm이다.

B형(도면 59-2)와당의 출토 지점은 모르고 무늬 구조는 A형과 비슷하며 전체적으로 볼 때 무늬가 거칠다. 자방 밖과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2줄이 있으며 꽃술형 연판의 형태도 차이가 있다. 태토는 夾砂灰褐陶이고 지름은 16.1cm이다.

C형은 평양성(도면 59-3) 등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의 무늬는 A형과 비슷하며 연판과 꽃술형 연판의 형태는 A형과 약간 차이가 있다. 태토는 夾砂紅陶나 夾砂紅褐陶(삽도 113-1)이고 지름은 15.1~16.8cm이다.

D형은 평양 평천리(삽도 113-2) 등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는 C형과 비슷하나 연판과 꽃술형 연판 형태는 C형과 약간 다르다. 연판 밖에 윤곽선이 1줄 있으며 주연과 인접한 꽃술형 연판 일단의 형태는 ‘^’형이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59-4)이고 지름은 15.9cm이다.



삽도 113-1 C형



삽도 113-2 D형

다) 6연판+6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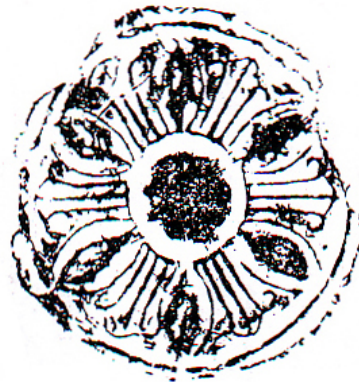
이 형식의 와당은 고이산성에서만 발견되었고 수량 또한 얼마 되지 않는다. 막새부의 무늬는 6연판+6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 연판과 꽃술형 연판 등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삽도 114-1)은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 주연 안쪽에 연주문이 각 1줄 있고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행인형 연판과 꽃술형 연판이 각 6개가 있다. 행인형 연판 밖에 윤곽선이 1줄 있고 꽃술형 연판 안쪽에 꽃술 세 개가 있으며 가운데 꽃술을 중심으로 양쪽의 꽃술은 대칭으로 분포한다. 태토는 泥質黃褐陶이다.

B형(삽도 114-2)은 모두 고이산성에서 발견되었고, 주연부가 이미 파손되었으나 남은 부분의 관찰을 통해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으며 막새부에 연판과 꽃술형 연판이 각 6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판 밖에 윤곽선이 1줄 있고 꽃술형 연판 안쪽에 꽃술은 세 개가 있으며 가운데 꽃술을 중심으로 양쪽

의 꽃술은 대칭적으로 분포한다.



삼도 114-1 A형



삼도 114-2 B형

라. 연화문+ 인동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지역에서만 출토되었고 수량이 많지 않다. 막새부에 연화문+ 인동형 연판 복합연화문이 있는데, 연판 가운데에 인동형 무늬가 있어 본고에서는 인동형 연판으로 부르고 있다. 연판과 인동형 연판, 자방 무늬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한다. A형은 평양 평천리 등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에 연판과 인동형 연판이 2개씩 있다. 그러나 파손이 심해 막새부 무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B형은 무늬를 기준으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Ba형과 Bb형, Bc형, Bd형이 있다. Ba형은 평양성 평천리(도면 60-1) 등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 무늬는 연판과 인동형 연판이 각 4개씩 있으며 서로 인접한 연판 사이에 보조 삼각형 무늬도 있다.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있다. Bb형은 평양성(도면 60-2)과 평양 평천리(삼도 115)에서 출토하였고 무늬는 Ba형과 대체로 유사하며 주연부 안쪽에 톱날 문양이 1줄 있어 연판 형태는 Ba형에 비해 약간 작은 편이다.

C형은 무늬에 따라 Ca형과 Cb형, Cc형, Cd형으로 나눌 수 있다. Ca형은 평양 평천리(도면 60-3)와 평양성 등에서 발견되었고 무늬 구조는 Bb형과 비슷하며 연판과 자방부, 톱날 문양은 더 작다. Cb형(도면 60-4)은 평양성 등에서 출토하였고 무늬는 Ca형과 유사하다. 차이점이라면 대부분의 Cb형 와당의 연판은 작고 세장하며 일부 연판 주변에는 윤곽선이 1줄 있다는 것이다. Cc형(도면 60-5) 역시 평양성 등에서 발견되었고, 무늬는 Cb형과 비슷하며 인동형 연판이 크다. 다른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3줄 있다. 주연부 안쪽에는 톱날 문양이 없으며 자방 밖에 권선 2줄이 있고 2줄의 권선 사이에 방사선이 있다. 마지막으로 Cd형은 평양 평천리와 대성산성(도면 60-6) 등에서 출토되었고 연판과 무늬는 Cb형과 비슷하다. 하지만 Cb형에 비해 권선 있는 연판은 약간 작은 편이고 톱날 문양의 형태도 다르다. 한편, Cd형 와당 중에는 마루기와(도면 60-7~8)도 있다.

D형(도면 60-9)은 두 점만 발견되었는데 막새부에 인동형 연관이 일곱 개 있다.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연관 4개와 인동형 연관이다. 반구형 자방부 바깥쪽에 권선이 1줄 있고 그 밖으로 다시 내향연호문이 있다. 서로 인접한 연관 사이에 ‘∨’형 무늬가 있고 ‘∨’형 무늬 밖에는 작은 원형 문양이 있다.



삼도 115 B형

② 연화문+인동문 복합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지역에서만 출토되었고 수량도 많지 않다. 막새부의 무늬는 연화문+귀면문 복합연화문이다. 연관과 인동문, 자방의 형태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A형과 B형, C형, D형, E형이 있다. A형은 평양 牡丹臺(삼도 116-1) 등에서 발견되었고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연주문이 1줄 있으며 연주문 밖에 8연화문+8인동문 복합 문양이 있다. 주연부 안쪽에 권선이 1줄 있고 주연부와 인접한 연관의 일단은 매우 뾰족하며 인동문의 형태도 매우 간결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막새부의 무늬는 약간 밀집한 편이다. 태토는 夾砂紅陶 이고 지름은 15.1cm이다.

B형은 평양성과 평양 토성리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무늬에 따라 Ba형과 Bb형을 분류할 수 있다. Ba형은 평양 토성리(도면 61-1)와 평양성(도면 61-2) 등에서 발견되었는데 반구형 자방 밖에 연주문이 1줄, 권선이 2줄 있으며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다.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4연관+4인동문 이고 연관은 조금 비대하며 연관 밖에 윤곽선이 2줄 있다. 인동문의 앞은 다섯 개가 있고 태토는 夾砂紅褐陶이며 지름은 14.4cm이다. Bb형은 평양성(도면 61-3)과 평양 토성리(도면 61-4) 등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는 Ba형과 비슷하며, Ba형에 비해 연관과 인동문, 자방부의 형태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태토는 夾砂黃褐陶이고 지름은 13.3cm이다.

C형은 평양 평천리와 경산리 등에서 발견되었고 무늬를 기준으로 Ca형, Cb형, Cc형으로 나눌 수 있다. Ca형은 정릉사(도면 61-5)와 평양성, 평양 평천리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막새부 무늬는 6연판+6인동문이다.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고 주연부 안쪽에 권선이 2줄 있으며 권선 사이에 연주문이 있다. 인동문의 형태는 매우 간단하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61-6)와 夾砂灰陶(도면 61-7)이고 지름은 13.8cm이다. Cb형은 평양 경산리(도면 61-8)에서 발견되었고 주연 안쪽에 권선이 2줄 있으며 권선 사이에 연주문이 있다.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6연판+6인동문이다. 태토는 夾砂黃褐陶(도면 61-9)이고 지름은 14.2cm이다. Cc형(삽도 116-2)의 출토 지점은 파악할 수 없으나 무늬는 Cb형과 대체로 유사하며 연판과 인동문, 권선 사이의 연주문의 형태는 Cb형보다 더 밀집하다.



삽도 116-1 A형

삽도 116-2 Cc형

삽도 116-3 E형

D형(도면 61-10)은 평양성에서 한 점만 발견되었는데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있으며 주연부 안쪽에 권선이 각 1줄 있다.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8연판+8인동문이고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으며 태토는 夾砂紅陶이다.

E형은 평양성(도면 61-11) 등에서 출토되었고 반구형 자방 밖에,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1줄 있다.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8연판+8인동문이고 연판 주변에 윤곽선이 1줄 있으며 인동문의 형태는 매우 특별하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61-12)나 夾砂黃褐陶(삽도 116-3)이고 지름은 14.7~15.1cm이다.

③ 연화문+귀면문 복합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 토성리성지(삽도 117-1)와 평양성(삽도 117-2) 등에서 발견되었는데, 수량이 많으나 모두 무늬가 같다. 막새부의 무늬는 4연화문+4귀면문 복합연화문이고 주연부 안쪽에 톱날 문양이 1줄 있다. 태토는 夾砂紅陶(삽도 117-3)이고 지름이 약 15.6cm이다.



삽도 117-1



삽도 117-2



삽도 117-3

④ 연화문+인면문 복합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 장수원리(삽도 118-1~2)에서 한 점만 출토되었다. 막새부에 연관이 4개 있으며 연관 사이에 무늬도 4개다. 두 개는 인면문이나, 다른 것은 확인할 수 없다. 태토는 泥質黃褐陶이고 지름은 14.5~16.0cm이다.



삽도 118-1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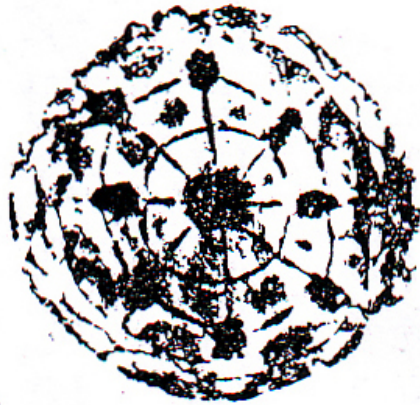


삽도 118-2 뒷면

⑤ 연화문+다른 문양 복합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고이산성과 靉河尖古城,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고 수량도 많지 않다. 막새부의 무늬로는 연화문+다른 문양 복합연화문이 있다. 연관과 다른 문양 등에 따라 세 가지, 즉, A형과 B형, C형으로 나뉜다. 그 중에 B형 연관은 그 무늬를 기준으로 Ba형과 Bb형으로 나눌 있다. A형은 연화문+법륜문 복합연화문와당이며, B형은 연화문+식물문 복합연화문와당이다. A형 와당(삽도 119-1)은 고이산성에서 한 점이 발견되었다. 막새부의 무늬는 상하 두 층이 있는데 아래층에는 법륜문이 있고 위층에 연관 여덟 개가 있다. 법륜문은 권선이 두 개가 있고 막새부에 직선이 여덟 개가 있어 법륜문은 여덟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Ba형 와당(도면 62-1)는 靈河尖古城에서 파편 한 점이 출토되었고 주연 안쪽에는 권선이 2줄 있으며 권선 사이에 연주문이 1줄 있다. 남은 부분을 보면 연관이 한 개가 있으며 양쪽에 인동문과 비슷한 식물문, 나뭇가지와 유사한 식물문은 각 두 개가 있다. 태토는 夾砂黃褐陶이며 심하게 파손되어 지름을 확인할 수 없다. Bb형은 평양성(삼도 119-2)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는 靈河尖古城의 이 형식의 와당의 무늬와 약간 비슷하다.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주연 안쪽에 툽날 문양, 권선이 각 1줄 있다. 연관의 형태는 좁고 길고 연관 사이에 나뭇가지와 비슷한 문양이 있다. 태토는 泥質紅陶이다.



삼도 119-1 A형



삼도 119-2 Bb형

C형은 평양성(도면 62-2) 등에서 발견되었고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1줄 있다. 막새부의 주요 무늬도 상하 두 층이 있으며 아래층에 내향연호문과 비슷한 문양이 2줄 있고 위층에 연관이 6개가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62-3)이다.

(3) 多層 연관연화문와당

이 형식의 와당은 몇 점만 발견되었으나 무늬는 단일 문양 연화문와당과 복합 문양 연화문와당보다 상대적으로 독특하다. 즉, 막새부의 무늬가 적어도 2층 연관이 있으며 연관의 크기가 똑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다. 그 밖에, 자방부에 모두 연자문이 있고 연자의 수량이 6개 또는 7개이다. 무늬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 E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은 평양 船橋里(삼도 120-1)에서 발견되었는데, 자방부에 연자문이 6개가 있고 연관은 3층이며 매층에 연관이 여덟 개가 있다. 연관의 형태는 좁고 길며 태토는 泥質黃褐陶이며 지름은 17.2cm이다.

B형은 출토 지점이 밝혀지지 않았다. 연관은 세 층이 있으며 매 층에 연관이 여덟 개가 있다. 무늬를 기준으로 Ba형(도면 63-1)과 Bb형(도면 63-2)으로 분류한다. Ba형 무늬는 A형과 유사하고 연관의 형태는 A형에 비해 더 넓다. Bb형

무늬는 Ba형과 비슷하고 연판의 형태는 Ba형에 비해 약간 세장하다.

C형은 평양 청암리(삼도 120-2)에서 발견되었는데, 세 층의 연판이 있으며 매 층 여덟 개의 연판이 있다. 자방부 주변에 톱날 문양과 비슷한 문양이 1줄,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다.



삼도 120-1 A형



삼도 120-2 C형

D형은 평양 토성리(도면 63-3)에서 출토되었고 자방부에 연자문이 6개가 있으며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다. 연판은 5층이 있고 매층의 연판도 5개다.

E형(도면 63-4)은 그 출토 지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막새부에 연판은 두 층이 있으며 매층의 연판이 4개가 있다. 연판의 형태는 비대하고 주연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씩 있다. 태토는 泥質黃褐陶이고 지름은 15.0cm이다.

3) 인동문와당

인동문와당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성지역에서 발견되었고, 그 수량이 연화문와당에 비해 확실히 적다.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인동문이고 인동문의 조합 형식에 따라 단일 문양 인동문와당, 복합 문양 인동문와당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단일 문양 인동문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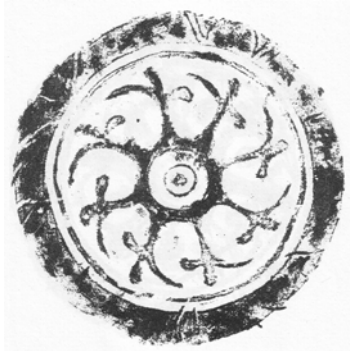
단일 문양 인동문와당은 국내성지역, 평양성지역에서 모두 출토되었다. 국내성지역에서 국내성과 환도산성과 동대자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으나, 고분에서는 인동문와당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지역의 단일 문양 인동문와당은 수량과 형식이 매우 적고 모두 평양성지역에서 발견되었다. 막새부 인동문의 형태와 수량 등에 근거해 A형, B형, C형을 분류할 수 있다. A형은 국내성지역에서만 발견되었고 막새부에 인동문이 여덟 개가 있다. B형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지역에서 출토하고 막새부에 인동문이 6개가 있다. C형은 평양지역에서만 출토되었고 막새부에 인동문이 4개가 있다. 그 중에 A형과 B형은 인동문 형태와 방향에 따라

Aa형, Ab형, Ac형, Ba형, Bb형, Bc형, Bd형, Be형, Bf형, Bg형 있다.

Aa형은 동대자유적(삽도 121-1)에서 출토되었고, 인동문은 굵고 지름은 16.0cm이다. Ab형(도면 64-1~2)과 Ac형(도면 64-3~5) 인동문의 형태는 비슷하고, 모두 동대자유적과 환도산성 궁전유적에서 발견되었다. Ab형 와당의 인동문은 약간 세장하고 지름은 15.2cm이다. Ac형의 인동문은 Ab형보다 좀 굵고 지름은 14.5~16.0cm이다.

Ba형(도면 64-6~8)은 동대자유적에서 발견되었고 인동문이 약간 가늘고 형태는 청동무기 창(戈)과 비슷하다. 지름은 15.5~16.0cm이다. Bb형과 Bc형, Bd형의 인동문은 크고 굵으나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다. Bb형은 국내성(도면 64-9)에서 파편 한 점이 출토되었고 인동문 형태가 다른 것에 비해 다르다. 심하게 파손되어 지름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Bc형은 동대자유적(도면 64-10~11)과 국내성유적(도면 64-12)에서 발견되었고 지름은 14.3~15.0cm이다. Bd형은 동대자유적(도면 64-13~14)에서 출토되었고 지름은 14.7~15.0cm이다. Be형은 평양 猿巖里(삽도 121-2)에서 출토되었고 인동문의 방향은 왼쪽이다.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있고 권선 사이에 연주문 1줄 있다. 주연부 안쪽에 권선이 1줄 있고 지름은 16.8cm이다. Bf형, Bg형은 평양 黄金町(도면 64-15~16)에서 발견되었고 인동문의 방향은 오른쪽이며 장방의 형태가 Be형과 다르다. Bf형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고 Bg형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있다.

C형 와당의 인동문은 4개가 있고 평양 평천리(삽도 121-3), 평양성(도면 64-17) 등에서 출토되었으며 무늬는 대체로 같다. 인동문의 방향은 오른쪽이고 형태도 좀 굵다. 태토는 夹砂黄褐陶(도면 64-18)이고 지름은 14.5cm이다.



삽도 121-1 Ab형



삽도 121-2 Be형



삽도 121-3 C형

(2) 복합 문양 인동문와당

복합 문양 인동문와당은 평양지역에서만 출토되었고 수량도 적은 편이다. 무늬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A형(삽도 122, 도면 65-1) 와당의 인동문은 12개가 있고 막새부의 무늬는 6인동문+6인동문 복합 문양이다. 인동문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6개 인동문의 형태는 비대하고 다른 것은 매우 세장하다.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있으며 주연부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다. 태토는 泥質紅陶이고 지름은 약 15.7cm이다.



삼도 122 A형

B형은 평양성 牡丹臺(도면 65-2~3) 등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에 인동문이 10개가 있어 5인동문+5인동문 복합문양 인동문와당이다. 그중에 한 인동문의 형태는 A형과 비슷해 매우 세장하고 다른 것은 비대하다. 반구형 자방 밖에, 주연부 안쪽에 권선이 각 1줄 있다. 태토는 夾砂紅陶이고 지름은 약 12.2cm이다.

4) 귀면문와당

귀면문와당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성지역에서 모두 발견되었고 그 수량도 많다. 국내성지역의 인동문와당의 분표상황과 비슷한데, 고분유적에서 출토된 와당 중에서는 귀면문와당이 하나도 없다. 귀면문와당은 모두 생활유적에서만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유적은 국내성과 환도산성, 동대자유적 등이 있다. 평양지역에서는 청암리와 청암리절터, 정릉사, 상오리, 酒巖里 등에서 출토되었다. 귀면문의 입과 주름, 수염의 형태, 이의 수량 등에 근거해 아홉 가지로, 즉,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H형, I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A형 와당은 귀면의 입의 형태, 눈썹 등의 특징에 따라 Aa형과 Ab형을 분류한다. Aa형은 환도산성 1호와 2호 문지, 궁전유적(삼도 123-1), 瞭望臺유적, 국내성 북성벽의 서문지, 서성벽의 문지, 국내성유적, 동대자유적(도면 66-1~2)에서 발견되었다. 막새부에 ‘凹’자형 큰 입모양 내에 牙가 열 개가 있고 가운데 6개는 작으며 입아귀에 큰 獠牙는 4개가 있고 그 안쪽에 타원형 舌이 있다. 눈은 크고 돌출되어있으며 근처에 화염형 눈썹이 있다. 코 역시 크게 만들어졌고, 코 위에 ‘人’자형 주름이 있으며 볼은 짧고 긴 수염이 있다. 주연부 안에 권선이 1줄 있다. 태토는 夾砂紅陶와 夾砂灰陶이고 지름은 약 15.0 cm이다. Ab형은 동대자유

적(도면 66-3)에서만 출토되었다. 전체적인 무늬가 Aa형과 대체로 비슷하며 입, 눈썹, 수염의 형태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지름은 약 15.0cm이다.

B형 와당은 귀면의 입 형태, 주름 등에 근거해 Ba형과 Bb형을 분류한다. Ba형은 환도산성 1호, 2호 문지, 궁전유적(도면 66-4), 瞭望臺유적, 동대자유적(도면 66-5), 국내성유적(도면 66-6)에서 발견되었는데, ‘ㅼ’자형의 큰 입이 있고 이는 12개다. 이의 형태는 Aa형에 비해 더 평평하고 獠牙도 작으며, 혀의 형태는 좁고 길다. 주름은 화염형이고 눈과 주름 사이에 접수형의 큰 눈썹이 두 개가 있으며, 볼에 있는 수염은 작은 편이다. 태토는 夾砂紅陶이며 지름은 약 15.6cm이다. Bb형은 동대자유적(도면 66-7)에서만 출토되었다. 입의 형태는 元寶形이고 獠牙와 눈썹, 주름, 수염의 형태가 Ba형에 비해 차이가 있다. 지름은 16.0cm이다.

C형은 환도산성 궁전유적(도면 66-8)과 집안시(삼도 123-2) 등에서 발견되었고 입의 형태가 ‘ㅼ’자형이며 이는 13개가 있다. 혀가 없고 눈썹과 주름의 형태는 모두 화염형이며 볼에 수염이 거의 없다. 주연부 안에 권선과 연주문은 1줄 있다. 환도산성 궁전유적에서 출토된 C형식의 와당 중에 마루기와(도면 66-9~10)가 있다. 태토는 夾砂紅陶이며 지름은 21.0cm이다.



삼도 123-1 Aa형



삼도 123-2 C형



삼도 123-3 F형

D형 와당은 입과 수염의 형태 등에 근거해 Da형과 Db형을 분류한다. Da형은 환도산성 궁전유적(도면 66-11)과 국내성유적(도면 66-12)에서 출토되었다. ‘ㅼ’자형 입 내에 이가 12개 있고 혀는 없다. 코 위에 ‘ㄱ’형의 주름 두 개가 있고 볼에 있는 수염은 모두 굵슬이다. 환도산성 궁전유적에서 출토된 이 형식의 와당 중에는 마루기와가 몇 점 있다. 태토는 夾砂紅陶이고 지름은 17.8~18.4cm이다. Db형은 동대자유적(도면 66-13)에서 몇 점 발견되었다. 무늬는 Da형과 대체로 비슷하며 입과 수염의 형태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지름은 19.0cm이다. E형은 환도산성 궁전유적(도면 66-14)에서 파편 한 점이 출토되었고 주연부 안쪽에 권선이 없다. 그 외에 연주문이 1줄 있고 연주문은 C형 연주문보다 작다. 태토는 夾砂黃褐陶인데, 심하게 파손되어 지름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 밖에, 집안 商賈街유적에서 盾形 귀면와(도면 66-15) 한 점이 출토되었다. 높이 25.8cm, 넓이 20.5cm인데, 그 무늬가 환도산성과 국내성유적 등에서 발견된 고구려 귀면문와당의 무늬와 많이 다르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와당을 고구려의 귀면문와당으로 간주하나, 필자의 견해로는 이 귀면와는 일제강점기에 집안역을 건설하면서 만든 귀면와이다.

F형은 평양 청암리(삽도 123-3)와 정릉사(도면 66-16), 상오리(도면 66-17), 청암리절터(도면 66-18) 등에서 발견되었다. 입의 형태는 대체로 거꾸로 된 채형과 비슷하다. 이는 열 개가 있으나 獠牙가 앞니보다 작은 편이다. 눈이 크고 근처에 화염형 눈썹이 있으며 볼에 짧은 수염이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나 夾砂黃褐陶(도면 66-19)이고 지름은 17.6cm이다.

G형은 평양 청암리(도면 66-20~21) 등에서 출토되었다. 입이 대체로 ‘凹’자형 이고 이는 열 개가 있으며 獠牙가 크고 눈, 수염과 주름 등이 F형과 많이 다르다.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지름은 약 16.0cm이다.

H형은 평양지역(도면 66-22)과 평양 酒巖里(도면 66-23) 등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는 F형과 G형과는 확실히 다르다. 태토는 夾砂黃褐陶이다. I형 와당(도면 66-24)의 출토 지점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입이 ‘凹’자형이고 이는 10개다. 눈 근처에 연주문 형태의 눈썹이 있고 주름은 가로 ‘S’자형 이며 얼굴에 구레나루가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파손되어 잔존 지름은 12.3cm이다.

5) 범륜문와당

범륜문와당이란 막새부 무늬가 자방을 중심으로 주변에 방사선형 문양이 있어 불교의 범륜문 문양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와당이다. 이 형식의 와당은 주로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고 무늬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A형과 B형, C형, D형이다. A형의 주요 무늬는 방사선과 연주문이 있고 무늬를 기준으로 Aa형과 Ab형, Ac형, Ad형, Ae형을 분류한다. Aa형(삽도 124-1)은 평양성과 평양 평천리 등에서 발견되었는데 자방 밖에 권선이 4줄 있고 주연부 안쪽에 권선 2줄이 있으며 권선 안쪽에 방사선 16개가 있다. Ab형은 평양성(도면 67-1)과 평양 토성리(도면 67-2) 등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는 Aa형과 비슷하며 16개 방사선 사이에 연주문이 있다. 태토는 夾砂紅陶(도면 67-3)이고 지름은 15.6cm이다. Ac형은 평양 대성산성(도면 67-4)에서 파편 한 점만 발견되었는데 무늬는 Ab형과 비슷하나 권선과 방사선, 연주문은 Ab형과 차이가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지름은 15.8cm이다. Ad형(도면 67-5)은 평양성에서 한 점만 출토되었고 자방과 주연부 사이에 권선이 3줄 있다. 막새부에 방사선 16개가 있고 서로 인접한 방사선 사이에 연주문이 있다. Ae형은 평양성(도면 67-6)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는 Ad형과 약간 비슷하고 막새부에 범륜문만 있으며 연주문이 없다.

B형은 평양성과 토성리 등에서 발견되었고 무늬를 기준으로 Ba형과 Bb형, Bc형으로 나눌 수 있다. Ba형(삽도 124-2, 도면 67-7)은 자방과 주연 사이에 권선이 일곱 개가 있다. 주연 안쪽의 3줄의 권선 사이, 자방 밖 3줄의 권선 사이에 밀집한 방사선이 있다. Bb형(도면 67-8)은 출토 지점을 알 수 없고 파편은 1점만 있다. 자방과 주연 사이에 권선이 1줄 있고 자방 밖에 3줄의 권선 사이에 밀집한 방사선이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심하게 파손되어 지름을 확인할 수 없다. Bc형(도면 67-9)은 장수산성(남평양성) 외부 유적에서만 1점이 발견되었고, 자방과 주연 사이에 권선이 4줄 있고 권선 사이에 밀집한 방사선이 있는 형태다.



삽도 124-1 Aa형



삽도 124-2 Ba형

C형 와당의 수량은 비교적 적은 편이고 무늬에 따라 Ca형과 Cb형을 분류한다. Ca형은 평양성(도면 67-10)에서 출토되었고 자방 밖에 연주문이 1줄 있으며 자방과 주연부 사이에 권선이 6줄 있다. 2줄의 권선 사이에 밀집한 방사선이 있고 주연부 안쪽에 톱날 문양이 1줄 있다. Cb형 와당(도면 67-11)은 한 점이 있으나 출토 지점을 확인할 수 없다. 자방 밖에 연주문과 톱날 문양이 각 1줄 있고 자방과 주연부 사이에 권선은 2줄 있으며 권선 사이에 밀집한 방사선이 있다. 주연부 안쪽에 톱날 문양과 연주문이 각 1줄 있고 태토는 夾砂紅褐陶이며 지름은 14.8cm이다.

D형(도면 67-12)은 출토 지점을 확인할 수 없고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 행인형과 비슷한 문양, 톱날 문양이 각 1줄씩 있다. 주연부 안쪽에도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씩 있다. 특히, 막새부에 쌍복선이 네 주가 있어 막새부가 네 부분으로 나뉜다. 태토는 夾砂紅褐陶이고 지름은 14.8cm이다.

6) 중권문와당

중권문와당은 평양지역(삽도 125)에서 한 점만 출토되었다. 자방과 주연부 사이에 권선이 6줄 있는데 두 개씩 권선이 서로 인접하며 1줄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夾砂紅陶이다.

7) 인면문와당

지금까지 고구려 유적에서는 인면문와당(삽도 126)이 한 점만 발견되었다. 2006년에 봉황산산성 瞭望臺유적에서 출토된 개체로, 파손되었으나 남은 부분으로 막새부의 무늬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입은 파손되었고 코는 삼각형이며 눈썹은 호형이고 주름이 대략 'M'형이다. 태토는 夾砂黃褐陶이다.



삽도 125



삽도 126



삽도 127

8) 연주문와당

靉河尖古城에서 연주문와당 파편 한 점이 출토되었고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주연부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다.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권선이 네 주, 연주문이 2줄 있다. 연주문의 형태는 고이산성에서 발견된 일부 연화문과 유사하고 태토는 泥質黃褐陶(삽도 127)이다.

9) 기타

기타는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다. 그 무늬로는 연주문과 기하학 문양 (오각형이나 육각형문양, 'S'형 문양), 結紐紋, 怪獸紋 등이 있다. 평양지역의 기타의 수량은 많은 편이며, 무늬에 따라 A형과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H형, I형, J형, K형, L형의 12가지로 나눌 수 있다.

A형의 주요 무늬는 오각형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세부 무늬를 기준으로 Aa형과 Ab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Aa형은 평양성(삽도 128-1) 등에서 출토되었고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다. 연주문 밖에 대체로 오각형 문양이 있고 오각형의 정점과 각 변의 중간에 작은 인동문 장식이 있다. 주연부 안쪽에 권선이 1줄 있고 태토는 夾砂紅陶(도면 68-1)이며 지름은 14.6cm이다. Ab형(도면 68-2)의 무늬는 Aa형과 비슷하고 자방 밖, 권선 주변에 연주문이 없다. 태토는 夾砂黃褐陶(도면 68-3)나 夾砂紅陶이고 지름은 약 14.6cm이다.

B형 와당(삽도 128-2)은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있고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육각형 문양이며 그 주변에 纏枝紋이 있는 형태다. 纏枝紋 중간부에 작은 연화문이 있고 일부 纏枝紋 바깥쪽으로는 톱날 문양이 있다. 태토는 夾砂紅褐陶

(도면 68-4)이고 지름은 15.2cm이다. 이 형식의 와당 중에는 마루기와(도면 68-5~6)도 있다.

C형은 평양 토성리성지 등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 가운데에 권선과 연주문이 각 1줄 있다. 주요 무늬는 육각형 문양이 있고 육각형의 각 변 밖에 ‘∨’과 작은 乳釘紋의 복합 문양 간식이 두 개가 있다. 주연부 안쪽에 권선이 1줄 있고 태토는 夾砂紅陶이다. 이 형식의 와당 중에 마루기와(도면 68-7~8)도 있다.

D형 와당(도면 68-9)의 주요 무늬는 두 층의 육각형 문양이며, 자방과 주변의 무늬는 C형과 비슷하다. 주연부 안쪽에 권선은 1줄 있고 태토는 夾砂紅褐陶(도면 68-10)이며 지름은 14.1cm이다.

E형은 평양 鏡齊里(삽도 128-3) 등에서 발견되었고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있으며 2줄의 권선 사이에 연주문 1줄이 있다. 주연부 안쪽에 권선과 톱날 문양, 내향연호문, 旋轉紋이 각각 1줄씩 있다. 태토는 泥質黃陶(도면 68-11)이고 지름은 15.5cm이다.

F형은 평양 평천리(도면 68-12) 등에서 출토되었고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이 1줄 있으며 주연부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 旋轉紋이 각 1줄 있다. 태토는 夾砂紅陶이고 지름은 16.2cm이다.

G형(삽도 128-4) 와당은 자방 밖에 자리한 2줄의 권선 사이에, 그리고 주연부 안쪽 2줄 권선 사이에 연주문이 각 1줄씩 있다.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S’형과 비슷한 무늬로 총 4개가 있다. 태토는 夾砂紅陶이고 지름은 16.6cm이다.

H형은 평양 토성리(도면 68-13) 등에서 발견되었는데 자방 밖에 연주문이 2줄 있으며 주연부 안쪽에 연주문과 권선이 각 1줄 있다.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S’형과 비슷한 무늬로 총 4개가 있다. 태토는 夾砂紅陶이고 지름은 16.6cm이다.

I형은 평양 서성리(삽도 128-5)에서 출토되었고 반구형 자방 밖에 육각형 문양이 있으며 막새부의 주요 무늬는 結紐紋 다섯 개가 있다. 서로 인접한 結紐紋 사이에 ‘∨’형 간식이 있다. 태토는 夾砂紅陶(도면 68-14)이고 지름은 16.6cm이다.

J형은 평양지역(도면 68-15~16)에서 출토되었고 자방 밖과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두 주씩 있다. 막새부의 주요 무늬로는 복선 16개가 있으며 복선 사이에 식물문과 비슷한 무늬가 있다. 태토는 夾砂紅陶이고 지름은 16.1cm이다.

K형 와당은 평양성(도면 68-17) 등에서 발견되었고 반구형 자방 밖에 권선이 2줄 있으며 주연 안쪽에 권선이 1줄 있다. 막새부의 무늬는 너무 복잡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태토는 夾砂紅陶(도면 68-18)이고 지름은 17.4cm이다.

L형은 평양 청호리(삽도 128-6)에서 한 점만 발견되었다. 주연부, 막새부에 ‘V’형과 비슷한 무늬가 있고 막새부의 주요 무늬로는 용과 비슷한 怪獸가 두 마리가 있다. 태토는 夾砂紅陶이고 지름은 16.6cm이다.



삽도 128-1 Aa형



삽도 128-2 B형



삽도 128-3 E형



삽도 128-4 G형



삽도 128-5 I형



삽도 128-6 L형

2. 반와당의 형식학적 연구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 반와당은 모두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고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반원형보다 큰 것을 반와당으로, 본 논문에서는 大半圓形 반와당으로 부른다. 다른 것은 小半圓形 반와당으로 부르는데, 일부 일본 학자는 小半圓形을 弦月瓦로 불렀다.

1) 대반원형 반와당

大半圓形 반와당은 두 점만 발견되었는데 무늬는 복합연화문 문양이다. 무늬를 기준으로 대반원형 반와당을 두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A형과 B형이다. A형(삽도 129-1~2)은 연화문+인동문 복합연화문 大半圓形 반와당이고 막새부 가운데에 연화문이 있으며 양쪽에 인동문이 있다. B형의 무늬는 연화문+연봉오리형 연관 복합연화문와당이고, 위에서 언급한 복합연화문와당(즉 圓瓦當)중에 똑같은 무늬를 가진 것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B형(삽도 129-3~4) 반와당은 똑같은 원형 와당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 있는데, 특히 그 형태가 A형 大半圓形 반와당의 형태와 비슷해 B형은 大半圓形 반와당에 속하고 생각한다. B형은

청암리유적에서만 한 점 출토되었다.



삽도 129-1 A형 삽도 129-1 A형 삽도 129-3 B형 삽도 129-4 B형

2) 소반원형 반와당

大半圓形 반와당의 수량에 비해 小半圓形 반와당의 수량은 매우 많다. 그 무늬에 따라 세부적으로 1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A형(삽도 130-1)은 청암리 酒巖洞 등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 가운데에 마니보주가 있으며 마니보주 양쪽에 연화문+인동문 복합 문양이 있다. 권선 안쪽에 톱날 모양이 있고 톱날 문양 안쪽에 연주문이 있다. B형 와당은 평양지역(도면 69-1)에서 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막새부 가운데에 연화문이 하나가 있으며 양쪽에 인동문이 있다.

C형은 평양지역에서 몇 점만 출토되었고 무늬에 따라 Ca형과 Cb형으로 나눌 수 있다. Ca형(도면 69-2)은 막새부 가운데에 반구형 자방과 연판 장식이 있고 양쪽에 인동문이 있으며 권선 안쪽에 연주문 1줄이 있다. Cb형(도면 69-3)의 무늬는 Ca형과 대체로 비슷하나 권선 안쪽의 연주문 형태는 약간 다르다.

D형 와당(도면 69-4) 역시 수량이 많고 막새부 가운데, 양쪽의 무늬는 卷曲 문양이 있다. E형(도면 69-5)은 한 점만 발견되었고 막새부 밑에 반구형 자방이 있으며 위에는 'S'자형 문양이 있다. 상부 권선의 안쪽에 연주문과 톱날 문양이 있다. F형(도면 69-6)은 한 점만이 출토되었고, 막새부 가운데에 연화문과 비슷한 무늬가 있으며 주변에 당초문과 유사한 문양이 있다. G형(도면 69-7) 역시 한 점이 발견되었고 막새부 가운데에 마니보주와 비슷한 무늬가 있으며 주변에 권곡 문양이 있다. H형(도면 69-8~9)은 평양성 근처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 가운데에 연화문과 비슷한 무늬가 있으며 주변에 권곡 문양도 있다. 그러나 연화문과 비슷한 무늬 및 권곡 문양이 G형과는 다르다. I형(도면 69-10)은 평양성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 가운데에 작은 자방이 있으며 그 위에 화염문과 비슷한 무늬가 있다. J형(도면 69-11)은 과연 한 점만 출토되었고 무늬는 대체로 화염문과 유사하나 I형의 무늬와는 차이가 있다. K형(삽도 130-2)은 막새부 가운데에 귀면문이 하나가 있고 그 양쪽에 기하학 문양이 있다. L형(삽도 130-3)은 평양성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 주요 무늬로는 개구리 한 마리가 있으며 개구리 발톱과 입, 배가 뚜렷하게 보이고 개구리 위에 작은 귀면문도 하나 있다. M형(도면

69-12)의 주요 무늬도 개구리 문양이고 개구리 발톱과 다리, 배가 뚜렷하게 보이며 양쪽에 권곡 문양이 있다.



삽도 130-1 A형

삽도 130-2 K형

삽도 130-3 L형

V. 고구려 와당의 편년과 분기설정

지금까지 고구려 와당에 관한 연구가 시작 된지 백년이 다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연구자들 사이에 편년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을 따지자면, 상당수의 고구려 와당이 과학적이거나 고고 과학적으로 발굴조사된 출토품이 아니라는 이유가 크게 작용한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북한에서 수집된 일부 고구려 와당은 층위 관계 뿐만 아니라 출토 지점도 알 수 없다. 또한 1945년 이전에 수집된 많은 고구려 와당은 공반유물이 적은 편이라 와당의 편년을 연구하기 어렵다. 1945년 이후에는 고구려 고분과 유적들에 대한 과학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출토된 와당의 공반유물에는 고구려 토기 외에도 다양한 유물들이 있으며, 일부 층위 관계가 확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철저히 조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구려 와당에 대한 편년은 매우 혼란한 상태이다. 고구려 권운문와당의 편년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연구에 있어서는, 일부 와당의 막새부에 새겨진 ‘太寧四年’(326년) 명문의 해석에 대해 연구자들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다. 즉, 늦어도 326년 경에 권운문와당은 국내성지역에서 이미 출현하였다고 본다. 그렇지만 권운문와당이 소멸된 시간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권운문와당의 소멸 시기를 5세기 전까지로 보았으나, 백종오의 연구에 따르면 6세기, 7세기 대에도 고구려 권운문와당이 계속 유행하였다. 필자는 이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구려의 불교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검토하고 고구려 와당의 편년을 대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위에서 정리한 고구려 와당의 형식분류를 토대로, 원형 와당과 반원형 와당을 각각 구분해 각 형식별 편년을 설정하기로 한다.

1. 원형 와당의 편년

고구려 원형 와당은 무늬에 따라 권운문와당,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 귀면문

와당, 법륜문와당, 중권문와당, 인면문와당, 연주문와당, 기타 등 아홉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 형식의 와당 편년도 이상의 문양에 따라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1) 권운문와당의 편년

지금까지 고구려 권운문와당은 국내성지역에서만 출토되었고 무늬에 따라 명문권운문와당과 무명문권운문와당으로 분류한다. 명문권운문와당은 명문의 내용에 근거해 연호 명문권운문와당과 간지 명문권운문와당, 일반 명문권운문와당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 연호 명문권운문와당은 국내성에서만 몇 점이 발견되었고 간지 명문권운문와당은 국내성과 梨樹園子南유적, 麻線中學 서북쪽, 勝利村消防隊, JYM500(서대묘), JYM992, JYM3319 등에서 출토되었다. 일반 명문권운문와당은 梨樹園子南유적과 JYM3319에서 파편으로 두 점이 발견되었다. 무명문권운문와당은 국내성유적과 JYM1000(천추총), JMM2100 등에서 출토되었다.

(1) 권운문와당의 편년

권운문와당의 등장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안시 인민욕지유적과 국내성 남문내에서 출토된 ‘太寧四年’(326년)명과 ‘太寧□年’명 권운문와당을 고려해야 한다. ‘太寧’은 東晉明帝 司馬紹의 연호이고 ‘太寧元年’부터 ‘太寧四年’까지 사용하였다. 李殿福은 ‘太寧四年’명이 ‘太寧三年’(325년)이라 생각했으나 ‘太寧四年’명과 ‘太寧□年’명에 따르면 고구려 권운문와당은 늦어도 326년 경에 등장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연호 명문권운문와당은 ‘太寧四年’(326년)명과 ‘太寧□年’(323~326년)명만 있어 고구려 연호 명문권운문와당이 ‘太寧’연간에 유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명문권운문와당의 유행 시기는 323년부터 326년까지이다.

간지 명문권운문와당은 막새부에 간지 명문이 있어 와당의 편년을 설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된다. 2004년 고구려 왕릉보고서의 출판을 계기로 중국학계는 일련의 고구려왕릉과 관련된 발굴조사 및 연구 성과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출토 유물과 고분 형태, 문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고구려 왕릉의 피장자를 추정하였다. 지금까지 고구려 왕릉의 피장자 문제는 고구려고고학계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중국, 한반도, 일본 학자들은 고구려 왕릉의 피장자 비정에 있어서 각각 차이가 있다. 일본 학자들은 역사학적인 접근을 많이 해, 고구려왕릉의 피장자를 검토할 때 고구려와 관련한 문헌 자료를 많이 이용했다. 때문에 고구려 고고학의 최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가 적은 편이다. 필자는 왕릉보고서의 피장자 비정 내용이 맞다고 판단해, 본 논문 중에 이런 성과를 반영했다. 또한, 필자도 본 연구에서 일부 왕릉의 피장자를 와당연구를 통해 재검토하겠다. 한편, 이런 보고서와 연구 성과의 축적으로 많은 간지 명문권

운문와당이 발표되었다. JYM3319에서 이 형식의 와당 세 점이 출토되었는데, 명문으로는 막새부에 ‘乙卯年癸酉’명과 ‘丁巳□□□□歲□□□□□萬世太歲在丁巳五月廿日’명, ‘□□□□□□四時興詣□□□□萬世太歲在丁巳五月廿日’명이 있다. 孫仁傑은 이 고분에서 출토된 공반유물, 특히 청자반구호와 고분의 형태 등을 전면적으로 연구하여 고분의 시대를 4세기 중엽으로 편년하였다. ‘乙卯年’은 355년이며 ‘丁巳’는 357년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서대묘(JYM500)에서 출토된 간지 명문권운문와당의 막새부에는 ‘己丑年□□于利作’명과 ‘□歲在□□年造□’명이 있는데, 왕릉보고서에서는 ‘乙丑年’을 329년으로 보고, 고분의 형태와 심하게 도굴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서대묘의 피장자가 미천왕이라고 주장했다. JYM992의 간지 명문권운문와당의 막새부에는 ‘戊戌年造瓦故記歲’명과 ‘乙丑年造瓦□□八명’이 있다. 왕릉보고서는 이를 문헌기록과 비교하고 고분형태 등을 검토하여 ‘戊戌年’은 338년이며 JYM992의 피장자는 고국원왕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성과 梨樹園子南유적에서 출토된 ‘□□年造瓦故記歲’명과 ‘太歲□□年造瓦九’명, ‘太歲□□□□九’명, ‘歲□戌年造瓦啓記’명 권운문와당의 간지 명문이 있는데, 파손이 심해 판독할 수 없었다. ‘□□年造瓦故記歲’명과 ‘太歲□□年造瓦九’명, ‘歲□戌年造瓦啓記’명 권운문와당의 무늬는 JYM992에서 출토된 와당 중에 JYM992의 ‘戊戌年造瓦故記歲’명과 ‘乙丑年造瓦□□八’명 권운문와당과 비슷하고 자방부에 ‘泰’자도 있다. 연대는 ‘戊戌年’명(338년)과 ‘乙丑年’명(329년) 권운문와당과 대체로 일치한다. 麻線中學校 서북쪽에서 출토된 ‘乙丑’명 권운문와당은 파편의 형태로 발굴되었으나, 그 무늬가 JYM992의 ‘乙丑年造瓦□□八’명 권운문와당과 유사하고 자방부에 ‘泰’자도 있어 연대는 329년일 것으로 보인다. 집안 인민욕지유적과 勝利村消防隊 근처에서 발굴된 ‘□□□□□□□月造記’명과 ‘阜頁’명 권운문와당은 간지 명문의 파손이 심하나 무늬에 따라 간지 명문권운문와당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연대도 간지 명문권운문와당과 비슷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명문권운문와당은 파편 두 점만 있으나, 남은 부분을 보면 모두 사분식 권운문와당에 속한다. 대표적인 사분식 권운문와당으로 JYM3319에서 출토된 ‘千谷民造’명 권운문와당이 있다. JYM3319의 연대는 4세기 중엽일 것이고 ‘乙卯年’명(355년)과 ‘丁巳’명(357년) 권운문와당도 출토되어 ‘千谷民造’명 권운문와당의 연대도 ‘乙卯年’명(355년), ‘丁巳’명(357년) 권운문와당과 비슷할 것이다. 즉, 355년이나 357년을 중심으로 4세기 중엽으로 그 시기를 비정할 수 있다. 다른 와당으로는 1945년 이전에 梨樹園子南유적에서 출토된 ‘十谷民造’명 권운문와당이 있다. 그 무늬가 JYM3319의 ‘千谷民造’명 권운문와당과 유사해 이 역시 355년이나 357년을 중심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무명문권운문와당은 JYM1000(천추총)과 JMM2100, 그리고 국내성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이 형식의 와당은 모두 팔분식 권운문와당에 속한다. 복선이 여덟 조각이 있고 매 조 복선의 수량이 다른데, 그 종류로는 1~4개가 있다. 천추총에서 출토된 와당은 수량뿐만 아니라 형식도 다양하다. 일부 와당의 막새부에 내향연호문이 있으며 내향연호문 안쪽에 새와 비슷한 무늬가 있다. 복선의 수량은 1~4개가 있으며 일부 와당의 자방부에 ‘#’형 무늬가 있다. 왕릉보고서에서는 천추총 출토 와당을 비롯한 유물과 고분 형태, 그리고 문헌기록 등을 검토하여 천추총의 피장자가 고국양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필자는, 천추총의 권운문와당과 연화문와당의 관계, 천추총과 태왕릉 및 장군총의 연화문와당의 연관 수량과 지름, 고분의 형태 등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천추총의 피장자가 고국양왕이며 고구려의 권운문와당은 고국양왕대(384~391년)에 소멸되었으므로 추정한다.²⁴¹⁾ 한편, JMM2100에서 출토된 수키와와 암키와의 수량은 다른 와당이 출토된 고분보다 적은 편이고, 그 중 권운문와당은 세 점만 발견되었다. 막새부의 무늬와 내향연호문은 천추총의 출토품과 비슷해 서로 시대도 가깝다. 왕릉보고서에서는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과 형태 등에 따라 JMM2100의 피장자가 소수림왕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므로 이 와당의 연대는 소수림왕대(371~384년)일 것이고, 일부 와당의 연대 하한은 고국양왕 3년(386)일 가능성도 있다. 국내성지역에서 출토된 이 형식의 와당은 수량이 적고 무늬가 천추총의 출토품과 비슷해 연대도 대체로 일치할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연호 명문권운문와당은 고구려 최초의 와당으로, 늦어도 ‘太寧四年’(326년)에 등장하며 ‘太寧’연간에만 유행하였다. 즉, 연호 명문권운문와당은 고구려 미천왕대(300~331년)에 출현하고 미천왕대만 사용되었다.

간지 명문권운문와당은 ‘乙卯年’명(JYM3319, 355년)과 ‘丁巳’(JYM3319, 357년), ‘己丑年’(JYM500, 서대묘, 麻線中學校 서북쪽, 329년), 그리고 ‘戊戌年’(JYM992, 338년) 등이 있어 그의 유행 연대는 4세기 초나 후반부터 4세기 말 전반까지이다. 즉, 간지 명문권운문와당은 미천왕대(300~331년)에 등장하고 고국원왕대(331~371년)에 계속 사용되었다. 일부 JYM992에서 출토된 권운문와당의 연대 하한은 고국양왕 3년(373년)의 가능성도 있다.

일반 명문권운문와당은 과연 몇 점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JYM3319의 출토품이다. 그러므로 일반 명문권운문와당의 연대는 355년이나 357년을 중심으로 4세기 중엽에 해당할 것이다. 梨樹園子南유적 출토품의 연대도 마찬가지이다. 즉, 일반 명문권운문와당은 고국원왕대(331~371년)에 출현하고 고국원왕대에 사용하였다.

무명문권운문와당의 연대를 살필 수 있는 절대 연대와 관련된 유물은 없다. 그러나 JMM2100과 천추총의 출토품을 검토한 결과 그 연대는 소수림왕대(371~

241) 王飛峰, 2011, 「關於高句麗千秋墓、太王陵和將軍墳的几个問題」, 『邊疆考古研究』, 10, 科學出版社.

384년)와 고국양왕대(384~391년)에 있다고 보이나, 일부 천추총 권운문와당의 연대 하한은 광개토왕 3년(393년)일 가능성도 있다.

(2) 권운문와당의 변천

연호 명문권운문와당은 국내성유적에서만 출토되었고 수량도 적다. 자방 형태는 반구형이고 막새부에 여덟 조의 복선이 있는 팔분식 와당이다. 여덟 조 복선 중에 네 조의 복선이 한 개만 있고 나머지 네 조 복선은 세 개가 있다. 주연부에 톱날 문양이 있고 톱날 문양의 형태는 규칙적이지 않다. 각 형식의 와당 권선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고 ‘太寧四年’명 권선의 위치가 권운문 밖이며 ‘太寧□年’명 와당 권선은 자방 밖에 있다. 명문의 위치는 내향연호문이나 주연과 주연 안쪽의 권선 사이에 있다. 와당의 지름은 작은 편으로, ‘太寧四年’명 와당의 지름은 12.5cm이며 ‘太寧□年’명 와당의 지름은 14.0cm이다.

간지 명문권운문와당 중 JYM3319에서 출토된 와당은 사분식 와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팔분식 와당이다. 사분식 간지 명문권운문와당의 자방 밖, 주연 안쪽에 권선이 각 1줄 있다. 매 조 복선이 4개가 있고 주연부에 톱날 문양이 있다. 명문은 막새부의 내향연호부에 위치하고 자방 형태는 반구형이다.

팔분식 명문권운문와당의 자방 형태는 모두 반구형이고 대부분 자방부에 ‘泰’나 ‘大吉’의 명문이 있다. 네 조의 복선은 한 개만 있고 다른 네 조 복선이 세 개가 있다. JYM3319의 팔분식 명문권운문와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와당의 주연부에 톱날 문양이 있다. JYM3319에서 출토된 두 점의 와당의 명문은 주연부에 위치하고 내향연호부에 작은 권운문 장식이 있다. 연호 명문권운문와당에 비해 간지 명문권운문와당의 지름이 큰데, 대체로 12.0~16.0cm 쯤이다. 또한, 고분에서 출토된 와당의 지름이 국내성을 비롯한 생활유적의 출토품보다 크다. 그 중에 JYM3319에서 출토된 와당의 직경이 가장 큰데, 여기서 발굴된 세 점 와당의 지름이 각 15.5cm, 16.0cm, 16.0cm이다. 서대묘 와당의 지름은 12.0~16.0cm이다. JYM992 출토 와당의 지름은 12.0~15.0cm이다. 국내성 體育場의 와당의 지름은 12.0cm 이상(주연부 파손)~16.0cm이다. 집안시 인민욕지유적 와당의 지름은 15.0cm 이다. 梨樹園子南유적, 麻線中學 서북쪽, 勝利村消防隊 근처에서 출토된 와당의 지름은 각각 14.5cm, 15.0cm, 14.0cm이다.

일반 명문권운문와당은 사분식 와당에 속하며 복선이 4조가 있고 매조 복선이 4개가 있다. 심하게 파손되어 자방부를 확인할 수 없다.

무명문권운문와당의 중요한 특징은 주연부나 내향연호부의 명문이 사라지고 일부 와당의 내향연호문도 없어졌다는 점이다. 대부분 자방부의 형태는 반구형이고 천추총에서 출토된 일부 와당의 자방부에 ‘#’형 장식이 있는 것도 있다. 복선이 여덟 조가 있는데, 복선의 조합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매 조 복선은 1

~4개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선의 수량이 점점 많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일부 와당 주연부에 무늬가 없고, 대부분의 와당은 거칠게 만들어졌으며 무늬가 약간 복잡하다. 국내성 體育場에서 출토된 한 점 와당의凹凸은 일반 와당의凹凸과 반대된다. 이 와당의 직경은 약 14.8cm이며 무명문권운문와당 중에 제일 크다. JMM2100 출토 와당의 지름은 13.3~14.3cm이고 JMM1000 출토 와당의 지름이 약 12.0~13.6cm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권운문와당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등장 순서를 보면 연호 명문권운문와당은 최초의 고구려 권운문와당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고구려 와당이기도 한다. 다음에 간지 명문권운문와당, 일반 권운문와당, 무명문권운문와당의 순서대로 등장하였다. 둘째, 각 형식의 권운문와당의 유행 시간에 대해 연호 명문권운문와당은 ‘太寧’연간(323~326년), 즉, 고구려 미천왕대(300~331년)에 출현하고 미천왕대만 사용하였다. 간지 명문권운문와당의 유행 연대는 4세기 초나 후반부터 4세기 말이나 초반까지로, 미천왕대(300~331년)에 등장하여 고국원왕대(331~371년)에 계속 사용하고 일부 JYM992 출토 권운문와당의 하한은 고국양왕 3년(373년)의 가능성도 있다. 일반 명문권운문와당의 연대는 355년이나 357년을 중심으로 4세기 중엽 경에 있으며 즉, 고국원왕대(331~371년)에 사용하였다. 무명문권운문와당은 4세기말 후반 경에 사용한 것이므로, 소수림왕대(371~384년)와 고국양왕대(384~391년)에 유행한 것이다. 일부 천추총 권운문와당의 연대 하한은 광개토왕 3년(393년)일 가능성도 있다. 셋째, 권운문와당의 출토 지점과 수량을 보면, 연호 명문권운문와당은 세 점만 있고 국내성에서만 발견되었다. 간지 명문권운문와당은 JYM500(서대묘), JYM992, JYM3319, 국내성과 그 근처인 우산고분군에서만 출토되었다. 일반 명문권운문와당은 JYM3319에서 발견되었다. 무명문권운문와당은 JMM2100, JMM1000, 국내성과 국내성 근처에서 출토되었는데, 고분으로서는 마선고분군에서만 발견된 것이다. 넷째, 권운문와당의 지름을 보면, 먼저 연호 명문과 무명문권운문와당의 직경은 작은 편이고 간지 명문권운문와당의 직경이 약간 더 크다. 특히, JYM3319에서 출토된 세 점 와당의 지름이 아주 크다. 비왕릉급고분 와당의 지름이 왕릉급고분 와당의 지름보다 크므로, 권운문와당의 지름은 고분 피장자의 위계와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다섯째, 권운문와당 막새부의 복선의 조합에 따라 사분식 와당과 팔분식 와당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사분식 와당은 JYM3319에서만 발견되었고 팔분식 권운문와당은 국내성, 국내성 근처, 마선고분군(JMM2100, JMM1000), 우산고분군(JMM500, 서대묘, JYM992, JYM3319)에서 출토되었다. 여섯째, 권운문와당의 복선을 살펴보면, 연호 명문권운문와당의 복선 수량은 1줄 짜리 복선이 총 4조가 있고, 3줄 짜리 복선이 총 4조가 있는 경우도 있다. 간지 명문권운문와당의 복선을 보면, JYM3319의 출토품의 경우

매조 복선의 수량이 모두 세 개인 것을 제외하면 다른 와당의 복선은 연호 명문 권운문와당의 복선의 배치와 같다. 무명문권운문와당 중에 내향연호부에 새가 있는 와당, 자방부에 ‘#’ 장식이 있는 와당의 복선 수량이 모두 세 개가 있고 다른 와당 복선의 배치가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복선의 수량이 점차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일곱째, 와당의 제작 기법에도 특징이 있다. 간지 명문권운문와당과 일반 명문권운문와당의 제작 기법은 매우 정교하다. 하지만 연호 명문권운문와당의 제작 기법은 별로 정교하지 않다. 일부 무명문권운문와당(내향연호부에 새가 있는 와당)은 정교히 만들었으나 대부분의 이 형식의 와당은 거칠게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분식 와당은 3 점만 있고 두 점이 JYM3319의 출토품이며 다른 1 점은 1945년 이전에 수집된 梨樹園子南유적의 유물이다. 다른 왕릉급 고분에서 출토된 팔분식 권운문와당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일부 연구자의 견해는 JYM3319의 피장자가 平州刺史 東夷校尉 崔慤였을 것으로 본다. JYM3319의 현실은 벽돌로 만든 塼室이어서 고구려 고분의 석곽이나 석실 등과 다르므로 그의 피장자도 고구려 국왕이 아닐 것이다. 팔분식 권운문와당의 출토 유적은 왕릉급 고분이나 도성유적 등이어서, 팔분식 와당을 사용한 유적에는 왕릉과 왕궁처럼 등급이 가장 높은 건물이 있었을 것이다. 사분식 와당을 사용할수록, 사용자의 위계도 높아지나, 고구려 국왕보다는 신분이 약간 낮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사분식 와당의 수량이 적은 편이어서 이러한 추정은 향후에 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연화문와당의 편년

연화문와당은 그 수량뿐만 아니라 형식도 고구려 와당 중에 가장 다양해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연구는 고구려 고고학의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천추총과 태왕릉, 장군총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은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등장은 물론 각 고분의 피장자 연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편년을 설정하기 전에 우선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및 연화문와당 편년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및 연화문와당 편년과 관련된 제문제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은 고구려 방단계단석실분의 대표적인 고분들로서, 많은 연구의 초점이 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3기의 고분과 관련된 제문제를 연구하여, 이들 간에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크다고 밝혔으며, 특히 고분의 피장자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다. 필자는 여기에서 세 고분의 조영 순서, 태왕릉 ‘永樂’명 수키와, 천추총 연화문와당의 연대, 환도산성 궁전유적의 연대,

동대자유적의 연대, 불교의 고구려지역의 전래, 안악3호분(冬壽墓)의 연화문, 그리고 안학궁의 연대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①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의 조영 순서

왕릉보고서에서는 각 고분의 출토 유물, 고분 형태, 문헌기록 등을 검토하여 각 고분의 피장자를 추정하였다. 필자는 와당의 변천과 왕릉의 크기 등을 살펴보고 조영 순서를 다시 논증할 것이다. 천추총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으로는 권운문와당과 연화문와당이 모두 있다. 그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고, 권운문와당의 변천 특징에 따라 천추총의 권운문와당은 마지막 단계의 특징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천추총 출토 권운문와당은 형식분류상 무명문권운문와당, 팔분식 권운문와당에 속한다. 둘째, 복선의 수량이 약간 복잡하고 매 조 복선의 수량이 1~4개가 모두 있다. 셋째, 일부 권운문와당의 내향연호부가 사라졌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무늬가 복잡한 편이다. 태왕릉과 장군총에서 출토된 와당은 연화문와당만 있어, 지금까지 대부분 연구자의 견해는 고구려 최초의 와당은 권운문와당일 것이며 연화문와당의 등장 시간이 권운문와당의 연대보다 늦다고 보았다. 국내성지역의 왕릉급 적석총 중에 연화문와당과 권운문와당이 공반 출토된 유일한 고분이 천추총이다. 서대묘(JMM500)와 JYM992에서 연화문와당 파편이 출토되었으나, 두 기의 고분 형태와 권운문와당을 비롯한 유물을 검토한 결과, 연화문와당 파편은 후대(고분의 연대보다 늦은 시대이다)에 교란된 유물로 보인다. 상활릉M5의 유물 중에서도 연화문와당 파편이 출토되었으나, 고분의 형태 등에 따라 피장자는 고구려 국왕이 아닌 일반 귀족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여 천추총의 시대를 설정하자면, 천추총의 연대는 태왕릉과 장군총보다 빠르다. 천추총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의 연판 수량이 6개만 있는데 비해, 태왕릉 연화문와당 연판의 수량은 6개와 여덟 개가 모두 있고 장군총 연화문와당의 연판 수량은 여덟 개만 있다. 국내성시기 집안지역 연화문와당의 특징 중 하나는, 같은 형식 연화문와당일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연판의 수량이 점차 많아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태왕릉의 조영 시기는 장군총보다 약간 이른다. 또한, 천추총 연화문와당의 지름은 15.6~16.6cm, 태왕릉 연화문와당의 지름은 16.0~21.6cm, 장군총 연화문와당의 지름은 16.0(이상)~21.6cm이다.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연화문와당의 지름이 점점 커진 것이다. 그러므로 세 고분의 조영 순서는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의 순이다.

이 3기의 고분의 형태는 모두 방단계단석실분이고 고구려 적석총의 말기 형태에 속한다. 형태에만 근거해 조영 순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고분의 크기에서 차이가 보이므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추총 기반부의 너비가 약 63m, 태왕릉 기반부의 너비가 약 62m, 장군총 기반부의 너비는 약 32m다. 즉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기반부의 너비가 점점 작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현상의 이유로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고분 구조에 근거한다. 이런 초대형 적석총은 단지 십여 개의 ‘護墳石’에 의지하기 때문에, 장시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고분 내부는 자갈을 이용하여 건축했기 때문에 자갈의 중력과 장력 등의 물리 특성으로 인해 고분은 쉽게 붕괴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고분의 형태를 작게 하고, 일부 고분 외부에 석괴를 놓아 고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군총 외부 석괴 가장자리에 뚫은 철면과 비슷한 시설이 있다. 3기의 고분은 고구려 적석총의 대표적인 무덤이고 그 형태는 나무랄 데 없는 경지에 도달했으나, 고분의 내부를 자갈을 이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선천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국내성시대의 왕릉급 적석총 중에 장군총만 완전한 형태로 남았고, 다른 고분이 모두 붕괴되어 원래 고분의 형태를 잃어버렸다. 다른 고분은 국내성시기의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적석총 형태 왕릉의 구조가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시점이다. 후대 국왕은 자신의 무덤을 조영하는데 있어서 선대 왕릉을 고려하여 고분의 크기가 선왕의 공훈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적도 은근히 내포하도록 만들었다. 자신의 고분 형태가 선대의 고분보다 작아졌다는 것은, 선왕의 공훈을 찬양하고 자신의 업적을 인정하는 처사였다. 그래서 고분의 크기를 고려하면 조영 순서를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필자의 검토에 따르면, 세 기의 고분 중 천추총이 먼저 등장하고 다음에 태왕릉, 마지막 장군총이 축조되었다. 일부 한국과 일본 학자들은, 예를 들면 송계현²⁴²⁾, 여호규²⁴³⁾, 김성태²⁴⁴⁾, 桃崎祐輔²⁴⁵⁾ 등은 고분의 형태와 유물의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은 바 있다.

② 태왕릉 ‘永樂’명 수키와

왕릉보고서에는 태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이 많이 발표되었다. 특히 일부 와전에 있는 명문이 보고되어 고구려의 역사와 고고학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2003년에 출토된 한 점의 泥質灰陶 수키와의 외면에 명문이 있는데, 오른쪽의 명문은 ‘…□浪趙將軍…’, 왼쪽의 명문이 ‘…□未在永樂…’이다(도면 70-3~4). 일부 학자들은 이 명문의 내용이 ‘…□浪趙將軍…’, ‘…□夫任永樂…’라고 생각하

242) 송계현, 2005, 「桓仁과 集安의 고구려 갑주」, 『북방사논총』, 3, 고구려 연구재단.

243) 余昊奎, 2006, 「集安地域 고구려 超大型積石墓의 전개과정과 被葬者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41, 한국고대사연구회.

244) 김성태, 2010, 「태왕릉의 피장자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韓國古墳의 編年研究』, 서경문화사.

245) 桃崎祐輔, 2005, 「高句麗太王陵出土瓦・馬具からみた好太王陵説の評價」, 『海と考古學』, 六一書房.

였다.²⁴⁶⁾ ‘浪’자 위에 있는 명문의 흔적은 알 수 없으나, 의미에 근거해 추정했을 때 명문의 내용은 ‘…樂浪趙將軍…’이다. ‘未’자 위에 있는 명문은 심하게 훼손되었으나 작은 ‘ノ’형 흔적이 남았다.

‘永樂’은 광개토왕대의 연호고, 광개토왕대는 391~421년이며 ‘未’자가 있는 간지년은 ‘乙未’년과 ‘丁未’년이 있다. ‘乙未’년은 395년, 즉, 광개토왕 5년이다. ‘丁未’년은 407년, 즉, 광개토왕 17년이다. 광개토왕비의 비문 중에 ‘永樂五年, 歲在乙未’의 기록이 있는데, 이 비문의 내용에 근거해 395년에 광개토왕은 사방을 토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문 제4면에는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惟國置上廣开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上立碑, 銘其烟戶不令差錯’의 기록이 있다. 이에 근거해 왕릉보고서는 ‘永樂’명 수키와가 광개토왕대에 ‘祖先王墓’에 비석을 세울 때 무덤을 수선할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하였다. 필자는 ‘永樂’명 수키와뿐만 아니라 천추충의 연화문와당도 광개토왕대에 천추충을 수선할 때 사용한 건축재료였다고 생각한다. 『北史•권94•高麗傳』: ‘死者, 殯在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 居父母及父喪, 服皆三年, 兄弟三月.’의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 사람들은 죽고 3년 후에 시신이나 유골을 수습하여 묻었다. 이런 기록에 따라 JYM3319에서 출토된 ‘乙卯年’명(355년) 권운문와당은 그 피장자가 사망한 후 무덤 공사를 하며 만든 와당일 것이며 ‘丁巳’(357년) 권운문와당이 3년 후에 시신이나 유골을 수습하여 묻었을 때 만든 와당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광개토왕은 412년에 죽어 3년 후에 시신을 묻었을 때(414년) 광개토왕비를 세웠다. 만약에 ‘永樂’명 수키와의 연대가 ‘乙未’년(395년)이라면 광개토왕은 395년에 고국양왕의 무덤(천추충)을 수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국양왕은 391년에 죽었고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발견에 따라 3년 후, 즉 393년에 고국양왕의 시신을 묻었음을 알 수 있다. 화재나 지진 등의 큰 자연재해가 없었다면 고국양왕의 시신을 묻고 3년 후(乙未년, 395년)에 왕릉을 수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천추충과 그 주변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 결과 역시 당시에 천추충을 비롯1줄변 지역에 화재나 지진 등의 큰 자연재해의 흔적은 없었음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永樂’명 수키와 연대가 ‘丁未’년(407년)이어야 논리가 성립한다. 즉, 391년에 고국양왕이 사망하였고 3년 후인 393년에 고국양왕의 시신이나 유골을 수습하여 묻었다. 14년 후, 광개토왕17년(丁未년, 407년)에 광개토왕은 ‘祖先王墓’에 비석을 세우며 동시에 천추충 능원 건물의 파손된 부분을 수선했을 것이다. 이 때, ‘永樂’명 수키와 및 연화문와당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永樂’명 수키와의 ‘未’자 위에 남은 작은 ‘ノ’형 흔적은 ‘丁’자의 형태와 비슷하다. 게다가 광개토왕비문 중에 ‘永樂五年, 歲在乙未’에 광개토왕과 관련된 활동을 자세히 기록했는데, 이에

246) 井上直樹, 2007, 「集安出土資料からみた高句麗支配体制についての一考察」, 『朝鮮學報』, 203.

따르면 당시에 광개토왕은 주로 정벌 중에 있었다. 광개토왕 17년의 기록 ‘十七年, 丁未’도 있으나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惟國罷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의 기록은 광개토왕비 제4면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다. 이런 비문 배치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 마지막 부분에 위치시켜 그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사건이 광개토왕 후기에 한 일이어서 비문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시켰을 수 있다. 광개토왕비문 중에 ‘永樂五年, 歲在乙未’(도면 70-1)와 ‘十七年, 丁未’(도면 70-2)의 ‘乙’자, ‘丁’자에 비하면 ‘永樂’명 수키와 ‘未’자 위에 남은 작은 ‘丿’형 흔적은 ‘乙’자로 보기에 그 차이가 너무 크다. 물론 ‘乙’자가 확실히 아니라고 하여도 ‘丁’자와도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을 형성한 원인은 당시 와당을 만든 도구나 제작자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한편, ‘永樂’명 수키와의 명문은, 오른쪽에 ‘…樂浪趙將軍…’이 있고, 왼쪽에 ‘…丁未在永樂…’이 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광개토왕 17년(丁未년, 407년)경에 ‘祖先王墓’에 비석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천추충을 수선하는 데에도 ‘永樂’명 수키와 및 연화문와당을 사용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永樂’명 수키와의 연대는 17년(丁未년, 407년)에 있으나 광개토왕대에 ‘祖先王墓’에서 비석을 모두 세우기에는 비석의 수량이 너무 많고 비석을 세우는데 드는 시간이 길었을 것이다. 그래서 ‘祖先王墓’에 비석을 세운 연대는 407년경부터 412년(412년에 광개토왕은 죽었다)까지였을 것이다.

마침 2012년 7월 29일에 집안시 馬紹彬이 마선하 右岸에서 문자가 있는 비석 하나를 발견하였다. 중국학자들은 비문 판독을 통해 이 비석은 고구려시대의 유물임을 확인하고 ‘集安高句麗碑’라고 명명하였다.²⁴⁷⁾ 集安高句麗碑 비석의 오른쪽이 떨어졌으나, 남은 부분을 보면 비석의 전체적인 모습은 圭首碑에 속한다. 비석은 분황색 화강암질으로 만들었고 잔고 173cm, 너비 60.6~66.5cm, 두께 12.5~21.0cm이다. 아래 부분의 장부 높이는 15.0~19.5cm, 너비 42.0cm, 무게는 464.5kg이다. 밑 부분 양쪽의 모서리는 약간 파손되었고, 중간에는 장부가, 처음에는 비좌가 있다. 비석의 양면에 음각한 隸書 漢字 비문이 있고 정면의 비문은 10행이 있으며 위에서 좌로 위에서 아래로 쓰였다. 제9행까지 매 행에 22자가 있고 제10행에는 20자가 있어 처음에는 모두 218자가 있었는데 비석의 오른쪽이 떨어져 약 11자가 없어졌다. 정면 일부의 비문과 뒷면 대부분의 비문은 심하게 마모되어 판독할 수 없었다. 集安高句麗碑이 발견된 이후에 중국학계, 한국학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중국 측에서는 논문 몇 편이 발표되었고

247) 集安市博物館, 2013, 『集安高句麗碑』, 吉林大學出版社.

『集安高句麗碑』 보고서가 출판되었다. 한국 측은 학술회의를 세 번 주최하여 학술 논문집이 세 권 출판되었다. 그러한 연구성과에 따르면 集安高句麗碑의 연대는 고구려 광개토왕대나 장수왕대에 있을 것으로 본다.

위에서 천추총의 ‘永樂’명 수키와의 연구를 통해 그의 명문 내용이 ‘…樂浪趙將軍…’, ‘…丁未在永樂…’임을 밝혔다. 광개토왕비문 중 ‘自上祖先王以來，墓上不安石碑，致使守墓人——烟戶差錯，惟國置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上立碑，銘其烟戶不令差錯’의 기록에 근거해, ‘永樂’명 수키와는 광개토왕 17년(407년)에 ‘上祖先王’무덤에 비석을 세울 때, 그리고 천추총을 수선했을 때 사용한 기와임을 알 수 있다. 광개토왕이 ‘上祖先王’무덤에 비석을 세운 연대가 407년경~412년인 것이다. 集安高句麗碑의 비문을 관독한 결과, 이 비석은 광개토왕대에 ‘上祖先王’무덤에 세운 비석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永樂’명 수키와와 관련한 연구 등을 연관시켜 보았을 때, 集安高句麗碑의 연대는 407년경~412년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③ 천추총 연화문와당의 연대

천추총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의 형식은 한 가지만 있고, 이는 광개토왕이 천추총을 수선했을 때 사용한 와당이다. 위에서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의 와당과 크기 등의 검토를 통해 각 고분의 조영 순서를 밝혔다. 천추총 연화문와당의 연대는 태왕릉 연화문와당 연대보다 더 이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永樂’명 수키와의 명문 ‘…樂浪趙將軍…’, ‘…丁未在永樂…’에 따라 광개토왕은 407년경에 천추총을 수선했었다고 볼 수 있다. 천추총의 연화문와당도 407년경이고 태왕릉 연화문와당 연대보다 빠르므로, 광개토왕이 천추총을 수선했을 시점에 고구려지역에는 천추총의 연화문와당을 제외한 다른 형식 복선연화문와당이 아직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에 다른 형식의 복선연화문와당이 있었다면, 광개토왕은 천추총을 수선했을 때 다른 형식 복선연화문와당도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광개토왕이 천추총을 수선했을 시기에는 이 형식의 와당만 존재했기에 이 형식의 와당만 사용했고, 그 결과 천추총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 무늬가 한 가지 뿐이다.

JYM3319에서 출토된 ‘乙卯年’명(355년) 권운문와당은 그 피장자가 사망한 뒤 무덤 공사를 하며 만든 와당이었던 것이고, ‘丁巳’(357년) 권운문와당은 3년 후에 시신이나 유골을 수습하여 묻을 때 만든 와당일 것이다. 고구려 사람들은 사망 시점부터 무덤을 만들었고, 이후 시신이나 유골을 수습하여 안치시킬 때, 기준에 지어졌던 무덤도 약간 수선했었다. 『後漢書·高句麗傳』: ‘其婚姻皆就婦家, 生子長大, 然後將還, 便稍營送終之具. 金銀財幣盡於厚葬, 積石爲封, 亦種松柏.’ 『三國志·高句麗傳』: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厚葬, 金銀財幣, 盡於送死, 積石爲封, 列種松柏.’ 이런 문헌 기록을 통해 고구려 사람은 결혼하고 죽을 때 옷과 葬

具 등을 준비했고, 나아가 무덤 또한 건조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왕릉은 매우 크고 능원 건물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광개토왕 사망 후 무덤 공사를 시작하였다면 광개토왕의 유골을 수습하여 묻기 전에 완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때문에 태왕릉은 광개토왕이 죽기 전에 만든 무덤일 수밖에 없으며, 태왕릉의 일부 연화문와당의 연대는 늦어도 412년에 있는 것이다. 천추총 연화문와당의 연대는 태왕릉 연화문와당의 연대보다 빠르므로, 천추총 연화문와당의 연대는 407년경이다.

다시말해, 천추총 연화문와당은 광개토왕이 407년경에 천추총을 수선할 때 사용한 와당으로, 연대는 407년경이고 태왕릉 연화문와당의 연대보다 빠르다. 이는 당시 고구려지역에서 사용된 最古의 복선연화문와당이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고려할 때, 태왕릉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의 연대는 407년 이후로 추정된다.

④ 환도산성 궁전유적의 연대

환도산성은 집안시에서 북쪽으로 2.5km 쯤 떨어진 산지에 위치하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簸箕形 산성이다. 2001~2003년에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시박물관은 환도산성을 공동으로 발굴조사하였고, 2004년 6월에 환도산성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환도산성의 배치를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중 1호, 2호, 3호문지(문지는 6개이다), 궁전유적, 瞭望臺, 집수시설 등을 발굴조사하였다. 고구려 와당, 수키와, 암키와, 철기, 토기 등의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고, 보고서 결론 부분에서는 궁전유적을 불로 태운 흔적과 문헌기록 등에 근거해 342년에 前燕 慕容皝이 환도산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환도산성과 궁전유적이 폐기되었다고 밝혔다.²⁴⁸⁾ 이런 결과에 따르면 환도산성에서 출토된 와당의 연대 하한은 342년이다.

환도산성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은 일본 학자들이다. 당시 연구의 중점은 환도산성의 역사 연혁과 명칭 등이었고, 궁전유적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대표적인 학자는 白鳥庫吉²⁴⁹⁾, 鳥居龍藏²⁵⁰⁾, 關野貞²⁵¹⁾, 池内宏²⁵²⁾ 등이 있다. 池内宏의 견해는 丸都城, 通溝城, 國內城이 똑같은 성의 다른 명칭이라는 것이었다. 白鳥庫吉, 鳥居龍藏, 關野貞은 國內城이 通溝城이며 丸都城은 山城子山城이라고 생각하였다. 20세기 80년대 이후에 중국 학자들의 환도산성에 대한 연구가 점점 많아졌다. 李殿福²⁵³⁾은 尉那嚴城이 丸都山城이라고 보았다. 즉, 유리명왕 23년(3

24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 『丸都山城』, 文物出版社.

249) 白鳥庫吉, 1914, 「丸都城及國內城考」, 『史學雜誌』, 第二十五編第四, 五號.

250) 鳥居龍藏, 1914, 「丸都城及び國內城の位置に就いて」, 『史學雜誌』, 第二十五編第七號.

251) 關野貞, 1914, 「國內城及丸都山城の位置」, 『史學雜誌』, 第二十五編第十一號.., 關野貞, 1920, 「丸都山城考」,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252) 池内宏, 1938, 『通溝』(卷上), 日滿文化協會.

년)에 국내로 천도할 때 축조하였고 산상왕 2년(198년)부터 丸都山城으로 불리웠으며, 427년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점차 폐기되었다고 생각하였다. 林至德, 張雪巖²⁵⁴)의 견해는, 고국원왕 12년(342년)에 前燕 慕容皝이 환도산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환도산성은 점차 폐기되었다는 것이다. 魏存成²⁵⁵)은 209년 이전에 丸都山城이 尉那巖城으로 불리고 209년 이후에 丸都山城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평양 천도 후에도 환도산성은 계속 사용되었던, 매우 중요한 산성이었다고 보았다. 王綿厚²⁵⁶)는, 유리명왕 22년(3년)에 국내로 천도할 때 첫번째 수도가 尉那巖城이었고, 산상왕 2년(198년)에 다시 이 곳으로 천도하여 그 때는 丸都山城으로 불리웠다고 주장했다. 일본 학자 三上次男²⁵⁷), 田村晁一²⁵⁸) 및 한반도학자들(여호규²⁵⁹) 등)도 환도산성과 관련된 연구를 한 바 있으나, 궁전유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필자가 환도산성에서 출토된 와당을 비롯한 유물 등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발굴조사된 궁전유적의 상한은 372년(『삼국사기』중에 불교가 고구려지역에 전래된 시기)이고, 427년 평양 천도 이후부터 점차 폐기되었다.²⁶⁰)

사실 환도산성과 궁전유적의 연대는 유리명왕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리명왕 21년(2년)에 제사를 지낼 때, 掌牲薛支가 도망간 돼지를 잡기 위해 尉那巖城에 도착하여 이 곳이 도성이 되기에 적합한 곳이라 유리명왕에게 일렀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유리명왕 22년(3년)에 고구려가 국내로 천도하였다. 427년 이전, 국내성은 오랜 시간동안 고구려의 제1수도였으며 환도산성도 고구려의 임시수도로서의 기능을 몇 차례 수행했다. 한편, 曹魏 正始 5년(244년)과 東晉咸康 8년(342년)에 曹魏 장군 毋丘儉과 前燕 慕容皝은 환도산성을 점령하여 당시 궁전유적이 戰火 때문에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층위관계, 출토 유물(토기, 와당, 입주부운주), 궁전 근처에 있는 고분, 문헌기록의 검토를 통해, 궁전유적의 성격과 연대를 재검토하기로 한다.

궁전유적(도면 71)의 층위는 6개로 구분된다. 제1층은 회갈색 현대 경작층이고 모두 궁전유적에 걸쳐 존재하며, 출토 유물로는 고구려 기와 파편과 현대 자

253) 李殿福, 1982, 「集安山城子山城考畧」, 『求實學刊』, 1. 李殿福, 1986, 「高句麗丸都山城」, 『文物』, 6.

254) 林至德, 張雪巖, 1984, 「高句麗兩都城——國內城和丸都山城考」, 『文物天地』, 6.

255) 魏存成, 1985, 「高句麗初中期的都城」, 『北方文物』, 2.0, 魏存成, 1994, 『高句麗考古』, 吉林大學出版社., 魏存成, 2002, 『高句麗遺蹟』, 文物出版社.

256)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257) 三上次男, 1990, 『高句麗と渤海』, 吉川弘文館.

258) 田村晁一, 2001, 『樂浪と高句麗の考古学』, 同成社.

259) 여호규, 2011, 「고구려 國內城 지역의 건물유적과 都城의 공간구조」, 『압록강 중상류 고구려 유적·유물의 역사적 성격』(한국고대사학회 122회 정기발표회), 한국고대사학회.

260) 王飛峰, 夏增偉, 2008, 「高句麗丸都山城出土瓦當研究」, 『東北史地』, 2.

기 파편이 있다. 두께는 0.15~0.30m이다. 제2층은 회갈색 진흙퇴적층이고 궁전 유적에서 주로 북부와 동북부에 분포하며 서북부와 대부분의 궁전유적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출토 유물은 없고 두께는 0.05~0.60m이다. 제3층은 흑색 분장토층이고 다량의 재와 숯이 섞여 있다. 모두 궁전유적에 걸쳐 퍼져있으며, 출토유물로는 고구려 기와 파편, 와당과 건축재료가 있다. 두께는 0.10~0.35m이다. 제4층은 회갈색 토층으로, 주로 2~4호 臺地의 중남부, 1호 대지 일부에 분포한다. 출토 유물로는 기와 파편, 귀면문와당, 쇠못, 紅燒土, 불 탄 나무기둥 등이 있고 두께는 0.05~0.20m이다. 제5층은 연한 화색 진흙다짐층으로 인공적으로 다진 흔적이 있다. 이 층 역시 궁전유적 전체에 퍼져있으며 출토 유물은 없고 두께는 0.15m이다. 제6층은 회갈색 생토층인데, 토질은 단단하고 대량 막돌과 괴석이 많이 섞여 있다. 층위로 보면 현대경작층과 진흙퇴적층 밑에 바로 궁전유적, 궁전유적 밑에 바로 생토층이다. 층위가 매우 간단하고 층위의 두께도 두껍지 않아 궁전유적의 사용 시간이 짧았거나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았을 것이다. 발굴조사된 궁전유적에서 온돌 등의 난방 시설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궁전 건물은 일 년 내내 항상 사용하던 곳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전체 층위의 유물은 현대경작층에서 출토된 현대 자기 파편을 제외하고 모두 고구려유물에 속한다. 때문에 궁전유적의 층위는 다소 단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궁전유적의 층위에서 紅燒土, 불탄 나무 기둥, 재와 숯 등의 유물이 발굴되었으므로, 환도산성 궁전유적은 사용 마지막 단계에서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도산성 궁전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와당, 수키와, 암키와, 착고 등의 건축 재료다. 그 밖에 발견된 유물들 중 생활용 토기는 그 수량이 매우 적어 12점만 있다. 그 중 복원한 토기는 4점이다. 2001~2003년에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와 집안시박물관 등의 주도로 궁전유적과 그 주변 지역을 발굴조사한 면적은 총 9100㎡에 달한다. 그러나 이 넓은 곳에서 출토된 토기의 수량은 극히 적다. 그 이유를 밝히자면 첫째, 당시 고구려 사람들은 환도산성을 떠날 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물건을 잘 정리하고 다른 곳에 갔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발굴조사된 궁전유적은 前燕 慕容皝의 침입 때문에 훼손된 궁전유적이 아니라 그 전쟁 후에 토대를 다시 선택하고 건축한 궁전건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환도산성은 국내성시기의 임시 도성이어서, 평소에는 환도산성에 고구려 왕실 사람들이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궁전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파편도 그 수량이 적은 것이다. 궁전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파편 중 복원된 개체는, 향아리, 접시,盎, 잔이 각 한 점씩이고, 그 중盎과 잔은 궁전유적을 제외한 다른 고구려 유적에서는 출토된 바가 없어 편년이 불가능하다. 접시 형태는 국내성의 일부 출토품, 오녀산성F17과 F21의 출토품과 비슷하다. 국내성 출토품은 정확하게 편년할 수 없으나 오녀산성F17과 F21의 접시가

오녀산성 제4기문화에 속한다는 사실에 빗대어 유추해 볼 수 있다. 항아리의 형태(도면 46-1)는 오녀산성 제4기문화층 F32(도면 72-2), T53(도면 72-3)에서 출토된 항아리와 유사하며, 오녀산성 제4기문화의 연대는 대체로 4세기 말~5세기 초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고구려 남진기의 결과로서 남한지역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항아리(도면 72-4)는 그 수량이 많으나 환도산성 궁전유적의 출토품 형태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런 차이점은 지역성 아니라 시간성의 변천 특징을 반영한다. 일부 학자의 토기 편년에 따르면 오녀산성 제4기문화 F32의 항아리의 연대는 고구려 남진기 이전, 즉 475년 이전에 해당한다.²⁶¹⁾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환도산성 궁전유적에서 출토된 접시, 항아리 등의 토기의 연대를 비정하면, 4세기 말~5세기 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한지역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항아리의 시대보다 빠른 것이다.

환도산성 궁전유적에서는 고구려의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이 많이 출토되었다. 이런 문양의 와당은 불교적 의미를 가지므로, 그 등장시기는 불교가 고구려 지역에 전래된 이후일 것이다. 고구려의 불교 전래 시간의 연구에 따르면, 東晉 孝武帝 太元 말기(390~396년)에 後秦에서 온 승려 曇始이 고구려지역에 도착하여 불교가 고구려지역에 전래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궁전유적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의 연대는 390년 이후에 있을 것이다. 불교의 고구려지역의 전래 시간(390~396년)은 ‘불교의 전래’부분에서 다시 상세히 논술하기로 한다.

환도산성 궁전유적에서 금동 입주부운주(도면 73-1) 19점이 출토되었는데, 그 시대는 궁전유적의 연대와 대체로 일치한다. 운주는 형태에 따라 반구형운주와 입주부운주로 나눌 수 있다. 입주부운주는 三燕지역에서 처음 등장하여 三燕과 경계를 접한 고구려지역으로 먼저 전래되었다. 이후에 한반도 북부의 고구려지역, 남부의 백제, 신라, 가야지역 및 일본열도에까지 퍼졌다. 三燕지역의 입주부운주의 형태는 약간 간단한 모양으로, 주로 반구형 운주받침, 반구형 운주받침 가운데의 입주, 입주 말단의 장식이나 운주가지(雲柱小枝) 말단의 장식을 포함한다. 대부분 입주 주변에 雲柱小枝가 없고 일부 입주 주변에 雲柱小枝 세 개가 있기도 하다. 고구려지역 초기의 입주부운주는 三燕지역 입주부운주의 영향을 받아 雲柱小枝가 세 개나 4개가 있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의 백제와 신라지역의 입주부운주 역시 雲柱小枝가 3개 또는 4개이다. 가야지역 창녕 교동 11호분의 유물 중에는 입주부운주(도면 73-2) 뿐만 아니라 반구형운주(도면 73-5)도 출토되었다.²⁶²⁾ 입주부운주의 雲柱小枝는 상하로 두 층이 있으며 매 층에는 雲柱小枝가 6개씩 달려있어 이 형식의 입주부운주의 雲柱小枝는 총 열개다. 반구형운주의 脚은 여덟 개가 있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여덟 개의 발이 있는 반구형운주는 몇 점

261) 土田純子, 2013, 「百濟土器 編年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62) 韓炳三 監修, 1985, 『韓國의 美·22·古墳美術』, 中央日報社.

밖에 없는데, 그 출토지로는 합천 옥천6호분(도면 76-7)²⁶³, 의령 경산리2호분(도면 76-8)²⁶⁴, 창녕 계성B35-1호분²⁶⁵ 등이 있다. 그 밖에, 경주 금령총(도면 76-6)²⁶⁶에서 일곱 개의 발이 있는 반구형운주도 출토되었다. 합천 옥천6호분의 시대는 6세기 초 전반, 의령 경산리2호분의 시대는 6세기 초 후반, 금령총의 시대는 6세기 초에 해당하므로, 창녕11호분 출토품의 시대는 6세기 초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朴天秀²⁶⁷, 李漢祥²⁶⁸의 연구에 따르면 창녕11호분의 연대는 6세기 전엽이다. 입주부운주의 변천요소 중 雲柱小枝의 특징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량이 점점 많아지고, 한 층에서 두 층(도면 76-4)으로 발전한다는 점이다. 환도산성 궁전유적에서 출토된 금동운주는 한 층만 있으며 雲柱小枝는 6개가 있고 그 시대는 창녕11호분 운주의 시대보다 빠르다. 즉, 환도산성 궁전유적의 입주부운주의 시대 하한은 6세기 초에 있을 것이다.

일본 학자 穴澤和光, 馬目順一은 일제강점기에 谷井濟一 등이 발굴조사한 창녕 교동고분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창녕 교동고분군과 관련된 제문제를 전면적으로 연구하여 창녕11호분의 연대가 450~500년이었을 것으로 보았다.²⁶⁹ 또한, 일본 학자 桃崎祐輔²⁷⁰는 고구려 마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고구려 마구의 편년을 크게 일곱 단계로 나누었다. 沖ノ島(도면 76-3) 및 藤ノ木古墳의 입주부운주의 형태와 비교해 보았을 때, 환도산성 궁전유적에서 출토된 입주부운주의 연대는 6~7세기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한반도 삼국시대 입주부운주는 창녕 11호분 출토품 외에는 대부분 雲柱小枝의 수량이 3개나 4개다. 환도산성 궁전유적의 입주부운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중국과 한반도에서 이런 형식의 운주는 환도산성에서만 출토되었다. 다시 말해 환도산성의 입주부운주는 동아시아지역에서 출토된 雲柱小枝가 6개 있는 입주부운주로서는 최초의 제품인 것이다. 沖ノ島의 입주부운주의 형태는 환도산성 궁전유적의 출토품과 비슷하나 그 시대는 약간 늦다. 藤ノ木古墳의 입주부운주의 형태, 특히 雲柱小枝의 수량은 적어도 아홉 개가 있으므로 시대가 상대적으로 더 늦다. 그러므로 藤ノ木古墳의 보고서에서 이 고분의 연대를 6세기 말 전반으로 보는 것이다.²⁷¹

263) 趙榮濟, 朴生圭 외, 1993, 『陝川玉田古墳群IV-M4·M6·M7号墓』, 慶尙大學校博物館.

264) 趙榮濟, 柳昌煥, 2004, 『宜寧 景山里古墳群』, 慶尙大學校博物館.

265) 釜山大學校博物館, 1995, 『昌寧桂城古墳群』, 釜山大學校博物館.

266) 梅原末治, 1931,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267) 朴天秀, 1993, 「三國時代 昌寧地域集團의 性格研究」, 『嶺南考古學』, 13.

268) 李漢祥, 2001, 「6~7世紀代 昌寧地域 土器의 變遷」, 『昌寧桂城新羅高塚群』, 慶南考古學研究所.

269) 穴澤和光, 馬目順一 共著, 金洗扈 譯, 1996, 「昌寧校洞古墓群 梅原考古資料를 中心으로 한 谷井濟一氏 發掘 資料 研究」, 『昌寧 校洞 古墓群』, 昌寧郡.

270) 桃崎祐輔, 2011, 「高句麗と馬具の系譜」, 『季刊考古學』, 113号.

271) 奈良県立橿原考古學研究所 編集, 1990, 『斑鳩藤ノ木古墳(第一次調査報告書)』, 斑鳩町·斑鳩町

환도산성 궁전유적의 입주부운주는 금동으로 만들어졌으며, 고구려 궁전유적에서 발견되었고 지금까지 고구려의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유물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위세품처럼 중요한 유물의 사용자로는 고구려 국왕이 있을 것이다. 환도산성 궁전유적에서 출토된 입주부운주의 크기는 다른 것들과 차이가 있고, 이를 사용한 위치 또한 다를 것이다. (환도산성 궁전유적의 입주부운주 복원도는 도면 74를 참고). 고구려는 평양 천도 이후에 고분형태와 마구계통 등에 있어서 큰 변화가 발생했다. 왕릉급 고분이 적석총에서 봉토분으로 변천했으며 기꽃이가 雲柱小枝가 6개 있는 입주부운주를 대신하였다.

지금까지 환도산성 내에서는 고구려 고분이 총 38기 발견되었다. 그 중에는 적석총, 방단적석총, 봉토분이 모두 다 있는데, 대부분이 적석총으로 총 30기가 있다. 적석총의 대다수가 심하게 파괴되었으나, 남은 부분에 따라 무단석광묘, 방단석광묘, 방단적석총, 방단석실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단석광묘, 방단석광묘는 고구려 초기의 고분 형태로, 그 연대의 하한은 5세기일 것이고, 다른 형식의 고분의 연대는 무단석광묘, 방단석광묘보다 약간 늦다. 그럼 늦어도 5세기말에 환도산성에서 무단석광묘, 방단석광묘가 사용된 것이므로, 환도산성은 이런 고분들이 출현하기 이전에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5세기말 이전에 환도산성은 이미 폐기되었다.

『三國史記·권18·廣開土王本紀』: ‘十七年(407년)春二月, 增脩宮闕.’의 기록이 있다. 위에서 환도산성 궁전유적의 층위, 출토 유물, 고분 등의 연구를 통해 발굴조사된 궁전유적은 342년에慕容皝이 환도산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훼손한 궁전유적 아니라 광개토왕 17년에 토대를 다시 선택하고 건조한 궁전유적임을 밝혔다. 427년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 한 후, 환도산성 궁전 건물은 점차 폐기되었다. 그렇다면, 환도산성 초기의 궁전유적, 즉, 卍丘儉과慕容皝의 침입으로 훼손된 궁전유적을 찾는 것이 앞으로 국내성시대 고구려 고고학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⑤ 동대자유적의 연대

동대자유적은 국내성유적에서 동쪽으로 500m 쯤 떨어진 높은 곳에 위치한다. 1945년 이전의 일본 학자들은 발굴조사와 함께 철도 부설을 위해 일부 유적을 파괴하였다. 關野貞²⁷²⁾, 池内宏²⁷³⁾ 등이 동대자유적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關野貞의 의견에 따르면, 유적의 출토 유물 등에 근거하여 볼 때, 동대자유적에 고구려

教育委員會.

272) 關野貞, 1924, 「滿洲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跡」(二), 『考古學雜誌』, 第五卷第四號.

273) 池内宏, 1938, 『通溝』(卷上), 日滿文化協會.

시대의 절터가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1958년 4월 중순, 6월 중순, 7월 중순에 길림성박물관은 동대자유적을 세 번 더 조사하였고, 발굴조사한 면적은 2000㎡이며, 고구려 와당, 토기 파편, 금동 비녀, 철기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건물지, 온돌 시설 등의 유적도 발견되었다.²⁷⁴⁾ 발굴성과에 따라 발굴자는 이 유적에 고구려시대 제왕궁실이 있고, 사직을 지냈던 곳이라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1958년의 발굴조사를 제외하면 동대자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더 없었으나, 고구려 유물은 많이 수집되었다. 1982년에 方起東²⁷⁵⁾은 동대자유적의 위치와 건물 형태, 문헌기록 등의 연구를 통해 이 유적이 고국양왕 9년(392년) 봄 3월에 건조한 王室社稷과 종묘라고 보았다. 2010년에 한국 학자 강현숙²⁷⁶⁾은 유적의 건물 형태와 출토 유물 등을 제검토하고, 동대자유적은 5세기 말 이후에 창건되어 발해시대까지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2011년에 필자가 동대자유적의 연화문와당 등을 검토하였을 때,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은 광개토왕 때 동대자유적을 수선하는 용도로 사용한 기와로 본 바 있다.²⁷⁷⁾ 한편, 그 밖에 일부 한반도 학자들은 온돌 시설을 검토하고 유적의 연대도 살펴보았다.²⁷⁸⁾ 여기에서 필자는 출토 유물, 온돌 시설, 문헌기록 등을 통해 동대자유적의 연대와 성격을 제검토한다.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중 완전히 복원할 수 있는 개체는 없었으나, 일부 토기편의 형태분석을 통해, 이들이 오녀산성 제4기 문화와 국내성에서 출토된 토기의 형태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녀산성 제4기문화의 시대는 4세기 말~5세기 초이며, 일부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연대도 4세기 말~5세기 초에 해당할 것이다. 쏘 한 점의 잔편은 국내성에서 출토된 쏘의 형태와 유사한데, 국내성 출토 쏘의 시대는 4세기 초~5세기 말로 추정되므로, 동대자유적의 연대 또한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²⁷⁹⁾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된 살포(도면 75-1)는, 살포의 형식분류에 따르면 초기적 양식이라 할 수 있다.²⁸⁰⁾ 그 특징은 첫째, 살포의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커진다. 둘째, 살포의 어깨 형태가 작은 돌기에서 抹角(도면 75-2~3, 5)으로 발전한다. 이런 변천 특징을 고려했을 때,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된 살포의 시대는 석대자산성이나 고이산성의 살포 및 아차산 제4보루 살포²⁸¹⁾(도면 75-4)의 시대

274) 吉林省博物館, 1961, 「集安輯安高句麗建築遺址的清理」, 『考古』, 1.

275) 方起東, 1982, 「集安東臺子高句麗遺址的性質和年代」, 『東北考古與歷史』, 第一輯, 文物出版社.

276) 姜賢淑, 2010, 「中國 吉林省 集安 東臺子遺蹟 再考」, 『한국고고학보』, 75.

277) 王飛峰, 2011, 「關於千秋墓, 太王陵, 將軍塚的幾個問題」, 『边疆考古研究』, 10, 科學出版社.

278) 이병기, 2003, 『발해건축의 이해』, 백산자료원. 김남응, 2004, 『문헌과 유적으로 본 구들 이야기, 온돌 이야기』, 단국대학교출판사.

279) 王飛峰, 2009, 「中國境內發現的高句麗陶器研究」,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碩士論文.

280) 萬欣, 2012, 「朝陽發現唐代鐵器的初步考察」, 『朝陽隋唐墓發現與研究』, 科學出版社.

281) 임효재, 최종택외, 2000, 『아차산 제4보루』, 서울대학교박물관.

보다 약간 이른다. 석대자산성이나 고이산성의 살포 연대는 고구려 만기(6세기 이후)에 있을 것이다. 아차산 제4보루의 연대 상한은 5세기 중반, 하한은 6세기 중반경으로 설정하였다. 즉 동대자유적 살포의 연대는 고구려 남진기나 남진기 이전에 있을 것이다.

1963년 7월 1일, 동대자유적 서쪽에 자리한 郊區鄉 勝利二隊의 고구려 고분에서 옥벽 한 점이 우연히 발견되어 집안박물관에 소장되었다.²⁸²⁾ 이후에 집안박물관 연구자들은 이 고분을 조사하였고, 옥벽이 동대자유적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²⁸³⁾ 이 옥벽은 지금까지 고구려지역에서 발견된 유일한 옥벽으로, 外徑 8.6cm, 內徑 3.4cm, 그리고 두께가 0.3cm이다. 중국 고대 제왕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항상 옥벽을 사용했으므로,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된 옥벽은 해당 유적이 고구려의 사직과 종묘를 위한 유적임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한편,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중 발해 허리띠 장식품 네 점이 있다. 강현숙은 동대자유적을 재검토할 때, 본 유적이 발해시대까지 계속 사용된 증거로서 이 유물을 들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1945년 이후에는 세 차례의 발굴조사를 제외하면 동대자유적의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1958년부터 지금까지는 유물만 수집되었으며, 그 중 발해 허리띠 장식품은 1963년 9월에 유적에서 수집된 것이다.²⁸⁴⁾ 때문에 이 허리띠 장식품이 발해시대 유물인 것은 확실하지만, 층위 관계를 알 수 없어 유적의 연대를 설정하는 데 고려할 수 없다. 또한, 발해 허리띠 장식품은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뒤, 일부 고구려 후손이나 발해 사람들이 국내성에서 살았던 흔적일 수도 있다. 사실 국내성 東市場地點H1과 門球場地點에서 발해 연화문와당도 몇 점 출토되었다.²⁸⁵⁾ 東市場地點H1의 발해 연화문와당은 유적 제③층에서 출토되었고 같은 층위에서 고구려 인동문와당도 발견되었으나, H1의 여러 출토유물의 상황을 봤을 때 H1의 층위는 약간 혼란한 편이다. 門球場地點의 발해 연화문와당은 F2에서 출토되었으나, 이 역시 다른 유물들의 층위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환도산성 궁전유적에서 출토된 일부 와당은 광개토왕 시기의 유물이다. 동대자유적의 일부 귀면문와당 무늬는 환도산성 궁전유적의 출토품과 같다. 그리고 일부 동대자유적의 귀면문와당은 환도산성 궁전유적의 출토품과 同范瓦當이다. 광개토왕대에 ‘祖先王墓’에 비석을 세우고 천추충을 수선하였으며 고국양왕 시기에 완성하지 못했던 사직과 종묘도 수선하였다.

동대자유적에서 온돌 시설이 발견되어 일부 한반도 학자들은 온돌 시설을 통

282) 『集安縣文物志』編写組, 1983, 『集安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28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외, 2010, 『集安出土高句麗文物集粹』, 科學出版社.

284) 『集安縣文物志』編写組, 1983, 『集安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28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 『國內城』, 文物出版社.

해 유적의 연대를 설정하였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동대자유적 출토 온돌 시설의 형태를 통해, 이 유적의 연대를 7세기로 보았다.²⁸⁶⁾ 오녀산성 일반 주거지에서도 온돌 시설이 많이 발견되었으나, 이 유적의 주된 사용자는 당시 오녀산성에 주둔 하던 일반 병사들이다. 오녀산성 내 ‘왕궁구역 건물’에서는 온돌 시설이 발견되지 않았고, 환도산성 궁전유적, 안학궁유적 모두 온돌 시설이 없다. 다만, 국내성과 평양성의 궁전유적을 확인할 수 없어 궁전유적 내 온돌 시설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동대자유적의 규모와 출토 유물 등에 근거했을 때, 이 건물의 등급은 궁전유적과 비슷하다. 규모, 구조, 사용한 건축 재료 등이 모두 일반 건물과 많이 다르므로, 동대자유적의 연대를 비롯한 문제들을 살펴 볼 때, 일반 건물과의 대비 연구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고구려의 평양 천도 이후에 관한 많은 문헌에는, 고구려 국왕의 집안지역 활동과 관련된 기록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라 427년 이후에 세 명의 고구려 국왕(안장왕, 521. 평원왕, 560. 영류왕, 619년)이 卒本에 가서 始祖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평양 천도 이후에 국내성지역에서 동대자건물과 같은 대규모 공사가 있었는데도 『三國史記』를 비롯한 문헌기록에 이것과 관련된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도리에 맞지 않다. 장수왕의 평양천도 후 평양지역에서 사직과 종묘를 다시 건립하였으므로, 국내성지역의 사직과 종묘(동대자유적의 건물)는 점차 폐기되었을 것이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했을 때 종묘를 다시 건립한 기록은 동천왕대도 있다.²⁸⁷⁾

『三國史記』의 기록에 근거하면, 고국양왕 8년 3월에 고국양왕의 명에 따라 사직과 종묘 공사를 시작했으나, 그해 5월에 고국양왕은 사망했다. 그러므로 사직과 종묘 공사는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광개토왕 때에는 ‘祖先王墓’ 비석을 세우고 천추총을 수선했을 뿐만 아니라 환도산성과 궁전유적도 수습하였다. 그리고 고국양왕 대에 완성되지 못했던 사직과 종묘(동대자유적)도 수습하였다. 동대자유적, 환도산성과 궁전유적, 국내성유적에서 출토된 일부 와당 중 同范瓦當의 존재는, 당시에 일부 국내성의 건물도 수습하였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더불어,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된 일부 귀면문와당은 환도산성 및 궁전유적의 출토품과 유사하고 同范瓦當도 확인되었으므로, 동대자유적의 일부 와당의 연대가 광개토왕 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환도산성 궁전유적에서 광개토왕 17년(407년)에 토대를 다시 정하고 건조한 궁전유적이 발견되어, 동대자유적의 광개토왕대 와당의 연대는 407년~412년경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직과 종묘는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전에 사용되다가, 427년 이후 점차 폐기되었다.

286) 김남웅, 2004, 『문헌과 유적으로 본 구들 이야기, 온돌 이야기』, 단국대학교출판사.

287) 『三國史記·권17·東川王本紀』: ‘二十一年(247년)春二月,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舍. 平壤者, 本仙人王儉之宅也, 或雲王之都王險.’

⑥ 불교의 전래

불교는 東漢 明帝시대에 서역지역에서 중국 중원지역으로 전래된 종교로, 중국 고대 사회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후 불교는 점차 한반도에 전래되었다. 불교의 고구려지역 전파시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으나, 대체로 네 가지 관점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三國史記』의 소수림왕 2년(372년)의 기록에 근거해 372년에 불교가 고구려지역에 전파되었다는 주장이다. 둘째로는, 안악3호분에 등장하는 연화문은 불교적 의미를 가졌으므로, 늦어도 영화 13년(永和十三年, 357년)에 불교가 고구려지역에 전래되었다는 의견이다. 그 밖에 일부 학자들은 연화문에 근거해 안악3호분의 피장자 冬壽가 불교신도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²⁸⁸⁾ 셋째, 『高僧傳』의 支道林(314~366년)과 ‘高麗道人書’의 기록에 따라 ‘高麗道人’은 고구려지역의 승려를 뜻하므로, 늦어도 366년에는 고구려지역에 불교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高僧傳』과 『鳳巖寺智証大師 寂照塔碑』에 기록된 曇始와 관련된 기록에 따라, 東晉 孝武帝 太元 20년(395년)에 東晉 승려 曇始가 고구려지역에 도착하여 불교가 유입되었다는 관점이 있다. 太元은 東晉 孝武帝의 연호이고 376~396년에 해당한다. 이 중 372년설이 오늘날 학계의 주류 관점이고, 대부분 학자들이 고구려 불교의 전래 시점을 연구할 때 『三國史記』의 기록을 참고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관점들은 대체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이고, 이어서 고구려 불교 전래와 관련된 문헌자료를 정리한다.

지금까지 고구려 불교 전래에 대한 최고 기록은 南朝 梁代 승려 慧皎가 쓴 『高僧傳』(즉 『梁高僧傳』)이다. 이 책은 東漢 永平 연간부터 南朝 梁代 天監 연간까지 유명한 승려들의 전기로, 이후 역대 『高僧傳』의 본보기가 되었다. 『高僧傳』권10 중에: ‘釋曇始, 關中人, 自出家以后, 多有异跡. 晉孝武太元之末, 賚經律數十部, 往遼東宣化, 顯授三乘, 立以歸戒, 盖高句麗聞道之始也. 義熙初, 復還關中, 開導三輔.’의 기록이 있다.

唐代 西明寺 沙門 釋道世(?~683년)가 總章원년(668년)에 완성한 『法苑珠林』권31 중에: ‘宋僞魏長安有釋曇始, 關中人, 自出家以后, 多有异跡. 晉孝武太元之末, 賚經律數十部往遼東宣化, 顯授三乘, 立以歸戒, 盖高句麗聞道之始也. 義熙初, 復還關中, 開導三輔.’의 기록이 있다.

唐代 梓州 慧義寺 沙門 神清가 쓴 『北山錄』권3 중에: ‘晉曇始, 孝武末(東晉也, 帝臨位, 深奉佛法, 苻堅兵至, 謝玄破也)適遼東, 高麗開導始也. 後還三輔(三輔,

288) 吳焯, 2006, 「从相邻国的政治关系看佛教在朝鲜半岛的初传」, 『中国史研究』, 1.

咸陽縣，昔秦皇於此置殿觀)，三輔人宗仰之.’의 기록이 있다.

元代초기 無名氏가 쓴 『神僧傳·권2』 중에: ‘釋曇始, 關中人. 自出家以后 多有异跡. 晉孝武太元之末, 賫經律數十部, 往遼東宣化, 顯授三乘, 立以歸戒. 義熙初, 復還關中, 開導三輔.’의 기록이 있다.

南朝 梁代 승려 慧皎가 쓴 『高僧傳』에도, 역대曇始와 관련된 기록이 『高僧傳』과 비슷해 『高僧傳』중에曇始와 관련된 기록이 남조 이후 역대 문헌의 초판본일 것이다.曇始의 본적이 關中지역(陝西省 西安市)이고, 그가 고구려지역에 도착한 시간은 太元말기였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알 수 없었다. 太元은 東晉 孝武帝의 연호이고 376년부터 396년까지인데, 세 개의 시기구분(早, 中, 晚)이 가능하다. 그 중 太元말기는 대체로 390~396년이다. 당시에 關中지역은 16국시대 後秦의 수도였는데, 後秦의 서북부는 後燕과 접하고 後燕의 동부는 고구려와 접하고 있었다. 『高僧傳』을 비롯한 문헌들에 ‘義熙初, 復還關中, 開導三輔.’와 비슷한 기록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므로, 당시에曇始가 關中지역에서 출발해서 요서지역과 요동지역을 거쳐야 고구려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으며 ‘義熙初’에 關中지역에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나온 『三國史記』, 『海東高僧傳』, 『三國遺事』에 고구려 불교 전래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三國史記』는 金富軾(1075~1151년)이 고려 仁宗의 명령을 받아 편집한 책으로, 인종 23년(1145년)에 완성되었다. 『三國史記·권18』중에 ‘(小獸林王)二年夏六月, 秦王苻堅遣使及浮屠順道送佛像 經文, 王遣使回謝, 以貢方物, 立太學, 教育子弟. 三年, 始頒律令. 四年, 僧阿道來. 五年, 始創省門寺, 又創伊弗蘭寺, 以置阿道, 此海東佛法之始.’라는 기록이 있다.

『海東高僧傳』은 고려 승려 覺訓이 왕명을 받아 쓴 유명한 승려들의 傳記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를 다루고 있다. 권1의 ‘流通一之一’부분에서 불교의 출현, 중국과 한반도로의 전래 과정, 그리고 책을 쓴 동기 등을 설명하고 있다.

『海東高僧傳·권1·流通一之一』에 ‘若我海東, 則高句麗味 留王(즉, 소수림왕)時, 順道至平壤城, 繼有摩羅難陀从進來於百濟國, 則枕流王代也. 後於新羅第二十三法興王踐祚, 梁大通元年丁未三月十一日, 阿道來止一善縣.’이라는 기록이 있다.

『海東高僧傳·권1·順道』에는: ‘釋順道, 不知何許人也. …高句麗第十七味留王(즉 소수림왕)二年壬申夏六月, 秦苻堅(즉 苻堅)發使及浮圖順道送佛像, 經文, 於是君臣以會遇之禮奉迎於省門, 投誠敬信, 感慶流行, 尋遣使回謝, 以貢方物. 或說順道从東晉來, 始傳佛法, 則秦晉莫辨, 何是何非. …後四年神僧阿道至自魏(存古文), 始創省門寺 以置順道, 古記雲以省門爲寺, 今興國寺是也, 後訛写为省門. 又併伊弗蘭寺, 以置阿道, 古記雲興福寺是也. 此海東佛教之始.’의 기록이 있다.

『海東高僧傳·권1·曇始』중에: ‘釋曇始, 關中人也, 自出家多有异跡. 足白於面, 虽涉泥水, 未嘗沾湿, 天下咸稱白足和尚, 以晉太元末年賫持經律數十部往化遼東,

乘機宣化，顯授三乘，立以歸戒。『梁僧傳』以此爲高句麗聞法之始，是當廣開土王五年(사실은 5년이 아니라 6년이므로 396년에 해당한다)，新羅奈勿王四十一年，百濟阿莘王五年，而秦符堅(즉，苻堅)送經像後二十五年也，晉義熙初師復還關中，唱道三輔.’의 기록이 있다.

『海東高僧傳』권1·阿道』중예: ‘釋阿道，或雲本天竺人，或雲从吳來，或雲自高句麗入魏，後歸新羅，未知孰是. …新羅訥祇王時有黑胡子者从高句麗至一善郡，宣化有緣郡人毛禮，家中作窟室安置. 于是梁遣使賜衣着香物.’의 기록이 있다.

『三國遺事』는 고려시대 승려 一然(1206~1287년)이 쓴 문헌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내용이 고려 충렬왕7년(1281년)이므로 책이 완성된 때는 1281~1287년 썸이다. 『三國遺事』권3·興法第三』順道肇麗중예: ‘高麗本記雲: 小獸林王即位二年壬申，乃東晉咸安二年，孝武帝即位之年也. 前秦符堅遣使及僧順道送佛像，經文(時堅都關中，即長安). 又四年甲申，阿道来自晉. 明年乙亥二月，創肖門寺，以置順道，又創伊弗蘭寺，以置阿道. 此高句麗佛法之始. 僧傳(『海東高僧傳』)作二道自魏雲者誤也. 實自前秦而來. 又雲肖門寺今興國，伊弗蘭寺今興福寺者亦誤.’라는 기록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권의 고려시대 문헌에서 등장하는 고구려의 불교 유입 시기에 관한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三國史記』, 『海東高僧傳』, 『三國遺事』의 기록에 따르면 372년에 前秦에서 온 승려가 불교를 고구려지역에 전래하였다고 했는데,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는 曇始와 관련된 기록이 하나도 없다. 『海東高僧傳』에 근거하여 볼 때, 曇始는 고구려지역에 도착해 불교를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활동 연대(396년)도 찾을 수 있다. 『海東高僧傳』의 기록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문헌학계의 연구를 보면, 慧皎의 『高僧傳』은 『三國史記』, 『海東高僧傳』, 『三國遺事』보다 믿을 만하고, 고려시대의 세 권의 역사책에서 얘기하는 順道, 阿道, 曇始와 관련된 기록은 약간 허구적인 면이 있다.

한편, 통일신라 말기에 崔致遠이 쓴 『鳳巖寺智証大師寂照塔碑』(『大唐新羅國故鳳巖寺教諡智証大師寂照之塔銘并序』)중예 고구려 불교 전래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鳳巖寺智証大師寂照塔碑』(도면 76)는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면 원복리의 鳳巖寺에 위치하고 한국 보물 제315호이다. 뒷면에 ‘龍德四年歲次甲申六月口口日竟建’의 명문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龍德’은 5대 10국시대 后梁의 연호로 ‘龍德四年’은 924년이므로 통일신라 景明王 8년에 해당한다. 정면 비문의 머릿말 부분에서 불교의 한반도 전래과정을 서술하였다.

비석의 제3열 하단과 제4행 상단의 명문에서 불교의 고구려지역 전래과정을 기술하다. 비석의 제3행 하단의 비문은 약간 닳아 없어져 일부 명문은 판독할 수 없다. 清代 금석학자 劉喜海(1793~1852년)가 1832년에 쓴 『海東金石苑』의 내

용에 따르면, 제3행 하단의 판독은: ‘昔當東表鼎峙之秋, 有百濟蘇塗之儀, 若甘泉金人祀, □□西□□□□□□.’ 이다. 1918년에 조선총독부가 출판한 『朝鮮金石總攬』(上)에서는, 제3행 하단의 판독을: ‘昔當東表鼎峙之秋, 有百濟蘇塗之儀, 若甘泉金人祀, □□西□□□□於□如.’ 라고 보았다. 1919년 李能和가 쓴 『朝鮮佛教通史』(上)은, 제3행 하단의 판독문을: ‘昔當東表鼎峙之秋, 有百濟蘇塗之儀, 若甘泉金人祀, 厥後西晉曇始始之貊, 如.’, 제4행 상단의 판독문을: ‘攝騰東入, 句麗阿度度于我, 如康會南行’라고 해석했다. 『新羅金石文拓本展』²⁸⁹⁾은 제3행 하단의 판독문을: ‘昔當東表鼎峙之秋, 有百濟蘇塗之儀, 若甘泉金之祀, 厥後西晉曇始始之貊, 如.’로, 제4행 상단의 판독문을: ‘攝膝東入, 句麗阿度度于我, 如康會南行’으로 서술했다. 이때, ‘厥後西晉曇始始之貊, 如攝騰東入.’의 ‘攝騰’은 ‘攝摩騰’(승려의 이름)로, 東漢 明帝 대에 서역지역에서 온 승려 ‘攝摩騰’과 ‘竺法蘭’(승려의 이름)이 東漢의 수도 洛陽에 도착함으로써 불교가 중국 중원지역에 전래하였다. 『鳳巖寺智証大師寂照塔碑』의 내용에 근거해 ‘曇始’가 ‘貊’(고구려지역, 필자주)에 도착했다는 것은, ‘攝摩騰’이 낙양에 처음 도착했던 것과 비슷하다. 즉, 불교가 고구려지역에 전래되는 계기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만 ‘曇始’가 고구려지역에 도착한 시대는 西晉代가 아니라 東晉代이다. 唐代에 일부 長安에서 살던 고구려 사람들은 고구려를 ‘貊’이라 스스로 일컬었다. 泉男生의 長子 泉獻誠의 묘지석(大足元年 701년)중에 이것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그 내용은 ‘君諱獻誠, 其先高句驪國人也, 公即襄公嫡子也, 生於小貊之鄉, 早有大成之用, 地榮門寵, 一國罕儔.’인데, 여기에서 泉獻誠은 고향에 대해 진술할 때 고구려는 ‘小貊之鄉’이라 스스로 일컬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구려지역에서 출토된 불교와 관련된 유물의 시대를 보면, 5세기 이전의 것이 없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最古 불상은 서울 纛島에서 출토된 금동불상(도면 77-1~2) 이다.²⁹⁰⁾ 纛島 금동불상의 잔존 높이는 4.9cm이고 불상은 약간 간다라 양식적 특징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纛島 금동불상은 고구려 불상에 속하고 그 시대는 5세기 초일 것으로 보았으며, 불상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으로 보아 당시에 승려들이 한반도로 가지고 들어온 중국 북방지역의 제작품으로 추측했다. 그렇지만 纛島 금동불상 근처에 있는 유적은 백제시대 고분이고, 『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에 불교가 전래된 시점(384년)보다 고구려로의 불교 전래 시점(390~396년)이 더 늦다. 그리고 부여 신리에서 발견된 금동불상(도면 77-3)의 형태는 纛島 금동불상과 비슷해, 신리 금동불상이 백제지역에서 만든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纛島 금동불상의 소속국가 한반도 불교사와 관련된 제문제는 재검토를 요한다.

안악3호분의 연화문은 고구려지역에 불교 전래와 관계가 없다. 『高僧傳』 중에

289) 성균관대학 박물관, 2008, 『新羅金石文拓本展』, 성균관대학 박물관.

290) 金元龍, 1961, 「纛島出土金銅佛坐像」, 『歷史教育』, 5.

支道林(314~366년)과 서신 왕래를 한 ‘高麗道人’에 관한 기록이 『海東高僧傳』에 있으나, 이것으로 그가 불교 신도였을지는 확인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高僧傳』 등의 중국 문헌, 『鳳巖寺智証大師寂照塔碑』를 비롯한 한반도의 문헌, 그리고 한반도에서 출토된 불상 등의 경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東晉 太元 말(390~396년)에 后秦 關中 승려 曇始는 關中지역에서 육로로 출발하여 遼西지역, 遼東지역을 거쳐 고구려지역에 도착하였고, 이 때 불교가 고구려지역으로 전래되었다. 義熙(405~418년) 초에 曇始는 다시 關中지역에 돌아가 불교를 전파하였다.

⑦ 안악3호분(冬壽墓)의 연화문

안악3호분은 북한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위치하고 1949년 초에 발견되었다. 본 고분 내부의 벽화 중에 ‘永和十三年’, ‘冬壽’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안악3호분의 피장자가 ‘冬壽’이고 연대가 ‘永和十三年’(357년)이라고 본다. 또한 안악3호분은 冬壽墓라고도 일컬어진다.

동수묘의 벽화 중에 연화문이 발견되어 고구려 불교의 전래와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등장에 대한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불교의 전래를 검토하였고, 이어서 동수묘의 연화문의 위치, 형식, 유래, 의미 등을 검토할 것이다.

동수묘의 연화문은 서측실 서벽 冬壽 坐帳(도면 78)의 頂上과 양측, 남벽 冬壽 부인 坐帳(도면 79)의 정상과 양측, 전실과 후실 사이에 4개 돌기둥의 柱頭의 동서 양측, 후실 천정에 위치한다. 연화문의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A형(도면 80-1)은 연봉오리형 연화문이고 冬壽 坐帳의 양측에 위치한다. B형(도면 80-7)은 雙層八瓣 연화문이고 서측실 천정부에 위치한다. C형은 연판의 수량에 근거해 Ca형, Cb형, Cc형으로 분류한다. Ca형(도면 80-3)은 연판의 수량이 세 개고 冬壽 부인 坐帳의 양측에 위치한다. Cb형(도면 80-2)은 연판의 수량이 다섯 개이고 冬壽 坐帳의 정상에 위치한다. Cc형 연판의 수량은 일곱 개가 있고 冬壽 부인 坐帳의 정상(도면 80-4), 전실과 후실 사이에 있는 돌기둥의 柱頭의 동서 양측(도면 80-5~6)에 위치하며 연화문의 형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전실과 후실 사이에 있는 돌기둥의 주두 정면에 귀면문(도면 80-8)이 있다.

동수묘 연화문의 유래를 논술하기 전에 동수의 경력을 간단히 소개한다. 동수묘의 목서 명문에 따르면 357년 10월에 69세의 나이로 冬壽가 사망하였고 그는 288년이나 289년에 출생했을 것으로 계산된다. 冬壽가 고구려지역으로 오기 전에는 前燕의 司馬였다. 東晉 咸和 8년(333년) 5월에 遼東郡公 慕容廆가 죽고 6월에 그의 셋 번째 아들 慕容皝이 遼東郡公에 즉위하였다. 慕容皝은 遼東郡公에 즉위한 뒤 형벌이 가혹해 10월에 그의 남동생 慕容仁은 군대를 거느리고 慕容皝을 토벌하였다. 慕容皝의 부하 高詡, 慕容幼, 冬壽 등은 군대를 거느리고 慕容仁

의 군대와 싸워,慕容仁은慕容皝의 군대를 패배시켰으나 이전에冬壽가慕容仁의司馬였기 때문에 그를 배신하고慕容仁에게 투항하였다.咸和 9년(334년) 10~11월에慕容皝은慕容仁을 토벌하였으며慕容仁이 몇 번 패배하였다.咸康2년(336년) 1월에慕容皝은 군대를 친히 인솔하고慕容仁과 싸워 이겼으며慕容仁이 죽고冬壽와郭充 등은 고구려로 도망하였다.咸康 8년(342년) 11월에慕容皝은 고구려로 대대적으로 진격하여 환도산성을 점령하고 고국원왕의王后,王太后 등을 포로로 잡았고 고국원왕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을 가져갔다.冬壽가 고구려에 도착한 뒤 그의 활동에 관한 문헌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342년 고구려의 참패에 따라冬壽는 342년의 전쟁에 참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冬壽는 고구려로 도망하여 한반도 북부의 고구려지역에서 살았으며, 무덤의 규모 등에 근거해 볼 때 고구려에서冬壽가 중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冬壽는 고구려로 도망가기 전에前燕의將軍이었다.前燕 서부가 고구려와 접해 있었으므로, 우선前燕이나三燕시기의 연화문을 살펴보려고 한다. 발견된三燕시기 벽화분의 수량이 적은 편이고 보존 현황 역시 좋지 않아 지금까지三燕시기 벽화분에서 동수묘의 연화문과 같은 문양이 발견된 적은 없다. 그러나朝陽지역에서 발견된三燕시기 유물의 문양이 동수묘의 연화문과 비슷하다.

동수묘의 B형 연화문(도면 81-2)은朝陽袁臺子 벽화분(354년이나 366년)²⁹¹에서 발견된 말방울 무늬(도면 81-1),朝陽老城에서 출토된前燕 연화문와당²⁹²의 무늬(도면 81-3)와 비슷하다.喇嘛洞三燕 고분군에서 수집한 금동 화살통²⁹³의 연화문(도면 81-4~5)은 동수묘의 Ca형 연화문과 유사하다. 화살통은 수집품만 있어 정확한 편년을 할 수 없으나, 형태와 무늬에 따르면三燕시기의 유물이다.

16국 북조시기에는 연화문이나流蘇를 이용한 장식坐帳이 유행한다.『鄴中記』중예: ‘石虎御牀, 辟方三丈, 冬月施熟錦流蘇鬪帳, 四角安純金龍, 頭銜五色流蘇, 帳頂上安金蓮花, 花中懸金箔, 織成綉囊.’의 기록이 있다. 북조시대에 이것과 비슷한帳이北魏 太極殿의 장식 중에서도 보인다.『南齊書·卷57·魏虜列傳』중예: ‘正殿施流蘇帳, 金博山, 龍鳳朱漆屏風, 織成幌.’의 기록이 있다. 동수묘의坐帳(도면 81-9),坐帳 頂上과 양쪽의 연화문과流蘇는遼陽 上王家 晉墓 벽화에서 보이는 피장자의坐帳(도면 81-10)과 유사하다.魏晉 南北朝시대의 고분벽화는 일정한 형식이 정해진粉本이 있어, 같은粉本이 서로 다른 고분에서 여러 번 이용되고 다시 선택적으로 이용되거나 조합, 또는 개조된 경우도 있다.田立坤은

291) 遼寧省博物館文物隊의, 1984, 「朝陽袁臺子東晉壁畫墓」, 『文物』, 6., 田立坤, 2002, 「袁臺子壁畫墓的再认识」, 『文物』, 9.
 292) 王飛峰, 2012, 「三燕瓦當研究」, 『边疆考古研究』, 12, 科学出版社.
 29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2, 『三燕文物精粹』, 辽宁人民出版社., 田立坤, 2002, 「袁臺子壁畫墓的再认识」, 『文物』, 9.

朝陽袁臺子 벽화분, 동수묘, 덕흥리 벽화분의 피장자 形象의 검토를 통해 魏晉十六國시대에 遼西 지역과 한반도 고구려지역의 벽화 간에 같은 粉本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동수묘의 피장자는, 坐帳에 위치한 形象이 遼西지역 魏晉十六國시대의 벽화분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동수묘의 피장자 벽화는 후자의 벽화 중 일부 내용을 이용하여 밑그림을 그리고, 피장자의 위계에 따라 粉本을 선택하고 조합 및 개조하였다. 遼陽 上王家 晉墓에 그려진 피장자는 동수묘에 그려진 인물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동수묘의 경우, 坐帳에 연봉오리형 연화, 璜, 구슬, 流蘇 등이 있다. 遼陽 上王家 晉墓²⁹⁴⁾ 벽화분에는 坐帳 위에 연화문이 없고 용과 流蘇만 있다. 이런 차이점은 피장자 위계의 차이를 암시한다. 郭大順²⁹⁵⁾은 遼陽上王家晉墓의 벽화 중에 坐帳 위에 있는 용과 流蘇 장식을 검토하여 그 피장자가 중원지역 제후왕 등급과 같은 遼東 公孫氏라고 보았다. 三國兩晉 시대에 遼東 公孫氏는 한때 遼東지역의 지배계층이었다. 동수묘의 벽화는 당시 고구려지역에서 보이던 장식 문양일 뿐, 불교가 고구려지역에 전래된 시기를 반영하는 증거는 아니다. 동수묘의 A형 연화문(연봉오리형 연화문)과 비슷한 문양은 지금까지 三燕 지역에서 발견된 바는 없었으나, 연봉오리형 연화문이 5호 16국시대의 금동불상에서 발견되었다. 傳 河北省 石家莊에서 발견되었고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 새클러 박물관에 수장된 금동불상은 16국시대의 대표적인 불상이고 연대는 대체로 4세기 초이다. 일부 학자의 견해로는 불상의 연대가 4세기 초 전반에 있다고도 한다.²⁹⁶⁾ 불상의 대좌(도면 81-7~8)에 원형 寶瓶 중에 연봉오리형 연화문이 있는데, 이런 무늬는 북조시대에 불교 석굴사원에서 많이 유행하였다. 한편, 북방에 있는 연봉오리형 연화문에 비해 남방의 연봉오리형 연화문의 시대가 더 빠르고, 江蘇省 盱眙縣에서 발견된 西晉 太康9년(288년) 문양전²⁹⁷⁾에 연봉오리형 연화문(도면 81-6)이 있다. 앞으로 三燕지역 고고학 발굴조사의 전개에 따라 동수묘의 연봉오리형 연화문과 비슷한 문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고구려지역에서 불교의 전래 시간을 연구하는 데 있어, 동수묘 연화문의 검토보다는 冬壽 坐帳에 위치한 형상과 粉本 등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 동수묘 연화문의 연구를 통해 동수묘 연화문은 당시 벽화의 장식 문양이었을 뿐이고 불교가 고구려지역으로 전래된 것과는 관계가 없음을 밝혔다. 坐帳에 위치한 형상과 坐帳 위에 있는 연화문 장식은 遼西지역 魏晉十六國시대 벽화분의 粉本을 이용하고 피장자의 신분에 따라 선택하고 조합하였던 결과로 추정된다.

294) 遼寧省博物館文物隊외, 1984, 「朝陽袁臺子東晉壁畫墓」, 『文物』, 6.

295) 郭大順, 2010, 「遼陽壁畫墓學習筆記」, 『東北亞考古學論叢』, 科學出版社.

296) 瑪麗琳·M·麗愛 著, 臺建群 譯, 1992, 「5世紀中國佛像和北印度, 巴基斯坦, 阿富汗及中亞塑像的關係」, 『敦煌研究』, 1.

297) 秦士芝, 1983, 「盱眙縣發現一批西晉墓磚」, 『文物資料叢刊』, 第8輯, 文物出版社.

⑧ 안학궁의 연대

안학궁은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 대성산성 남쪽의 산기슭에 위치한다. 형태가 평행사변형이고 동, 서, 남, 북 길이가 각 622m, 둘레 2488m, 면적 38만 m²이다. 남 성벽에 성문 세 개가 있는데, 남서문, 남중문, 남동문 중에 남중문이 제일 커 안학궁의 정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서, 북쪽 성벽에 성문이 각각 한 개씩 있고 동, 서측 성벽 밖에서 해자가 발견되었다. 남중문에서 북문까지 순서대로 남궁, 중궁, 북궁, 동궁, 서궁이 배치되어 있으며, 안학궁 내부에서 정원지, 집수시설, 배수로 등이 발견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은 안학궁유적을 포함한 북한지역의 고구려유적을 많이 발굴조사하였다. 이 시기의 주된 관점은 안학궁이 고구려 장수왕대에 평양천도 이후 왕궁유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었다.²⁹⁸⁾ 1958~1973년 북한 학자들은 대성산성 및 안학궁유적을 대규모로 발굴조사하였고, 그 결과 고구려 토기, 와당, 암막새, 수키와, 금동불상, 불경, 철기, 유리기, 오수전 등의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다. 대성산성과 안학궁의 유적 및 배치 등을 대체로 살펴보고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연구』²⁹⁹⁾, 『대성산의 고구려유적』³⁰⁰⁾ 등의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출토 유물과 문헌 기록의 검토를 통해 북한 학자들은 대성산성은 평양천도 이후부터 586년까지 고구려의 수도였고 안학궁은 당시 고구려의 왕궁이었다고 생각하였다. 1945년 이후에 일본 학계에는 안학궁의 연대에 대한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발굴조사된 안학궁이 고구려 말기(6세기 이후)의 별궁유적이라는 주장이다.³⁰¹⁾ 다음은 북한 학자들이 발굴해 낸 안학궁은 고려시대 왕궁유적이고, 고구려시대의 왕궁유적은 안학궁 하층에 위치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대성산성은 평양천도 초기의 유적으로 편년하였다.³⁰²⁾ 또한, 일부 학자³⁰³⁾는 『高麗史』에 보이는 안학궁 및 평양성의 상대적인 위치 검토를 통해 안학궁이 고려 文宗35년(1081년) 西京의 左宮인 것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학자 魏存成³⁰⁴⁾은, 안학궁이 평양천도 이후의 고구려 왕궁으로 보고 평양천도(586년) 이후에 계속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안학궁의 건립 연대는 장수왕대

298) 關野貞, 1914, 「高句麗の平壤城及び長安城に就いて」, 『史學雜誌』, 第三十九編第一號.

299) 채희국, 1964, 『대성산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원 출판사.

300)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및민속학강좌, 1973, 『대성산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301) 田中俊明, 1995, 「後期の王都」,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302) 千田剛道, 1996, 「高句麗·高麗の瓦-平壤地域を中心として-」, 『朝鮮の古瓦を考える(帝塚山考古学談話会第555回記念)』, 帝塚山考古学研究所. 千田剛道, 2002, 「高句麗·百濟都城における瓦の使用」, 『文化財論叢III』(奈良文化財研究所創立50周年記念論文集), 2.

303) 田中俊明, 2004, 「高句麗の平壤遷都」, 『朝鮮學報』, 190.

304) 魏存成, 1994, 『高句麗考古』, 吉林大學出版社. 魏存成, 2002, 『高句麗遺蹟』, 文物出版社.

이고, 북한 학자들이 발굴조사한 대부분의 안학궁유적이 안학궁 최초의 형태가 아니라 건립 이후에 계속 수습된 왕궁유적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한국 학자들의 견해는, 안학궁의 연대를 고구려시대로 본다. 박순발³⁰⁵⁾을 비롯한 일부 한국 학자들은 안학궁유적의 하층 2호분(사실은 3호분)에서 출토된 盤口壺, 주연부에 연주문이 있는 연화문와당, 암막새 등의 검토를 통해, 안학궁유적의 연대를 고려시대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3호분에서 출토된 반구호는 아가리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매우 발달된 반구 형태를 띤 고려시대 토기로, 삼국시대의 고구려 고분 3호분이 고려시대에 재사용되었던 증거다. 한반도에서 주연부에 연주문이 있는 와당의 연대는 7세기 전반~중엽 이전으로 소급되기는 어렵고, 한반도 암막새의 연대도 통일신라 이전으로 소급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토기 및 고려청자의 등장, 기와(와당, 암막새, 모서리기와, 기와의 색갈), 초석, 고분, 문헌 등의 검토를 통해 안학궁의 연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토기

안학궁 하층에 고구려 고분 세 기, 즉 1호분, 2호분, 3호분이 있다. 그 중 3호분에서만 토기 3점, 즉, 단경호, 반구호, 뚜껑 각 한 점씩이 출토되었다. 3점의 토기에 관한 편년 연구는 적은 편이다. 鄭元喆³⁰⁶⁾은 500년 이후, 孫顥³⁰⁷⁾은 5세기로 본다. 단경호의 형태는 식물원11호분(즉 고산동11호분) 출토품의 형태와 비슷하고 11호분 단경호의 연대에 대해서 東潮³⁰⁸⁾는 5세기 초, 최종택³⁰⁹⁾은 5세기말~6세기초로 비정했다. 박순발은 안학궁 하층 3호분의 아가리형태가 발달된 盤口이므로 이는 고려시대 토기로 추정된다는 견해다. 반구호의 형태(도면 82-1~2)를 보면 신라계 토기에 가까운데, 비슷한 신라토기는 충주 하구암리유적³¹⁰⁾, 창녕 계성 고충군 B지역 42호분³¹¹⁾에서 출토되었다. 아가리가 발달된 반구형 토기(반구호, 대부장경호)는 6세기 중엽~말엽에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창녕 계성 신라 고충군 II지역 2호분, III지구 7호분³¹²⁾, 의령 경산리 고분군 50호분(6세기 중엽)³¹³⁾ 등이 있다. 하구암리유적 반구호(도면 82-3)의 연대는 6세기 후반 경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면 안

305) 朴淳發, 2012, 「高句麗의 都城과 墓域」, 『韓國古代史探索』, 12.

306) 鄭元喆, 2005, 「高句麗陶器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307) 孫顥, 2012, 「高句麗陶器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308) 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309) 崔鍾澤, 1999, 「高句麗土器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310)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1, 『고대도시유적-중원경(유물편)』,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311) 釜山대학교博物館, 1995, 『昌寧桂城古墳群』, 釜山대학교博物館.

312) 慶南考古學研究所, 2001, 『昌寧桂城新羅高塚群』, 慶南考古學研究所.

313) 趙榮濟, 柳昌煥, 2004, 『宜寧景山里古墳群』, 慶尚대학교博物館.

학궁 3호분에서 출토된 반구호는 신라계 토기이고, 그 상한은 6세기 중엽으로 잠정 편년하며 6세기 말일 가능성도 있다. 고구려유적에서 신라계 토기가 발견된 경우가 또 있는데, 평양 정릉사지 출토 신라 인화문토기(병) 한 점이 그 예다.³¹⁴⁾ 이 토기의 편년에 대해서는 6세기 초 설³¹⁵⁾, 5세기 이후 설³¹⁶⁾, 신라 통일기 설(660~676년)³¹⁷⁾, 5세기 중엽 이후 설³¹⁸⁾이 있다. 홍보식의 신라토기 편년³¹⁹⁾, 그리고 성재현의 청주지역 신라토기의 편년³²⁰⁾ 결과에 근거했을 때, 정릉사지에서 출토된 신라인화문계토기의 연대는 7세기 초일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안학궁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형태를 보면 고구려 토기와 비슷하고 고려시대 토기의 형태와는 큰 차이가 있다.

나. 고려청자의 등장

안학궁유적에서 발견된 유물 중, 고려시대 청자나 청자 파편, 고려시대 토기나 토기 파편, 雜像 등의 전형적인 고려시대 유물은 하나도 없다. 고려청자는 10세기 초에 등장한 것으로, 중국 황하강 유역 북방계 청자 기술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³²¹⁾ 황해남도 白川郡 원산리 2호 청자가마터³²²⁾의 최상부에서 청자고배(도면 83-1)가 발견되었다. 고배의 굽바닥(도면 83-2)에 음각한 명문이 있고 내용은 ‘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享器匠王公佗佗造’라고 써어 있다. ‘淳化三年’은 北宋 太宗 淳化三年, 즉, 992년 이다. 명문의 내용에 따라 이 청자고배는 고려 太廟의 제사를 위해 만든 청자이며, 당시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지역에는 높은 청자 기술이 있어 이 지역에서 고려청자가 출현한 시간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반도에서 청자가 처음 만들어진 시점에 대해서는 대략 고려 초 즉, 10세기 전반경 부터라는 데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³²³⁾ 일부 학자³²⁴⁾는 한반도에서 청자가 9세기 중반~10세기 후기에 등장하였고, 이때가 고려청자의 發生期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안학궁이 고려시대 왕궁유적(일

314) 김일성종합대학, 1976,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315) 崔鍾澤, 1999, 「高句麗土器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316) 鄭元喆, 2005, 「高句麗陶器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317) 姜賢淑, 2008, 「진 동명왕릉과 진피리 고분군의 성격 검토」, 『湖西考古學』, 18.

318) 孫顯, 2012, 「高句麗陶器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319) 洪潛植(訳: 高正龍), 1999, 「新羅後期樣式と統一樣式土器の編年」, 『飛鳥·白鳳の瓦と土器-年代論-』, 帝塚山大学考古学研究所歴史考古学研究会·古代の土器研究会.

320) 成재현, 2002, 「清州地域 出土 新羅土器의 編年과 性格」, 『湖西考古學』, 6·7合輯.

321) 崔淳雨, 1978, 「高麗陶磁の編年」, 『世界陶磁全集·18·高麗』, 小学館.

322) 이종민, 2010, 「고려, 삶과 영혼의 도자」,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경인문화사.

323) 이종민, 2010, 「고려, 삶과 영혼의 도자」,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경인문화사.

324) 崔健, 1998, 「高麗靑磁の性格と展開」, 『世界美術大全集·東洋編10·高句麗·百濟·新羅·高麗』, 小学館.

부 학자의 견해는 고려 文宗35년, 1081년 西京의 左宮이다.)이라고 한다면, 안학궁유적에서 청자나 청자 파편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다. 기와

안학궁에서 출토된 와당 중 하나는 주연부에 연주문이 있는 4관 연화문와당으로, 비슷한 무늬가 강서대묘 현실의 벽화(도면 85)³²⁵⁾중에 있다. 안학궁의 대부분 와당 주연부에 연주문이 있고 환도산성 궁전유적에서 출토된 귀면문와당의 연주문은 와당은 주연부 안쪽에 위치한다. 동대자유적에서 발견된 일부 연화문와당의 주연부 안쪽에도 연주문이 있다. 환도산성과 동대자유적 와당의 연대는 427년까지로 편년하였다. 환도산성과 동대자유적, 안학궁 와당 연주문 위치의 차이는 지역성 아니라 시간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연주문이 있는 와당은 중국 戰國時代(陝西 咸陽 窑店遺址에서 발견된 葵紋瓦當³²⁶⁾(도면 84-1)에 등장하고 연주문이 주연부 안쪽에 위치하였다. 漢代 와당에도 연주문이 유행하고 연주문의 위치는 주로 자방 밖에 있다(도면 84-2~4). 北魏 대부터 隋代까지 특히 北魏 낙양(494년) 천도 이후에 연주문이 있는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 귀면문와당이 출현하고 위치는 주연부 안쪽에 위치하였다(도면 84-5~8). 唐代에는 연주문 장식이 와당의 주연 안쪽에 위치한 연화문와당(도면 84-9~10)이 유행하고 일부 귀면문와당³²⁷⁾(도면 84-11)과 羽人와당³²⁸⁾(도면 84-12)의 주연부에 연주문이 등장하였다. 清代까지 중국에서 주연부에 연주문이 있는 와당의 수량은 거의 없었다. 안학궁유적에서 출토된 대부분 와당 주연부에 연주문이 있고, 환도산성 궁전유적과 동대자유적에서 발견된 주연부 안쪽에 연주문이 있는 와당에 비해 연주문의 위치가 변화하였다. 이런 변화는 고구려 와당 변천의 중요한 특징이고 동시대 다른 문화의 와당에는 없는 특징이다. 또한 중국 고대 일부 기와가 처음 등장한 지역은 중국 중원지역이 아니라 변경지역이었기에, 중원지역에서는 잘 찾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연목와의 등장과 전과 과

325) 강서대묘의 편년에 대한 여러 관점이 있으나, 필자는 강서대묘의 연대가 6세기 중엽 이후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강서대묘의 편년 연구는 아래와 같다. 6세기 말 초 전반~7세기 초 설(魏存成, 2002, 『高句麗遺蹟』, 文物出版社.), 550~600년설(전호태, 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출판사.), 6세기 말 후반~7세기 초 전반설(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6세기 말 설(국립중앙박물관, 2006, 『고구려 무덤벽화-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묘사도』, 국립중앙박물관.), 6세기 말~7세기 초설(社団法人共通通信社, 2006, 『高句麗古墳壁畫』, 社団法人共通通信社.), 7세기 초~7세기 중엽설(耿鐵華, 2008, 『高句麗古墓壁畫研究』, 吉林大學出版社.), 7세기 초설(『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외국문중합출판사. 趙俊傑, 2009, 「大同江流域高句麗封土石室墓等級與階層-兼談高句麗後期王陵的推定」 『高句麗渤海研究』, 35, 學研文化社.) 등이 있다.

326) 趙力光, 1998, 『中國古代瓦當圖典』, 文物出版社.

327) 戈父 編著, 1997, 『古代瓦當』, 中國書店.

328) 『中國文物精華』編輯委員會, 1992, 『中國文物精華(1992)』, 文物出版社.

정, 고구려 半瓦當 및 봉황산산성 인면문와당 등이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연목와는 內蒙古지역 托克托縣 戰國時代 雲中古城유적의 연목와(도면 84-13)이고, 漢代 연목와는 雲中古城유적(도면 84-14)등지에서 출토되었다.³²⁹⁾ 그렇지만 戰國時代부터 漢代까지 당시의 수도 長安, 낙양지역 뿐만 아니라 중원지역도 연목와를 발견할 수 없다. 육조시대 연목와(도면 84-15)가 南京지역에서 많이 출현하고 백제와 교류하며 한반도의 백제지역에 전래되어 점차 신라와 왜에까지 전파되었다. 그러나 중국 北朝³³⁰⁾(도면 84-16), 낙랑³³¹⁾(도면 84-17)과 고구려 지역³³²⁾(도면 84-18)에서 발견된 연목와는 그 수가 적은 편이고 隋唐의 수도 長安이나 낙양지역에서는 이런 원형 연목와가 없었다. 일부 작은 구멍이 있는 방형이나 사다리형 유약 귀면와³³³⁾ 중에 연목와가 있기는 하다. 중국에서 연목와의 등장과 유행 과정을 보면, 자연 환경이나 기후의 관계와 밀접하다. 즉 內蒙古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고, 南京지역은 비가 많이 오므로, 서까래의 보호를 위해 연목와가 등장하고 유행하였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목와의 장식 기능도 발달해 다양한 무늬들이 생겨났다. 같은 발생과정을 거친 것이 고구려의 半瓦當이다. 고구려 半瓦當은 6세기 중엽 이후에 출현하였으며, 당시 다른 문화권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와형태로서 고구려 와당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봉황산산성에서 고구려 인면문와당 한 점이 발견되었다. 이 와당의 연대는 隋唐시대인데, 당시 隋唐시대의 수도 長安과 낙양 등지에서는 인면문와당이 발견되지 않았다.

千田剛道, 박순발 등의 일부 학자들은 안학궁의 연대를 검토할 때 한반도 암막새의 등장 시간을 고려했다. 즉, 한반도 암막새의 등장 시간은 통일신라 때이고 익산 왕궁리³³⁴⁾와 제석사³³⁵⁾ 등에서 출토된 암막새 연대는 통일신라시대라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한반도 암막새의 등장과 변천의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唐代까지는 암막새가 없었으나, 늦어도 元代에 출현하여³³⁶⁾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 암막새의 등장과 변천 간에는 차이가 있다. 첫째, 중국과 한반도에서 발견된 암막새의 형태가 다르다. 즉, 중국 암막새의 형태는 삼각형 이고, 한반도 백제, 신라지역의 암막새는 모두 호형이다. 또한, 늦어도 사비기 말이나 통일신라시대에 등장하였다. 고려시대 초기부터 삼각형 암막새(도면

329)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陳永志 主編), 2003, 『內蒙古出土瓦當』, 文物出版社.

330) 山西省考古研究所, 太原市文物考古研究所, 2006, 『北齊東安王婁叡墓』, 文物出版社.

331) 關野貞, 谷井濟一외, 1925, 『樂浪郡時代ノ遺蹟』(圖版下冊), 朝鮮總督府.

332) 渡邊三三, 齋藤武一, 1939, 「滿洲國撫順の古瓦に就て」, 『考古學雜誌』, 第二九卷一一號.

333) 奈良文化財研究所飛鳥資料館, 2005, 『東アジアの古代苑池』, 獨立行政法人文化財研究所.

334) 國立扶余文化財研究所, 2008, 『王宮里VI』, 國立扶余文化財研究所.

335) 김선기, 김종문외, 1994, 『益山帝釋寺址試掘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336) 중국 內蒙古 敖漢旗에서 ‘至大叁年五月日記口’명 암막새 범이 발견되었다. ‘至大叁年’은 1310년 였어 늦어도 1310년에 암막새는 등장하였다. ‘至大叁年五月日記口’명 암막새 범이 아래 재료를 참고한다. 邵國田, 1987, 「赤峰敖漢旗出土元代紀年瓦當範」, 『文物』, 7.

88-3~4)는 개성 고려궁성에서 출현하고 호형 암막새(도면 88-1~2)도 계속 사용되다가, 고려시대 말에 호형 암막새가 사라졌다. 둘째, 중국 암막새의 드림새와 암키와 접합부의 각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커진다. 처음에는 그 각도가 90°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접합부의 각도가 점점 커져 清代에는 약100°나 100°이상까지 커졌다. 한반도의 호형 암막새의 드림새와 암키와 접합부의 각도는 대체로 90°이고, 삼각형 암막새 드림새와 암키와 접합부 각도의 변천 특징이 중국 암막새와 비슷하다. 셋째, 중국과 한반도 암막새의 등장 및 변천의 차이가 약간 크다. 때문에 중국과 한반도의 암막새는 독자적으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반도 암막새의 형태가 호형에서 삼각형으로 변천하는 과정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안학궁 하층 3호분의 반구형호의 연대 상한은 6세기 중엽으로 보이고 6세기 말일 가능성도 있다. 안학궁에서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와당의 무늬는 강서대묘 벽화 문양과 비슷하다. 안학궁(도면 86, 도면 87-4)과 평양지역 일부 암막새(도면 87-3)의 무늬는 개마총 벽화 문양(도면 86)이나 평양 토성리(도면 87-1~2) 등에서 발견된 고구려 와당의 무늬와 유사하다. 넷째, 고려시대 암막새의 무늬는 용문, 봉황문, 일휘문, 당초문, 범어문등이 있고 안학궁에서 출토된 암막새의 무늬 중에는 전형적인 고려시대 무늬가 하나도 없었다. 안학궁에서 발견된 기와 중에 모서리기와가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고려시대 기와 중에는 모서리기와가 하나도 없었다. 안학궁에서 출토된 일부 착고, 수키와의 색깔은 적색이나 황색인데, 적색계 기와는 고구려 기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고, 적색계 기와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른 문화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안학궁에서 출토된 일부 적색이나 황색 기와의 색깔은 정릉사지 출토 기와의 색깔과 유사하다.

라. 초석

안학궁의 초석 구조는 모두 적심 형태이고 이런 형식의 초석 구조는 환도산성 궁전유적, 동대자유적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적심 형태의 초석은 고구려 궁전, 종묘 등 고급 건물의 중요한 특징이다.

적심 형태의 초석은 중국 西周시대의 召陳궁전유적³³⁷⁾에서 발견되었다. 동북지역 최초의 적심 형태의 초석 구조는 前燕이나 后燕대의 中票 金嶺寺建築유적³³⁸⁾에서 출토되었다. 고구려지역의 적심 형태의 초석 구조는 三燕지역의 영향을 받고 등장하였다. 먼저 三燕지역과 근접한 국내성지역의 환도산성 궁전유적, 동대자유적 등에서 출현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평양지역으로 전파되

337) 楊鴻勛, 1981, 「西周岐邑建築遺址初步考察」 『文物』, 3.

338) 辛巖, 付興勝의, 2010, 「遼寧北票金嶺寺魏晉建築遺址發掘報告」, 『遼寧考古文集』, 科學出版社.

었다. 개성 고려궁성의 발굴조사 결과에 근거해 볼 때, 고려궁성의 초석 구조도 모두 적심 형태이다. 고구려시대 궁전, 종묘유적, 개성 고려 궁성유적의 적심 초석의 형태와 비슷해 안학궁 적심 초석의 연대는 정확히 밝히기 어려우나, 위에서 언급한 토기와 기와의 연대를 고려하면 안학궁 적심 형태 초석의 연대는 고구려시대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마. 고분

안학궁 3호분은 고구려 봉토석실분으로, 현실이 두 개가 있고 연도는 현실의 남쪽에 위치하였다. 현실과 연도의 형태는 대체로 ‘刀’형과 비슷하고 일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고구려시대의 3호분이 고려시대에 재사용되었다. 충주지역에서 신라 사람들이 고구려 고분을 재사용한 경우가 확인되었으며, 백제 고분은 통일신라대에 재사용한 경우가 있으나 수량은 적은 편이다. 사실을 따지면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당시에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시신을 안치할 공간이 필요했다. 둘째, 적어도 통일신라시대까지 효도가 일반적인 사회의 사상 및 도덕관념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에, 가족이나 친구의 시신을 안치할 때 다른 사람의 묘를 다시 쓰는 데에 아무런 도덕 및 윤리적인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고려시대에 효도는 일반적인 사회의 사상과 도덕관념이 되었고, 가족이나 친구의 시신을 안치할 때 이전의 고분을 재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고려시대 사람들은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의 고분을 재사용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았다. 3호분에서 발견된 세 점 토기 중 반구호를 고구려 지역에서 등장한 신라계 토기로 보는 이유도 이와 같다. 반구호 형태와 비슷한 고려시대 토기를 찾을 수 없고, 형태가 유사한 토기는 신라, 가야 지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안학궁 3호분에서 출토된 반구호의 아가리 형태와 비슷한 유물은 고려청자 중에도 많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3호분 반구호와 일반적인 고려시대 청자 형태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둘 사이에 관계가 없다고 본다. 3호분 반구호의 아가리뿐만 아니라 일부 고려청자의 형태와 문양도 고구려 토기, 와당의 무늬와 비슷했으나, 이 역시 서로 영향 관계가 없을 것이다.

바. 문헌

중국 고대 문헌 중에 고구려 평양성시대 궁궐에 대한 기록이 있다. 『周書·권 49·高麗傳』: ‘高麗者, 其先出於夫餘. …治平壤城. 其城, 東西六里, 南臨浪水. 城內唯積倉儲器備, 寇賊至日, 方入固守. 王則別爲宅於其側, 不常居之.’, 그리고 『北史·권 94·高麗傳』: ‘高句麗, 其先出於夫餘. …其王好修宮室, 都平壤城, 亦曰長安城, 東西六里, 隨山屈曲, 南臨浪水. 城內唯積倉儲器備, 寇賊至日, 方入固守. 王別爲宅

於其側，不常居之.’, 마지막으로 『新唐書· 권210·高麗傳』: ‘高麗者, 本扶餘別種也. …其君居平壤城, 亦謂長安城, 漢樂浪郡也, 去京師五千里而贏, 隨山屈繚爲郛, 南涯溟水, 王築宮其左.’ 등이다. 일본 학자 田中俊明은 『高麗史』의 기록, 안학궁과 평양성의 상대적인 위치 등의 검토를 통해, 발굴조사된 안학궁유적은 고려 文宗 35년(1081년)에 창건한 西京의 左宮일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北史』(王別爲宅於其側, 不常居之.), 『周書』(王則別爲宅於其側, 不常居之.), 『新唐書』(王築宮其左)의 고구려 궁궐에 관한 문헌기록을 보면, 안학궁유적은 고구려시대 궁궐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안학궁 하층에서 발견된 안학궁 3호분은 안학궁 토대에 의해 천정부가 파괴되었다. 때문에 안학궁 건물이 등장했을 때 3호분이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므로 안학궁의 시대는 안학궁 3호분의 연대에 가깝다. 3호분에서 출토된 반구호는 고구려지역에서 출현한 신라계 토기이다. 신라, 가야지역 토기의 형태에 따른 연대설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 3호분 반구호의 상한은 6세기 중엽경이고 6세기말의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안학궁의 초축연대는 반구호의 연대보다 약간 늦을 것이므로, 6세기 말로 잠정 편년한다. 즉, 안학궁에서 출토된 유물 등의 검토를 통해, 안학궁은 고구려의 궁전유적으로 연대는 6세기 말부터 고구려 멸망까지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안학궁에서 발견된 와당과 암막새 등의 기와는 모두 고구려시대의 유물이다.

지금까지, 고구려 와당의 편년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검토하고, 국내성지역, 평양성지역의 중요한 고구려유적의 연대를 살펴보았다. 또한, 불교가 고구려지역에 전래된 시간 등도 설정해 보았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설정한 연대를 바탕으로 중국과 한반도에서 출토된 고구려 와당의 연대를 대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때, 북한에서 발견된 일부 일제강점기의 수집품들은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각 형식별 와당의 연대를 설정하는 기준은 고구려 고분과 토기의 편년에 따른다. 물론 고구려 고분과 토기의 편년에 관한 연구자들 간 관점의 차이가 큰 편이기는 하나, 와당의 연대를 연구하기 위해 형식 분류의 순서대로 각 형식 와당의 연대를 잠정적으로 설정해 나갈 것이다.

(2) 단일 연화문와당의 편년

연화문와당은, 막새부의 연화문의 조합 형식에 근거해 단일 연화문와당과 복합 연화문와당으로 분류한다. 단일 연화문와당은 복선의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복선연화문와당은 복선의 형태에 근거해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접수형 복선

연화문와당, ‘T’자형 복선연화문와당, 복채형 복선연화문와당, ‘卍’형 복선연화문와당, 사다리형 복선연화문와당으로 세분한다. 중국에서는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집수형 복선연화문와당, ‘T’자형 복선연화문와당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복선연화문와당이 모두 발견되었으며, 그 수량도 많다.

가.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되었다. 연관의 형태 등에 근거해 연봉오리형 연관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과 일반 연관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연봉오리형 연관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집안지역에서만 발견되는데, 특히 태왕릉과 JYM2112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연관과 복선의 형태 등에 따라 Aa형, Ab형, B형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Aa형은 태왕릉에서만 발견되었고, Ab형은 JYM2112 등에서 출토되었다. B형은 태왕릉과 JYM2112에서 발견되었다.

앞에서 천추총 연화문와당은 광개토왕이 407년경에 천추총을 수습할 때 사용한 와당이고, 그 연대가 407년경이며 태왕릉 연화문와당의 연대보다 빠르다는 것을 밝혔다. 즉, 이는 당시 고구려지역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最古 복선연화문와당이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태왕릉에서 발견된 연화문와당의 연대는 모두 407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北史·권94·高句麗傳』: ‘死者, 殯在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 居父母及父喪, 服皆三年, 兄弟三月.’의 기록에 근거해, 고구려 사람들은 죽고 3년 후에 시신이나 유골을 수습하여 묻었음을 알 수 있다. JYM3319에서 출토된 ‘乙卯年’명(355년) 권운문와당은 그 피장자 사망 후 무덤 공사를 할 때 만든 와당이며, ‘丁巳’(357년) 권운문와당은 사망 3년 후에 시신이나 유골을 수습하여 무덤에 안치시킬 때 만든 와당이다. 광개토왕은 412년에 죽었고, 3년 후에 시신이나 유골을 수습하여 매장할 때(414년) 광개토왕비를 세웠다. 즉, 태왕릉의 토목공사는 414년에 궁극적으로 완성된 것이므로, 태왕릉 연화문와당의 시기는 414년까지이다. 천추총에서 출토된 ‘…樂浪趙將軍…’, ‘…丁未在永樂…’명 수키와의 명문에 따라 천추총 연화문와당의 연대는 407년경이고 태왕릉 연화문와당의 연대는 천추총 연화문와당의 연대보다 약간 늦다. 그러므로 태왕릉 연화문와당의 연대 상한은 407년, 즉 407~414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때문에 Aa형과 B형 연봉오리형 연관 연화문와당의 연대도 마찬가지이다.

JYM2112의 Ab형과 B형 연봉오리형 연관연화문와당의 무늬는 태왕릉 출토품과 비슷하고, 집안지역에서도 두 기의 고분에서 연봉오리형 연관연화문와당이 발견되어 모두 같은 시기의 유적으로 추정된다. JYM2112 연화문와당의 연관 형태

는 장군총 연화문와당의 연대보다 이르므로³³⁹⁾, 장군총이 장수왕의 허릉이라면 연화문와당의 연대 상한은 412년(장수왕, 412~491년, 재위)이다. 또한, 장군총은 평양천도 이후에 점차 폐기되었을 것이므로, 하한은 427년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JYM2112의 Ab형과 B형 연봉오리형 연판연화문와당의 연대는 407~414년으로 장군총 연화문와당의 연대보다 빠르다고 추정한다.

Aa형 와당은 태왕릉에서만 출토되었고 직경은 20.0~21.6cm다. Ab형과 B형 와당은 태왕릉과 JYM2112에서 발견되었다. 먼저 태왕릉에서 출토된 Ab형 와당의 지름은 17.6cm, B형 와당의 지름은 18.0~20.5cm였다. JYM2112에서 출토된 Ab형 와당의 지름은 16.8~18.5cm, B형은 20.5cm였다. Aa형 와당은 연판이 6개 있는데, 복선 여섯 조에 매조 복선의 수량이 두 개가 있다. Ab형 와당도 연판이 6개 있는데, 복선이 여섯 조이고 각 복선의 수량이 세 개가 있다. B형 와당의 연판은 여덟 개가 있는데, 복선이 여덟 조가 있고 매조 복선의 수량이 세 개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연봉오리형 연화문와당의 변천 특징은, 첫째, 시간이 지날수록 연판 수량이 6개에서 여덟 개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둘째, Aa형 와당의 복선이 6조가 있고 각 복선이 두 개가 있으며, Ab형 와당 복선이 여덟 조가 있고 각 복선이 세 개가 있다. 그러므로 시대에 따라 복선의 조 뿐만 아니라 각 복선의 수량도 점차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나) 일반 연판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막새부의 문양 조합에 근거해 2분식, 4분식, 6분식, 8분식, 10분식으로 세분할 수 있다.

(가) 2분식 일반 연판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 토성리, 청암리 등지에서 발견되었는데 수량은 적은 편이다. 연판과 자방의 형태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분류된다. B형 와당은 연판에 꽃술형 연판이 두 개가 있고 연판 가운데에 꽃술 세 개가 있다. 이런 꽃술형 연판의 하한은 6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연판+꽃술형 연판 복합 문양 와당’ 편년 부분의 논술을 참고한다). A형 와당은 매조 복선의 수량이 두 개이며 B형 와당은 세 개다. A형 와당은 주로 토성리에서 출토되었고 자방 형태, 연주문 위치 등이 B형 와당과 비슷하며, 집안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등에서 발견된 연화문도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그러므로 A형 와당의 연대는 위에서 언급한 집안지역 와당의 연대와 가깝다. 즉, A형 와당의 하한은 6세기 중엽 이전으로 추정된다.

339) 集安市博物館(董峰), 2004, 「集安洞沟古墓羣禹山墓區2112號墓」, 『北方文物』, 2.

(나) 4분식 일반 연판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 토성리, 청암리, 미산리, 평양성 등지에서 출토되었고 수량이 많은 편이다. 막새부의 무늬를 기준으로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 와당은 토성리에서 출토었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빠른 시대 와당의 자방부 형태는 반구형이고, 가운데에 작은 乳釘紋이 있는 반면, 약간 늦은 시대 와당은 자방부에 연자문이 있다. 둘째, 주연부 안쪽에 권선과 연주문이 있다. 토성리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은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의 연화문와당과 비슷한 점이 많아 평양 천도 후 이른 시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자는 토성리 연화문와당이 고구려의 最古 연화문와당이고 연대는 4세기 말~5세기 초라고 주장하였다³⁴⁰⁾.

B형 와당은 평양 청암리, D형은 평양 청암리와 미산리, F형은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고 자방, 연주문, 복선 등의 형태가 A형과 비슷해 연대도 대체로 일치할 것으로 추정된다.

C형 와당은 주로 평양성에서 발견되었다. 연화 주변에 꽃받침의 형태가 복선 四瓣연화문와당 B형, 4연판+4연판 복합연화문와당 D형의 꽃받침과 유사하다. 小半圓形 반와당의 D형 꽃받침과도 유사하다. 일부 학자는 평양성 성벽에서 발견된 명문 각석의 내용에 근거하여 평양성의 축조시기를 552~593년으로 보았다³⁴¹⁾. 한편, 반와당의 연대를 6세기 중엽 이후(‘小半圓形 반와당의 연대’ 부분 참고)로 설정하였는데, 이에 근거하여 안학궁에서 출토된 4연판+4연판 복합문와당 D형의 연대를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할 수 있다. C형 와당의 연대도 대체로 6세기 중엽 이후로 보인다.

E형, F형은 평양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연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모두 사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에 속하므로 6세기 중엽 이후로 잠정 편년한다.

(다) 6분식 일반 연판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지역에서 모두 출토되었고 그 수량 및 형식이 다양하다. 복선의 수량에 근거해 단복선, 쌍복선, 삼복선 6분식 일반 연판 복선연화문와당으로 분류한다.

㉠ 단복선 6분식 일반 연판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지역에서 발견되었고 복선과 연판, 자방의 형태에 따라

340) 谷豊信, 1990, 「平壤土城里発見の古式の高句麗瓦当について」,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20.

341) 鄭元喆, 2010, 「高句麗山城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A형, B형, C형, D형, E형으로 나눌 수 있다.

C형, D형, E형 와당의 연관은 중국 北魏시대 연화문의 연관과 유사하다. 河南省 鞏縣石窟 제4굴, 제5굴의 窟頂에서 연화문와당이 출토되었는데, 제4굴의 연대는 北魏 熙平 2년(517년)이나 孝昌 4년(528년)까지, 제5굴의 窟頂은 北魏 孝昌 4년부터 永安 2년(529년)에 완성한 것이다³⁴²⁾. 鞏縣石窟 제4굴에서 출토된 복판 연화문은 연관의 수량이 8개이고, 제5굴의 복판연화문은 연관의 수량이 16개이며, D형은 연관의 수량이 6개다. 일부 복판연화문와당의 자방부에 작은 乳釘紋이 있는데 이는 토성리형 와당과 유사하므로 C형, D형 와당의 연대는 6세기 말 이전으로 설정할 수 있다. C형 와당의 자방부에는 연자문이 있는데, 이는 일부 北魏 연화문(鞏縣石窟 제4굴 출토품)의 형태와 유사하다. 반구형 자방 가운데에 작은 乳釘紋과 주연 안의 연주문의 형태는 토성리형 연화문와당과 약간 비슷하다. C형 와당은 평양 청암리절터에서 출토되었다. 청암리절터에 관해 小泉顯夫³⁴³⁾는 청암리절터가 문자명왕 7년(497년) 7월에 창건한 금강사이며, 『삼국사기』의 고구려 불교와 관련된 기록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형, B형 와당의 연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복선 형태상 C형, D형 와당의 연대와 대체로 일치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단복선연화문와당의 연대를 6세기말 이전으로 설정하였다.

㉔ 쌍복선 6분식 일반 연관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막새부에 복선이 6조가 있고 각 조 복선은 두 개씩이다. 복선 사이에 연관이 있는데, 연관과 자방의 형태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H형, I형, J형, K형, L형, M형, N형, O형으로 분류한다.

A형과 B형은 천추총과 태왕릉에서 출토되었다. 천추총 연화문와당의 연대를 407년경, 태왕릉 연화문와당의 연대를 407년~414년으로 편년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천추총 출토 Aa형, Ab형 와당은 407년경, 태왕릉 출토 Aa형, Ab형, B형 와당의 연대는 407년~414년이다. C형 와당은 국내성에서 발견되었는데 무늬가 A형, B형 와당과 비슷하므로 그 연대를 407년~414년로 추정한다.

Da형~Dc형은 평양 청암리와 토성리, 평양성, 대성산성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의 무늬와 연관 형태가 Ab형 와당과 비슷하므로 국내성시대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Da형~Dc형과 똑같은 와당이 국내성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 시기를 평양 천도 이후로 편년한다. Dd형~Dg형 와당 역시 연관의 형태, 연주문의 배치 등이 Da형~Dc형과 비슷해 연대도 일치 할 것으로 생각된

342) 陳明達, 1989, 「鞏縣石窟寺的彫鑿年代及特點」, 『中國石窟·鞏縣石窟』, 文物出版社.

343) 小泉顯夫, 1940, 「平壤清岩里廢寺址の調査(概報)」, 『昭和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다.

Ha형은 경신리1호분에서 출토되었다. 경신리1호분의 시기가 대체로 5세기 중엽~6세기 초로 추정되고³⁴⁴⁾, Hb형 와당의 무늬가 Ha형과 유사하므로 그 연대도 비슷할 것이다. 그러므로 H형 와당의 연대는 427년 이후~6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I형 와당은 평양 청암리, 청암리절터, 안학궁, 대성산성 등지에서 발견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학궁의 연대가 6세기 중엽 이후~고구려 멸망 때까지로 추정되므로, I형 와당의 연대도 6세기 말~668년일 것이다.

K형 와당은 평양성과 정릉사, 청암리, 청암리절터 등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중 Ka형 와당은 정릉사에서 출토되었다. 전 동명왕릉과 정릉사는 평양천도를 계기로 축조했으므로, 정릉사에서 출토된 와당의 연대는 427년 이후이다. 막새부의 무늬가 토성리형 와당과 유사하므로 그 연대를 427년 이후부터 6세기 중엽까지로 편년한다. E형, F형, G형, J형, L형, M형, N형, O형 와당 중 출토 지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으나, 그 형태가 토성리형 와당과 비슷하므로 역시 427년 이후부터 6세기 중엽까지로 편년할 수 있다.

㉔ 삼복선 6분식 일반 연관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지역 및 고이산성에서 출토되었다. 무늬에 따라 A형~I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A형은 평양 토성리성지에서 발견되었고 연관과 연주문의 형태 및 위치가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출토 연화문와당과 비슷하다. 다른 와당은 토성리와 정릉사 등에서 출토되었고 형태는 토성리형 와당과 유사하다. 토성리형 와당의 연대는 427년 이후부터 6세기 중엽까지이므로, 이 형식의 와당 역시 427년 이후부터 6세기 중엽까지로 잠정 편년한다.

I형은 고이산성에서 발견되었다. 고이산성 등 고구려 서부 방어선에 위치한 산성 유적에서 출현하는 와당은 고구려 말기 隋唐과의 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隋唐전쟁을 계기로 고구려 서부 방어선에 위치한 고이산성, 성자산산성, 봉황산산성 등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전투를 위해 고구려 고위층과 일반 병사들이 같이 주둔하였기 때문이다. 孟祥忠, 周向永³⁴⁵⁾ 등의 중국학자들은 성자산산성의 성벽 특징, 출토유물, 문헌기록 등을 통해 성자산산성의 축조시기를 隋唐대로 보았으며, 이는 고구려의 千里長城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봉황산산성

344) 경신리1호분의 편년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이 약간 다르고 필자가 그의 연대는 5세기 중엽~6세기초로 편년한다. 경신리1호분의 편년은 5세기 설(關野貞, 1941, 「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墳墓及繪畫」,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5세기 중엽 설(강현숙, 1999, 「高句麗 石室封土墓壁畫墳의 淵源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40.), 6세기 초나 약간 늦은 시대 설(趙俊傑, 2009, 「4-7世紀 大同江, 載寧江流域封土石室墓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491년설(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등이 있다.

345) 孟祥忠외, 1993, 「西豊城子山山城考」, 『瀋陽文物』, 2., 周向永, 2009, 「西豊城子山山城始建年代再考」, 『東北史地』, 2.

에서 출토된 고구려와당의 공반유물 중에는 ‘開元通寶’가 있고, 일부 연화문와당 막새부에는 발해 연화문와당의 간식과 비슷한 ‘十’자형 간식이 있다. 고이산성의 경우, 산성 근처에 고구려 만기에 해당하는 고분군이 있으며, ‘開元通寶’가 출토되었고, 일부 고분의 구조가 발해 봉토석실분과 유사하다. 이를 토대로 고이산성, 성자산산성, 봉황산산성, 용수산산성 등의 고구려 서부 방어선 유적에서 출토된 이 유형의 와당의 연대를 隋唐時代로 추정할 수 있다.

(라) 8분식 일반 연판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성지역에서 발견되었고 복선의 수량, 연판과 자방의 형태에 근거해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으로 분류하였다. Aa형은 태왕릉, 장군총, 상활룡5호분에서, Ab형은 태왕릉에서, Ac형은 서대묘에서 각각 발견되었다. 천추총 연화문와당의 연대를 407년경, 태왕릉 연화문와당의 연대를 407~414년, 장군총 연화문와당의 연대를 412~427년으로 상정한 것을 토대로 하였을 때, 서대묘 연화문와당 파편의 연판 형태와 문양 조합은 태왕릉 및 장군총 연화문와당과 약간 비슷하고, 평양지역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그 연대를 대체로 407~427년으로 잠정 편년한다. 평양지역에서는 평양성, 평양 토성리, 동대원리, 평안남도 원오리절터 등에서 이 형식의 와당이 발견되었다. 반구형 자방, 자방 중앙의 작은 乳釘紋, 주연부 안쪽의 연주문 등이 특징으로, 토성리형 와당과 비슷하다. 강현숙은 Ca형 와당의 연대를 5세기 초로 보았고³⁴⁶⁾, 원오리절터에서 발견된 소조상의 연대를 6세기 초~6세기 중엽으로 추정³⁴⁷⁾ 마에 근거하여 평양지역에서 출토된 이 형식의 와당의 하한을 6세기 중엽으로 설정한다.

(마) 10분식 일반 연판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지역에서 한 점만 출토되었다. 복선 10조에 각 복선의 수량은 한 개로, 8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A형과 유사하다. 8분식의 연대를 427년 이후~6세기 중엽으로 설정했으므로, 이 형식의 와당의 연대는 427년 이후~6세기 중엽일 것이다.

나.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지역과 고이산성에서 발견되었고 막새부의 무늬에 따라 4분식과 6분식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으로 나눌 수 있다. 6분식 복선 연화문와당 B형은 자방부에 연자문이 있다. 연화문와당 자방부의 연자문은 중국 北魏가 洛

346) 강현숙, 2007, 「고구려 고분 출토 와당의 변천 연구」, 『한국고고학보』, 64.

347) 李裕群, 2006, 「高句麗佛教造像考-兼論北朝佛教造像樣式對高句麗的影響」, 『4~6世紀的北中國與歐亞大陸』, 科學出版社.

陽으로 천도(494년)한 이후에 등장하였으며, 隋唐時代 연화문와당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고이산성, 성자산산성, 봉황산산성, 용수산산성 등의 고구려 서부 방어선 유적에서 출토된 와당의 연대를 隋唐時代로 편년하였으므로, 고이산성 출토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의 시대도 隋唐時代일 것이고, 평양지역에서 출토된 이 형식의 와당의 연대 역시 隋唐時代로 추정한다.

다. 복채형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안학궁, 정릉사지, 평양성, 평양 청암리, 미산리, 경상리 등 평양지역에서 발견되었다. 무늬의 조합 방식에 따라 4분식, 6분식, 8분식 복채형 복선연화문와당으로 나눌 수 있다.

가) 4분식 복채형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 청암리와 안학궁 등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를 기준으로 A형과 B형을 분류한다. B형 와당은 안학궁 출토품으로 안학궁의 연대에 따라 6세기 중엽 이후로 설정한다. A형 와당의 연판과 자방, 연주문의 무늬가 B형과 비슷해 연대도 대체로 일치할 것으로 추정한다.

나) 6분식 복채형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안학궁과 정릉사지, 평양성 등에서 발견되었고 무늬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 와당은 안학궁 출토품이므로 그 연대를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한다. B형 와당은 정릉사지에서 출토되었고 연판과 자방, 복선의 형태가 토성리형 연화문와당과 비슷하며 A형과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6세기 말 이전으로 잠정 편년한다. C형 와당의 연판 형태는 北魏 平城時代의 M112 石棺牀의 무늬³⁴⁸⁾, 청암리절터에서 출토된 七寶飾金具의 문양³⁴⁹⁾과 유사하다. M112 石棺牀의 연대가 433~477년경이므로, C형 와당의 연대는 5세기 중엽~말엽 이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 8분식 복채형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정릉사지와 안학궁, 평양 미산리, 경상리 등에서 발견되었고 무늬를 기준으로 A형, B형, C형, D형으로 분류한다. A형은 정릉사지에서 출토되었고 무늬가 일부 토성리형 와당의 문양과 유사하므로 6세기 말 이전으로 편년한다. B형은 안학궁에서 출토되었고 C형 와당의 연판과 복채형 복선의 형태는 안학궁에서 발견된 일부 연화문와당의 무늬와 비슷하므로 두 유형의 연대는 6세

348) 山西大學歷史文化學院, 山西省考古研究所외, 2006, 『大同南郊北魏墓群』, 科學出版社.

349) 梅原末治, 藤田亮策, 1966, 『朝鮮古文化綜鑑』(第四卷), 養德社.

기 중엽 이후로 추정된다. D형 와당은 정릉사지에서 발견되었고 제천 장락사지에서 출토된 신라 와당과 문양이 유사하다. 장락사지 와당의 연대가 7세기 말 후반으로 추정되므로³⁵⁰⁾ D형 와당의 연대는 7세기 말 후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D형 와당의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로 설정한다.

라. ‘T’자형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안학궁과 고이산성에서 출토되었고 무늬를 기준으로 A형, B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은 안학궁에서, B형은 고이산성에서 출토되었으므로 이 형식의 와당의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한다.

마. ‘Y’형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 토성리와 청암리, 안학궁에서 발견되었고 연판과 복선, 자방의 형태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분류한다. A형 와당은 반구형 자방 가운데에 작은 乳釘紋이 있고 주연 안쪽에 연주문이 있으며 토성리형 와당과 유사하므로 그 시기를 427년 이후~6세기 중엽으로 설정한다. B형 와당은 안학궁에서 출토되어 6세기 중엽 이후로 설정하고, C형 와당은 주연부의 연주문과 연판의 형태가 안학궁 와당과 비슷해 역시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한다.

바. ‘卍’형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한 점만 발견되어 정확한 연대를 밝히기 어려우나, 연판과 자방 형태, 주연부의 형태가 안학궁에서 발견된 와당과 유사하므로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할 수 있다.

사. 사다리형 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성에서 한 점이 출토되었다. 주연부 안쪽에 연주문이 있고 자방 형태가 토성리형 와당과 비슷하나, 안학궁에서 발견된 와당과 테토가 다르다. 지금까지 국내성지역에서 비슷한 연화문와당이 발견된 예가 없으며, 이를 고려하여 이 형식의 와당의 연대를 427년 이후~6세기 중엽으로 비정한다.

②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지역에서 발견되었다. 막새부 연화문의 수량에 근거해 4연판, 5연판, 6연판, 7연판, 8연판, 9연판, 10연판, 11연판, 12연판, 15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으로 나눌 수 있다.

350) 조원창, 방기영, 2008, 「堤川 長樂寺址 出土 瓦当(수막새)의 高句麗的 要素」, 『중원문화재 연구』, 2.

가. 4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 청호리, 평천리, 정릉사지, 토성리, 안학궁, 황해남도 봉산군 토성리절터 등에서 출토되었고 연판의 형태와 자방의 형태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 E형으로 분류된다. A형 와당은 청호리나 상수신리에서 한 점이 발견되었고 연판의 형태가 B형과 약간 비슷해 동시기로 잠정 편년한다. B형 와당은 연판의 꽃받침 형태가 일부 반와당의 무늬와 비슷하므로, 반와당의 연대에 따라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한다. C형 와당은 연판이 크고 토성리에서 출토되었음에도 연판과 자방부 형태가 토성리형 와당과 다르다. 연판의 형태가 E형과 유사해 둘을 동시기로 설정한다. D형은 황해남도 봉산군 토성리절터에 발견되었고 무늬가 C형과 유사해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한다. E형 와당은 안학궁에서 출토되었고 안학궁의 연대에 따라 C형과 함께 6세기 중엽 이후로 설정한다.

나. 5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봉황산산성에서 몇 점이 발견되었다. 고구려 서부 방어선 유적에서 출토된 와당의 연대가 隋唐時代이므로 이 형식의 와당의 연대도 隋唐時代로 설정한다.

다.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고 간식의 유무에 따라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과 무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으로 나눈다.

가)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수량이 많고 간식의 형태에 따라 삼각형 간식, 'Y'자형 간식, 'ㄷ'형 간식, 인동형 간식, 복채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으로 분류한다.

(가) 삼각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연판과 자방의 형태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으로 세분한다. Aa형은 환도산성 궁전유적과 장군총과 장군총 서남쪽 건축유적에서 출토되었고, Ab형은 집안시 商賈街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환도산성 궁전유적 출토 와당의 연대는 407년~427년으로, 장군총과 건축유적에서 출토된 와당의 연대는 412년~427년으로 비정한 바에 따르면, 환도산성 궁전유적 출토 Aa형 와당의 연대는 407년~427년, 장군총과 건축유적 출토 Aa형 와당의 연대는 412년~427년으로 편년할 수 있다. 商賈街 유적의 Ab형 와당의 무늬는 장군총과 건축유적 출토 Aa형 와당과 유사하므로

비슷한 시기로 추정한다. Ba형은 환도산성 궁전유적, 장군총, 그리고 건축유적에서 발견되었다. 두 개 유적의 출토품은 아닐 것이므로 Ba형 와당의 연대는 412년~427년으로 잠정 편년한다. Bb형 와당은 집안시 勝利村유적에서 출토되었고 무늬가 Ba형과 유사해 연대도 동일하게 412년~427년일 것이다. Ca형은 국내성, Cb형은 JYM992에서 발견되었고 B형 와당의 문양과 유사해 연대도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추정한다. D형은 고이산성과 평양성에서 출토되었다. 고이산성 출토품의 연대는 隋唐時代이고 평양지역 출토품의 무늬는 隋唐時代 와당의 문양과 비슷하므로 이 역시 隋唐時代의 유물로 추정된다. E형은 평양 토성리 등에서 발견되었고 연판과 자방의 형태가 토성리형 와당의 특징을 보이므로 427년 이후부터 6세기 중엽 이전으로 편년한다. F형은 연천 호로고루에서 출토되었고 와당의 무늬는 충주 탑평리유적에서 발견된 일부 신라 연화문와당과 비슷하다. 충주지역은 신라 진흥왕대(540~576년)에 신라와 백제 연합군이 한성을 회복했을 때 얻은 지역이므로, 충주 탑평리유적 출토 신라 연화문와당의 연대는 551년 이후로 설정한다. 551년 이후에 고구려 세력은 한강유역에서 후퇴하여 당시 고구려 남부의 군사 방어선을 임진강유적에 집중시켰다. 임진강 북쪽 단애에 위치한 호로고루의 중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隋代 五銖錢도 공반 출토되었다.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 상황³⁵¹⁾, 출토유물 등을 고려했을 때, 호로고루 와당의 연대는 551년 이후였을 것이다.

(나) ‘Y’자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고이산성에서 몇 점이 발견되었고 6개의 연판 사이에 ‘Y’자형 간식이 6개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고 고구려 서부 방어선에 위치한 유적의 연대에 따라 이 형식의 와당의 연대를 隋唐時代 추정한다.

(다) ‘~’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성과 평양 평천리, 대성산성 등에서 출토되었고 무늬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A형, B형 와당의 연판은 발해 연화문와당의 연판과 비슷하므로 그의 연대를 고구려 말기인 6세기 중엽 이후로 설정한다. C형 와당의 간식은 B형 와당과 유사해 그 시기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라) 인동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수량도 적다. 연판의 형태는 무령왕릉 은제 오각형 장식의 문양(하한 529년)과 陝西 安康 梁武帝 天監 5년(506

351) 崔鍾澤, 1998,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진출과 백제」, 『百濟研究』, 28.

년)무덤 벽돌 무늬³⁵²⁾와 유사해 그 시기를 6세기 말 이전으로 편년한다.

(마) 북채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안학궁에서 몇 점이 출토되었다. 안학궁의 연대를 따라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한다.

나) 무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 청암리와 평천리, 대성산성, 고이산성 등에서 발견되었고 수량이 많지 않다. 무늬를 기준으로 A형, B형, C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 와당의 연판과 연주문 형태는 토성리형 와당과 비슷해 연대를 427년 이후~6세기 중엽으로 편년한다. B형 와당의 연판과 자방 형태는 안학궁에서 출토된 북채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과 비슷하다. 때문에 이 형식의 와당의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할 수 있다. C형 와당은 고이산성에서 발견되었으므로 隋唐時代로 편년한다.

라. 7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성 등에서 출토되고 수량이 많은 편이다. 무늬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A형 와당은 자방 밖에 위치한 별형 무늬는 수산리벽화분 현실 동벽 북쪽 하단에 그려진 북의 장식 문양과 비슷하다. 수산리벽화의 연대는 5세기 말로 추정되므로³⁵³⁾ A형 와당의 연대를 5세기 말로 설정한다. B형 와당의 연판과 자방의 형태, 'V'형 間飾 등은 A형 와당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7연판 복선연화문와당의 연대는 5세기 말로 추정된다.

마.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지역에서 발견되었고 간식의 유무에 근거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막새부에 연판 여덟 개가 있고 연판 사이에 간식이 있다. 간식의 형태에 따라 삼각형 간식, 나뭇가지형 간식, 'ㄷ'형 간식, 북채형 간식 8연

352) 安康市歷史博物館, 2008, 「陝西安康市張家坎南朝墓葬發掘紀要」, 『華夏考古』, 3.

353) 수산리벽화분의 연대에 대한 5세기말 후반설(社団法人共通通信社, 2006, 『高句麗古墳壁畫』, 社団法人共通通信社. 전호태, 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출판사.), 5세기 말 설(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등이 있고 필자는 고분의 연대를 대체로 5세기 말로 편년한다.

판 무복선연화문와당으로 분류한다.

(가) 삼각형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 막새부에 연판은 여덟 개가 있고 연판 사이에 삼각형 간식이 있다. 연판과 자방 형태 등에 근거해 15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A형은 환도산성 궁전유적과 장군총 서남쪽 건축유적, B형은 환도산성 궁전유적과 동대자유적, 장군총 서남쪽 건축유적, C형은 장군총 서남쪽 건축유적, 동대자유적, 梨樹園子南유적, D형은 동대자유적과 梨樹園子南유적, E형은 동대자유적, F형은 장군총 등에서 출토되었다. 각각의 양식은 앞서 추정된 환도산성 궁전유적과 동대자유적의 연대에 근거하여 편년이 가능하다. 梨樹園子南유적 출토 와당의 무늬가 동대자유적의 와당 문양과 유사하다. 장군총 서남쪽 건축유적, 장군총남 와당의 연대는 412년~427년으로 편년할 수 있다. G형은 정릉사지에서 출토되었고 연판과 자방의 형태가 일부 토성리형 와당과 유사해 그 연대를 427년 이후~6세기 중엽으로 추정하였다. H형 와당은 삼각형 간식이 있는 형태로, 국내성에서 등장한 뒤 평양성시대에도 계속 유행하였다. 그 연대는 427년 이후이고 하한을 6세기 중엽으로 잠정 편년한다. I형, J형, K형 와당의 연판과 자방 형태, 자방 밖 연주문의 배치, 삼각형 간식 등은 H형과 유사하므로 연대도 대체로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L형 와당의 무늬는 남조 劉宋 大明시기(457~464년)의 와당 무늬³⁵⁴⁾와 비슷해 연대를 5세기 중엽이나 5세기 말 전반으로 설정할 수 있다. M형 와당의 ‘T’형 간식, 연판 형태는 L형 와당과 유사하고, N형, O형 와당의 연주문의 형태는 隋唐時代 와당의 연주문과 유사하다. R형 주연부 안쪽에 있는 연주문 형태도 이와 비슷해 6세기 중엽 이후로 설정한다.

(나) 나뭇가지형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안학궁과 평양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연판과 간식의 형태에 근거해 A형, B형을 분류한다. A형 와당은 안학궁에서 출토되었으므로 그 연대를 6세기 중엽 이후로 추정한다. B형 와당의 연판과 간식의 형태는 A형 및 일부 안학궁 출토품의 문양과 유사하므로 동일하게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한다.

(다) ‘ㄱ’형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B형 와당의 ‘ㄱ’형 間飾과 연판 형태는 六瓣 輻線이 없는 연화문와당(6세기 중엽 이후)과 비슷하고 그의 연대는 대체로 6세기 중엽 이후로 보인다.

354) 賀雲翹, 2005, 『六朝瓦當與六朝都城』, 文物出版社.

(라) 북채형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 청암리에서 발견되었고 주연부의 연주문과 연판 형태는 안학궁에서 출토된 일부 와당의 무늬와 비슷하다. 때문에 안학궁의 연대를 따라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한다.

나) 무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국내성과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고 무늬에 따라 아홉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A형은 국내성에서 발견되었고 연판과 자방의 형태가 국내성지역에서 발견된 일부 삼각형 간식 6연판연화문와당과 비슷하다. 이 6연판연화문와당의 연대는 407년~427년으로 편년되므로 A형 와당의 연대도 마찬가지로 지일 것이다. B형은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동대자유적에서 발견된 와당의 연대가 407년~427년으로 편년되므로 B형 와당의 연대도 407년~427년으로 설정한다. C형 와당은 모두 정릉사에서 출토되었고 그 연대는 6세기 전반 이후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³⁵⁵⁾. D형, E형 와당의 연판 형태, 연주문의 배치 등은 안학궁 출토 와당과 유사해 연대를 6세기 중엽 이후³⁵⁶⁾로 편년한다. F형 와당의 무늬는 진파리4호분 벽화에 등장한 무늬와 비슷하고 진파리4호분의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로 추정되므로 F형 와당의 연대도 6세기 중엽 이후로 비정한다. G형 와당은 안학궁과 평양성에서 발견되었고 안학궁 출토 와당의 연대에 따라 G형 와당의 연대도 6세기 중엽 이후로 설정한다. H형 와당의 연주문의 형태와 위치가 隋唐時代 와당의 연주문과 비슷해 연대도 대체로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I형 와당의 연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연판의 형태, 연주문의 위치 등에 근거해 6세기 중엽으로 잠정 편년한다.

바. 9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지역에서 발견되었고 무늬에 근거해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H형, I형으로 분류한다. Aa형은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되었으므로 연대를 407년~427년로 추정한다. Ab형은 환도산성 2호문지, 장군총 서남쪽 건축유적, 대흑산산성 등에서 출토되었다. 환도산성 2호문지에서 출토된 유물의 시대가 궁전유적 출토 와당의 시기와 같아 그 연대를 407년~427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장군총 서남쪽 건축유적 출토품의 연대는 412년~

355) 姜賢淑, 2008, 「전 동명왕릉과 진파리 고분군의 성격 검토」, 『湖西考古學』, 18.

356) 진파리4호분의 연대에 대해서는 6세기 설(社団法人共通通信社, 2006, 『高句麗古墳壁畫』, 社団法人 共通通信社.), 6세기 초 설(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6세기 말 설(전호태, 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출판사.) 등이 있고 필자는 진파리4호분의 연대를 6세기 말로 추정한다.

427년이다. 대흑산산성의 Ab형 와당뿐만 아니라 착고의 형태와 무늬도 환도산성 궁전유적, 장군총 서남쪽 건축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비슷하다. 대흑산산성에서 卑沙銘, 畢奢銘 토기 파편이 발견되었다³⁵⁷. 『資治通鑒·권113·晉紀三十五』에: ‘東晉元興三年(404년) 冬十二月, 高句麗 侵燕.’의 기록에 따르면, 金毓黻³⁵⁸은 東晉 太元 10년(고국양왕2년, 385년) 6월에 고구려가 遼東郡과 玄菟郡을 점령하고 11월에 後燕이 다시 遼東郡과 玄菟郡을 회복하였으며 19년 후, 즉 元興 3년(광개토왕14년, 404년)에 遼東郡과 玄菟郡이 다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그때부터 668년까지 대흑산산성을 포함한 遼東郡과 玄菟郡지역이 고구려의 영역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대흑산산성 산성의 위치, 卑沙銘 토기 파편 등을 통해 볼 때, 대흑산산성이 고구려의 卑沙城일 가능성이 높다. 대흑산산성은 그 위치적 중요성 때문에 고구려가 이 지역을 함락시키고 건조한 군사 보루로, 출토된 와당의 무늬, 착고의 형태는 환도산성, 장군총 서남쪽 건축 유적의 출토품과 유사하고 그 연대는 광개토왕이나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전일 것이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면 대흑산산성의 Ab형 와당의 연대를 407년~427년으로 편년할 수 있다. B형 와당은 환도산성 궁전유적, 국내성에서 발견되었고 환도산성 궁전유적 출토품의 연대가 407년~427년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B형 와당의 편년에 적용한다. C형 와당의 무늬는 B형 와당과 비슷해 같은 연대로 설정한다. D형은 동대자유적, 집안 西岡, 온특혁부성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동대자유적 출토 와당의 연대가 407년~427년인 것이 있어 D형의 연대도 대체로 같을 것으로 본다. E형은 평양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연관이 9개가 있다. 이런 와당은 무간식 8연관 무복선연화문 와당의 B형(동대자유적 출토품)와당에 비해 변천 관계가 있고 연대가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된 와당보다 약간 늦다. 그러므로 E형은 평양 천도 이후 이른 시기로 편년한다. F형은 고이산성에서 출토되었고 연대는 隋唐시대로 편년한다. G형, H형, I형 와당은 평양 평천리, 평양성 등지에서 출토되었고 G형 와당의 연관, 지방 형태가 국내성지역 출토 와당과 비슷한데 국내성지역에서 똑같은 와당이 발견된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G형 와당의 시대를 국내성시대에 가까운 427이후, 6세기 이전으로 추정한다. H형, I형 와당 연관의 형태는 9연관 무복선연화문와당의 다른 종류와 다르고 연주문 형태와 위치 등이 G형 와당 및 토성리형 와당과 비슷해 6세기 말 이전으로 잠정 편년한다.

사. 10연관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성 등지에서 출토되었고 무늬가 일부 토성리형 연화문 와당과 비슷하기 때문에 상한은 평양천도(427년) 이후, 하한은 6세기 중엽으로

357)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編輯委員會, 2009,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 西安地圖出版社.

358) 金毓黻, 1971, 『东北通史』, (臺灣)樂天出版社.

잠정 편년한다.

아. 11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성, 평양 토성리 등지에서 발견되었고 무늬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 와당의 연판과 자방 형태가 국내성지역 일부 와당과 유사하므로 그 연대가 국내성시대와 가까울 것으로 보아 하한을 6세기 중엽으로 설정한다. B형 와당의 연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자방 형태가 A형 와당과 약간 유사해 역시 하한을 6세기 중엽으로 잠정 설정한다.

자. 12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 미산리, 안학궁 등지에서 출토되었고 무늬에 근거해 A형, B형, C형, D형으로 분류한다. A형 와당의 연판과 자방 형태는 국내성지역의 와당과 비슷하므로 하한을 6세기 중엽으로 설정한다. B형 와당은 안학궁에서 발견되었고 C형 와당의 연판 형태와 유사해 B형, C형 와당의 연대를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한다. D형 와당 연판의 형태는 C형과 비슷하고 'T'형 간식이 중국 隋唐時代 와당의 간식과 유사해 연대를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한다.

차. 15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성, 안학궁 등지에서 발견되었고 안학궁의 연대가 6세기 중엽 이후로 추정되는 것에 근거하여 이 형식의 와당의 연대도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한다.

(2) 복합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국내성과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 무늬의 조합 방식에 따라 연화문+연화문 복합연화문와당, 연화문+인동문 복합연화문와당, 연화문+귀면문 복합연화문와당, 연화문+인면문 복합연화문와당, 연화문+기타 문양 복합연화문와당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연화문+연화문 복합연화문와당의 편년

연화문의 구성에 따라 연판+연판 복합연화문와당, 연판+연봉오리형 연판연화문와당, 연판+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연판+인동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으로 세분할 수 있다.

가. 연판+연판 복합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지역 뿐만 아니라 고이산성, 용수산산성,

봉황산산성, 纓河尖古城, 흥련봉 제1보루에서도 발견되었다. 막새부의 연판 형태와 조합 방식에 따라 17가지로 나눌 수 있다.

A형은 환도산성과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되었다. 환도산성 궁전유적과 동대자유적 출토 와당의 연대는 407년~427년으로 추정되므로, A형 와당의 연대도 마찬가지로 설정한다. 용수산산성, 성자산산성, 봉황산산성, 纓河尖古城, 고이산성 등은 고구려 말기 서부의 중요 방어선으로, 隋唐時代에 고구려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B형~F형 와당의 연대는 隋唐時代로 편년한다.

Ib형, Q형 와당은 안학궁에서 출토되었고 Ia형 와당의 무늬가 Ib형 와당 무늬와 유사해 I형, Q형 와당의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로 추정된다. G형, H형 와당의 연판, 자방 형태가 일부 토성리형 와당과 비슷하므로 토성리형 와당의 연대에 따라 6세기 말 이전으로 편년한다. J형, K형, L형 와당의 연판 형태는 일부 안학궁 와당과 유사하므로 그 연대를 6세기 중엽 이후로 볼 수 있다.

M형 와당의 복판 형태는 단복선 6분식 일반연판 복선연화문와당의 D형 복판연화문과 유사하다. D형 와당의 연대가 6세기 말 이전으로 편년되므로 M형 와당의 연대도 똑같이 설정한다. N형, O형 와당 연판 형태는 일부 北魏 와당과 비슷해 6세기 중엽 이전으로 편년한다. P형 와당의 연판, 자방, 연주문의 형태는 국내성지역에서 출토된 일부 와당과 유사해 하한을 6세기 중엽으로 추정한다.

나. 연판+연봉오리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성, 평양 신리, 청암리, 상오리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A형 와당의 무늬는 內蒙古 托克托縣 雲中古城에서 출토된 北魏 와당의 무늬³⁵⁹⁾(도면 89-4)와 雲岡石窟 제30窟 窟頂의 연화문³⁶⁰⁾(494년 이후)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A형 와당의 연대는 5세기 말 후반이나 6세기 초(534년 이전. 534년에 北魏 멸망)로 추정된다. B형 와당의 연봉오리형 연판의 형태는 안악2호분 현실천정부의 연봉오리형 연판과 약간 유사하고, 연판 및 자방의 형태는 A형 와당과 비슷하다. 안악2호분의 연대는 대체로 5세기말~6세기초로 추정³⁶¹⁾되므로 B형

359)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陳永志 主編), 2003, 『內蒙古出土瓦當』, 文物出版社.

360) 雲岡石窟文物保管所 編著, 1994, 『中國石窟·雲岡石窟』(二), 文物出版社. 중국 학자 宿白의 연구 성과에 근거해 雲岡石窟 제30窟의 연대는 18년(494년) 이후로 설정하였다. 宿白, 1978, 「雲岡石窟分期試論」, 『考古學報』, 1.

361) 안악2호분의 연대에 관해 여러 관점이 있으나, 필자는 5세기 말~6세기 초 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안악2호분의 연대에 관해서는 5세기 중엽 설(강현숙, 1999, 「高句麗 石室封土 墓壁畫墳의 淵源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40.), 5세기 중엽~6세기 초 설(金基雄, 1980, 『朝鮮半島の壁畫古墳』, 六興出版.), 5세기 말~6세기 초 설(『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고감(5)·고구려편(3)』, 와국문중합출판사.), 6세기 초 전반 설(趙俊傑, 2009, 「4-7世紀 大同江, 載寧江流域封土石室墓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6세기 말 전반 설(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전호태, 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교출판

와당의 연대는 6세기말 이전일 것이다. C형 와당의 자방부 형태는 일부 토성리형 와당의 자방부와 유사하고 연판의 형태는 A형 와당과 비슷하다. 이를 고려하여 C형 와당의 하한은 6세기 말로 편년한다. D형, E형의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연판과 자방의 형태가 A형 와당과 유사해 6세기 말 이전으로 잠정 편년한다. 즉, 연판+연봉오리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의 연대는 6세기 말 이전으로 설정한다.

다. 연판+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중국, 북한, 남한에서 모두 발견되었고 수량과 형식이 다양하다. 막새부의 연판 조합 방식에 근거해 4연판+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5연판+5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6연판+6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으로 분류한다. 또한 4연판+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꽃술형 연판 가운데에 있는 연판의 수량에 따라 5꽃술, 4꽃술, 3꽃술, 2꽃술, 1꽃술 4연판+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중국의 연판+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은 灤河尖古城과 고이산성에서 출토되었다. 모두 6연판+6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에 속하고 시대는 隋唐時代로 추정된다. 평양지역에서는 4연판+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5연판+5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이 발견되었다. 鄭昌熙³⁶²⁾는 한반도에서 출토된 4연판+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을 검토해 연대를 3단계로 나뉘, 5세기 초 후반에서 5세기말 전반에 이 와당이 등장하며, 5세기 말 후반부터 6세기 초 전반에 확산되었고, 6세기 중엽 이후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연판+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의 변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늬의 조합 등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분류가 가능하다. 처음에는 4연판+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이 등장하였고, 다음에 5연판+5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이, 마지막으로 6연판+6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이 유행하였다.

둘째, 각 단계의 꽃술형 가운데에 있는 꽃술의 수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여 처음에는 5개였던 꽃술의 수량이 마지막에는 1개만 남았다.

셋째, 주연부와 인접한 연판 일단의 형태는 弧形에서 ‘^’형이나 ‘∧’형과 비슷한 형태로 변한다. 臺灣故宮博物院에 소장된 龍虎蓮花紋銅壺의 저부에 16개의 연판이 있고 연판의 형태는 5꽃술 4연판+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Ca형, Cb형 와당과 유사하며 연판 가운데에 꽃술의 수량도 5개다. 梅原末治³⁶³⁾는 이

사.)등이 있다.

362) 鄭昌熙, 2010, 「平壤出土の高句麗蕊附蓮蕾瓦當の分類と編年」, 『地域発表及び初期須惠器窯の諸様相』(第22回東アジア古代史・考古学研究会交流会 予稿集), 大阪朝鮮考古学研究会.

363) 梅原末治, 1969, 「戰國時代之銀錯文鐵壺・魏晉之龍虎蓮花紋銅壺與金造耳飾」, 『故宮季刊』, 권3

銅壺의 무늬 검토를 통해 이 양식이 늦어도 육조 초기나 중기에 유행하였을 것으로 보고 魏晉時代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2꽃술 4연판 + 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Ba형 와당은 꽃술이 2개가 있는데, 이 연판과 비슷한 무늬로는 龍門石窟 古陽洞 북벽의 상부에 위치한 長樂王穆陵亮夫人尉遲造像龕 본존의 背光에 그려진 연화문이 있다. 古陽洞 북벽에 있는 魏靈藏碑 명문에 따라 이 본존의 연대를 北魏 太和 19년(495년)³⁶⁴)으로 추정할 수 있다. 5꽃술 4연판+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Ca형, Cb형 꽃술형 연판과 비슷한 형태는 고구려 용강대총(즉 안성동대총, 安城洞大塚. 진지동2호분, 眞池洞二號墳)에서 찾을 수 있다. 용강대총의 연대가 5세기 중엽~5세기 말³⁶⁵)로 추정되므로 4꽃술형 연판은 이른시기부터 고구려지역에 등장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Ca형, Cb형 와당의 하한은 5세기 말일 가능성이 높다.

홍련봉 제1보루에서 발견된 4연판 + 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의 주연부와 인접한 꽃술형 연판의 형태는 ‘^’형이므로 유형변화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홍련봉 제1보루에서 ‘庚子’명(520년) 접시도 발견되어 이 유형의 와당은 520년을 중심으로 고구려 남진기에 사용되었고, 형태에 따라 520년 이후에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출토된 4연판+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5연판+5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의 연대 하한은 6세기 말 이전으로 편년할 수 있다.

라. 연판+ 인동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성, 평양 평천리, 대성산성 등지에서 출토되었고 연판 가운데 인동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동형 연판의 형태는 무령왕릉 은제오각형장식(하한 529년으로 추정) 무늬(도면 89-1)와 陝西 安康 梁武帝 天監 5년(506년)무덤의 벽돌 무늬³⁶⁶) (도면 89-2)와 유사하다. Cd형 와당은 간식 밖에 鋸齒紋이 있는데, 南京 太平門東側, 毗盧寺東側, ‘楊吳城塚’ 근처에서 출토된 와당 막새부에도 비슷한 문양이 있다. 남경 출토 와당의 연대는 남조 劉宋 大明시기(457~464년)³⁶⁷)로 추정되고, Cd형 와당의 연대도 대체로 비슷할 것이다. 그러

제3집, 臺灣國立故宮博物院.

364) 李文生, 1991, 「龍門石窟北朝主要洞窟總叙」, 『中國石窟·龍門石窟』(一), 文物出版社.

365) 용강대총의 시대에 대한 5세기 초설(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5세기 중엽설(朝鮮画報社出版部, 1985, 『高句麗古墳壁畫』, 朝鮮画報社. 국립중앙박물관, 2006, 『고구려 무덤벽화-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모사도』, 국립중앙박물관.), 5세기 말설(趙俊傑, 2009, 「4-7世紀大同江, 載寧江流域封土室墓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5세기 말 전반설(전호태, 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출판사.)등이 있으나 필자가 그 연대는 대체로 5세기 중엽~말로 편년한다.

366) 安康市歷史博物館, 2008, 「陝西安康市張家坎南朝墓葬發掘紀要」, 『華夏考古』, 3.

367) 賀雲翱, 2005, 『六朝瓦當與六朝都城』, 文物出版社.

므로 연판+ 인동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의 연대는 6세기 말 이전으로 편년한다.

② 연화문+ 인동문 복합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성, 평양 토성리, 경상리, 정릉사지 등지에서 발견되었고 인동문의 형태와 막새부 무늬의 배치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으로 분류한다. A형 와당의 연대는 평원왕 28년(586년)에 평양성으로 천도한 이후로 추정된다³⁶⁸⁾. B형 와당의 무늬는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 절골유적에서 출토된 일부 발해 와당 무늬³⁶⁹⁾(도면 89-3)와 비슷해 연대를 고구려 말기로 편년하고 대체로 6세기 중엽 이후로, C형 와당은 7세기로 설정한다³⁷⁰⁾. D형 와당 무늬, E형 와당의 연판과 자방 형태는 C형 와당과 유사하므로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한다. 즉, 연화문+ 인동문 복합연화문와당의 연대는 대체로 6세기 중엽 이후로 추측된다.

③ 연화문+ 귀면문 복합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성, 평양 토성리 등지에서 출토되었고 연판 형태가 일부 안학궁 와당의 연판과 비슷하다. 귀면문의 형태는 반와당의 귀면문과 유사하고 반와당의 연대는 대체로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되므로(반와당의 연대 부분을 참고한다) 이 형식의 연대 또한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한다.

④ 연화문+ 인면문 복합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 장수원리에서 한 점만 발견되었다. 비슷한 인면문이 없어 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으나, 연판의 형태가 일부 발해 연화문와당의 연판과 유사하므로 6세기 중엽 이후로 잠정 편년한다.

⑤ 연화문+ 다른 문양 복합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고이산성과 靺河尖古城,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 무늬의 조합 방식에 근거해 A형, B형, C형을 나눌 수 있다. A형 와당은 고이산성, Bab형 와당은 靺河尖古城에서 발견되었다. 고이산성과 靺河尖古城 출토 와당의 연대는 대체로 隋唐時代로 추정되므로 이 유형 역시 隋唐時代로 편년한다. 평양성의 Bb형 와당 무늬는 靺河尖古城에서 출토된 이 형식의 와당과 비슷하고 전 평양지역의 C형 와당 무늬가 고이산성에서 출토된 이 형식의 와당과 유사하므로 연대 또한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연화문+ 다른 문양 복합연화문와당

368) 關野貞, 1928, 「朝鮮三國時代瓦當」, 『世界美術全集』(第六卷), 平凡社.

369)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1, 『조선유적유물도감(8)·발해의 유적과 유물』, 외국문중합출판사.

370) 金希燦, 2010, 「복합 인동이 표현된 고구려 와당의 문화적 성격」, 『白山學報』, 85, 백산학회.

의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일 것이다.

(3) 다층 연판연화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연판의 형태, 조합 형식 등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 E형으로 나눌 수 있다. B형 와당과 비슷한 무늬는 龍門石窟 蓮花洞과 皇甫公洞의 窟頂에서 발견되었다. 蓮花洞의 명문에 따라 北魏 蓮花洞의 연대는 521년 이전부터 533년까지로 추정된다³⁷¹⁾. 皇甫公洞 앞에 있는 ‘太尉公皇甫公石窟碑’의 명문 ‘大魏孝昌三年歲次丁未九月十九日’에 따라, 皇甫公洞의 연대는 527년 9월 이전으로 보인다³⁷²⁾. B형 와당의 연대는 龍門石窟 蓮花洞과 皇甫公洞의 시대와 대체로 비슷할 것이다. 蓮花洞 窟頂 연화문의 연판 수량은 14개고 B형 와당 연판의 수량은 8개이므로 B형 와당의 연대가 蓮花洞 窟頂의 연화문 연대보다 빠를 수도 있다. 때문에 B형 와당의 연대를 6세기 초로 설정한다. C형 와당은 자방부 주변에 톱날 문양과 비슷한 무늬가 1줄 있고 이런 무늬가 백제 부소산성, 정림사지, 미륵사지 등의 유적에서도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자방 형태와 자방부 주변의 무늬가 미륵사지 출토 녹유연목와의 자방부 및 주변 문양과 매우 비슷하다. 『三國遺事』에 무왕대에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기록³⁷³⁾과 2009년 미륵사 석탑 심초부에서 확인된 사리기와 사리봉안기 등을 토대로, 미륵사 석탑이 백제 무왕 40년(639년)에는 砂宅王后에 의해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C형 와당의 연대를 7세기 초로 편년한다. A형, D형, E형 와당의 연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나 무늬 구조, 자방부의 형태가 B형 와당과 유사해 연대도 6세기 초로 잠정 편년한다.

3) 인동문와당의 편년의 편년

인동문와당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지역에서 출토되었고 무늬의 조합 형식을 기준으로 단일 인동문와당과 복합 인동문와당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성에서는 단일 인동문와당만 발견되었고 평양지역에서는 단일 인동문와당과 복합 인동문와당이 모두 출토되었다.

(1) 단일문양 인동문와당의 편년

단일 인동문와당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성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인동문의 수량과

371) 李文生, 1991, 「龍門石窟北朝主要洞窟總叙」, 『中國石窟·龍門石窟』(一), 文物出版社.

372) 馬世長, 1991, 「龍門皇甫公窟」, 『中國石窟·龍門石窟』(一), 文物出版社.

373) 『三國遺事·권2·武王』:「第三十武王, 名璋. ……一日, 王與夫人, 欲幸師子寺, 至龍華山下大池邊, 彌勒三尊出現池中, 留駕致敬. 夫人謂王曰: 須創大伽藍藍於此地, 固所願也. 王許之. 詣知命所 問填池事, 以神力一夜頽山填池為平地. 乃法像彌勒三, 會殿塔廊廡各三所創之, 額曰彌勒寺(國史雲王興寺).」

방향 등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분류한다. A형, Ba형, Bb형, Bc형, Bb형 와당은 동대자유적과 환도산성 궁전유적, 국내성 등에서 출토되었고 막새부에 인동문이 여덟 개가 있다. 환도산성 궁전유적은 광개토왕 17년(407년)에 토대를 다시 선택하고 수선한 궁전유적이고 와당의 연대는 407년~427년으로 추정된다. 동대자유적은 광개토왕대에 수선한 사직과 종묘 유적이고 427년 고구려 평양 천도 이후에 점차 폐기되었을 것이며 와당의 연대 하한은 427년으로 설정한다.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된 일부 연화문와당, 귀면문와당의 무늬는 환도산성 궁전유적의 출토품과 같거나 유사해 연대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성유적에서 출토된 인동문와당(Bb형)의 무늬는 동대자유적 출토 인동문와당(Bc형)과 비슷해 연대도 대체로 같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내성지역에서 발견된 인동문와당(A형, Ba형, Bb형, Bc형, Bb형)의 연대를 407년~427년으로 편년한다. Bf형, Bg형 와당의 인동문은 龍門石窟 蓮花洞의 인동문, 진파리1호분 천정부의 인동문과 유사하다. 蓮花洞의 명문에 따라 北魏 蓮花洞의 연대는 521년 이전부터 533년까지로 추정되고³⁷⁴⁾ 진파리1호분의 연대는 6세기 말 이전으로 추정되므로³⁷⁵⁾ Bf형, Bg형 인동문와당의 연대 또한 6세기 말 이전일 것이다. C형 와당의 인동문은 부여 군수리절터에서 발견된 벽돌의 인동문과 비슷하고 군수리절터의 연대는 대체로 6세기 중엽 경으로 편년된다. 그러므로 B형 인동문와당의 연대 역시 대체로 6세기 말 이전일 것이다.

(2) 복합문양 인동문와당의 편년

복합 인동문와당이란 막새부에 2가지 형태의 인동문이 있는 유형으로, 평양성에서 발견되었다. 인동문의 형태와 조합 방식에 근거해 A형, B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복합 인동문의 일부 인동문은 형태가 좁고 길며 소나무와 유사하다. 이런 인동문의 형태는 연화문+인동문 복합연화문와당 C형, D형과 유사해 비슷한 시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화문+인동문 복합연화문와당 C형과 D형의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된다.

인동문와당은 광개토왕 17년(407년)에 등장한 것이고 6세기 중엽 이후에 계속 사용하였다. 즉, 국내성지역의 단일 인동문와당의 연대는 407년~427년, 평양지역의 단일 인동문와당의 연대는 427년 이후~6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며 평양지역의 복합 인동문와당의 연대는 6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인동문와당의 변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동문의 무늬에 따라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407년경~427년으로 편년되고 인동문와당의 인동문이 여덟 개와 여섯 개가 있다. 제2단계는

374)李文生, 1991, 「龍門石窟北朝主要洞窟總叙」, 『中國石窟·龍門石窟』(一), 文物出版社.

375) 전호태, 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출판사.

427년 이후 6세기 말 이전으로 보이고 인동문이 여섯 개와 네 개가 있다. 제1단계, 제2단계에서는 단일 연화문와당만 관찰된다. 제3단계는 6세기 중엽 이후이고 복합 인동문와당만 있으며 문양은 4인동문+4인동문이다.

둘째, 6세기 말 이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동문의 수량이 점차 적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국내성시대 A형 와당의 시대는 B형 와당의 연대보다 빠르고 평양성시대 B형 와당의 연대도 C형 와당의 연대보다 이른다. 6세기 중엽 이후에는 단일 인동문와당은 사라지고 복합인동문와당이 등장하였다.

셋째, 시간에 따라 인동문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천하였다. 국내성시대 인동문와당의 인동문의 방향은 모두 왼쪽이고, 일부 인동문의 형태는 세장하며, 다른 것은 비대한데, 이는 시대성이 아니라 지역성을 반영한다. 평양성시대 단일인동문와당의 인동문의 방향은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있다. Be형 와당의 인동문의 방향은 왼쪽이고 Bf형, Bg형 와당 인동문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C형 와당의 연대는 Be형, Bf형, Bg형 와당보다 늦어 Be형 와당의 연대가 Bf형, Bg형 와당보다 빠를 것으로 추정된다.

4) 귀면문와당의 편년

귀면문와당은 국내성지역과 평양성지역에서 출토되었고 입과 주름의 형태, 이의 수량 등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G형, H형, I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E형은 국내성지역의 환도산성과 궁전유적, 동대자유적, 국내성유적 등에서 발견되었다. 국내성지역 환도산성과 궁전유적, 동대자유적에서 발견된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의 연대는 407년~427년으로 추정되고 국내성지역의 귀면문와당의 연대도 407년~427년으로 편년한다. 국내성지역 귀면문와당의 중요한 특징은 입 형태가 ㅼ자형이라는 점이다.

평양지역 귀면문와당(F형-I형)은 정릉사지, 평양 청암리, 청암리절터, 상오리, 酒巖里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F형-I형 귀면문와당의 입 형태도 ㅼ자형이고 이 특징은 국내성시대 귀면문와당과 비슷해 비슷한 시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F형 귀면문와당의 입 형태는 倒置梯形이지만 약간 ㅼ자형적인 특징이 있으며 코와 눈 등은 국내성시대 귀면문와당의 무늬와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므로 평양성지역에서 발견된 귀면문와당의 연대는 6세기 말 이전으로 편년한다. 귀면문와당의 연대는 광개토왕 17년(407년)부터 6세기 말 이전으로 추정되고, 그 변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 형태는 시간에 따라 ㅼ자형에서 倒置梯形으로 변하였다. 국내성시대 귀면문와당의 입 형태는 모두 ㅼ자형 이고 평양성시대에 G형, I형 와당의 입 형태가 ㅼ자형이며 H형 귀면문와당의 입 형태도 대체로 ㅼ자형이다. F형 와당의 입 형태는 도치제형이며, 때문에 평양성시대 G형, H형, I형 와당의 연대가 F형

와당보다 빠를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시간이 지날수록 굽이 사라져 국내성시대 일부 귀면문와당에만 설이 있다. 평양성시대 귀면문은 모수 설이 없으므로, 국내성시대에 설이 있는 귀면문와당의 연대는 설이 없는 와당보다 이르고 설이 큰 귀면문와당의 연대가 설이 작은 귀면문와당보다 빠르다.

셋째, 이의 수량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적어졌다. 국내성시대 귀면문와당의 이의 수량은 10, 12, 13개고 평양성시대 대부분 귀면문와당의 이의 수량은 10개다. 국내성시대 와당의 설과 이의 변천 관계가 대응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5) 법륜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성, 평양 토성리, 장수산성 외곽, 대성산성 등지에서 발견되었고 무늬에 근거해 A형, B형, C형, D형을 분류한다. Ab형 와당의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로 추정된다³⁷⁶⁾. Bb형, Bc형 와당의 무늬는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 절골유적에서 출토된 일부 발해 와당 무늬(도면 89-5)와 유사하다³⁷⁷⁾. A형의 무늬는 또한 고구려 말기 서부 방어선에 위치한 고이산성에서 출토된 연화문 + 다른 문양 복합연화문와당의 문양과 유사하다. C형, D형 와당은 자방부에 연자문이 있고 隋唐時代 연화문와당의 자방부와 비슷하다. 이를 고려하여 법륜문와당의 연대를 6세기 중엽 이후로 잠정 편년한다.

6) 중권문와당의 편년

이 형식의 와당은 평양지역에서 한 점만 발견되었고 원형 자방 밖에 권선 몇 줄이 있다. 집안 환문총과 진파리4호분에서 비슷한 무늬가 있다. 집안 환문총의 연대는 5세기초 후반로 보이고³⁷⁸⁾ 진파리4호분의 연대는 5세기 말 이전으로 편년되므로³⁷⁹⁾ 중권문와당의 연대를 6세기 말 이전으로 편년한다.

7) 인면문와당의 편년

인면문와당은 봉황산산성에서 한 점만 출토되었다. 고구려 서부 방어선에 위치한 봉황산산성, 고이산성 등에서 와당이 등장한 이유는 隋唐時代의 전쟁때문이

376) 関口広次, 1977, 「古代朝鮮における古瓦文様の系譜とその展開(2)」, 『月刊考古学ジャーナル』, 7.

377)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1, 『조선유적유물도감(8)·발해의 유적과 유물』, 외국문중합출판사.

378) 전호태, 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출판사.

379) 진파리4호분의 연대는 5세기말 전반설 (전호태, 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출판사.), 5세기 말 이전설(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등이 있다. 필자가 진파리4호분의 연대는 늦어도 6세기 말 이전으로 보인다.

다. 그러므로 고구려 인면문와당의 연대는 隋唐時代로 편년한다.

8) 연주문와당의 편년

연주문와당은 靉河尖古城에서 한 점이 발견되었다. 시대는 봉황산산성 출토 인면문와당의 연대와 대체로 같다. 연주문와당의 무늬가 고이산성에서 출토된 일부 隋唐時代의 연화문와당과 비슷하므로 연주문와당의 연대도 隋唐時代일 것이다.

9) 기타 와당의 편년

이 형식 와당은 수량이 많고 평양성, 평양 토성리, 토성리성지, 평천리, 서성리, 청호리, 鏡齊里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A형 와당 막새부에는 작은 인동문이 있고 이 무늬는 복합인동문와당 B형 와당의 일부 인동문과 비슷하다. 복합 인동문와당 B형의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이므로 이 유형의 A형 와당의 연대도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한다. B형, C형, D형, K형, L형 와당의 연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나 6세기 말 이전에 있는 와당 중에는 비슷한 무늬가 없어 6세기 중엽 이후로 잠정 편년한다. G형, H형 와당의 무늬는 안학궁 및 평양에서 출토된 암막새 무늬와 유사하다. 안학궁의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로 보이므로 G형, H형 와당의 연대도 같을 것이다. F형 와당의 연대는 평원왕 28년(586년) 평양성으로의 천도 이후, 즉 6세기 중엽 이후로 추정된다. E형 와당의 자방 형태, 문양 조합 등은 F형 와당과 유사하므로 연대도 비슷할 것이다. I형 와당의 무늬는 반와당의 K형 막새부 무늬와 비슷하다. 반와당의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해 I형 와당의 연대도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한다. J형 와당의 복선 무늬는 법륜문와당의 Ab형과 유사해 역시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한다. 그러므로 다른 문양 와당의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였을 것이다.

2. 반와당의 편년

반와당은 형태에 따라 大半圓形 반와당과 小半圓形 반와당으로 나눌 수 있다. 大半圓形 반와당의 B형 와당은 연화문+연봉오리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의 B형 와당 무늬와 대체로 같다. A형 와당의 인동문은 Bf형, Bg형 인동문와당의 인동문과 비슷하다. 연화문+연봉오리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B형, Bf형, Bg형 인동문와당의 연대는 6세기 말 이전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大半圓形 반와당의 연대는 6세기 말 이전으로 편년할 수 있다.

小半圓形 반와당의 A형은 와당 가운데에 摩尼寶珠무늬가 있고 양쪽에 인동문이 있다. 이 摩尼寶珠무늬는 北齊시기(550~577년)의 摩尼寶珠형태와 유사하다.

B형 와당은 가운데에 연판이 있고 양쪽에 인동문이 있으며 연판의 형태는 일부 발해 연화문와당의 연판과 비슷하다. A형, B형 와당 양쪽의 인동문은 진파리4호분의 인동문과 약간 유사하고, 진파리4호분의 연대는 6세기 말로 추정된다³⁸⁰⁾. C형 와당은 가운데에 반구형 자방이 있고 자방 밖에 수선대로 연판, 인동문이 있으며 인동문의 형태는 강서중묘 벽화중의 인동문(도면 89-6)과 비슷하다. 강서중묘의 연대는 대체로 6세기말로 보인다³⁸¹⁾. 다른 형식의 반와당의 연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고구려 반와당은 6세기 중엽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므로³⁸²⁾ 小半圓形 반와당의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한다.

3. 고구려 와당의 분기와 변천

지금까지 형식과 지역별로 고구려 와당의 연대를 살펴보았다. 고구려 와당, 특히 1945년 이전에 발견된 많은 와당은 과학적 발굴조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인 수집품으로, 층위관계 뿐만 아니라 출토 지점도 확인할 수 없는 개체들이 많다. 한편, 토기와 고분의 연대는 고구려 와당 편년 연구에 중요한 기준이 되나, 고구려 토기와 고분의 편년 간 차이가 크다. 또한 고구려 와당의 등장시간 뿐만 아니라 변천과정 및 기간에 대해서도 여러 관점이 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고구려 와당의 편년을 설정하기 전에 고구려 와당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첫째,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의 조영순서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 천추총이 조영된 뒤, 다음에 태왕릉, 마지막에 장군총이 등장하였다. 천추총의 피장자가 고국양왕, 태왕릉의 피장자는 광개토왕이며, 장군총은 장수왕의 허릉이고 평양 천도로 인해 폐기되었다.

둘째, 태왕릉 ‘永樂’명 수키와의 명문은 ‘…樂浪趙將軍…’, ‘…丁未在永樂…’으로 광개토왕 17년(丁未년, 407년)에 천추총을 수습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추총에서 발견된 연화문와당의 연대는 407년경이고 태왕릉 연화문와당의 시대보다 빠르다. ‘永樂’명 수키와 및 천추총의 연화문와당은 광개토왕대 천추총을 수습할 때 사용한 건축 재료이다. 태왕릉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 연대는 407

380) 전호태, 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출판사.

381) 쌍영총의 연대는 6세기말 설(전호태, 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출판사.), 6세기 말 후반 설(趙俊傑, 2009, 「大同江流域高句麗封土石室墓等級與階層-兼談高句麗後期王陵의推定」, 『高句麗渤海研究』, 35, 學研文化社.), 7세기 초설(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등이 있다.

382) 井内潔, 1976, 「高句麗の半瓦当屋瓦」, 『井内古文化研究室』, 15, 井内古文化研究室.

년 이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하한은 414년으로 광개토왕의 시신과 유골을 수습하여 묻은 때이다.

셋째, 환도산성 궁전유적은 광개토왕17년(407년, 『三國史記·권18·광개토왕본기』:‘十七年, 春二月, 增修宮闕.’)에 토대를 다시 선택하고 수습한 궁전유적으로 추정되며 평양천도 이후에 점차 폐기되어 와당의 연대 하한은 427년일 것이다.

넷째, 동대자유적은 고국양왕 8년(391년) 3월에 왕명을 받들고 창건한 사직과 종묘유적이었으나, 그 해 5월에 고국양왕이 사망하여 토목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 광개토왕이 재위한 뒤, 궁궐(환도산성 궁전유적) 및 사직과 종묘를 모두 수선하였다. 평양천도 이후 평양지역에 사직과 종묘를 다시 창건하여 국내성지역의 사직과 종묘(동대자유적)는 점차 폐기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와당의 연대 하한은 427년이다.

다섯째, 중국의 『高僧傳』이나 한국의 『鳳巖寺智証大師寂照塔碑』와 같은 문헌사료 및 한반도에서 출토된 불상을 통해, 東晉 太元 말(390~396년)에 後秦 曇始가 고구려에 도착함으로써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에 曇始는 關中지역에서 육로로 출발하여 遼西지역, 遼東지역을 거쳐 고구려지역에 도착하였고, 義熙(405~418년) 초에 曇始는 다시 關中지역으로 돌아갔다.

여섯째, 冬壽墓 연화문은 불교가 고구려로 전파된 것과는 관계가 없는, 단순 벽화장식무늬이다. 冬壽墓 연화문과 관련된 문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冬壽墓 연화문의 검토보다는 冬壽의 坐帳에 위치한 형상과 이런 벽화 형상의 밑그림 등이다. 冬壽의 坐帳에 위치한 형상과 坐帳 위에 있는 연화문 장식 등은 遼西지역 魏晉十六國시대 벽화분의 밑그림을 이용하고 있으며, 피장자의 신분에서 따라 그림요소를 선택하고 재조합하였다. 冬壽와 부인의 坐帳에 위치한 형상은, 고대 벽화 밑그림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재료를 제공하였다.

다섯째, 안학궁 및 안학궁3호분에서 발견된 반경호, 와당, 암막새, 초석과 문헌자료 등을 통해, 안학궁은 고구려 궁전유적이며,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부터 고구려 멸망까지임을 밝혔다. 반경호는 신라계토기로 연대가 6세기 중엽으로 비정되므로, 안학궁의 연대가 6세기 말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안학궁에서 출토된 와당, 암막새의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로 보인다.

국내성지역에서는 권운문와당, 연화문와당, 귀면문와당, 인동문와당이 모두 발견되었다. 권운문와당은 국내성지역에서만 출토되었고 명문의 유무에 근거해 명문 권운문와당과 무명문 권운문와당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명문 권운문와당은 명문의 내용에 따라 연호명문 권운문와당과 간지명문 권운문와당, 일반명문 권운문와당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연호명문 권운문와당은 ‘太寧四年’(326년)명과 ‘太寧□年’(323~326년)명만 있어 고구려 연호명문 권운문와당은 323년부터 326년까지,

‘太寧’연간에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연호명문 권운문와당은 고구려 미천왕대(300~331년)에 출현하고 미천왕대만 사용되었다. 간지명문 권운문와당은 ‘乙卯年’명(JYM3319, 355년)과 ‘丁巳’명(JYM3319, 357년), ‘己丑年’명(JYM500, 서대묘. 麻綾中學校 서북쪽. 329년), ‘戊戌年’명(JYM992, 338년)명 등이 발견되어 그 유행 연대는 4세기 초 후반부터 4세기말 전반 까지다. 즉, 간지명문 권운문와당은 미천왕대(300~331년)에 등장하고 고국원왕대(331~371년)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일반 명문 권운문와당은 두 점의 파편만 있는데, 하나는 JYM3319의 출토품이며 연대가 355년이나 357년을 중심으로 4세기 중엽인 것이다. 梨樹園子南유적 출토품의 연대도 마찬가지이다. 즉, 일반 명문 권운문와당은 고국원왕대(331~371년)에 사용하였다. 무명문 권운문와당의 연대를 연구할 때 절대 연대와 관련된 유물은 없으나, JMM2100과 천추총의 출토품을 정리한 결과, 무덤의 사용 연대는 소수림왕대(371~384년)와 고국양왕대(384~391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성지역에서 407년경~427년에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 귀면문와당 등이 등장하였고 대흑산상성 및 온특혁부성에서 이 시기의 연화문와당도 발견되었다. 천추총의 ‘永樂’명 수키와, 환도산성 궁적유적의 연대추정 등을 통해, 늦어도 407년에 고구려 연화문와당이 출현하고 인동문와당, 귀면문와당의 등장 연대도 대체로 같다고 볼 수 있다. 撫順地區, 鉄嶺地區, 鞍山地區, 鳳城地區, 大連地區, 延邊地區, 遼源地區 등에서 연화문와당, 인면문와당, 연주문와당 등이 발견되었다. 이런 지역의 와당의 출현이 고구려 말기에 隋唐의 전쟁과 관계가 밀접해 그 연대는 隋唐시대로 추정된다.

북한에서 발견된 와당은 수량과 형식이 매우 많고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 귀면문와당을 제외한 법륜문와당, 중권문와당, 그리고 기타 와당도 출토되었다. 단일인동문와당, 귀면문와당, 중권문와당의 연대는 6세기 말 이전으로 편년한다. 복합인동문와당, 법륜문와당의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한다. 연화문와당의 편년은 매우 복잡하고, 일부 와당의 연대는 6세기 말 이전으로 편년되며 안학궁 출토품을 비롯한 다른 와당의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된다.

남한지역 흥련봉 제1호 보루에서 ‘庚子’명 접시가 발견되었고, 고구려가 한강유역에 진출한 역사에 근거해 와당의 연대는 6세기 말 이전으로 설정한다. 백제, 신라 연합군은 백제 한성 등 한강유역 영역을 회복하였고 고구려의 남부 방어선이 임진강유역에서 퇴각하면서 임진강 북쪽에 위치한 호로그루의 중요성이 급증하였다.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유물 중 隋代 五銖錢이 있고 호로그루 연화문와당의 무늬는 충주지역에서 발견된 신라 연화문와당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의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한다.

본 논문에서 일부 고구려 와당의 편년을 설정할 때 중국 北朝, 隋唐, 발해 와당의 무늬와 대비하고 연대를 잠정 편년하였다. 특히 북한지역에서 출토된 일부

와당의 편년 결과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이후에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형식별 고구려 와당의 연대를 바탕으로 고구려 와당의 변천과정은 크게 4기로 나눌 수 있다.

I기는 ‘太寧四年’(326년)경부터 고국양왕대(384~391년)경까지이고 천추총(고국양왕의 왕릉)에서 발견된 일부 권운문와당의 연대 하한은 393년(광개토왕 3년)이다. 이 시기에는 국내성지역에서만, 권운문와당만 확인되며, 명문의 유무와 내용에 따라 연호명문 권운문와당과 간지명문 권운문와당, 일반명문 권운문와당, 그리고 무명문권운문와당 네 가지로 분류한다.

II기는 407년경부터 427년까지로, 국내성을 비롯한 大連지역(대흑산산성), 延邊지역(온특혁부성)에서 고구려 와당이 발견되었다. 국내성지역의 국내성유적, 환도산성 및 궁전유적, 동대자유적, 梨樹園子南유적, 장군총 서남쪽 건축유적,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서대묘, 장천2호분 등에서 고구려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 귀면문와당, 복합문양(연판+연판) 연화문와당이 출토되었다. 대흑산산성과 온특혁부성에서 출토된 연화문와당 입연판연화문와당의 무늬는 국내성에서 출토된 와당과 비슷하므로 동일한 시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국내성지역에서 와당의 무늬, 색깔은 유적 성격의 관계와 밀접하다. 즉, 고분이나 고분과 관련된 건축유적에서 출토된 와당은 연화문와당만 있고 생활유적에서는 연화문와당과 더불어 귀면문와당, 인동문와당도 발견되었다. 고분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와당의 색깔은 적색계이고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대부분 와당의 색깔은 회색계이다.

III기는 427년 이후부터 6세기 말 이전으로 설정한다. 이 시기 와당의 중요한 특징은 수량과 무늬가 다양하고 특히 많은 복합 문양 와당이 등장하였다는 사실이다. 출토 지점은 평양성을 비롯한 북한지역과 남한 홍련봉 제1보루 등이다. 고구려는 평양천도로 인해 국내성의 지위와 역할이 약화되었다. 때문에 국내성지역에서 고구려 와당이 점차 사라졌다고 추정된다. 토성리에서 발견된 와당의 특징은 국내성지역 연화문와당과 비슷하나 독특한 점이 있으므로 토성리형 와당으로 따로 설정한다. 토성리형 와당, 국내성지역 와당의 무늬, 중국 北魏와 비슷한 북한지역의 와당 연대는 6세기 말 이전으로 편년한다. 한편, 남한 홍련봉 제1보루에서 ‘庚子’명(520년) 접시가 발견되어 홍련봉 제1보루 연화문와당의 연대는 6세기 말 이전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반와당은 그 형태가 대부분 大半圓形 반와당이며, 일부 大半圓形 반와당은 원형와당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IV기는 6세기 중엽 이후부터 고구려가 멸망(668년)까지다. 중국에서 발견된 이 시기의 와당이 출토되는 유적으로는 고구려 서부 방어선에 위치한 고이산성, 봉황산산성, 靉河尖古城 등이 있다. 북한지역에서는 안학궁유적이 있고, 여기에서 출토된 와당의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로 추정된다. 남한 호로그루에서 발견된 와당은 충주지역 신라 와당과 비슷하고 隋代 五銖錢도 출토되었으며 당시 한반

도의 역사등을 고려하였을 때, 호로고루 고구려 와당의 연대는 6세기 중엽 이후로 보인다. 또한, 小半圓形 반와당은 6세기 중엽 이후에 등장하였다.

VI. 맺음말

고구려 와당은 고구려시대의 중요한 유물이다. 현재 고구려 고고학의 중요한 토기와 고분의 편년은 그 차이가 크다. 일부 고구려 와당의 경우 막새부에 연호나 간지 명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편년을 할 수 있다. 이런 편년과 고구려 주요 유적, 고분, 역사 사건 등의 연대를 바탕으로 고구려 와당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고구려 와당의 연구사의 시대구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1870년대~1945년인데, 이 시기에는 고구려 와당의 발견자는 대부분 일본 학자이며 연구자도 주로 일본학자였다. 그러나 고구려 와당에 대한 전문적 논문이나 전문서가 없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자료 수집과 개괄적 정리에 불과하였다. 제2단계는 1946년~1979년인데, 이 시기에도 여전히 고구려 와당의 연구자는 주로 일본 학자였으나 중국, 북한과 한국학계에서도 고구려 와당에 대한 연구가 점점 많아졌다. 제3단계는 1980년~현재까지로, 일본 학자의 논문이나 1945년 이전 수집된 고구려 와당에 대한 도록이 많이 축적되었고, 중국, 북한과 한국학자들의 연구성과도 점점 많아졌다. 고구려 와당에 관한 새로운 자료 발표와 도록의 출판은 이 단계의 중요한 특징이다.

고구려 와당은 중국, 북한, 남한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고구려 와당이 출토된 유적으로는 중국에는 국내성지역, 撫順地區, 鉄嶺地區, 鞍山地區, 鳳城地區, 大連地區, 延邊地區, 遼源地區 등이 있고, 북한에는 평양성, 대성산성, 안학궁, 정릉사, 토성리성지, 청암리토성, 평안남도과 황해남도 등의 유적이, 그리고 남한에는 흥련봉 제1보루, 호로고루 등의 유적이 있다.

고구려 와당의 제작 방법을 연구할 때 瓦當模, 瓦當范, 와당의 제작, 연결방법, 고구려 와당의 靑靱技術 등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일부 와당의 막새부에 남은 나이트 등의 흔적에 근거해 고구려는 나무로 만든 瓦當范을 사용하였음을 밝혔고 대량의 同范瓦當도 확인하였다. 와당의 제작과 연결 방법은 對接法, 半套接法, 套接法이 있으며, 靑靱技術은 고구려 와당의 중요한 제작기법 중 하나다. 이 기술은 동아시아지역에서 4~13세기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고구려의 靑靱技術은 北魏의 영향을 받아 광개토왕대에 등장하였다.

고구려 와당의 형태에 따라 원형와당과 반와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형와당은 무늬를 기준으로 권운문와당, 연화문와당, 인동문와당, 귀면문와당, 법륜문와

당, 중권문와당, 인면문와당, 연주문와당, 기타 와당 등 아홉 가지로 분류한다.

고구려 와당의 편년을 바탕으로 분기를 설정하고 크게 4기로 설정하였다. I기는 ‘太寧四年’(326년)경부터 고국양왕대(384~391년)경까지이고 천추충(고국양왕의 왕릉)에서 발견된 일부 권운문와당의 연대 하한은 393년(광개토왕3년)으로 편년하였다. 고구려 最古 와당은 권운문와당으로 국내성지역에서 등장하였고, 명문 권운문와당에서 무명문 권운문와당으로 변천하였으며 고국양왕대나 광개토왕 3년 이후에 사라졌다. II기는 407년경부터 427년까지로, 광개토왕대와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전이다. 이 시기에는 고구려 연화문와당이 등장하였고 천추충에서 발견된 ‘永樂’명 수키와의 명문 내용(‘…樂浪趙將軍…’, ‘…丁未在永樂…’)의 검토를 통해, 광개토왕 17년(407년)경에 천추충을 수선하는 데에 천추충의 ‘永樂’명 수키와와 연화문와당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환도산성 궁전유적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 문헌기록(『三國史記·권18·廣開土王本紀』:‘十七年(407년) 春二月, 增脩宮闕.’) 등을 통해 최근 발굴조사된 궁전유적은 광개토왕 17년(407년)에 토대를 다시 선택하고 수선한 궁전유적으로 보이고, 평양 천도 이후에 궁전 건물은 점차 폐기될 것으로 추측된다. 동대자유적에서 발견된 유물 중 국내성이나 환도산성 궁전유적 등지에서 출토된 와당과 비슷하거나 同範瓦當 관계에 있는 개체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물과 당시의 역사 상황 등을 검토했을 때, 동대자유적은 고국양왕 8년(391년) 3월에 왕명에 받들고 창건한 사직 및 종묘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그 해 5월 고국양왕의 사망으로 사직 및 종묘와 관련된 토목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듯 하다. 이를 광개토왕대에 건물을 수선하고 평양 천도 이후에 점점 폐기되었다. 광개토왕대 후기(407년경~412년)에는 천추충, 환도산성 궁전 건물, 사직 및 종묘 건물의 수선 뿐만 아니라 ‘上祖先王’무덤에 비석도 세웠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첫째, 고구려 最古 연화문와당은 늦어도 407년경에 천추충이나 환도산성 궁전유적에서 출현하였을 것이다. 둘째, 이번에 발견된 ‘集安高句麗碑’의 시대는 광개토왕대의 유물이며, 연대는 407년경~412년으로 추정된다. III기는 427년 이후부터 6세기 말 이전, 즉, 장수왕 평양천도 이후~양원왕대 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고구려 와당의 수량과 형식이 다양하고 특히 복합연화문와당을 비롯한 복합 문양 와당이 매우 유행하였다. 평양성을 중심으로 평양성지역에서 고구려 와당이 발견되었으나 많은 와당은 일제강점기의 수집품뿐이고 층위 관계와 출토 유적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IV기는 양원왕대~보장왕대, 즉, 6세기 중엽 이후부터 고구려 멸망때(668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전쟁 등의 원인 때문에 고구려 서부 방어선과 남부 방어선에 위치한 산성이나 보루에서 고구려 말기 와당이 발견되었다. 한편, 평양지역에서 고구려 반와당이 등장하는 것도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이다.

북한에서 발견된 일부 고구려 와당의 연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본 논문

의 일부 편년 결과는 추후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미흡했던 부분들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국문 논문 및 단행본

- 姜友邦, 2000, 「韓國瓦當藝術論序說」, 『新羅瓦塼』, 國立慶州博物館.
- 강현숙, 2007, 「고구려 고분 출토 와당의 변천 연구」, 『한국고고학보』, 64, 한국고고학회.
- 姜賢淑, 2008, 「전 동명왕릉과 진파리 고분군의 성격 검토」, 『湖西考古學』, 18.
- 姜賢淑, 2010, 「中國吉林省 集安 东台子遺蹟 再考」, 『한국고고학보』, 75, 한국고고학회.
-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05, 『고구려와당』,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 高裕燮, 1932, 「高句麗의美術—朝鮮美術史話」, 『東方評論』, 1·2, 東方評論社.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2002, 『모스크바 국립동양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미국 호놀룰루아카데미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 國立文化財研究所, 1998, 『中國所在文化遺蹟調查報告書』 (吉林省·遼寧省·山東省篇), 國立文化財研究所.
- 國立中央博物館, 1990, 『井内功寄贈瓦塼圖錄』, 國立中央博物館.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11, 『고대도시유적-중원경(유물편)』,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吉井秀夫, 2001, 「日本西日本地域博物館所藏高句麗遺物」, 『高句麗研究』, 12, 學研文化社.
- 吉井秀夫, 崔英姬, 2008, 「京都大学綜合博物館所藏山田鈺次郎寄贈 고구려 지와의 검토」, 『일본소재고구려유물II』, 東北亞歷史財團.
- 김성구, 2005, 「고구려의 기와와 전돌」,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박물관.
- 김성구, 2008, 「동아시아 古代기와의 變遷」, 『고대 동아시아의 기와』, 한국기와학회.
- 김성태, 2010, 「태왕릉의 피장자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韓國古墳의 編年研究』, 서경문화사.
- 金元龍, 1961, 「羸島出土金銅佛坐像」, 『歷史教育』, 5.
- 김진경, 2011, 「고구려 연화문와당 제작가법 연구-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金和英, 1977, 「韓國蓮花紋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金希燦, 2005, 「고구려 연화문와당에 반영된 연화의 형태적 특성」, 『白山學報』, 白山學會.
- 김희찬, 2005, 「국내성지역에서 새로 발굴된 와당연구-연화문와당을 중심으로」, 『고구려연구』, 19, 고구려연구회.
- 김희찬, 2006, 「고구려 연화문 복합문와당의 형식과 그특성」, 『고구려연구』, 23, 고구려발해학회.
- 김희찬, 2006,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형식과 변천-구획선 연화문와당을 중심으로-」, 『고구려연구』, 22, 고구려발해학회.
- 金希燦, 2006, 「고구려 와당의 채색과 태토 색조 검토」, 『白山學報』, 74, 백산학회.
- 김희찬, 2008, 「4세기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개시연대에 대한 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45.
- 김희찬, 2008, 「고구려 권운문와당 연구」, 『高句麗渤海研究』, 31, 고구려발해학회.
- 김희찬, 2009, 「고구려 권운문와당의 형식과 변천」, 『高句麗渤海研究』, 39, 고구려발해학회.
- 김희찬, 2010, 「고구려 인동문와당의 형태와 문양 변화」, 『韓國思想과 文化』, 第50輯.
- 김희찬, 2010, 「발해 인동문계 와당의 계통과 고구려 연관성 검토」, 『東아시아古代學』, 21, 東아시아古代學會.
- 金希燦, 2010, 「복합 인동이 표현된 고구려 와당의 문화적 성격」, 『白山學報』, 85, 백산학회.
- 김희찬, 2011, 「고구려 회전문계 와당의 계통과 전개 과정」, 『白山學報』, 89, 백산학회.
- 김희찬, 2011, 「고구려 복합문와당의 출현과 형성 과정」, 『高句麗渤海研究』, 39, 고구려발해학회.
- 김희찬, 2010, 「고구려 연화문와당의 고구려 계승성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36, 고구려발해학회.
- 동북아역사재단, 2008,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 동북아역사재단.
- 藤井和夫, 朱洪奎, 2011, 「早稻田대학 會津八一博士記念博物館 所藏高句麗磚瓦에 관하여」, 『일본 소재 고구려유물IV』, 동북아역사재단.
- 柳在雨, 1980, 「高句麗 瓦當文樣의 樣式的考察」, 『弘益工業專門大學論文集』, 11.
- 李秀珍, 2006, 「高句麗 蓮花文瓦當 編年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漢祥, 2001, 「6~7世紀代 昌寧地域 土器의 變遷」, 『昌寧桂城新羅高塚群』, 慶南考古學研究所.

- 李熙濬, 2006, 「太王陵의 墓主는 누구인가?」, 『한국고고학보』, 59, 한국고고학회.
- 朴淳發, 2012, 「高句麗의 都城과 墓域」, 『韓國古代史探究』, 12.
- 박진보, 1988, 「三國時代 瓦當에 나타난 蓮花紋의 造形性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朴天秀, 1993, 「三國時代 昌寧地域集團의 性格研究」, 『嶺南考古學』, 13.
- 白種伍, 2005, 「高句麗기와 研究」, 檀國大學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백종오, 2006,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주류성.
- 白種伍, 2008, 「高句麗 卷雲文 瓦當의 成立과 그背景」, 『고대 동아시아의 기와』, 한국기와학회.
- 백종오, 2011, 「高句麗 瓦當의 毀棄와 그 象徴的 意味」, 『암록강 중상류 고구려 유적·유물의 역사적 성격』, 한국고대사학회, 2011년10월.
- 성균관대학 박물관, 2008, 『新羅金石文拓本展』, 성균관대학 박물관.
- 孫泓, 2001, 「遼寧地區高句麗遺物綜述」 『高句麗研究』, 12, 학연문화사.
- 송계현, 2005, 「桓仁과 集安의 고구려 갑주」, 『북방사논총』, 3, 고구려 연구재단.
- 余昊奎, 2006, 「集安地域 고구려 超大型積石墓의 전개과정과 被葬者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41, 한국고대사연구회.
- 여호규, 2011, 「고구려 國內城 지역의 건물유적과 都城의 공간구조」, 『암록강 중상류 고구려 유적·유물의 역사적 성격』(한국고대사학회 122회 정기발표회), 한국고대사학회.
- 이종민, 2010, 「고려, 삶과 영혼의 도자」, 『한반도의 흙, 도자기로 태어나다』, 경인문화사.
- 張俊植, 2000, 「中原高句麗碑 附近의 高句麗係 遺蹟·遺物 檢討」, 『高句麗研究』, 10, 학연문화사.
- 전호태, 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출판사.
- 鄭允晙, 2010, 「高句麗卷雲文瓦當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鄭仁盛, 藤井和夫, 2010,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III), 동북아역사재단.
- 정지연, 2011, 「古新羅 高句麗系 蓮花文와당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치영, 2011, 「百濟·高句麗와 魏晉南北朝 製瓦術 비교 연구」, 『중앙고고연구』, 8.
- 趙美貞, 2004, 「高句麗蓮花文瓦當에 對한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조원창, 2010, 『한국 고대 와당과 제와술의 교류』, 서경문화사.
- 조원창, 방기영, 2008, 「堤川 長樂寺址 出土 瓦當(와당)의 高句麗의 要素」, 『중원문화재연구』, 2.

- 趙俊傑, 2009, 「大同江流域高句麗封土石室墓等級與階層-兼談高句麗後期王陵的推定」 『高句麗渤海研究』, 35, 學研文化社.
- 주홍규, 2009, 「集安지역 고구려기와의 제작기법과 변천-일본 소개 기와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66.
- 朱洪奎, 2011, 「國學院大學考古學資料館所藏高句麗瓦磚의 특징」, 『일본 소개 고구려유물IV』, 동북아역사재단.
- 최맹식, 2005, 「고구려기와의 특징」,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대학교박물관.
- 崔孟植, 2008, 「百濟와 新羅기와에 보이는 高句麗의 要素」, 『고대 동아시아의 기와』, 한국기와학회.
- 崔鍾澤, 1998,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진출과 백제」, 『百濟研究』, 28.
- 崔鍾澤, 1999, 「高句麗土器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崔鍾澤, 2006, 「集安‘高句麗王陵’出土遺物의 諸問題」, 『한국고대사연구』, 41, 한국고대사연구회.
- 崔晋鎬, 2012, 「渤海 와당을 통해 본 渤海文化의 性格」, 『先史와古代』, 36, 韓國古代學會.
- 土田純子, 2013, 「百濟土器 編年 研究」, 忠南대학교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韓炳三 監修, 1985, 『韓國의 美·22·古墳美術』, 中央日報社.
- 穴澤和光, 馬目順一 共著, 金洗扈 譯, 1996, 「昌寧校洞古墓群 梅原考古資料를 中心으로한 谷井濟一氏 發掘 資料 研究」, 『昌寧 校洞 古墓群』, 昌寧郡.

2. 국문 보고서

- 崔鍾澤, 李秀珍 외, 2007, 『紅蓮峰 第1堡壘-發掘調査綜合報告書-』, 高麗대학교 考古環境研究所.
- 심광주, 정나리, 이형호, 2007, 『漣川 瓠蘆古壘III』(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심광주외, 2011, 『漣川 瓠蘆古壘』(제4차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박물관.
- 이상준, 박성진 외, 2009, 『개성 고려궁성』, 국립문화재연구소.
- 趙榮濟, 朴生圭외, 1993, 『陝川玉田古墳群IV-M4·M6·M7号墓』, 慶尙대학교博物館.
- 趙榮濟, 柳昌煥, 2004, 『宜寧 景山里古墳群』, 慶尙대학교博物館.
- 釜山대학교博物館, 1995, 『昌寧桂城古墳群』, 釜山대학교博物館.
- 임효재, 최종택 외, 2000, 『아차산 제4보루』, 서울대학교박물관.

慶南考古學研究所, 2001, 『昌寧桂城新羅高塚群』, 慶南考古學研究所.

3. 북한 논문, 단행본 및 보고서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외국문종합출판사.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1, 『조선유적유물도감(8)•발해의 유적과 유물』, 외국문종합출판사.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3, 『조선유적유물도감•고구려편(1)』,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3, 『조선유적유물도감•고구려편(2)』,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 김경살, 2008, 「안학궁터에서 나온 수기와 막새들의 무늬에 대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1, 사회과학출판사.
- 김영일, 2005, 「백제전기 기와에 대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3, 사회과학출판사.
- 김영진, 1964, 「3국시기의 기와 벽돌무늬」, 『고고미술』, 4.
-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및 민속학강좌, 1973, 『대성산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일성종합대학, 1976,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남일룡, 1987,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리 고구려 절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4.
- 류병홍, 1992, 「발해유적에서 드러난 기와막새 무늬에 대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4, 사회과학출판사.
- 리광희, 2004, 「청암동토성에서 새로 발견된 수기와의 연대」, 『조선고고연구』, 1,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 개요』, 백과사전출판사.
- 윤광수, 2001, 「고구려마루기와의 변천」, 『조선고고연구』, 1, 사회과학출판사.
- 윤광수, 2005, 「고구려수기와막새의 기하무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 사회과학출판사.
- 채희국, 전제현, 1966, 「신원군 장수산성을 찾아서」, 『고고민속』, 1.
- 한인호, 1984, 「고구려건축의 역사적지위」, 『고고민속론문집』, 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 중국 논문, 단행본 및 보고서

- 『集安縣文物志』編写組, 1984, 『集安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 耿鐵華, 1989, 「高句麗文物古蹟四題」, 『文物春秋』, 4.
- 耿鐵華, 2006, 「集安新出文字瓦當及解讀」, 『北方文物』, 4.
- 耿鐵華, 2007, 「集安出土卷雲紋瓦當研究」, 『東北史地』, 4.
- 耿鐵華, 2008, 『高句麗古墓壁画研究』, 吉林大學出版社.
- 耿鐵華, 尹國有, 2001, 『高句麗瓦當研究』, 吉林人民出版社.
- 郭大順, 2010, 「遼陽壁畫墓學習筆記」, 『東北亞考古學論叢』, 科學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 『國內城』, 文物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王志剛等), 2011, 「集安將軍墳西南建築遺址的考古發掘」, 『邊疆考古研究』, 10, 科學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王志剛等), 2009, 「吉林省集安市 實驗小學發掘地点考古發掘簡報」, 『北方文物』, 4.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張雪巖), 2009, 「集安洞溝古墓羣禹山墓區 2112號墓」, 『吉林集安高句麗墓葬報告集』, 科學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市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 2004, 『丸都山城』, 文物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集安市博物館等, 2010, 『集安出土高句麗文物集粹』, 科學出版社.
- 吉林省博物館(蘇才), 1961, 「吉林輯安高句麗建築遺址的清理」, 『考古』, 1.
- 金毓黻, 1954, 『东北通史』, 社会科学战线杂志社.
-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陳永志 主編), 2003, 『內蒙古出土瓦當』, 文物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02, 『三燕文物精粹』, 辽宁人民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撫順市博物館(呂學明, 李新全等), 2007, 「遼寧撫順市施家墓地發掘簡報」, 『考古』, 10.
- 遼寧省博物館文物隊等, 1984, 「朝陽袁臺子東晉壁畫墓」, 『文物』, 6.
- 李乃胜, 李清临等, 2012, 「鄭州商城遺址出土商代陶板瓦的工藝研究」, 『建築材料學報』, 15卷(4).
- 李乃胜, 何努等, 2007, 「陶寺遺址出土的板瓦分析」, 『考古』, 9.
- 李龍彬, 司偉偉, 崔麗萍, 2008, 「遼寧丹東鳳凰山山城考古新收獲」, 『中國文物報』, 2月15日.
- 李龍彬, 華玉冰, 崔麗萍, 2007, 「遼寧丹東鳳凰山山城首次發掘取得重大收獲」, 『中國文物報』, 3月23日.
- 李梅, 2002, 「高句麗瓦當發現與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 李文生, 1991, 「龍門石窟北朝主要洞窟總叙」, 『中國石窟•龍門石窟(一)』, 文物出版社.

- 李裕群, 2006, 「高句麗佛教造像考-兼論北朝佛教造像樣式對高句麗的影響」, 『4~6世紀的北中國與歐亞大陸』, 科學出版社.
- 李殿福, 1962, 「1962年春季吉林輯安考古調查簡報」, 『考古』, 11.
- 李殿福, 1982, 「集安山城子山城考畧」, 『求實學刊』, 1.
- 李殿福, 1984, 集安卷雲紋銘文瓦當考辨, 社會科學戰線, 4.
- 李殿福, 1986, 「高句麗丸都山城」, 『文物』, 6.
- 林至德, 耿鐵華, 1985, 集安出土的高句麗瓦當及其年代, 考古, 7.
- 林至德, 張雪巖, 1984, 「高句麗兩都城——國內城和丸都山城考」, 『文物天地』, 6.
- 萬欣, 2012, 「朝陽發現唐代鉄器的初步考察」, 『朝陽隋唐墓發現與研究』, 科學出版社.
- 文素松 編, 何日章 校, 1930, 『瓦削文字譜』, 思簡樓影印本.
- 方起東, 1982, 「集安東臺子高句麗建築遺址的性質和年代」, 『東北考古與歷史』, 第一輯, 文物出版社.
- 寶鷄市博物館(劉軍社), 2011, 「寶鷄發現龍山時期建築構件」, 『文物』, 3.
- 山西大學歷史文化學院, 山西省考古研究所等, 2006, 『大同南郊北魏墓群』, 科學出版社.
- 徐家國, 孫力, 1987, 「遼寧撫順高爾山城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2.
- 陝西周原考古隊, 1979, 「陝西岐山鳳雛村西周建築基址發掘簡報」, 『文物』, 10.
- 陝西周原考古隊, 1981, 「扶風召陳西周建築羣基址發掘簡報」, 『文物』, 3.
- 邵又誠, 1963, 「漢魏洛陽城出土瓦削文字補談」, 『考古』, 5.
- 蘇才, 1957, 「輯安高句麗遺蹟調查簡記」, 『吉林省文物工作通訊』.
- 孫仁傑, 2005, 「通溝古墓羣禹山JYM3319號墓發掘報告」, 『東北史地』, 6.
- 孫顥, 2012, 「高句麗陶器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 宋玉彬, 2012, 「麴背檐頭筒瓦研究」, 『慶祝宿白先生九十華誕文集』, 科學出版社.
- 安康市歷史博物館, 2008, 「陝西安康市張家坎南朝墓葬發掘紀要」, 『華夏考古』, 3.
- 楊永芳, 楊光, 1994, 「岫岩境內五座高句麗山城調查簡報」, 『遼海文物學刊』, 2.
- 王綿厚, 2002,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 王飛峰, 2008, 「漢唐時期東亞文化的交流—以人面紋瓦爲中心」, 『邊疆考古研究』, 7, 科學出版社.
- 王飛峰, 2011, 「關於高句麗千秋墓、太王陵和將軍墳的几个問題」, 『邊疆考古研究』, 10, 科學出版社.
- 王飛峰, 2012, 「關於永固陵的几个問題」, 『中國國家博物館館刊』, 11.
- 王飛峰, 2012, 「三燕瓦當研究」, 『邊疆考古研究』, 12, 科學出版社.
- 王飛峰, 夏增偉, 2008, 「高句麗丸都山城出土瓦當研究」, 『東北史地』, 2.
- 王純信, 1997, 「金蛙傳說與蛙紋瓦當—論析高句麗民族的蛙崇拜」, 『高句麗歷史

- 與文化』，吉林文史出版社。
- 王銀田，宋建忠，殷憲，2010，『北魏西冊田製陶遺址調查報告』，『文物』，5。
- 王洪峰 외，1988，『遼源市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會。
- 魏存成，1985，「高句麗初中期的都城」，『北方文物』，2。
- 魏存成，1994，『高句麗考古』，吉林大學出版社。
- 魏存成，2002，『高句麗遺蹟』，文物出版社。
- 張克，1989，「北魏瓦削文字考」，『文博』，2。
- 張福有，2004，「集安禹山3319號墓卷雲紋瓦當銘文識別」，『東北史地』，1。
- 張福有，孫仁傑，遲勇，2007，「高句麗王陵統考」，『東北史地』，4。
- 張馭寰，1958，「輯安附近高句麗時代的建築」，『文物參考資料』，4。
- 田立坤，2002，「袁臺子壁畫墓的再认识」，『文物』，9。
- 鄭元喆，2005，「高句麗陶器研究」，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 朱巖石，何利群，2007，「河北省磁縣北朝墓群63M發掘及十六國窯址」，『中國文物報』，7月27日第2版。
- 周向永，2009，「西豐城子山山城始建年代再考」，『東北史地』，2。
- 中國大百科全書總編委會『考古學』編輯委員會，1986，『中國大百科全書•考古學』，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編輯委員會，2009，『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西安地圖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山西省考古研究所，2005，「山西襄汾陶寺城址2002年發掘報告」，『考古學報』，3。
- 秦士芝，1983，「盱眙縣發現一批西晉墓磚」，『文物資料叢刊』，第8輯，文物出版社。
- 集安市博物館(董峰)，2004，「集安洞溝古墓羣禹山墓區2112號墓」，『北方文物』，2。
- 集安市博物館，2013，『集安高句麗碑』，吉林大學出版社。
- 集安縣文物保管所，1984，「集安縣上、下和龍高句麗古墓清理簡報」，『文物』，1。
- 崔玉寬，1992，「鳳凰山山城調查簡報」，『遼海文物學刊』，2。
- 佟達，1994，「新賓五龍高句麗山城」，『遼海文物學刊』，2。
-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曾曉敏，韓朝會 외)，2007，「鄭州商城宮殿區商代板瓦發掘簡報」，『華夏考古』，3。
- 何努，2006，「陶寺城址宮殿區發現的陶板試析及陶寺文化的板瓦」，『中原地區文明化進程學術討論會文集』，科學出版社。
- 許明綱，1996，「大連地區高句麗四座山城畧考」，『博物館研究』，1。
- 黃士斌，1962，「漢魏洛陽城出土的有文字的瓦」，『考古』，9。
- 黑龍江文物考古研究所，2009，『渤海上京城』(1998~2007年度考古發掘調查報告)，文物出版社。

5. 일본 논문, 단행본 및 보고서

- 岡崎敬, 1979, 「高句麗の土器・陶器と瓦塼」, 『世界陶磁全集17・韓国古代』, 小学館.
- 高正龍, 南孝熊, 2001, 「高麗美術館所藏の朝鮮古瓦」, 『高麗美術館館報』, 52.
- 谷豊信, 1989, 「四、五世紀の高句麗の瓦に関する若干の考察-墳墓発見の瓦を中心として-」, 『東洋文化研究所紀要』, 第百八册,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 谷豊信, 1990, 「平壤土城発見の古式の高句麗瓦当について」, 『東洋文化研究所紀要』, 第百十二册,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 谷豊信, 2005, 「平壤遷都前後の高句麗瓦に関する覚書-東京国立博物館収蔵資料の紹介-」, 『MUSEUM』, N0.596, 東京国立博物館.
- 関口広次, 1977, 「古代朝鮮における古瓦文様の系譜とその展開(1)」, 『月刊考古学ジャーナル』, 6.
- 関口広次, 1977, 「古代朝鮮における古瓦文様の系譜とその展開(2)」, 『月刊考古学ジャーナル』, 7.
- 關野貞, 1914, 「國內城及丸都山城の位置」, 『史學雜誌』, 第二十五編第十一號.
- 關野貞, 1920, 「丸都山城考」,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 關野貞, 1924, 「滿洲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跡」(二), 『考古學雜誌』, 第五卷第四號.
- 關野貞, 1928, 「高句麗の平壤城及び長安城に就いて」, 『史學雜誌』, 第三十九編第一號.
- 關野貞, 1928, 『考古學講座第五卷一瓦』, 雄山閣.
- 關野貞, 1932, 『朝鮮美術史』, 朝鮮史學會.
- 關野貞, 1941,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 關野貞 외, 1929, 『高句麗時代之遺蹟圖版上册(古蹟調査特別報告 第五册)』, 朝鮮總督府.
- 亀田修一, 1998, 「瓦塼」, 『世界美術大全集-東洋編10-高句麗・百濟・新羅・高麗』, 小学館.
- 亀田修一, 2009, 「朝鮮半島における造瓦技術の変遷」,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造瓦技術の変遷と伝播』, 奈良文化財研究所.
- 九州古文化研究会, 1995, 「豊前地方の古代寺院と古瓦-第80回九州古文化研究会(中津大会)の記録-」, 『古文化談叢』, 34.
- 今津啓子, 1988, 「九州大学所藏の高句麗系瓦・塼について」, 『古代文化』, 40권(7).
- 金有植, 2009, 「五~六世紀の新羅と周辺諸國の瓦」,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造

- 瓦技術の変遷と伝播』，奈良文化財研究所。
- 奈良県立橿原考古学研究所編集,1990,『斑鳩藤ノ木古墳(第一次調査報告書)』,斑鳩町・斑鳩町教育委員会。
- 桃崎佑輔, 2005, 「高句麗太王陵出土瓦・馬具からみた好太王陵説の評価」, 『海と考古学』, 六一書房。
- 桃崎祐輔, 2011, 「高句麗と馬具の系譜」, 『季刊考古学』, 113号。
- 東京国立博物館, 1982, 『寄贈 小倉コレクション目録』, 東京国立博物館。
- 東京大学文学部考古学研究室, 1943, 『文学部考古学研究室蒐集品・考古圖編(第十三輯)』, 東京大学文学部考古学研究室。
- 東潮, 1997, 『高句麗考古学研究』, 吉川弘文館。
- 東潮, 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 藤沢一夫, 1961, 「日鮮古代屋瓦の系譜」, 『世界美術全集』, 권2, 角川書店。
- 梁淙鉉, 2007, 「高句麗法輪文軒丸に瓦対する考察」, 『帝塚山大学考古学研究所研究報告』, IX, 帝塚山大学考古学研究所。
- 梁淙鉉, 2009, 「高句麗の軒丸瓦-帝塚山大学附属博物館所藏品を中心として-」, 『東アジア瓦研究』, 1。
- 李다운, 2011, 「韓半島瓦研究の新動向」, 『季刊考古学』, 113号。
- 李殿福, 1991, 『高句麗・渤海の考古と歴史』, 學生社。
- 梅原末治, 1931,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 梅原末治, 1938, 「東亞の古瓦に就いて」, 『夢殿』, 綜合古瓦研究所。
- 梅原末治, 藤田亮策, 1966, 『朝鮮古文化綜鑑(第四卷)』, 養徳社。
- 白鳥庫吉, 1914, 「丸都城及國內城考」, 『史學雜誌』, 第二十五編第四, 五號。
- 白種伍, 2006, 「高句麗瓦当の起源と出現」, 『高麗美術館紀要』, 第5号(有光教一先生白寿記念論叢), 財団法人高麗美術館。
- 服部敬史, 千田剛道외, 1994, 「高句麗都城と山城——中国東北地方における都城と山城の基礎的研究, (千田剛道, 「瓦からみた高句麗古都集安」), 『青丘学術論集』, 5, 財団法人韓國文化研究振興財団。
- 社団法人共通通信社, 2006, 『高句麗古墳壁畫』, 社団法人共通通信社。
- 山崎信二, 2007, 「7世紀 後半의 기와로 본 朝鮮三國과 日本의 관계」, 『韓日文化財論集I』, 한국국립문화재연구소。
- 山崎信二, 2011, 『古代造瓦史-東アジアと日本-』, 雄山閣。
- 三上次男, 1990, 『高句麗と渤海』, 吉川弘文館。
- 三上次男, 田村晃一, 1993, 『北関山城-高爾山城:高句麗新城の調査-』, 中央公論美術出版。

- 森郁夫, 金誠龜, 2008, 『日韓の瓦』, 帝塚山大学出版社.
- 西川 宏, 1992, 「中国における高句麗考古学の成果と課題」, 『青丘學術論集』, 2.
- 石光濬, 2002, 「高句麗考古学の新しい成果」, 李成市, 早乙女雅博 (編), 『古代朝鮮の考古と歴史』, 雄山閣.
- 小泉顯夫, 1938, 「泥佛出土地元五里廢寺址の調査」,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会.
- 尹国有, 2002, 「高句麗瓦当の研究」, 加藤瑛二(編著), 『中国文化の考古地理学的研究』, 一誠社.
- 田中俊明, 2004, 「高句麗の平壤遷都」, 『朝鮮學報』, 190.
- 田村晃一, 1983, 「高句麗の寺院址に関する若干の考察」, 『佐久間重男教授退休記念論文集』, 『佐久間重男教授退休記念論文集』編輯委員會.
- 田村晃一, 1988, 「高句麗の城郭について」, 『百濟研究』, 19.
- 田村晃一, 2001, 『樂浪と高句麗の考古學』, 同成社.
- 井内潔, 1968, 「高句麗の鬼面紋屋瓦」, 『鬼面紋瓦の研究』, 井内古文化研究室.
- 井内潔, 1972, 「高句麗最古の鏡瓦とその溯源」, 『井内古文化研究室報』, 9, 井内古文化研究室.
- 井内潔, 1976, 「高句麗の半瓦当屋瓦」, 『井内古文化研究室』, 15, 井内古文化研究室.
- 井内功, 1976, 朝鮮瓦磚図譜II-高句麗, 井内功古文化研究室.
- 井上直樹, 2007, 「集安出土資料からみた高句麗支配体制についての一考察」, 『朝鮮學報』, 203.
- 鄭昌熙, 2010, 「平壤出土の高句麗蕊附蓮蕾瓦当の分類と編年」, 『地域発表及び初期須恵器窯の諸様相』(第22回東アジア古代史・考古学研究会交流会 予稿集), 大阪朝鮮考古学研究会.
- 諸岡榮治(編輯), 梅原末治(校), 1935, 『樂浪及高句麗古瓦図譜』, 便利堂.
- 鳥居龍藏, 1914, 「丸都城及び國內城の位置に就いて」, 『史學雜誌』, 第二十五編第七號.
-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一)』, 朝鮮總督府.
-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二)』, 朝鮮總督府.
- 早乙女雅博, 2000, 『朝鮮半島の考古学』, 同成社.
- 朱洪奎, 2010, 「高句麗積石塚出土卷雲文瓦の年代再検討」, 『古文化談叢』, 64, 九州古文化研究会.
- 朱洪奎, 2011, 「早稻田大學津八一博士記念博物館所藏の高句麗瓦」, 『早稻田大學津八一記念博物館研究紀要』, 12号, 早稻田大學津八一記念博物館.
- 池内宏, 1938, 『通溝』(卷上), 日滿文化協會.

- 千田剛道, 1983, 「清岩里廢寺と安鶴宮」, 『文化財論叢』, 同朋舎.
- 千田剛道, 2008, 「高句麗瓦編年に関する二、三の問題」, 『奈良文化財研究所紀要』, 奈良文化財研究所.
- 千田剛道, 2010, 「高句麗瓦研究の二、三の問題」, 『地域発表及び初期須恵器窯の諸様相』(第22回東アジア古代史・考古学研究会交流会 予稿集), 大阪朝鮮考古学研究会.
- 千田剛道, 1996, 「高句麗・高麗の瓦-平壤地域を中心として-」, 『朝鮮の古瓦を考える(帝塚山考古学談話会第555回記念)』, 帝塚山考古学研究所.
- 崔淳雨, 1978, 「高麗陶磁の編年」, 『世界陶磁全集・18・高麗』, 小学館.
- 秋山進午, 2007, 「集安市博物館参観札記」, 『渡来遺物からみた古代日韓交流の考古学的研究』, 株式会社田中プリント.
- 太田三喜, 2011, 「朝鮮半島の古代瓦-いわゆる高句麗の半瓦当-」, 『天理参考館報』, 24, 天理大学出版部.
- 太田静六, 1971, 「高句麗系瓦の源流と其影響」, 『考古學雜誌』, 第五七卷第二號.
- 下野玲子, 2010, 「會津八一の戦前蒐集品に関する調査報告(1)」, 『早稻田大學會津八一記念館研究紀要』, 11.
- 下中彌三郎(編輯), 1928, 『世界美術全集(第六卷)』, 平凡社.

6. 史料

- 『後漢書』, 『三國志』, 『晉書』, 『北史』, 『魏書』, 『南史』, 『舊唐書』, 『新唐書』, 『營造法式』, 『三國遺事』, 『海東高僧傳』, 『三國史記』

【Abstract】

A study on Roof-end tiles of Koguryo

Name : Wang Feifeng

Department : Archaeology and Art History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Thesis Advisor : Prof. Choi, Jong Taik

An roof-end tile is an important building construction material in ancient society that has both practicality and decorative function, covering a roof of the house. Koguryo, as a country, left relics including a plenty of roof-end tiles in its history of 705 years. In this dissertation focusing on Koguryo roof-end tile, the review on previous studies regarding roof-end tile, analysis on dimension distribution and manufacturing methods, typological classification, and establishing the chronology of each style was carried out.

The history of research on Koguryo roof-end tile can be divided to three phases. The first phase is dated from 1870 to 1945 when Haotaiwang Stele was discovered. At his phase, the main excavators and the researchers of Koguryo roof-end tile were Japanese, and they worked on sorting up and recognizing Koguryo roof-end tile without publishing any scholarly monographs. On the other hand, few Chinese and Korean researcher participated in excavating and research of Koguryo roof-end tile. The second phase is from the 1950s to 1980s. In this phase, Japanese were dominant in Koguryo roof-end tile research, but later more Chinese and Korean scholars we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this topic. The third phase is since the 1980s. Based on abundant materials collected in the early phases by Japanese scholars Chinese and Korean scholars have greatly advanced in this research. Catalogues of unearthed roof-end tiles and related ancient augural books have been published. In addition more research on the manufacturing techniques has been carried out.

On the basis of Koguryo roof-end tile chronological sequence, all of the Koguryo roof-end tiles are separated into different periods: The first

period is from 32 (Taenyung year 4) to 384~391 AD (King Gogukyang) . Some roof-end tiles from the Qianqiu tomb shows that the stylistic tradition of first period's might have existed until 393 AD (the third year of King Gwanggaeto's reign). In this period, the earliest roof-end tile with a rolling cloud motif of Koguryo dynasty appeared in the inner area of the capital city, Guknaeseong. Then in the roof-end tile with rolling cloud, the inscribed letters disappeared and after the reign of the King Gogukyang or 393 AD (the third year of King Gwanggaeto's reign). The second period is from 407 (King Gwanggaeto) to 427 AD (King Jangsu) . In this period, the roof-end tile with lotus patterns turned up. And according to research of the inscription, a semicircular tile with the letter of "eternal happiness", which is a name of the King Gwanggaeto's regime, was discovered in the Qianqiu tomb. It was known that in 407 AD (the 17th year of King Gwanggaeto's reign) the Qianqiu tomb was repaired, and the semicircular tiles with the letters of 'eternal happiness' were used at that time. In addition to the Qianqiu tomb, there are a lot of evidence stating that not only the Qianqiu tomb was rebuilt and repaired, but also Wandu Mountain city palace and other ancestral temples and altars were renovated during 407~412 AD (the last phase of king Gwanggaeto's regime). Given that historical context, we can conclude that Koguryo's roof-end tiles with lotus patterns had appeared at the Qianqiu tomb or Wanduan mountain city palace around 407 AD at the latest. If the Jian Koguryo Stele (Ji'an Koguryo Stele) were a relic of the King Gwanggaeto's period, it must have been constructed around 407~412 AD. The third period is from 427 AD (King Jangsu) to the early 6 Century AD (King Yangwon. In this period, there is a large amount of Koguryo roof-end tiles excavated, and these roof-end tiles are highly decorated with various and complicated patterns. In particular, complex lotus decorative roof-end tiles were very popular, but chronosequence of these roof-end tiles have not been figured out. The fourth period is from the 6 Century BC (King Yangwon) to the end of Koguryo kingdom (King Bojang's reign, 668 AD). In this period, roof-end tiles of Koguryo's last stage were found at the southern and western border of Koguryo due to frequent warfare. At the same time, the typical roof-end tile at Pyongyang area was a half-round shaped roof-end til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 final phase. Lastly,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chronology of some Koguryo roof-end tiles discovered in North Korea, so more research on establishing accurate chronology of North Korea will be carried out in future.

Key words : Koguryo roof-end tiles, Typology, Red and black burnished tile production technique, King Gwanggaeto, Jian Koguryo Stele, an roof-end tile with a rolling cloud motif, an roof-end tile with a lotus pattern, an roof-end tile with a honeysuckle motif, an roof-end tile with a demon face relief, an roof-end tile with complex lotus patterns, a semicircle roof-end tile.

中文摘要

瓦当是古代社会重要的建筑材料之一，不但拥有特定的实用功能，而且还具有一定的装饰作用。高句丽作为一个拥有705年历史的国家，其留下的遗物中也包括大量的高句丽瓦当。本文研究的对象即是高句丽瓦当，在全面系统搜集现有高句丽瓦当材料的基础上对高句丽瓦当的研究史、地域分布、制作技法、形式分类和编年等进行一次综合性的研究。

高句丽瓦当的研究史根据其时代特征大体可以分为三个阶段，第1阶段从1870年代好太王碑的发现到1945年，这一时期高句丽瓦当的发现者和研究者主要是日本学者，没有出现关于高句丽瓦当研究的专门论文和著作，研究的内容主要是高句丽瓦当的整理和概况性的介绍。一些中国学者、韩半岛学者参加了这一时期高句丽瓦当的发掘和研究工作。第2阶段从1946年到1979年，这一时期高句丽瓦当研究的主要参与者虽然仍是日本学者，但是中国及韩半岛学者对高句丽瓦当的关注和研究随着时间的变化逐渐增多。第3阶段从1980年代至今，这一阶段日本学者借助以前收集的与高句丽瓦当相关的材料等在高句丽瓦当中仍然占有重要地位，中国及韩半岛学界关于高句丽瓦当的研究成果越来越多。一系列高句丽瓦当新材料的发表和图录的出版也是这一时期重要的特征之一。

在研究高句丽瓦当的制作方法时，笔者对瓦当模、瓦当范、瓦当的制作、连接方法、高句丽瓦当的青鞞技术等相关的问题进行了综合研究。根据一些瓦当上留下的树木年轮的痕迹，可以确定高句丽时期存在着木制瓦当范，同时还确定了大量的同范瓦当。高句丽瓦当的制作和连接过程大体可以分为三种，即对接法，半套接法和套接法。青鞞技术是高句丽瓦当制作的一种重要技术，这一技术在4--13世纪的东亚地区曾广泛存在，高句丽的青鞞技术是受到北魏的影响在广开土王时期的出现的。

通过对高句丽瓦当的系统编年，本文将高句丽瓦当大体分为四期。第1期，大体从“太寧四年”（326年）左右至故国壤王（384-391年）时代，千秋墓（故国壤王的王陵）上出土的个别瓦当其年代下限可能到393年（广开土王3年）。这一时期高句丽最早的瓦当卷云纹瓦当在国内城地区出现，从有铭文卷云纹瓦当发展演变为无铭文的卷云纹瓦当，在故国壤王时期或广开土王3年以后消失。第2期，大体从407年左右到427年，即广开土王和长寿王时期。这一时期高句丽莲花纹瓦当出现，通过对千秋墓上发现的“永樂”铭文筒瓦的内容（“…樂浪趙將軍…”，“…丁未在永樂…”）的研究，我们知道广开土王17年（407年）左右对千秋墓进行了修缮。千秋墓出土的“永樂”铭文筒瓦及莲花纹瓦当是广开土王修缮千秋墓时期使用的瓦件。通过对丸都山城宫殿区发现的遗物、遗迹和文献记录（《三

国史记·卷18·广开土王本纪》：“十七年（407年）春二月，增修宫阙。”）等研究，我们认为此次发掘的丸都山城宫殿址是广开土王17年（407年）重新选择基址修建的宫殿遗址，427年高句丽迁都平壤以后逐渐废弃。东台子遗址发现的遗物中有与国内城、丸都山城宫殿址瓦当纹样类似的瓦当甚至同范瓦当。根据遗物及当时的历史情况来看，东台子遗址是故国壤王8年3月下令修建的社稷和宗庙遗址，但是由于当年5月故国壤王死去，社稷和宗庙遗址在故国壤王时期可能并未完成。广开土王时期修缮了社稷和宗庙建筑，迁都平壤以后逐渐废弃。因此广开土王晚期（407-412年）不但修缮了千秋墓、丸都山城宫殿建筑，而且还修缮了社稷和宗庙，在“上祖先王”墓上立碑。考虑到以上事实，我们可以得到以下结论，最晚至407年左右高句丽莲花纹瓦当已经在千秋墓或丸都山城宫殿建筑中出现，此次发现的“集安高句丽碑”如果是广开土王时期的遗物，其年代可能在407左右-412年。第3期从427年以后到6世纪末之前，即长寿王-阳原王时期。这一时期高句丽瓦当不但数量很多，而且纹样也更加复杂，特别是以复合莲花纹瓦当为主的复合纹样瓦当非常流行。以平壤城为中心的地区虽然发现了大量高句丽瓦当，但是由于许多瓦当为1945年以前的蒐集品，层位关系甚至至出点地点不能确定，这一时期瓦当的编年问题较为复杂。第4期从6世纪末到高句丽灭亡（668年），即阳原王时期-宝藏王时期。这一时候起由于战争等因素在高句丽的西部战线和南部战线的山城或堡垒中发现了高句丽晚期的瓦当。同时平壤地区高句丽半瓦当的出现也是这一时期的重要的特征。

最后需要说明的是，朝鲜发现的一些高句丽瓦当由于各种原因，目前而言准确的年代很难得出，因此本文中一些高句丽瓦当编年结果还需要以后进一步的研究。

关键词：高句丽瓦当 类型学 青鞞技术 好太王 集安高句丽碑
卷云纹瓦当 莲花纹瓦当 复合莲花纹瓦当 忍冬纹瓦当
兽面纹瓦当 半瓦当

日文抄録

軒丸瓦は古代社会において重要な建築材料のうちの一つである。特別に使用されるだけでなく、装飾としての機能も兼ね備えている。高句麗が705年という長い歴史を持った国家であったため軒丸瓦を含めた多くの遺物が残存している。本稿では既存の研究成果を基に、高句麗軒丸瓦の研究史、地域分布、製作技法、型式分類、編年などに関連した一連の問題を総合的に研究した。

高句麗の軒丸瓦における研究史は、時期的な特徴によって大きく三段階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第1段階は1870年代~1945年であるが、この時期における高句麗の軒丸瓦の発見者そして研究者はその多くが日本人であった。高句麗の軒丸瓦と関連した専門的な論文や専門書はなく、資料収集や概括的な整理が全てであった。第2段階は1946年~1979年である。この時期は高句麗の軒丸瓦研究者のうち日本の学者が最も多いが、中国、北朝鮮と韓国にも高句麗の軒丸瓦に対する研究が少しずつであるが行われた時期である。第3段階は1980年代~現在までである。高句麗軒丸瓦の新しい資料が発表されたり、関連遺物の図録が出版されるなど高句麗の軒丸瓦に関する研究が活発に行われた。

高句麗の軒丸瓦における製作方法を研究する場合、母範、 範型、 軒丸瓦の製作、 連結方法、 高句麗軒丸瓦の磨研技術などに関連した一連の問題を総合的に検討した。一部軒丸瓦に残存する年輪などの痕跡を根拠に高句麗には木で造った範型があり、またこれによる多量の同範瓦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青鞞技術は高句麗の軒丸瓦において重要な製作技法である。高句麗の青鞞技術は北魏の影響を受け広開土王代に登場した。この技術4~13世紀の東アジア地域で広範囲使用された。

高句麗軒丸瓦の編年は大きく4期に設定することができる。I期は‘太寧四年’(326年)頃から故国壤王(384~391年)頃までで、千秋塚(故国壤王の王陵)で発見された卷雲文の年代の下限は393年(広開土王3年)である。この時期には高句麗最古の軒丸瓦である卷雲文が国内城地域で登場しており、銘文卷雲文から無銘文卷雲文へ変遷し、故国壤王代や広開土王3年以降に消滅した。II期は407年頃から427年までである。この時期には蓮花文軒丸瓦などが登場し、千秋塚で発見された‘永楽’銘丸瓦の銘文内容(‘…楽浪趙將軍…’, ‘…丁未在永楽…’)などを検討すると、広開土王17年(407年)頃に千秋塚を修築したということから、千秋塚の‘永楽’銘丸瓦と蓮花文軒丸瓦は広開土王が千秋塚を修築した時に使用された瓦である。丸都山城の宮殿遺跡で発見された遺物、文献記録(『三国史記・卷18・広開土王本紀』: ‘十七年(407年)春二月, 増修宮闕.’)などから、宮殿遺跡は広開土王17年(407年)に土台を再度築造した

ものと思われ、平壤遷都以降宮殿建物は次第に廃棄された。東台子遺跡は故国壤王8年(391年)3月に王命により創建された社稷および宗廟であったが、5月に故国壤王が亡くなっても社稷および宗廟と関連する土木工事は完成されていなかったものと思われる。広開土王代に社稷および宗廟の建物を修築したが、平壤遷都以後は次第に廃棄されたようである。広開土王後期(407年頃~412年)には千秋塚、丸都山城の宮殿建物、社稷および宗廟の修築だけでなく、上祖先王’墓で碑石も立て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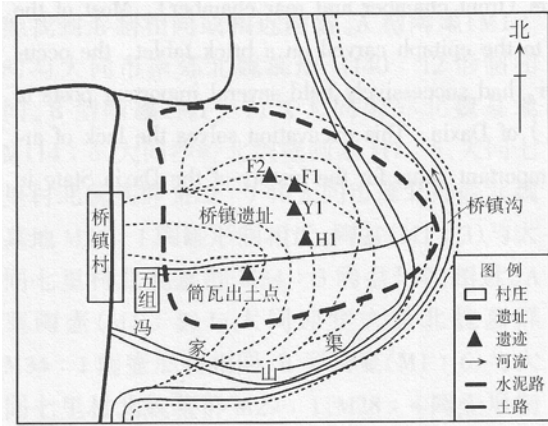
以上の事を考慮すると次のような結果になる。一つ目は高句麗の蓮花文軒丸瓦は遅くとも407年頃に千秋塚や丸都山城の宮殿遺跡で出現する。二つ目は‘集安高句麗碑’の時期は広開土王代であり、年代は407年頃~412年である。

III期は427年以後から6世紀末以前に設定できる。この時期になると軒丸瓦の数量だけでなく型式も多くなる。特に組合蓮花文軒丸瓦をはじめとした組合文様が非常に流行する。V期は6世紀中葉以後から高句麗が滅亡する時(668年)までである。この時期は戦争などのため高句麗西部防御線と南部防御線に位置した山城や保塁で高句麗末期の軒丸瓦が発見されている。一方、平壤地域では半瓦当の流行もこの時期の重要な特徴である。

北朝鮮で発見された高句麗軒丸瓦は、いくつかの要因のため年代が正確に明らかとなっていないため、本稿中一部の編年結果は以後研究を継続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る。

キーワード： 高句麗の軒丸瓦， 型式学， 磨研技術， 広開土王， 集安高句麗碑， 卷雲文軒丸瓦， 蓮花文軒丸瓦， 組合蓮花文軒丸瓦， 忍冬文軒丸瓦， 鬼面文軒丸瓦， 半瓦当

【부록】



도면 1. 陳橋遺地の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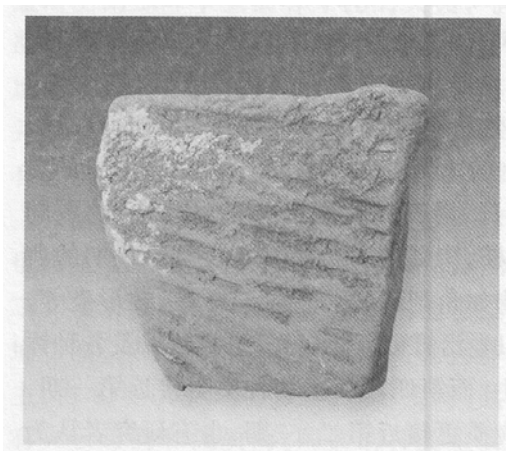
도면 2. 陳橋遺地 수키와의 출토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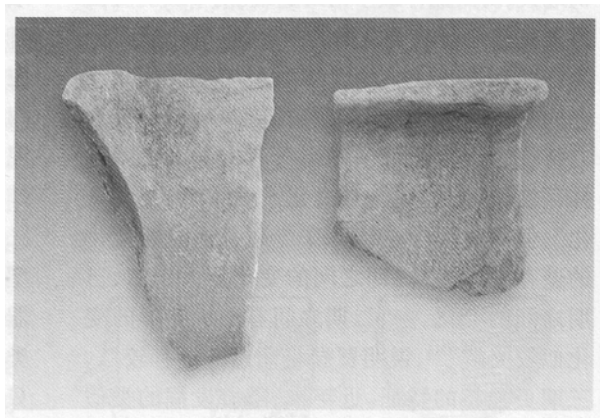
도면 3. 陳橋遺地の 수키와(외면)



도면 4. 陳橋遺地の 수키와(내면)



도면 5. 陳橋遺地の 암키와



도면 6. 陳橋遺地の 槽形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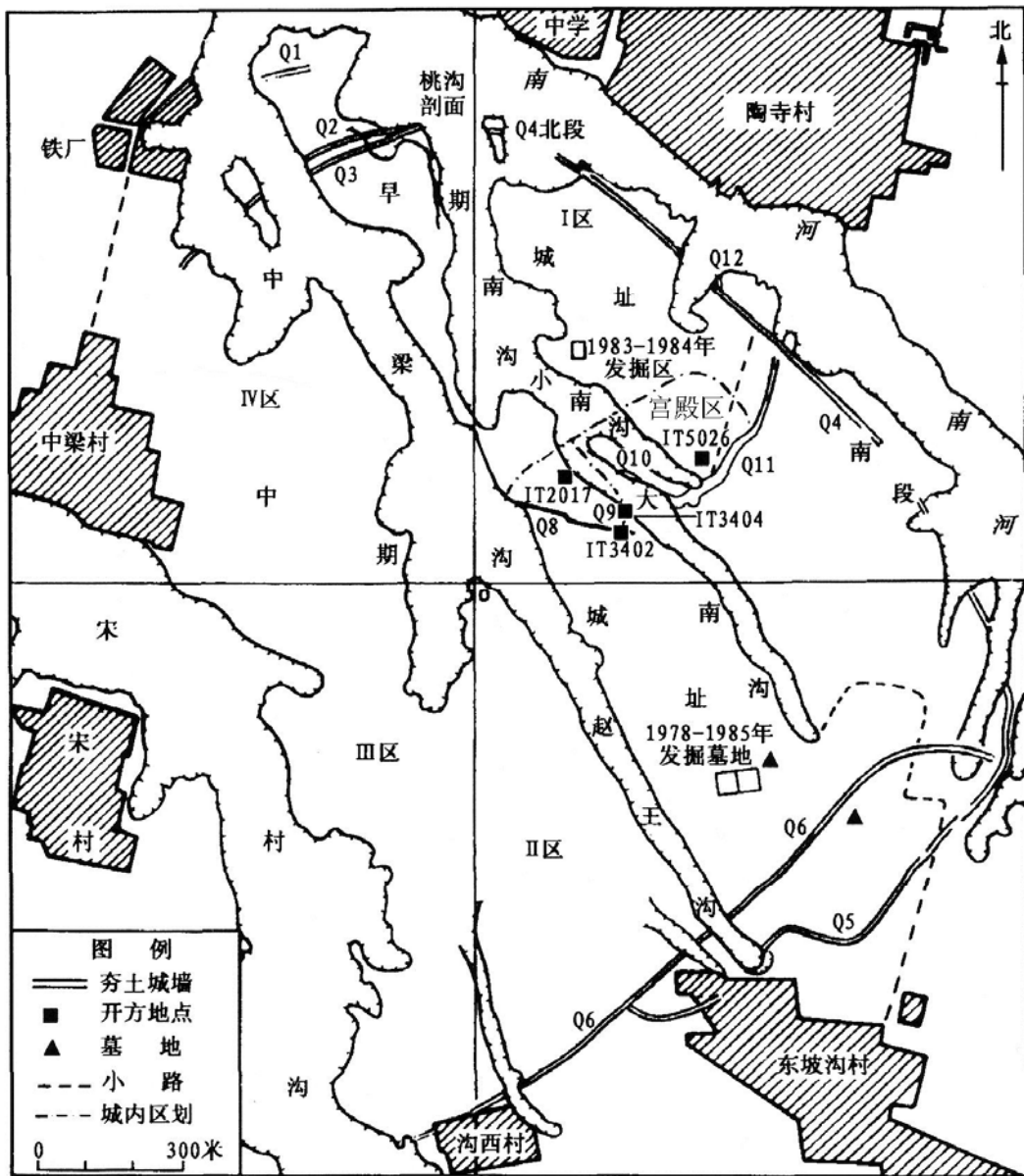
도면 7. 陶寺遺地の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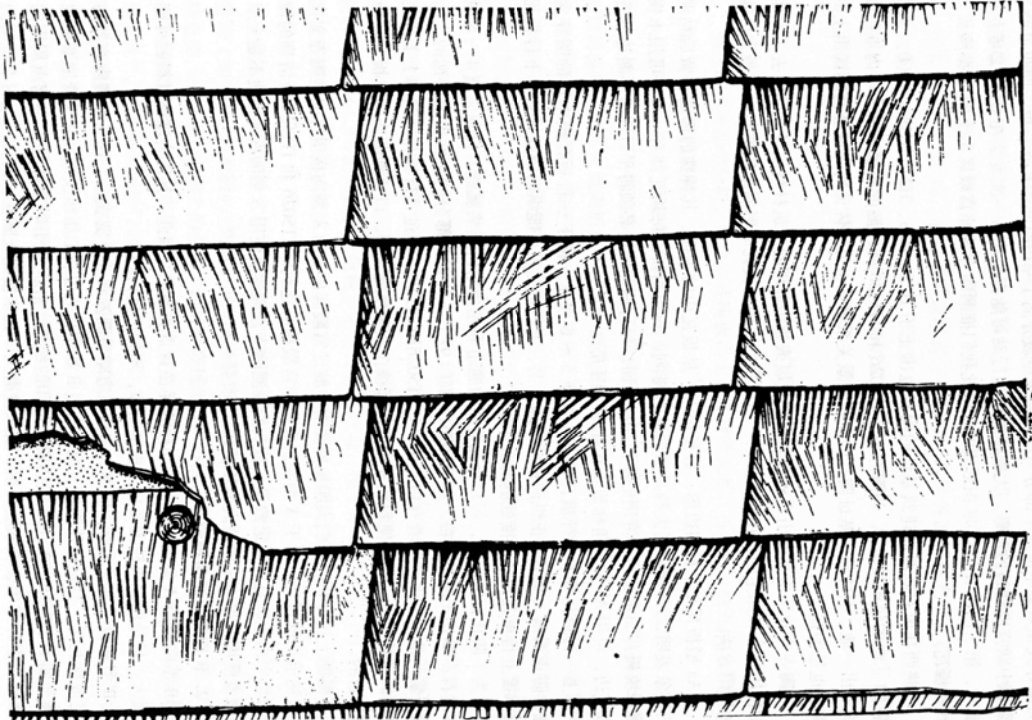
도면 8. 陶寺遺地の
암키와



도면 9. 陶寺遺地の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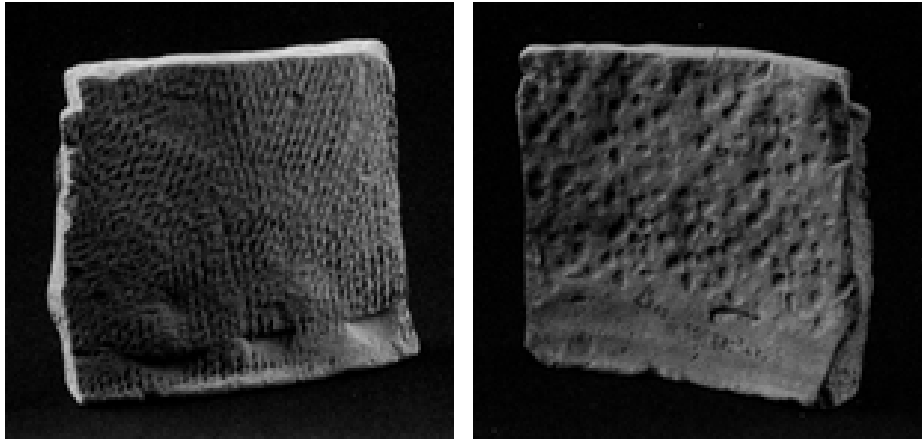
도면 10. 陶寺遺地の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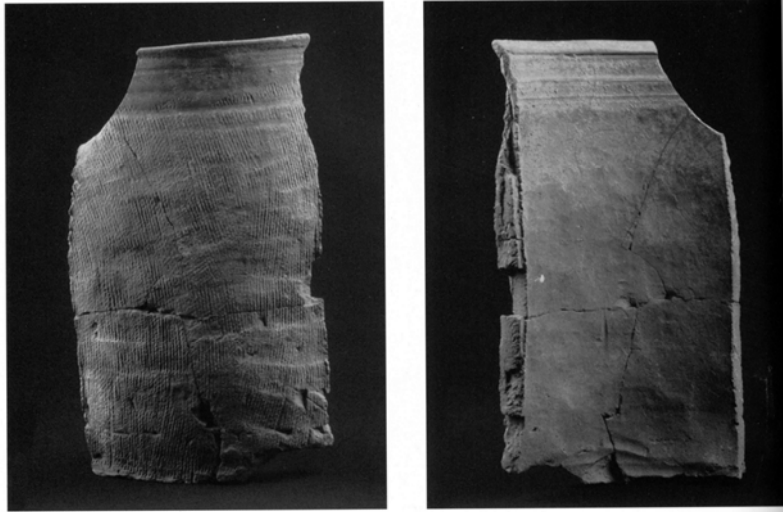
도면 11. 陶寺遺址암키와의 사용방법(추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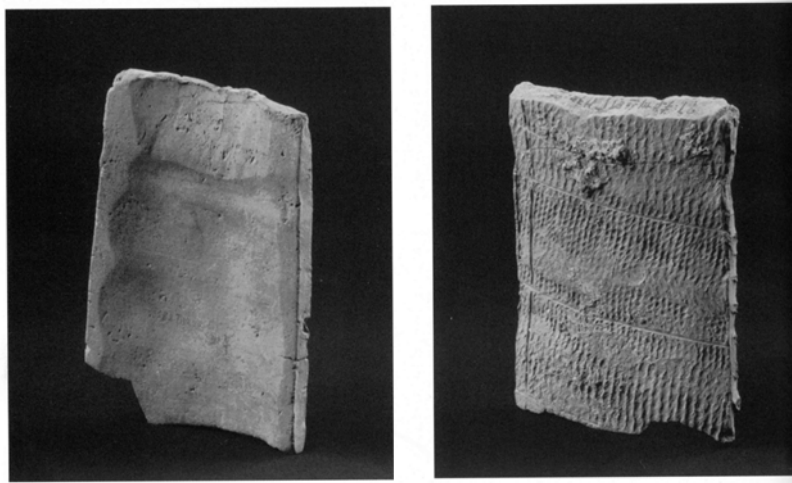
도면 12. 鄭州商城암키와의 출토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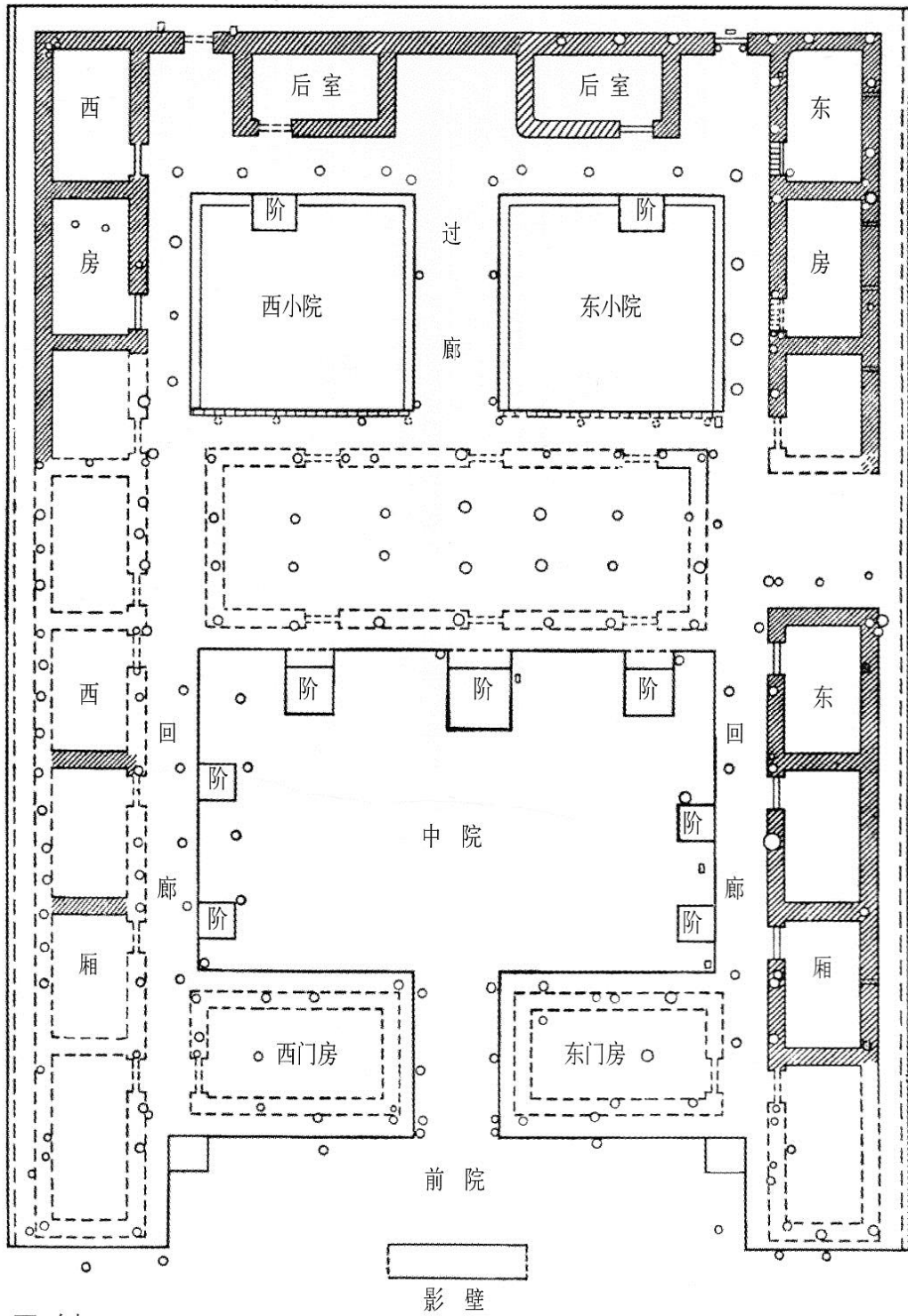
도면 13. 鄭州商城의 암키와(외면 및 내면)



도면 14. 鄭州商城의 암키와(외면 및 내면)



도면 15. 鄭州商城의 암키와(외면 및 내면)



图例
夯土墙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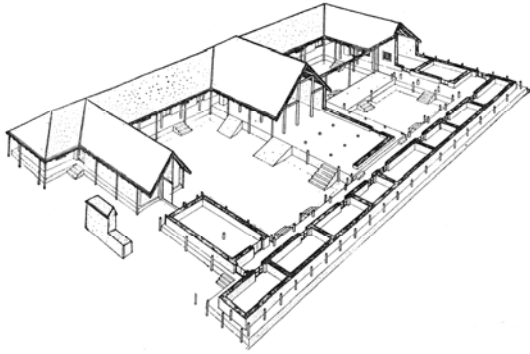
柱洞

土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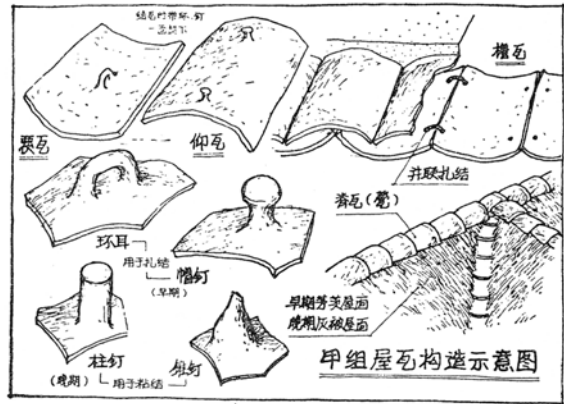
复原墙

0 30 m

도면 16. 鳳雛甲組建築의 평면도



도면 17. 鳳雛甲組建築의 복원도



도면 18. 鳳雛甲組建築기와의 사용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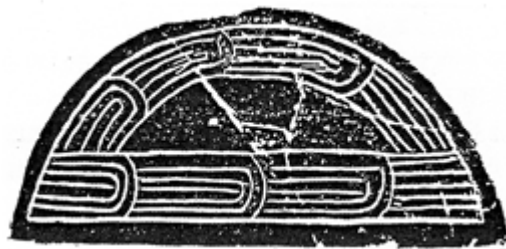
도면 19. 召陳遺址의 암키와



도면 20. 召陳遺址의 암키와



도면 21. 召陳遺址의 半瓦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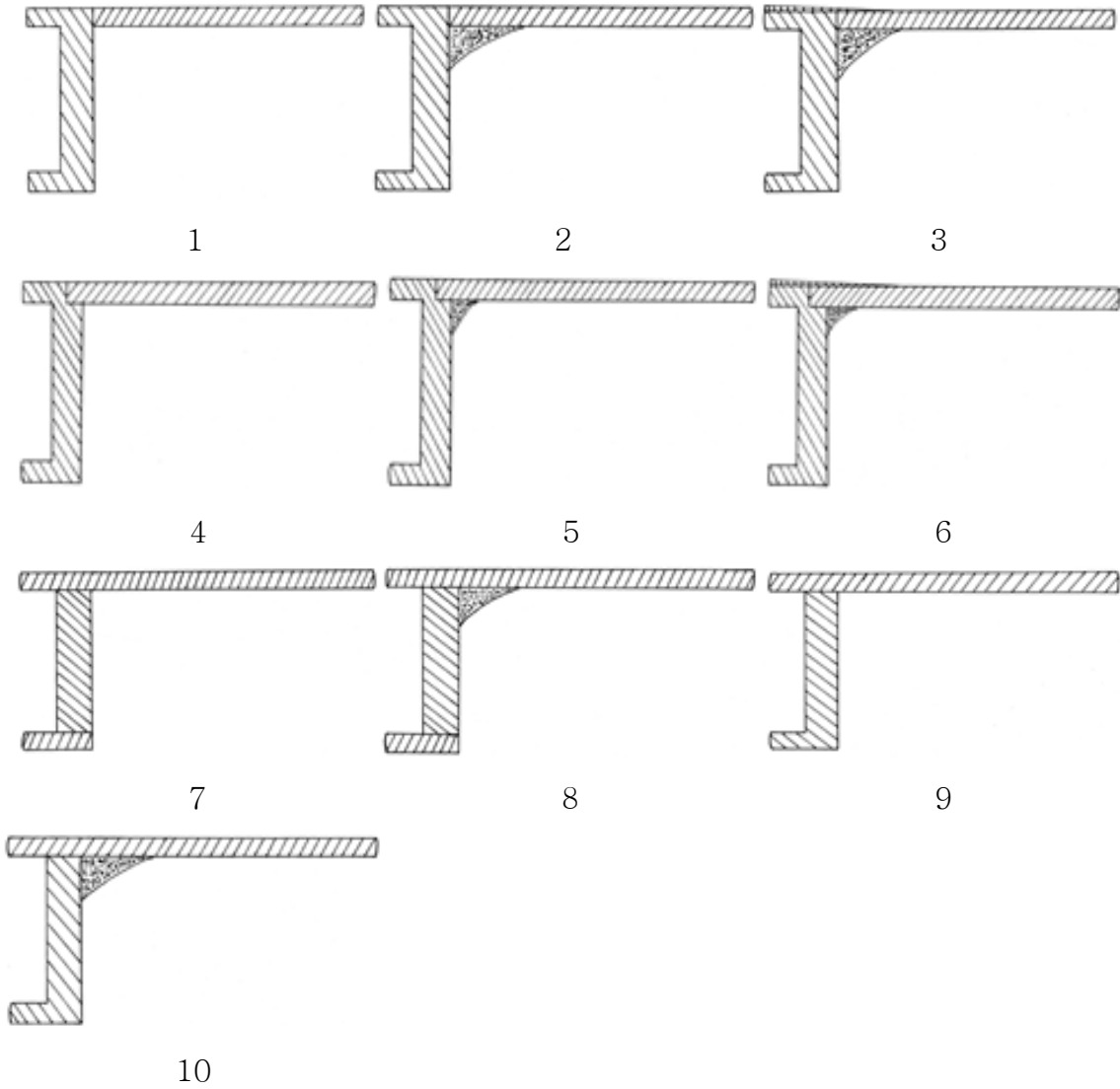
도면 22. 召陳遺址의 半瓦當



도면 23. 召陳遺址의 半瓦當



도면 24. 召陳遺址의 半瓦當



도면 25. 고구려 수목새의 제작 기법 단면도

1. 對接法Aa형 2. 對接法Ab형 3. 對接法Ac형 4. 對接法Ba형 5. 對接法Bb형
 6. 對接法Bc형 7. 套接法A형 8. 套接法B형 9. 半套接法A형 10. 半套接法B형



1

2

3



4

5



6

도면 26. 고구려, 발해지역의 청근와전

1.태왕릉 2.태왕릉 3.장군총 4.오희분5호분 5.평양 토성리 6.발해 상경성



1



2



3



4



5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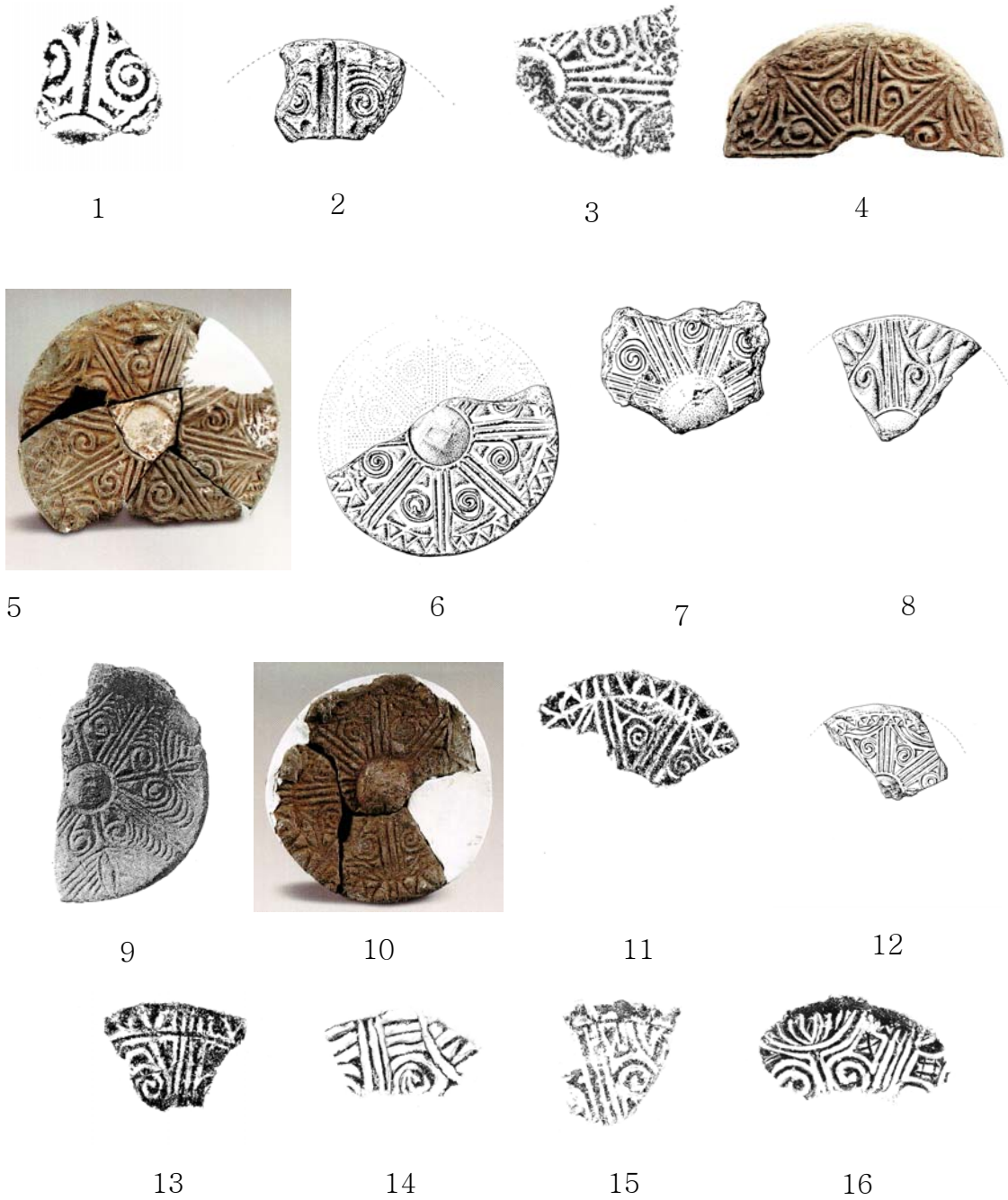
11



12

도면 27. 간지명문권운문와당

1. Bb형 2. Bb형 3. Bb형 4. Bb형 5. Bb형 6. Bb형
7. Bb형 8. Bb형 9. Bb형 10. Bb형 11. Bb형 12. Bb형



도면 28. 무명문권운문와당

1. A형 2. Ba형 3. Bb형 4. Cb형 5. Cc형
 6. Cd형 7. Ce형 8. Cf형 9. Cg형 10. Ch형 11. Ci형
 12. Db형 13. Dc형 14. Dd형 15. De형 16. Df형



1



2



3



4



5



6

도면 29. 연봉오리형 복선연화문와당

1. Aa형 2. Aa형 3. Ab형 4. Ab형 5. Ab형 6. B형



1



2

도면 30. 2분식 일반 연관 복선연화문와당

1. A형 2. A형



1



2



3



4



5



6



7



8



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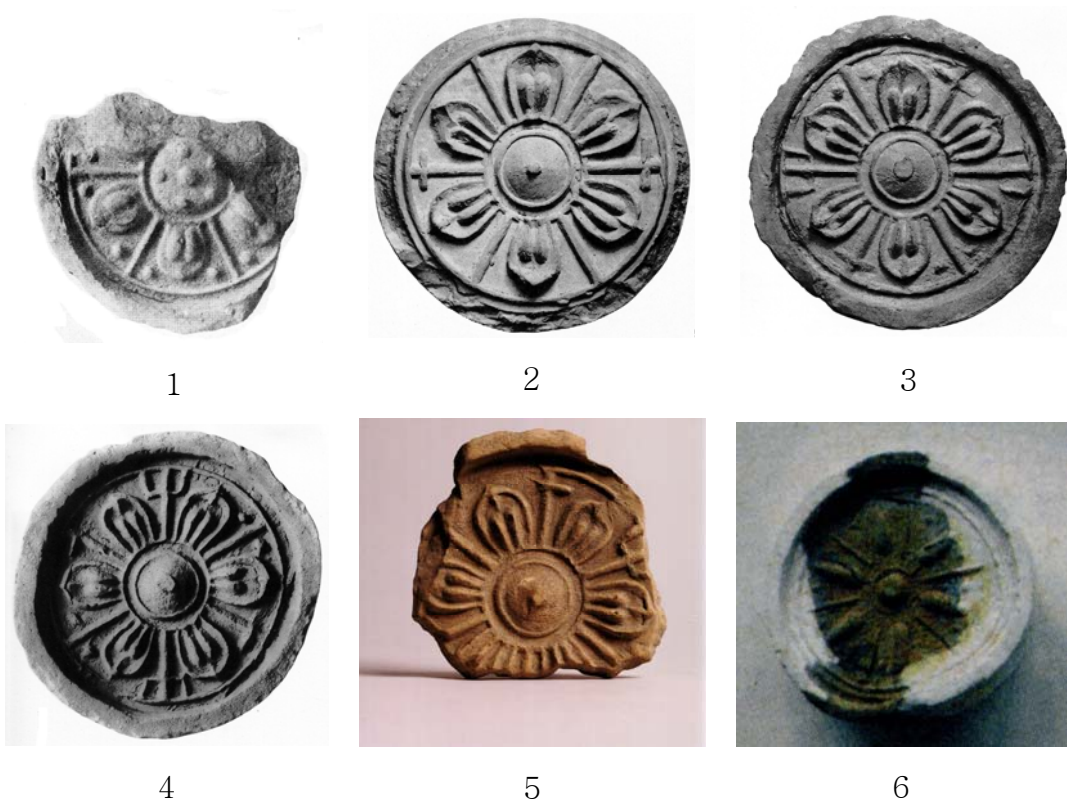
12



13

도면 31. 4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1. Ab형 2. Ac형 3. C형(정면) 4. C형(측면)
 5. C형 6. C형 7. Da형 8. Da형 9. Da형 10. Db형
 11. E형 12. F형 13. G형



도면 32. 단복선 6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1. C형 2. Da형 3. Db형 4. Db형 5. Db형 6. E형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도면 33. 쌍복선 6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 1. Aa형 2. Ab형 3. B형 4. Cb형 5. Da형 6. Da형
- 7. Db형 8. Dc형 Dc형 10. Dc형 11. Dc형 12. Dc형
- 13. Dd형 14. De형 15. Df형 16. Df형 17. Dg형 18. Ea형
- 19. Ea형 20. Ea형 21. Ea형 22. Eb형 23. F형 24. G형
- 25. Ha형 26. Hb형 27. Hb형 28. Ia형 29. Ia형 30. Ia형
- 31. Ib형 32. J형 33. J형 34. Ka형 35. Ka형 36. Ka형
- 37. Ka형 38. Kb형 39. Kb형 40. Kb형 41. L형 42. M형
- 43. Na형 44. Na형 45. Hb형 46. Nb형 47. O형 48. O형



1



2



3



4



5



6



7



8



9



10



도면 34. 삼복선 6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1. Aa형 2. E형 3. Fb형 4. Ba형
 5. Bb형 6. Bb형 7. Bc형 8. C형 9. D형
 10. D형 11. E형 12. Fa형 13. G형 14. G형 15. H형





9

10

11

12

도면 35. 8분식 직선형 복선연화문와당

1. Aa형 2. Ab형 3. Ac형 4. Ba형 5. Bb형
 6. Cb형 7. D형 8. Eb형 9. F형 10. F형 11. G형 12. G형



1



2



3

도면 36. 2복선 4분식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

1. A형 2. Ba형 3. C형



1



2



3



4



5



6



7



8



9

도면 37. 삼복선 4분식 접수형 복선연화문와당

1. A형 2. A형 3. A형 4. B형
5. B형 6. C형 7. C형 8. D형 9. E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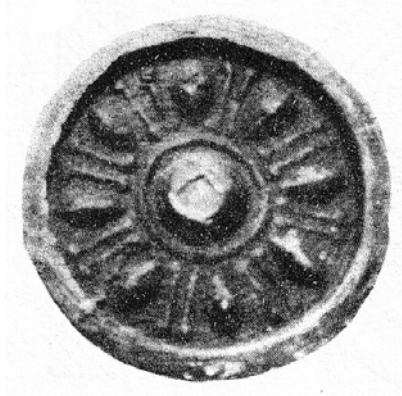
2

도면 38. 6분식 북채형 복선연화문와당

1. B형 2. C형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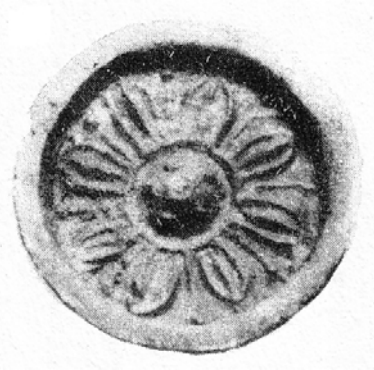
6



7



8



9

도면 39. 8분식 북채형 복선연화문와당

1. Aa형 2. Ab형 3. Ac형 4. B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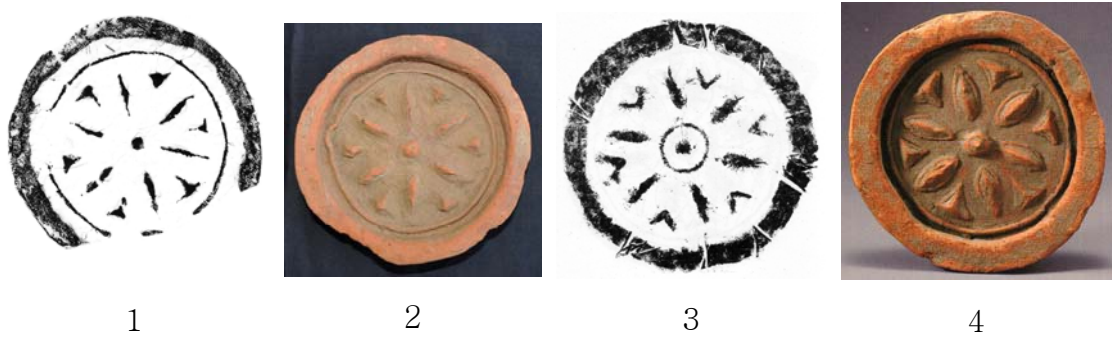
5. Ba형 6. Bb형 7. Bc형 8. C형 9. D형



도면 40. 4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 A형 2. B형

3. B형 4. Ca형 5. Cb형 6. D형 7. E형 8. E형





5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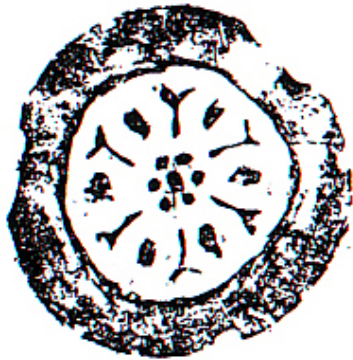
11



12

도면 41. 삼각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 Aa형 2. Aa형 3. Ab형 4. Ba형 5. Ba형 6. Ca형
7. Cb형 8. Da형 9. Db형 10. Db형 11. E형 12. E형



1



2

도면 42. 'Y'자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 Ab형 2. B형



1



2



3

도면 43. ‘ㄷ’형 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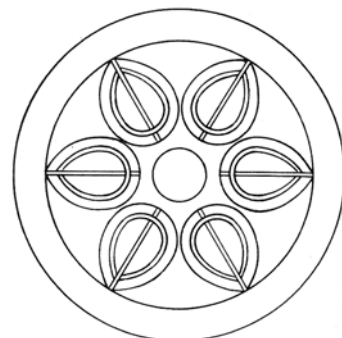
1. A형 2. A형 3. C형



1



2



3

도면 44. 무간식 6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 A형 2. B형 3. B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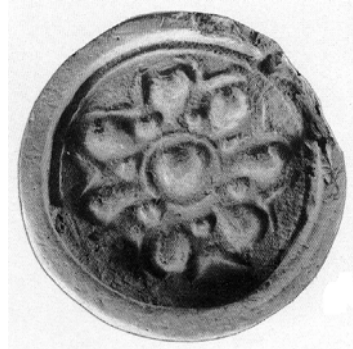
2



3



4



5



6

도면 45. 7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 Aa형 2. Aa형 3. Aa형 4. Ab형 5. B형 6. B형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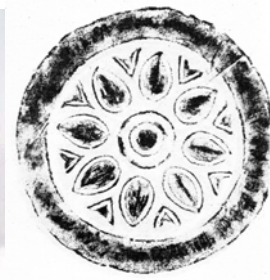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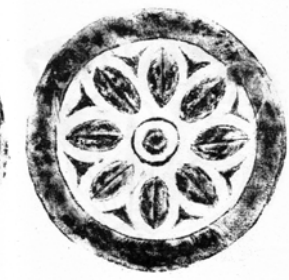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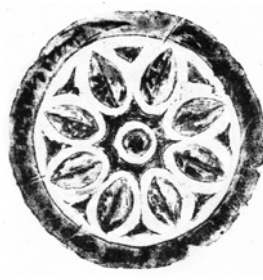
8



9



10



11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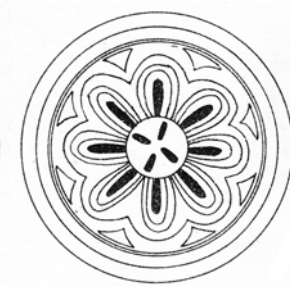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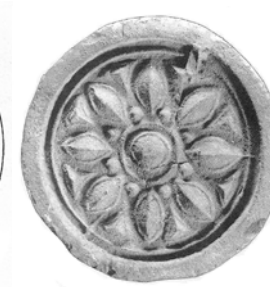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도면 46. 삼각형 간식 8연관 무복선연화문와당

1. A형 2. A형 3. B형 4. B형 5. B형 6. B형 7. Cb형 8. Cc형
 9. Da형(정면) 10. Da형(측면) 11. Da형 12. Db형 13. Dc형 14. E형
 15. F형 16. Ga형 17. Gb형 18. Gb형(실측도) 19. Ha형 20. Ha형
 21. Hb형 22. Hb형 23. I형 24. I형 25. I형 26. J형 27. K형 28. M형
 29. N형 30. O형



1



2



3



4

5

6

도면 47. 나뭇가지형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 Aa형 2. A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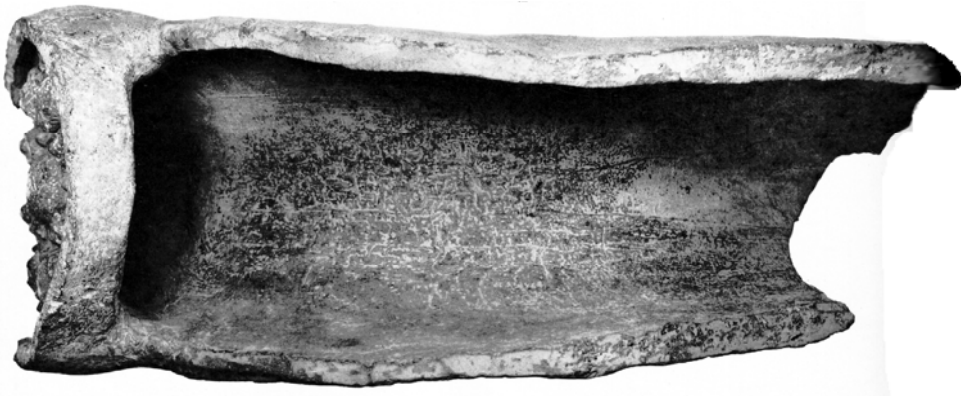
3. Ab형(사진) 4. Ab형(실측도) 5. Ac형(사진) 6. Ac형(실측도)



1



2



3

도면 48. 'ㄴ'형 간식 8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 B형(정면) 2. B형(측면) 3. B형(내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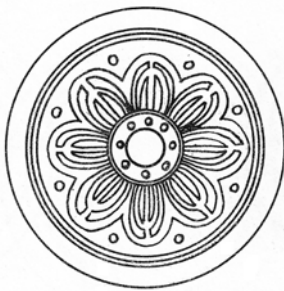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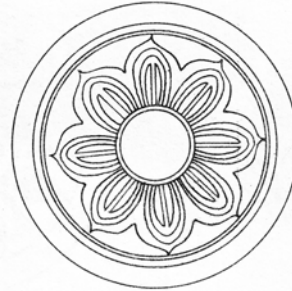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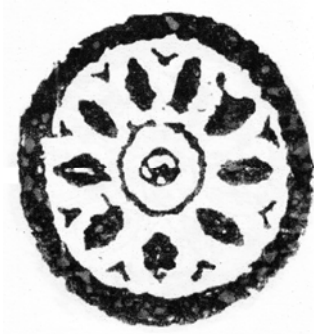
17



18

도면 49. 무간식 8연관 무복선연화문와당

- B형 2. Ca형 3. Cb형 4. Cc형 5. Ca형 6. Cd형 7. Cd형 8. D형
 9. E형 10. Fb형 11. Fb형 12. G형 13. G형 14. G형 15. H형 16. H형
 17. I형 18. I형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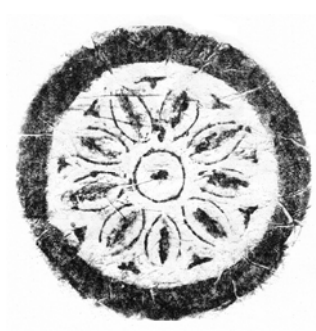
3



4



5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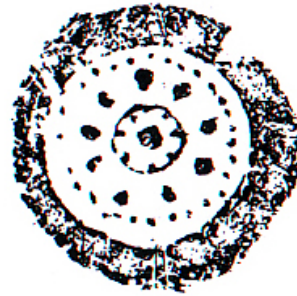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도면 50. 9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 Aa형 2. Ab형 3. Ab형 4. Ab형 5. B형 6. C형 7. D형 8. D형
 9. D형 10. D형 11. D형 12. Fa형 13. Fb형
 14. Fc형 15. Ga형 16. Ga형 17. Ga형(뒷면) 18. Gb형
 19. Gb형 20. H형 21. I형



1



2



3

도면 51. 10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 정면 2. 측면 3. 내면



1



2



3

도면 52. 11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 Ab형 2. B형 3. B형



1



2



3

도면 53. 12연판 무복선연화문와당
1. A형 2. B형 3. D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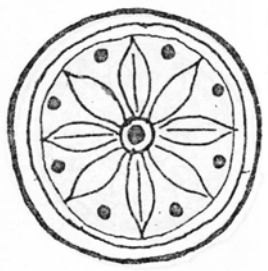
2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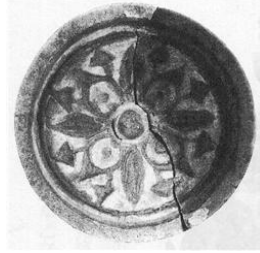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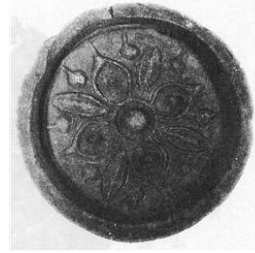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도면 54. 연관+ 연관 복합연화문와당

1. Ab형 2. Ab형 3. B형 4. C형 5. Da형 6. Db형 7. E형
 8. Fa형 9. Fb형 10. Ga형 11. Gb형 12. Ha형 13. Hb형 14. Ia형
 15. Ib형 16. J형 17. K형 18. L형 19. Ma형 20. Mb형 21. N형
 22. O형 23. P형(정면) 24. P형(뒷면)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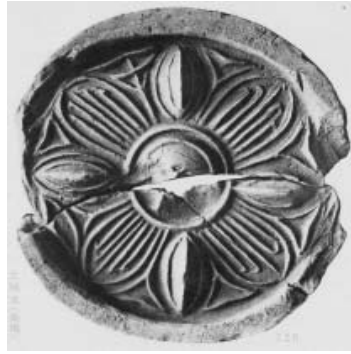
3

도면 55. 연관+ 연봉오리형 연관 복합연화문와당

1. Ca형 2. Cb형 3. D형



1



2



3



4



5



6



7



8



9

도면 56. 5꽃술 4연판+ 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1. A형 2. A형 3. A형(정면) 4. A형(뒷면) 5. Bb형 6. Ca형 7. Cb형
8. D형 9. E형



도면 57. 3꽃술 4연관+4꽃술형 연관 복합연화문와당

1. Aa형 2. Ab형 3. Ca형 4. Cc형 5. Da형 6. Db형 7. Dc형 8. Dd형
 9. De형 10. Ea형 11. Eb형 12. Fa형 13. Fb형 14. Gb형 15. H형



1



2



3



4



5



6



7



8



9

도면 58. 2꽃술 4연판+4꽃술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1. Aa형 2. Ab형 3. Ac형 4. Ba형 5. Ba형 6. Bb형 7. Ca형
8. Db형 9. Dc형



1

2

3

4

도면 59. 5연관+5꽃술형 연관 복합연화문와당

1. A형 2. B형 3. C형 4. D형



1



2



3



4



5



6



7



8



9

도면 60. 연화문+인동형 연판 복합연화문와당

1. A형 2. Ba형 3. Ca형 4. Cb형 5. Cc형 6. Cd형 7. Cd형(정면)
8. Cb형(뒷면) 9. D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도면 61. 연화문+ 인동문 복합연화문와당

1. Ba형 2. Ba형 3. Bb형 4. Bb형 5. Ca형 6. Ca형 7. Ca형 8. Cb형
9. Cb형 10. D형 11. E형 12. E형



1



2



3

도면 62. 연화문+ 다른 문양 복합연화문와당

1. Ba형 2. C형 3. C형



1



2



3



4

도면 63. 多層 연화문와당
1. Ba형 2. Bb형 3. D형 4. E형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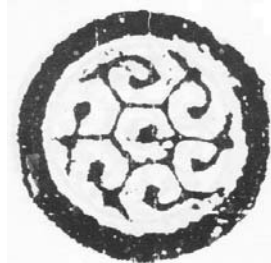
4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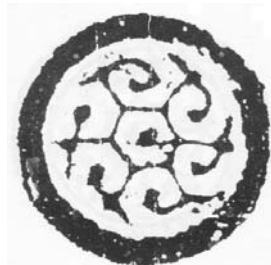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도면 64. 단일 문양 인동문와당

1. Ab형 2. Ab형 3. Ac형 4. Ac형 5. Ac형 6. Ba형 7. Ba형 8. Ba형
 9. Bb형 10. Bc형 11. Bc형 12. Bc형 13. Bd형 14. Bd형 15. Bf형
 16. Bg형 17. C형 18. C형



1



2



3

도면 65. 복합 문양 인동문와당

1. A형 2. B형 3. B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도면 66. 귀면문와당

- 1. Aa형(정면) 2. Aa형(측면) 3. Ab형 4. Ba형 5. Ba형 6. Ba형
- 7. Bb형 8. C형 9. C형(정면) 10. C형 11. Da형 12. Da형 13. Db형
- 14. E형 15. 일체강점기 귀면와 16. F형 17. F형 18. F형 19. F형
- 20. G형 21. G형 22. H형 23. H형 24. I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도면 67. 법륜문 와당

1. Ab형 2. Ab형 3. Ab형 4. Ac형 5. Ad형 6. Ae형 7. Ba형 8. Bb형
9. Bc형 10. Ca형 11. Cb형 12. D형



1

2

3

4



5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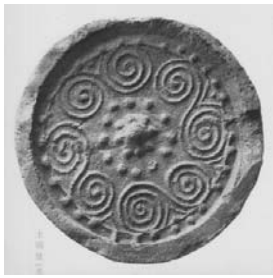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도면 68. 기타

1. Aa형 2. Ab형 3. Ab형 4. B형 5. B형(정면) 6. B형(측면)
 7. C형(정면) 8. C형(측면) 9. D형 10. D형 11. E형 12. F형 13. H형
 14. I형 15. J형 16. J형 17. K형 18. K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도면 69. 소반원형 반와당

1. B형 2. Ca형 3. Cb형 4. D형 5. E형 6. F형 7. G형 8. H형
9. H형 10. I형 11. J형 12. M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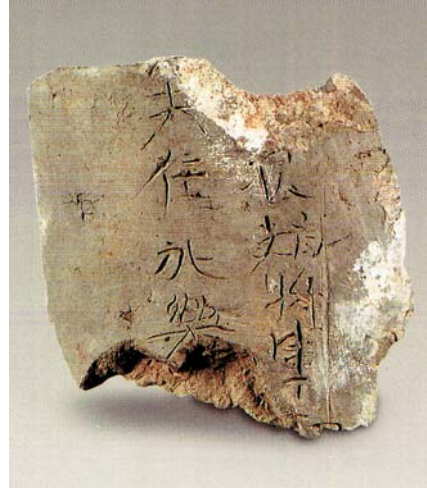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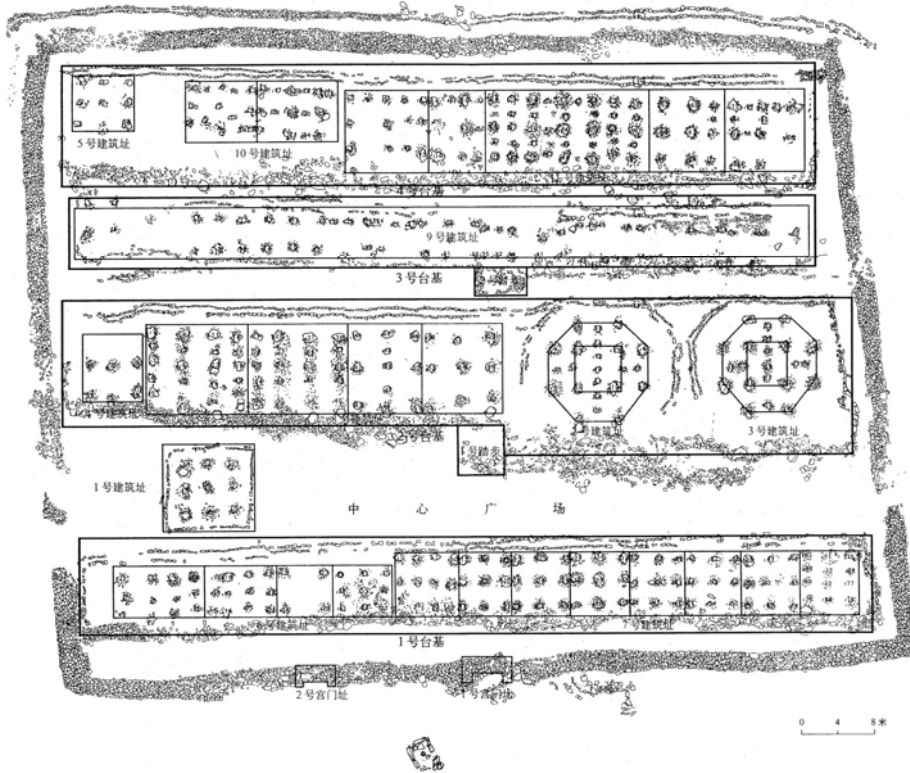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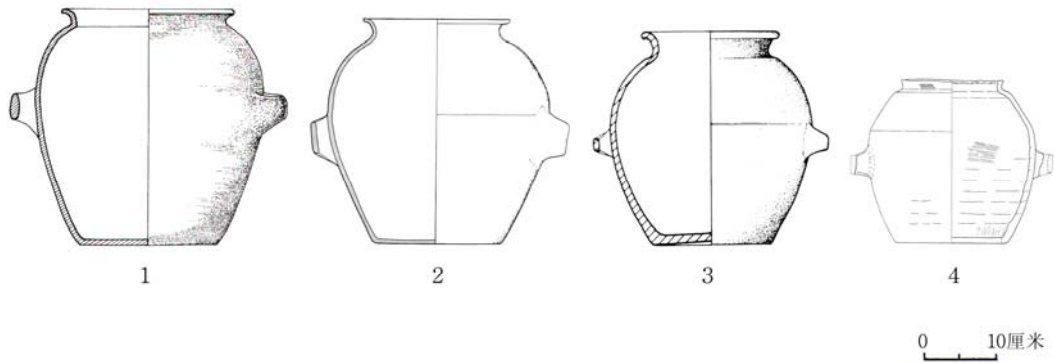


4

도면 70. 광개토왕비 '乙未'년, '丁未'년 탁본 및 천추충 '永樂'명 수키와
 1. 광개토왕비 '乙未'년 탁본 2. 광개토왕비 '丁未'년 탁본
 3,4. 천추충 '永樂'명 수키와(3.탁본, 4.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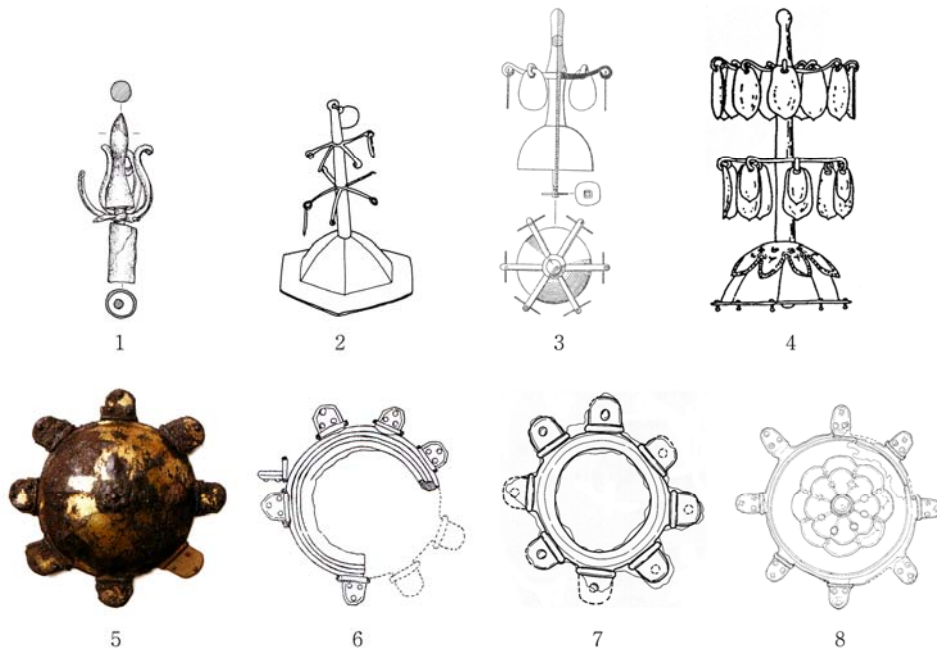


도면 71. 환도산성 궁전유적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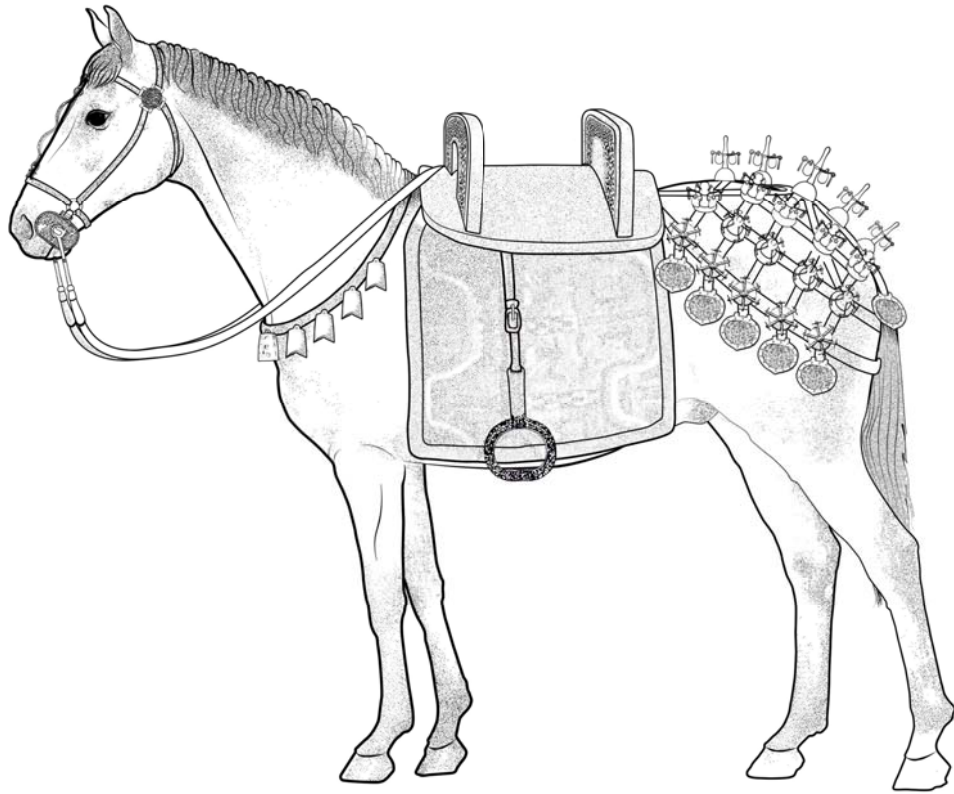
도면 72. 고구려 항아리

1. 환도산성 궁전유적 2. 오녀산성F32 3. 오녀산성T53 4. 아차산 제4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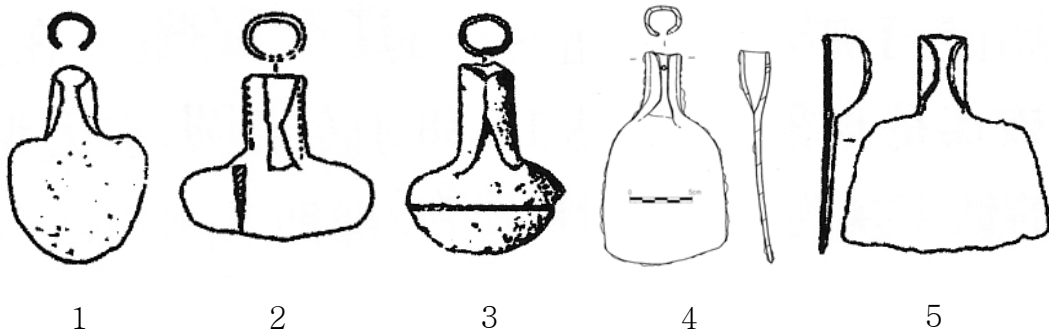


도면 73. 환도산성, 한반도, 일본열도 운주

1. 환도산성 궁전유적 2. 창녕 교동11호분 3. 일본 沖ノ島7호유적
4. 일본 賤機山古墳 5. 창녕 교동11호분 6. 경주 금령총 7. 함천 옥전6호분
8. 의령 경산리2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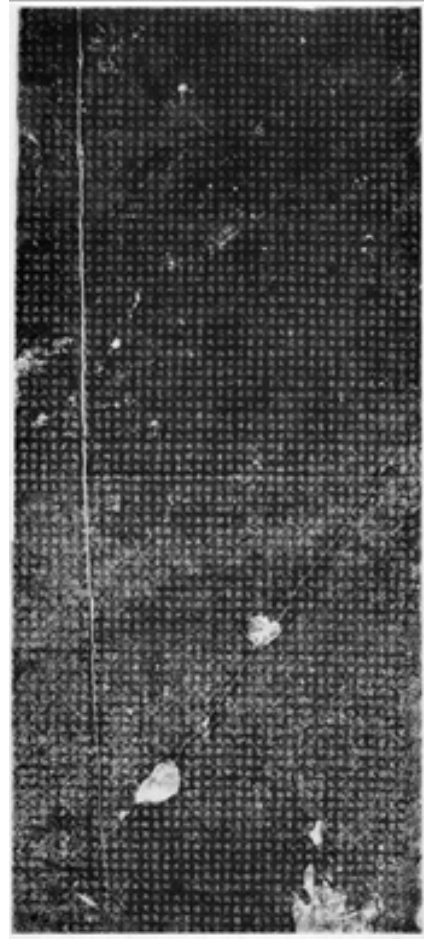
도면 74. 환도산성 궁전유적 운주 복원도



1 2 3 4 5

도면 75. 고구려, 발해 살포

1. 동대자유적 2. 석대자산성 3. 고이상성 4. 아차산 제4보루
5. 渤海上京城遺址



도면 76. 鳳巖寺智証大師寂照塔碑(924년. 좌.사진, 우.탁본)



1

2

3

도면 77. 纛島 및 부여 신리 금동불상

1,2. 纛島 금동불상(1.정면, 2.측면.) 3.부여 신리 금동불상



도면 78. 안악3호분(冬壽墓)의 피장자(남)



도면 79. 안악3호분(冬壽墓)의 피장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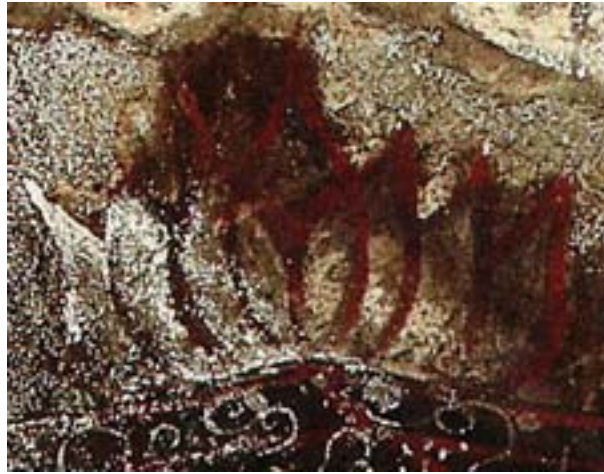
1



2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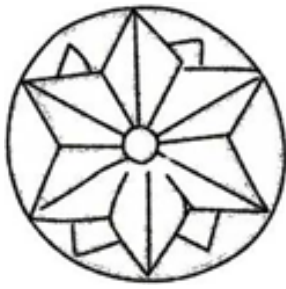


7



8

도면 80. 안악3호분(冬壽墓)의 연화문 및 귀면문



1



2



3



4



5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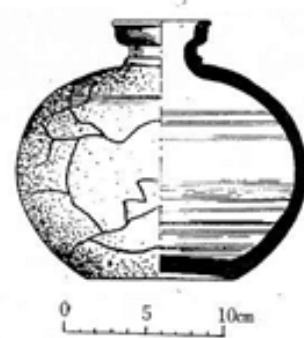
9



10

도면 81. 안악3호분(冬壽墓)의 연화문 및 관련된 연화문

1. 朝陽 袁臺子 벽화분 말 방울 무늬 2. 안악3호분 서측실 천정 연화문
3. 朝陽老城 연화문와당 4. 喇嘛洞고분군 三燕 금동 화살통(수집품) 및 연화문
6. 盱眙縣 西晉 太康9년(288년) 무덤 화문전 무늬 7,8. 16국시대 금동불상 및 연화문
9. 안악3호분 피장자(남) 10. 遼陽 上王家村 쑤묘 피장자(남)



1



2



3

도면 82. 안학궁3호분, 충주 하구암리유적 토기
1,2. 안학궁3호분(1.실측도, 2.사진) 2. 충주 하구암리유적



1



2

도면 83.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2호가마터 청자 고배(992년) 및 명문
1. 청자 고배 2. 명문(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享器王公佻造)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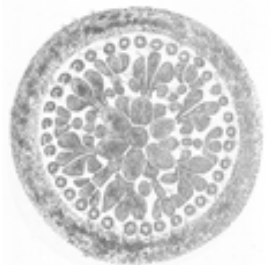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도면 84. 연주문 와당 및 연목와

1. 戰國 葵紋와당 2. 西漢 長陵西神명 와당 3. 西漢 飛鳳紋와당
4. 西漢 械陽명 권운문와당 5. 北魏 연화문와당 6. 北魏 연화화성와당
7. 北魏 인동문와당 8. 北魏 귀면문와당 9. 唐代 연화문와당(타원형) 10. 唐代 연화문와당 11. 唐代 귀면문와당 12. 唐代 羽人와당
13. 戰國 권운문연목와 14. 西漢 권운문연목와 15. 六朝 연화문연목와
16. 北朝 연화문연목와 17. 낙랑 大晉元康명 연목와 18. 高구려 연화문연목와



도면 85. 강서대묘 벽화 및 안학궁 연화문와당



도면 86. 개마총 벽화 및 안학궁 암막새



1

2

3

4

도면 87. 평양지역 고구려 와당 및 암막새

1. 평양지역 고구려 와당 2. 토성리 고구려 와당
3. 평양지역 고구려 암막새 4. 안학궁 고구려 암막새



1

2

3

4

도면 88. 개성 고려궁성 암막새

1. 호형 당초문암막새 2. 호형 일휘문암막새 3. 삼각형 봉황문암막새
4. 삼각형 범어문암막새



도면 89. 고구려 와당의 편년과 관련된 재료

1. 무령왕릉 은제 오각형 장식
2. 陝西省 安康市 張家坎 梁天監五年(506년) 무덤 화문전 문양
- 3,5.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 발해 와당
4. 內蒙古 托克托縣 雲中古城 北魏 와당 6. 강서중묘 현실 서벽 고임석 벽화